



「2021 중고제 르네상스사업」

중고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 연구 결과보고서



연구책임자 : 최혜진

「중고제 증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 연구」
과제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 12. 15.

책임연구원 : 최혜진 (목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공동연구원 :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음악인류학 박사)

정춘호 (소담디자인연구소 소장, 경영학 박사)

서용석(대전시립연정국악단, 음악학석사)

차 례

제 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1) 공간적 범위	1
2) 내용적 범위	1
3) 세부 내용	2
제 2장 중고제의 개념과 범위	3
1. 중고제의 개념	3
1) 중고제의 뜻과 지역 범위	3
2) 중고제의 전승과 연구 과제	5
2. 중고제의 분류 및 범위	9
1) 판소리	9
2) 춤	13
3) 산조/병창/풍류	20
제 3장 중고제 전승 자원 현황과 자료	27
1. 중고제 전승 자원 현황	27
1) 흥성	28
2) 서산	38
3) 서천	43
4) 공주	44
5) 논산	47
6)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유적 발굴과 과제	48

2. 중고제 관련 자료	49
1)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리스트	49
2)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내용	57
3) 일제강점기 충청권 명인 명창 잡지 기사 내용	95
4)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	111
5) <조선창극사> 중고제 관련 인물과 내용	120
6) 중고제 장르별·인물별 사전 수록 내용	143
3. 중고제 연구 및 전승 현황	193
1) 중고제 연구현황	193
2) 『조선창극사』 중 중고제 명창 명인 관련 논문	208
3) 중고제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현황	220
4) 중고제 관련 공연 개최 현황	221
5) 중고제 관련 단체현황	224
제 4장 중고제의 전승 문제점과 방향(SWOT 분석)	225
1. 대내외 인식 분야	226
2. 교육 분야	227
3. 홍보분야	229
4. 정책 분야	233
5. 예산 및 전승 인프라 분야	243
6. 종합 (SWOT 분석)	251
제 5장 중고제 중장기 발전 방안	255
1. 추진 배경과 필요성	255
2. 중고제 관련 수요예측	256
3. 중고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전략	258
1) 비전과 목표	258

2) 핵심 전략	259
3) 세부 추진 과제	260
4. 추진 방향	262
1) 공연/대중화 분야	262
2) 교육/인재양성 분야	263
3) 홍보 마케팅 분야	263
4) 중고제의 음악적 정체성 확립	267
제 6장 중고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기획	270
제 7장 2021년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시행	276
1. 중고제 콘서트	276
1) 추진목적	276
2) 공연개요	276
3) 세부계획	276
4) 곡목 해설	276
5) 출연진	278
2. 학술세미나	279
1) 추진목적	279
2) 사업개요	279
3) 참여자	279
3.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일정	280
4.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홍보자료	281
1) 포스터	281
2) 중고제 가무악 팸플렛	282
5.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행사 사진	282
6. 학술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료	283

제 8장 결론	284
1. 결과	284
2. 제언	286
참고자료	287

<별첨 1>

중고제르네상스사업 학술세미나 발표집	294
---------------------------	-----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그간 중고제 관련 문화 사업이 지속, 발전해왔으나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이 부재했음
- 충남문화비전 2030에 발맞추어 전통문화예술의 확대와 충남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전국의 전통예술인들이 중고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 충청권 중고제 문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자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고제의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함
- 중고제의 가무악의 전승과 복원, 대중화를 통해 충청권, 특히 충남지역이 전통예술의 원류이자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임을 부각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고제를 충남문화의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세부 발전계획이 필요함
- 위와 같은 필요성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매해 축적될 필요가 있고, 공연과 연구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대전/세종/충청북도

2) 내용적 범위

- (지역별) 충청남도 전역/대전, 세종/충청북도
- (시대별) 조선시대~근,현대까지
- (분야별) 중고제 사업 관련 국악자원과 가무악 분야 전체, 인물과 유적 관련 지리적 조사, 전통예술 발전을 위한 경영 마케팅 분야, 중고제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

〈 주요내용 〉

- 충청권 중고제 가무악 현황과 자원 정리
-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 보존 방안과 문화비전 수립
- 중고제 관련 문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중고제 대중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내용 수립
- 중고제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한 학술발표회 개최
- 중고제의 실재를 향유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 개최

3)세부 내용

가. 연구방향

- 충청권 중고제 가무악 현황과 자원 정리
 - 현재 전승되는 중고제 관련 가무악 자원의 실태와 내용, 유파와 인물, 유적 등 자원에 대한 전반적 정리
 - 중고제 유적과 문화 등에 대한 유형별, 주제별 정리
-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 보존 방안과 문화비전 수립
 - 현재 전승되는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 지원과 활성화 방향 수립
 - 전승과 복원, 보존, 공연의 발전을 위한 문화비전 수립
- 중고제 관련 문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충남문화재단의 중고제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 세부전략과 세부사업 등을 제안
 - 중고제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시장 예측
- 중고제 대중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내용 수립
 - 중고제 콘텐츠의 대중화와 향유 기회의 확대, 도민 자긍심 고양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 위 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업 제안

나. 중고제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한 학술발표회 개최

- 중고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중고제 연구를 위해 지역 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11월 중 개최하며 장소 및 초청대상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다. 중고제의 실재를 향유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 개최(렉처콘서트 등)
- 중고제의 실재와 현황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 중고제 가무악의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실연하며, 학술발표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도출한 사업방식으로 도민 향유 중고제 프로그램 개최한다.

제 2장 중고제의 개념과 범위

1. 중고제의 개념

1) 중고제의 뜻과 지역 범위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남은 판소리가 발생되고, 중고제의 활발한 전승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그러나 19세기에 판소리가 본격적으로 예술화의 길을 걸으면서 송흥록을 중심으로 재편된 판소리는, 육자배기토리권인 호남에서 강한 전승력을 가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심정순, 이동백, 김창룡 등 기라성 같은 명창들이 전국 판소리의 판을 흔들며 인기를 누렸다. 이들이 부르던 판소리를 지금 우리는 ‘중고제’라 부른다.

중고제는 근대 시기에 존재하던 고제 판소리의 한 유파, 혹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한 어정쩡한 옛 소리 정도로 알려져 왔다.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중고제’가 가진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 때문에 현대에는 무용이나, 병창, 민요에도 중고제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한다. 그것은 중고제가 경기나 충청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 뿐만 아니라 명인, 명창의 모든 예술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고제의 개념부터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애초 중고제가 판소리의 동편, 서편에 대하여 생겨난 이름이니, 그것은 판소리 유파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중고제가 갖는 특유의 판소리적 음악과 사설, 창법 등이 있다

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고제는 역사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판소리 생생기의 모습은 매우 단순, 고졸, 소박하였을 것인데, 이에 비해 중고제는 고조와 신조의 중간쯤 위치한 19세기-20세기 초의 판소리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제는 지역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기 충청에 전해져 내려오던 판소리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충남지역을 핵심으로 하면서 중고제는 경기권과 전북권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중고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충청 지역에서 19세기-20세 초 고제를 전승하던 판소리의 한 유파’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경기권 소리에 가까운 염계달, 금강권 소리의 김성옥 명창을 중고제의 시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전의 18세기의 판소리는 ‘고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판소리는 그 역사적 연원에 있어서, 발생기의 고제-중고제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고제가 고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고제는 역사적 개념을 제거하고, 경기, 충청지역에 전승되던 판소리의 한 유파로 개념이 넓어지고 있으며, 경기도보다는 충청도 지역에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도 판소리를 대개 ‘중고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찍이 이보형은 이 중고제에는 유파 개념의 중고제와 악조 개념의 중고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 중고제는 경기, 충청도 출신 명인명창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으며, 박동진 명창은 충청도 소리제가 중고제라 하면서 이동백이 ‘내 소리는 중고제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곧 지역적으로 경기, 충청도라는 범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중고제 악조로 지목된 대목을 들면서 이 중고제가 설령제, 덜령제, 권제, 드령조, 권마성제, 중고제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특히 권삼득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의 소리제를 정권진, 박동진, 김소희 등이 중고제라는 용어로 지목하였는데, 이로부터 중고제는 악조의 개념으로도 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권삼득의 소리를 ‘중고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제의 역사가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중고제의 시조로 보는 염계달이나 김성옥보다 한 세대 선배인 권삼득의 소리부터 ‘중고제’라는 범위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제는 고제의 소리를 아우

1) 이보형, 「유파 개념의 중고제와 악조 개념의 중고제」, 『판소리연구』23, 판소리학회, 2007, 337~371쪽.

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중고제의 전승과 연구 과제

중고제의 전승이 활발했던 시기 이전, 즉 ‘고제’ 시대의 판소리 역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충남 지역은 판소리의 발생 지역이자 훌륭한 판소리 문화를 꽃피웠던 곳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 광대의 효시인 최선달(결성), 하한담(목천)은 물론 권삼득(익산) 고수관(서산), 방만춘(해미) 송홍록(응포) 등 초기 판소리 명창으로 지목되는 이들이 충남 지역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충남은 홍성지역의 정춘풍, 유공렬로 이어지는 동편제의 또다른 모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중 정춘풍-박기홍-조학진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송홍록-송우룡-송만갑으로 이어진 전라도의 동편제와는 그 계열이 다르다. 홍성의 정춘풍은 양반 광대로 신재효와 쌍벽을 이루던 이론가이자 양반출신 비가비였는데, 제자인 박기홍은 나주 출신이지만 엄청난 동편제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조학진에 이어 결국 박동진이 그의 적벽가를 계승하였다. 따라서 이 고제 동편제 계열 역시 중고제의 자장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충청지역의 판소리 광대는 판소리의 역사를 만들어내던 중요한 명창들이 포진해있었고, 그 힘 또한 다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순조24년(1824)의 갑신완문 <등장팔도재인>에 광대들의 전국적 조직에 있어 충청도 재인이 그 조직체를 통할하는 도산주, 도대방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방 재인들의 위치가 그만큼 중추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곧 전국 조직을 통할하는 본부가 충남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자연적으로 광대들의 집산 중심지 내지 판소리의 중심지역이었음을 실증해주는 바라고 하겠다.²⁾

따라서 판소리의 역사, 특히 초기 판소리의 역사에 충남지역은 매우 중요한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판소리적 위상과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조명되어야 판소리의 역사가 제대로 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제의 위축과 소멸로 판소리 유적은 매우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발굴되어 왔다. 현재 다행히 각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명창들이 조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연구

2) 사재동, 『백제권 충남지방의 민속과 문학』, 중앙인문사, 2006, 460-461쪽.

를 진행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판소리 문화의 다양한 흐름을 연구하고 판소리 발생기 충청도 판소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중고제는 1990년대 이후 유성기음반이 복원되고 명창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고제를 대상으로 한 학위 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했다.³⁾ 그런데 중고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발생이나 고제 판소리의 모습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고, 전라도 판소리가 대세인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음악문화와 연관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⁴⁾ 19세기 이전 각 지역의 음악적 특성과 연관된 이야기 노래가 존재했을 가능성⁵⁾은 판소리 이전 단계의 발생론적 측면에서 무척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사안

3)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서종문·김석배,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이해」, 『국어교육연구』24, 국어교육학회, 1992.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18, 한국음악사학회, 1997.

정출현,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 『민족문화연구』3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8.

조영규, 「금강 유역의 중고제 판소리-송흥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악조와 선율에 근거하여」, 『한국음반학』1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SP음반 수록곡의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연형, 「이동백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신은주, 「김창룡 명창론」,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이보형, 「유파 개념의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 『판소리연구』23, 판소리학회, 2007.

신은주,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의 역사와 전승양상」, 『한국음악사학보』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배연형,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家の 소리』, 민속원, 2009.("판소리 중고제 심정순바디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신은주, 「중고제 심청가 <범피중류> 연구」, 『판소리연구』27, 판소리학회, 2009.

최혜진,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 유적 현황 연구」, 『구비문학연구』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최혜진, 「충청지역의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연구』32, 판소리학회, 2011.

최혜진, 『판소리 명창의 비조 최선달 연구』, 『판소리연구』45, 2018.

판소리학회, 『서천의 판소리와 중고제』, 서천군, 2016.

4) 중고제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좁은 의미의 중고제는 송흥록이 동편제를 만들고 이전의 소리가 대비되는 시점 즉 김성옥, 염계달 등의 존재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정도 까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고제 소리를 이어갔고 특히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고제의 역사는 판소리 발생기까지 소급될 수도 있다.

5) 배뱅이굿이나 장대장타령의 존재, 실창판소리 중 강릉(매화타령), 안동(옹고집타령), 제주(배비장타령)와 연관된 판소리가 일찍 창을 잃은 것은 판소리의 통합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소리사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명창들의 출신 지역과 활동 상황에 대한 연관성이 보다 치밀하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 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관련하여 이들이 점차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통합되는 시기, 곧 18세기 중후반의 상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명창의 비조라 할 수 있는 하한담이나 최선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 시기에 명창 박남이나 우춘대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이 부른 소리의 내용이 판소리인지 불분명하고, 또 판소리와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 최선달, 하한담이 근대의 명창들이 기억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소리 명창이므로 이들을 상한선에 놓고 보는 것이 실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충청도 출신인 점(하한담은 목천 추정, 최선달은 결성)은 무척 의미심장하다.⁶⁾

한편 최선달이 선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권삼득이 양반 광대인 점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곧 판소리 전문 광대로서 양반 출신이 초기 판소리사에 등장한다는 것은 양반의 문화와 판소리가 일찍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전시대의 음악 중 가곡이나 시조, 가사 등은 초창기 판소리 사설일수록 많이 수용되어 있다. 또한 중고제 명창들이 정가 계열에 정통한 바가 많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시 생각할 바가 있다. 초기 판소리 음악에 상층음악적 요소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의 판소리를 지나치게 민속음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판소리 음악이 무가 혹은 광대소리, 민요 혹은 정가 등 다양한 소리를 받아들이며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발생기의 음악적 요소를 또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문제는 중고제의 역사가 150여년 간 지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고제의 변이나 유파의 변별성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과 연관해서 충청지역은 발생기에는 경기, 충청을 아우르며 시작되었지만 점차 전북 북부권을 포괄하며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추이를 살펴

6) 판소리의 시조라 하는 하한담의 후계자인 하한들이 천안의 '목천읍지'에 기록되어 있고 김동욱이 "한 국가요의 연구"에서 판소리의 시원지로 내포를 지명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은우, 「명창 고수관의 성장과정과 음악의 맥」, 명창고수관선생 기념사업회, <명창고수관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세미나>, 2006.11.17.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중고제에서 충청 지역은 핵심 지역이었는데 내포권과 금강권의 세부 지역성을 가지고 점차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중고제의 다층성 혹은 변모 양상을 추적했을 때 좀더 중고제의 실상에 접근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고제의 개념과 범위

- : 경기, 충청지역에서 고제를 이어 오던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던 판소리의 한 유파
- : 19세기 말부터 중고제 판소리의 가문에서 이어지던 가, 무, 악의 전승계보

○ 중고제의 연구 현황

- : 중고제 관련 인물, 역사, 음악, 춤, 연주가 등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연구의 시각을 충청지역 음악의 발생과 근현대 한국음악의 ‘원류’라는 입장에서 재조정하고 중고제 예술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 특히 판소리 외 가, 무, 악 예술 중 중고제로 묶을 수 있는 충청 예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고제 문화 예술의 대상

- : 현재까지 중고제의 범위와 전승계보를 가지는 분야는
- : 판소리의 경우 내포권, 금강권, 경기권, 충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춤의 경우 심정순 가문의 승무, 한성준 계열의 전통 춤, 김석창 계열의 전통 춤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기악 연주의 경우, 백락준의 거문고 산조,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병창, 박팔괘의 가야금 산조, 내포제 풍류, 대전향제 줄풍류 등이 있음

2. 중고제의 분류 및 범위

1) 판소리

가. 내포권 중고제

명창	연대	관련 지역	특장	관련 내용	더늠
하한담	영, 정조간	목천	춘향가	목천읍지(유진한이 하한담의 춘향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권삼득이 하한담의 춘향가를 듣고 감동하여 전주신청으로 찾아가 춘향가를 2년간 배웠다는 설이 있음	
최선달	1726-1805	결성	춘향가	영조때 전주신청에서 춘향무극을 하면서 하한담과 <춘향가>를 불렀다는 설	
방만춘	1825-?	해미	적벽가	적벽가, 심청가 고전 윤색 ●아귀상성, 살세성	적벽가 '화전대목'
고수관	1764-1843	해미 출생, 공주 거생	춘향가	신위와 교유, 즉흥성 뛰어남, 대구감사 도임시 기생점고대목을 즉흥적으로 부름 ●염계달 창법, 추천목, 판청, 비음	춘향가 '자진사랑가'
정춘풍	헌, 철, 고 1834-1901? (순조14년?)	홍성, 공주? 만년 여산 이거	적벽가	남에 고창 신재효요, 북에 정춘풍. 춘풍은 자호임. 가조와 음률에 정통. 창법은 박기홍에게 전수. 자가독공, 동서의 유파에 속하지 않음. 우조를 주로 함. 대원군의 총애를 받은 명창(1939.7.7. <조선일보> "조선소리내력기" 하, 심재덕 담. 제자로 박기홍, 조기홍, 유공렬이 있음 박동진의 적벽가 중 남병산 축문은 정춘풍제임. 8년간 무당 뒤를 따라다니며 짐방꾼 노릇을 했으며, 해금, 가창가사,	소상팔경 단가

				시조에도 능했고 특히 적벽가를 잘함.(박동진 담)	
윤영석	고종	면천군 출생 (보령 오천면)	토별가	한송학과 동년배 ●세세상성, 담담무미하게 가다가 중판에 이르러 갖은 목청과 다단한 기량	
김봉문	1876- 1930	서산 출생	흥보가	박기홍 제자 ‘동편’	흥보가 ‘박물가’
유공렬	1859- 1934 이후	홍성	춘향가, 심청가	조선창극사는 익산 출신으로 되어있으나 1928.2.13.<매일신보>에 따르면 홍성군 고도면 가곡리에 은거 독공하는 것으로 나옴. 원각사, 광무대, 송만갑협률사 참가	춘향가 ‘이별가’
한성준 (고수)	1874- 1941	홍성 출생	고수	8세부터 외조에게 배우다가 박순조 문하로 들어가 완벽을 이룸. 김창환, 박기홍,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등의 고수. 명무	창극장단과 춤장단
심정순	1873-19 37	서산출생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가야금병창, 산조, 재담 풍류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심정순의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는 이해조에 의해 근대소설로 개작됨. 가문내 심상건, 심화영 등이 예술 전승	이동백, 김창룡, 김봉문 등과 함께 활동

나. 금강권 중고제

명창	연대	관련 지역	특장	관련 내용	더늠
황해천	정,순	충청도 공주(박 동진 담)		탄세단가에 충청도 황해천이 나옴 하은담 사사(김연수 창본 춘향가) 권삼득 후배, 송,염,모의 선배 ●자용성	
김성옥	1801- 1834	강경 출생, 여산읍 이거 요절	춘향가	가곡을 연구하다 진양조 창시, 송흥록의 매부 14세때 계룡산으로 들어가 10년간 독공	
송수철	순,헌,철	청양	춘향가	철종이 선달 제수, 지팡이 하사	

				○호걸제	
임창학	순조22년 1823-?	한산	촌향가		촌향가 '어사출도하 는 대목'
김정근	1825-18 95	장항 출생/결 성 사망	무숙이타 령	김성옥의 아들. 시조와 음률에 한숙. 무숙이타령 장기 ○삼궁접 곡조 창시	
정흥순	?	한산, 강경?	흥보가		
최상준	철,고 (1828-?)	한산	흥보가	'동편'으로 기록됨	흥보가 '흥보가놀보 찾아가는 대목'
백점택	철,고 (1825-?)	충남 연기	촌향가	이날치, 김정근의 후배	촌향가 '어사도 남원부중에 들어가서 민정을 시찰한 후 황혼시에 촌향집 문전 당도하는 대목'
황호통	고종 (1824-?)	공주	촌향가, 심청가	김정근에게 수학 후 정창업 등 선배와 교유 목정이 양성이고 우렁차서 호통 기운이 많아서 얻은 별명. 백점택, 이창운과 교유.	촌향가 '어사도 남원 향하는 대목'
박상도	고종	공주	적벽가	황호통과 동년배	
강재만	고종	금산	촌향가	'동편'으로 기록됨	촌향가'어사 가 방자 만나 수작하는 대목'
김석창	고,순	충청도 공주(?) 금산, 진잠	촌향가 <신연맞이 >	이동백, 김창룡 동배. 손녀 김숙자 이동백과 김석창이 해미읍성에 가서 소리를 했는데, 김석창은 100냥, 이동백은 15냥을 받아 이동백이 화가 나서 그릇을 깨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함(박동진 담) ○아니리, 부침새	
이동백	1866-	서천		김정근, 김세종에게 배움	'새타령'

	1949	출생, 진천에서 자라고 공주에서 거생			
김창룡	1870-1943	서천 출생. 홍성 용호리 거주, 서천 활동	적벽가, 심청가 '꽃타령'	김정근, 이날치 문하 김창환, 박기홍 교유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등과 조선성악연구회 참가 자가전래의 법제 계승, 성대가 좋아서 며칠을 하더라도 상하지 않음.	적벽가 '삼고초려'

다. 충북권 중고제

명창	연대	관련 지역	특장	관련 내용	더늠
염계달	18세기 중반?	덕산(여주)/충주 거생	장끼타령, 흥보가	동지 직계 제수받음/권삼득 창법 모방 ●추천목, 경드름	춘향가 '남원한량 대목'
김제철	순조3년 1804-?	청주 출생 경남 함양 이거	심청가	<계우사>김제철의 기화요초, <광대가>김선달 계철이는 담당한 산천영기 명랑한 산하영자 천운명월 구양수 ●석화제	심청가 '심청탄생하는 대목'
최낭청	?	청안 (괴산군)		철종시대 어전에서 소리시 임기응변, 문식있음	
이창운	철,고 (1825-?)	문의 (청주)	적벽가	이날치, 김정근, 정창업의 후배 백점택과 동배	적벽가 '원조타령'
김봉학	고종	진천 (충북)	흥보가	이석순 제자 강용환, 양학천 등과 병세	

라. 경기권 중고제

명창	연대	관련 지역	특장	관련 내용	더늠
모흥갑	1822-1890	경기도 진위/죽산군/전주(말년)	적벽가	●덜미소리, 강산제, 고동상성	춘향가 '이별가'
이석순	순조3년 1804-?	경기도 안산	춘향가		춘향가 '춘향 방'

					그림가'(진양 조 우조)
한송학	헌종2년 1836-?	수원 출생	새타령, 흥보가, 장끼타령	수원 용주사 공부	장끼타령 '까토리해몽'
김충현	고종	경기도	춘향가	황호통, 박상도와 동년배	

2) 춤

가. 심정순의 계보



그림 4 '심정순' 출처: 한겨레음악대사전

심정순(沈正淳, 1873-1937)은 충남 서산(현재 충남 서산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자 가야금병창 및 산조의 명인이다. 본명은 심춘희(沈春喜)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피리와 통소의 명인 심팔록(沈八綠, ?-1883)의 아들이자, 가야금병창과 산조의 명인 심상건(沈相健, 1889-1965)의 숙부, 가야금풍류·단소풍류·가야금병창·판소리의 명인 심재덕(沈載德, 1899-1967)과 가야금병창·판소리·잡가·승무의 명인 심매향(沈梅香,

1907-1927), 그리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심화영(沈燁英, 1913-2009) 남매의 부친이다.

심정순은 25세(1897) 무렵부터 판소리, 잡가, 재담과 가야금, 양금, 단소를 두루

익혔다고 전하는데 명확한 사승 관계는 알 수 없다. 그의 소리는 자녀들과 조카 심상건에게 전수되었으나, 심화영을 통해 극히 일부만 전승되었다. 심정순 일가의 소리는 심팔록-심정순-심상건, 심재덕, 심매향, 심화영으로 여러 대를 거치면서 내포 지역 특유의 음악 어법을 확립했다. 평조를 중심으로 한 악조의 사용이나 경기 어법이 녹아 있는 선율 진행 등에서 그 가계 소리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심정순은 30대 후반에 상경해 본격적인 국악 활동을 시작했다. 39세에 일본축음기회사에서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음반을 취입했는데, 당시 음반 녹음자 중 판소리 창자는 심정순 한 명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근대 오명창에 속하는 대명창 이동백(李東伯, 1866-1949), 김창환(金昌煥, 1855-1937)에 이어 세 번째로 유성기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의 인기나 명성이 매우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창기 유성기 음반 목록에서 그의 녹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상당하다. 40세에는 『매일신보』에 그의 판소리 사설이 〈강상련〉, 〈연의각〉, 〈토의간〉이라는 제명으로 연재되었다. 그가 남긴 판소리 사설은 중고제의 전승이 미약한 현대 판소리의 특징을 감안할 때, 그 자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42세 때 남성 판소리 창자로서는 유일하게 『매일신보』의 〈예단일백인(藝壇一百人)〉에 소개되기도 했다. 41세-42세에 사설극장 장안사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했으며, 53세에 일본축음기회사에서 음반을 녹음했다.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ROYAL RECORD NIPPONOPHONE 6020 KOREAN SONG 七星壇下趙子龍弓射歌 도자룡활쏘는가),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ROYAL RECORD NIPPONOPHONE 6098 KOREAN SONG 千字文歌 천자뒤푸리)와 '남원 사령 술주정가'(일축조선소리관 K226-A 남원사령술주정가 沈正順 朴春載 文泳洙) 등을 유성기 음반으로 남겼다.

심정순은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중고제 창자로, 경기·충청 지역의 향토 음악적 어법을 충실하게 구사했다고 평가된다. 평조를 많이 사용했으며, 계면조 대목에서도 평조적 진행을 보였다. 도약진행이나 장식음의 활용보다는 평탄하고 단조로운 선율을 지향했으며, 높은 음역에서 지속적으로 거뜰거뜰하게 들고 가며 소리를 했다.⁷⁾

심정순은 판소리 외에 춤과 장단, 산조 등을 가문에 전승했다. 그의 아들 심재

7)심정순 [沈正淳] (한국전통연희사전)

덕과 딸인 심화영이 대표적으로 전승했다.

승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의 하나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이다. 승복을 입고 추어서 일명 ‘중춤’ 이라고도 부르나 불교 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은 아니다. 춤의 유래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으며 양식과 구성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된 매우 우수한 춤이다. 「심화영류 승무」는 전통 예능인 집안 출신의 심화영[1913~2009]이 전승한 춤으로, 춤의 형식과 복식 등에서 타 지역의 승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심화영류 승무」에서는 장삼과 가사를 입고 고깔을 쓰고 춤을 춘다.

「심화영류 승무」를 발전·전승시킨 심화영은 191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서산 출신으로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대가인 심정순(沈正淳)이다. 심화영은 당대 유명한 국악인이었던 큰오빠 심재덕에게 가야금, 춤, 판소리 등을 배웠으며, 승무는 충청도 지역에서 춤 잘 추기로 유명했던 방 모(某)에게 전수받았다. 심화영은 여러 면에서 재능을 보였지만, 특히 승무가 특출하였다. 심화영은 1945년에 서산에 이주한 이후 평생 서산에 살면서 자신만의 승무를 발전시켰고, 제자 양성에 힘썼다.

전체적인 춤 구성은 염불-자진염불-타령-자진타령-긋거리-뱀고-긋거리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연희 시간은 20여 분이다. 염불은 스님이 되기 전에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는 내용이며, 자진염불은 스님이 되어서 기뻐하는 내용, 타령은 스님이 도를 닦으며 기도하는 내용, 자진타령은 스님이 바깥세상에 유혹을 받는 내용, 긋거리는 스님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속세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염불, 도드리, 타령, 긋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추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이 사용된다. 일반 승무는 앞드려서 시작하는 반면에 「심화영류 승무」는 시작과 끝을 목탁 소리에 맞춰 합장하며 인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서서 시작하는 점이 특징이다.

「심화영류 승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심화영 승무보존회가 결성되었으며, 전수 조교인 외손녀 이애리와 이수자인 서은희 등 10여 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심화영 전통 춤판’을 열어 승무를 선보이고 있

다.⁸⁾

나. 한성준의 계보

한성준(韓成俊, 1875~1941)의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충청남도 홍성 출생이다. 한천호의 아들이다. 7세 때부터 외할아버지 백운채(白雲彩)로부터 춤과 북을 배웠다. 14세 때부터 3년간 홍성 서학조(徐學祖)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웠으며, 이어 수덕산의 박순조(朴順祚) 문하에서 20세가 넘도록 춤과 장단공부를 하였다.

1894년 이후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한말에 개관한 원각사(圓覺社) 무대에 출연하게 되면서 서울에 정착하였다. 원각사가 없어지게 되자 협률사(協律社)·연흥사(延興社) 등의 단체에서 지방을 순회공연하였다.



그림 5 '한성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 때 고수로서 15차의 창방(唱榜: 콩쿠르)을 치렀으며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정정렬(丁貞烈) 등 명창의 고수로 이름을 날렸다. 또한, 이때 궁중 무용을 접하면서 뒷날 「태평무(太平舞)」·「학무(鶴舞)」를 만드는 데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하고, 1934년에는 무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무용연구소를 창설하고 제자를 기르는 한편, 1935년에는 부민관(府民館)에서 '한성준무용 공연회'를 가졌다. 그 뒤 일본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순회공연함으로써 무용을 일본에 소개하였

고, 1941년에는 일본의 모던일본사가 주는 예술상(藝術賞)을 받았다.

8) 「심화영류 승무」(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주요 작품으로는 「태평무」·「학무」·「신선무」·「살풀이춤」·「한량무」·「사공무」·「농악무」 등이 있으며, 제자로는 김천흥(金千興)·김보남(金寶男)·이강선(李剛仙)·장홍심(張紅心)·한영숙(韓英淑)·강선영(姜善泳)·이매방(李梅芳)·정인방(鄭寅芳)·진수방(陳壽芳)·김삼화(金三和) 등이 있다.⁹⁾

한성준은 전통 민속춤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신무용의 선구자가 되었다. 당시 놀이마당에서나 행해지던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으며,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해 전통무용의 대중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공헌한 것이다. 최승희(崔承禧) 역시 그에게 전통무용을 배워 자신의 창작무용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성준은 특히 학춤에 뛰어났으며 승무, 태평무, 살풀이 등 전통무용을 일본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기도 했다.¹⁰⁾

다. 김석창의 계보

김석창(金碩昌)은 충남 공주(현재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며,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살풀이춤의 명인 김숙자(金淑子, 1927-1991)의 조부이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김석창」 조에서는 김석창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중고제 소리의 마지막 명창으로 꼽힌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아니리와 불임새 구사에 능했다고 한다.

김석창은 아들 김덕순과 손녀 김숙자 등으로 가문의 예술을 전승하였다. 특히 손녀인 김숙자는 판소리는 잊지 못하였지만, 아버지로부터 판소리와 춤 등을 사사하고 도살풀이, 한량무 등 전통춤을 제자들에게 전승하였다.

경기도 도당곳의 도살풀이의 명인인 김숙자는 재인청 출신으로 안성의 보개면 곡천리에서 1927년에 태어났다 그의 조부 김석창은 판소리 중고제 명창이었고 부친 김덕순(金德順) 역시 판소리 명창으로 화랭이 출신이었다 김숙자의 부친은 안성 재인청과 화성 재인청을 오가며 당시의 재인들을 지도한 선생이며 당대의 예인

9) 한성준 [韓成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 한국무용사전

이었다. 어머니 정귀성(鄭貴星) 역시 세습무였고 외사촌 정일동(鄭日東)은 경기무악의 일인자였다. 정귀성의 아버지 정광호도 재인청 사람이었다.¹¹⁾



그림 6 김숙자의 아버지 '김덕순과 어머니 '정귀성'

현재 대전에서 전승되고 있는 중고제 한량무는 고종순종시대부터 전승되어 왔다. 충남공주 재인, 명창인 김석창은 유명한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으며 아니리와 부침새로 유명했고 특히 춘향가를 잘 했다고 한다. 그는 상당한 공력을 가진 명창으로 당대 최고 명성을 누리던 이동백과 김창룡이 탄복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덕순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김석창의 아들이며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김석창에 의해 판소리와 함께 음악적 재능을 교육받았고 안성재인청과 화성재인청을 오가며 많은 예인들을 가르쳤던 예인이었다.

김덕순의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김숙자는 부친과 조부의 영향을 받아 그의 나이 6세때부터 부친에게 직접 춤을 전수받았다. 선천적으로 집안의 예인의 소질을 이어 받은 김숙자는 재주가 놀라웠고 부친인 김덕순은 춤 뿐만 아니라 국악 예술을 가르쳐 주었다.

11) 양길순, 「구술로 본 김숙자 연구」, 중앙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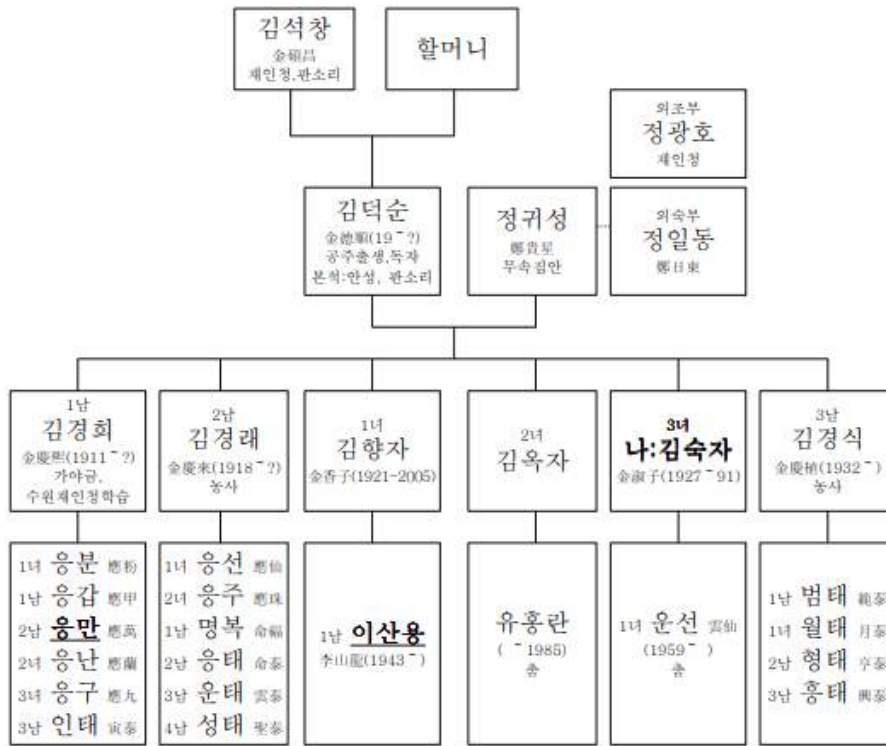


그림 7 김숙자의 가계도

김숙자는 무속양식무인 부정놀이춤, 진쇠춤, 터별림춤, 쌍군옹춤, 올림채춤과 태평무, 한량무, 승무 판소리 5바탕, 신선무, 가야금병창 등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한 김숙자 나이 14세 때에는 그녀의 이름이 경기도 지역에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그들은 우리의 춤과 소리를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부친인 김덕순은 집 뒤에 있는 토굴을 파서 그곳에서 김숙자에게 춤을 가르치다가 들켜 유치장에 잡혀 들어갔다.

거기서 시말서를 15차례를 쓰면서 김숙자는 일주일 만에 풀려나오고 부친인 김덕순은 상투를 잘리어 보름만에 출옥하였다. 그 날 부친은 저녁에 집마당을 싸리비로 깨끗이 쓸고 상위에 정수를 떠 놓고 제를 올리고 주머니에서 상투를 꺼내어 불을 사르고 물에 띄웠다. 그 후 양식을 조금 챙겨 김숙자를 데리고 집을 떠나 청음사 위에 토굴을 파놓고 김숙자를 공부시켰다. 19세였던 해방된 해에 부녀는 산을 내려왔는데 그 후에도 두 번이나 더 공부하러 갔었다고 한다. 김숙자의 나이 29세 되던 해부터 충남 대전에 가서 12년간 국악원을 운영하였다. 그때 기본으로 살풀이춤과 승무를 가르쳤고, 한량무와 초립동등 다양한 무용작품들 및 가야금과

창도 가르쳤다.

이 때 김숙자는 대전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면서 제자 김란을 만나게 된다. 김란은 1943년 2월 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6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나 본명은 김금화로 스승인 김숙자에게 1958년부터 4년간 승무, 입춤, 한량무 등의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또한 김란은 스승 김숙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부친 김덕순이 직접 한량무를 지도해주면서 김덕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후 김란은 조교로 있었으며 승무, 살풀이, 검무 등을 전수받게 되었다. 1962년에는 김란의 이름으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고, 1985년부터 대전시립무용단을 창립하게 되어 1998년까지 무용단의 예술감독직을 역임하였으며 대전지역의 춤을 부흥시키는데 헌신하였다. 김란은 스승 김덕순과 김숙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중고제 한량무에서 한량역을 맡아서 공연했었고, 1980년대에 이강용을 만나 중고제 한량무를 전수해 주었다.¹²⁾

3) 산조/병창/풍류

가. 백낙준의 거문고 산조

본명은 학준(鶴準)이며 1884년 태어나 1933년 강경에서 사망하였다. 충청남도 청양 출신으로 강경에서 거주하였다. 선달(先達)의 아들이다. 1914년~1918년 경 되던 해 아버지 선달이 부른 판소리 가락과 시나위 가락을 처음으로 거문고에 옮겨 연주하였고, 뒤에 독주음악으로 체계를 확립시켰다.

그는 율객(律客)으로서 삼남일대를 돌며 거문고산조의 보급에 힘썼다. 죽을 때까지 그의 문하에서 배운 율객 중 김종기(金宗基)·박석기(朴錫基)·신쾌동(申快童) 등이 유명하다.¹³⁾

그가 세상에 널리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40대의 나이에 이른, 1910년대 중엽부터이다. 이 때 거문고산조를 만들어 연주, 보급하면서부터 거문고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거문고산조의 탄생에 대해서, 박동실의 회고에 의하면 '1920년대 초 강경을 찾아갔을 때 백낙준은 이미 본격적으로 거문고산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 때 백낙

12) 장동호, 「김덕순류 중고제 한량무의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학원석사학위논문, 2019, 17-18쪽.

13) 백낙준 [白樂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준은 거문고로 산조를 완성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열중하여 다루고 있었다' 라는 것으로 미루어 거문고산조의 탄생을 1910년대로 추정한다. 또한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음악> 1965년 9기에 박은용의 글로 '처음 백낙준은 가야금산조를 가야금으로 연주한 것 같다고 회상자들은 상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숙달되자 거문고로도 산조를 만들 수 있고 탈 수 있다는 견해를 자주 피력하였다'라고 적혀있다.

백낙준의 거문고산조는 가야금산조를 창시한 김창조의 산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추측한다.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결코 가야금산조 형식의 틀에만 매이지 않았다. 김창조가 창시한 가야금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4개로 구성되어있었는데 백낙준은 여기에 엇모리(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사이에 삽입)를 추가하여 5개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가 거문고산조에 엇모리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가야금산조의 음악적 형식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태어난 거문고산조는 여타의 대금, 해금, 통소, 단소의 산조 등이 창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른바 '산조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거문고는 소위 고상한 음악을 논하는 정악 연주인들이 산조를 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음악적 투쟁도 상당하였다 한다. 거문고는 백악지장(百樂之將), 즉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그런 악기가 산조 같은 저속한 음악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당시 통설이었다. 그러나 백낙준은 이런 통설을 과감히 깨고 거문고산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백낙준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강경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서 연주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김종기(金鍾基), 박석기(朴錫基), 신쾌동(申快童)을 비롯한 재능 있는 후대의 명인들을 키워냈다.

백낙준은 일상생활에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속멋'이 있는 사람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평한 것처럼 내심에 잠재된 깊은 음악적 철학과 개성을 거문고산조를 통해서 풀어낸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다.¹⁴⁾

14) “거문고산조의 창시자, 백낙준이야기” (문화원형백과 산조),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현재 전해지는 거문고산조는 모두 백낙준으로부터 전승된 것이며, 이 산조는 다른 기악 산조의 모태가 되었다.

나.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병창

심상건(沈相健 1889~1965)은 가야금산조와 병창의 명인이다.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다.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하였다. 흔히 아버지 심창래(沈昌來)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열세살부터 음악을 하였는데 제대로 배운 것은 양금 풍류밖에 없고, 그밖에는 모두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한다.

특히, 가야금산조의 조율법과 가락은 모두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다. 그의 가야금 조율법은 제1현이 일반적인 조율법보다 완전4도 낮고, 제2현에서 제12현까지는 일반적인 조율법의 제1현에서 제11현까지와 같다. 그는 산조를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으로 즉흥연주를 하는 유일한 명인이었다.

저음역에서 시작하여 차츰 고음역으로 고조되는 형식을 즐겨 사용하고, 평조 및 경조의 우람하고 화평한 가락으로 산조에 일대 변풍을 일으켰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산조의 본청(本淸), 즉 주음을 종전의 ‘징’ (제7현)에서 ‘당’ (제5현)으로 완전4도 낮게 내려서 연주하였다.

광복 전 일본에서 6회의 레코드취입을 하였고, 1948년 조택원(趙澤元)무용단과 함께 3년간 미국공연을 하였으며, 1960년 국악진흥회로부터 국악공로상을 받고, 1962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받았다. 한때 국립국악원 국악사도 지냈다.¹⁵⁾

1995년에 엘지미디어에서 가야금산조의 명인 심상건의 연주를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다. 컬럼비아유성기원반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음반이다. '느린 중모리 <상>·<하>', '중중모리', '자진모리', '빠른 자진모리', '당악', '단가 대장부한<몽유가>'는 1928년 녹음되었으며 나머지 곡은 1930년에 녹음된 것이다. 그의 판소리와 병창 등은 전승이 끊어졌으나 복원이 시도되고 있으며, 심상건의 가야금산조는 황병기-서원숙(단국대 명예교수)으로 이어지고 있다.

15) '심상건(沈相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박팔괘의 가야금 산조

박팔괘(朴八卦, 1882~1940)는 충북 청원 출신 가야금산조의 명인이다. 독자적인 충청제(忠淸制)의 산조가락을 만들었고, 가야금 병창으로도 유명했다.

전라남도의 김창조(金昌祖)에서 비롯된 정통적인 가야금 산조의 틀과 판이한 특색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으며, 박상근(朴相根)의 충청제 가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일제강점기 박상근(朴相根)에게 산조를 가르쳤고, 박상근은 성금연(成錦鸞)에게 전하였다. 1914년 2월 단성사(團成社)에 열린 자선연주회 때 출연했다. 같은 해 5월 단성사의 구극(舊劇)에서 가야금으로, 그리고 6월 단성사에서 승무로 출연하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평의원.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는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는 강원삼, 선생은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창룡·이금희,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1915년 5월 연흥사(演興社)에서 가야금으로 출연했으며, 1918년 9월 공주(公州) 별신제(別神祭) 때 가야금으로 출연하였다.

일제강점기 그가 가야금 반주로 부른 단가는 미국 빅타사의 음반에 전한다. 1935·1936년 가야금병창·“기생 점고하는데“·단가 “만고강산“(萬古江山) 등을 여러 곡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1999년 11월 12일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제2회 추모기념 연주회가 열렸다.¹⁷⁾

박팔괘의 가야금산조는 박상근에게 이어졌으나, 직접 전승은 끊어지고 복원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라. 내포제 줄풍류

내포향제 줄풍류란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줄풍류 즉 현악영산회상을 가리킨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7, “내포향제 줄풍류” 음반이 국립문

16) ‘박팔괘(朴八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7) ‘박팔괘 (朴八卦)’ (한겨레음악대사전)

화재연구소 녹음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내포제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연주에 참여한 연주자들이 대전, 충남,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국악인들이었으므로 “중고제 풍류”가 더욱 정확한 명칭이다.

충청도에서는 대전, 공주, 예산 등지에 풍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율회를 갖지 않고 있다.

이 음반은 당시 충남지역에서 활약하던 여러 악사들을 중심으로 연주된 것이며, 복원의 가치가 있다. 악기는 양금, 거문고, 가야금, 해금, 대금, 피리, 단소, 장고이다. 연주자는 대금에 권용세, 피리에 이규성, 거문고에 김덕규, 가야금에 오필순, 양금에 이수재, 해금에 김창규, 단소에 이경오, 장고에 조동호 등이다.

중고제 줄풍류는 충청지역의 음악어법과 연주를 담은 것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채보를 통해 복원, 전승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수록악곡 >

내포향제줄풍류(62:54)

1. 현악영산회상 - 세령산, 가락덜이, 염불도드리, 타령
(양금:이수재, 거문고:김덕규, 가야금:오필순, 해금:김창규,
대금:권용세, 피리:이규성, 단소:이경오, 장고:조동호) (13:03)
2. 무용반주음악 - 염불, 타령, 굿거리, 당악
(해금:김창규, 피리:오필순, 장고:조동호, 대금:이경오) (17:41)
3. 무용반주음악 - 살풀이
(해금:김창규, 피리:오필순, 장고:조동호, 대금:이경오) (06:40)
4. 피리독주 - 살풀이, 자진살풀이
(피리:오필순) (06:11)
5. 대금독주 - 산조 중 진양, 중모리
(대금:이경오) (07:33)
6. 해금독주 - 산조 중 자진모리
(해금:김창규) (03:04)
7. 거문고독주 - 별곡 중 밀도드리, 상현도드리
(거문고:김덕규) (05:44)
8. 단소독주 - 현악영산회상 중 타령
(단소:권용세) (02:33)

그림 8 내포향제 줄풍류 (국립문화재연구소)

마. 대전향제 줄풍류

대전풍류는 대전에 전승되는 풍류이다. 일제말기부터 율계가 있었고 1965년에는 대전정악원이 있었고, 1970년에는 율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1950년대부터 대전에서 율회에 참가했던 사람으로는 권용세, 심남섭, 이태걸, 이규성이 있었다고 한다.

대전 지역에 남아 있는 풍류의 역사는 유가(儒家)의 기풍에 따라 풍류 문화 또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풍류는 선비들이 자신의 수신과 풍속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이면서 선비들의 놀이 문화라 할 수 있다. 풍류에서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영산회상 외에 과거 선비들은 시조, 가곡, 가사, 송시, 송서 등의 음악을 즐겼다. 대전의 풍류는 거문과 가야금, 양금 현악기에 단소, 피리, 젓대, 해금, 관악기가 따르며 타악기인 장구를 포함하여 8종의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그림 9 대전향제줄풍류보존회

대전의 고유한 풍류는 1935년 봄 매사 이경호 선생이 기록한 한자구음 정리본과 한글구음으로 정리된 두 분이 있는데, 여러 악기와 악보 등을 통해 전해 내려

은 풍류 문화는 한밭정악회에 의해 계승되고 있고, 권용세, 이상덕, 홍인섭, 안승춘, 송석우, 이상귀, 김광일 선생등과 이후 조현영, 이후영, 송경희, 윤치학, 진정식, 이홍복, 이동진, 고정수 등에 의해 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 이들의 풍류 음악을 ‘내포향제줄풍류’ 라고도 불렀으나,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풍류의 맥을 이어온 바를 중심으로 ‘대전향제 줄풍류’ 로 명명되었다.

풍류의 모임을 보통 율회(律會)라고도 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오창현의 집 사랑에서 율회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해방 직전에는 김창희, 김태문, 이영산, 오창현, 이경호, 전영동, 윤종선, 강명균 등의 율객이 있었다고 한다. 김창희는 양금이나 단소, 이영산은 거문고, 김태문은 거문고나 가야금, 젓대를, 윤종선은 피리나 단소, 강명균은 거문호, 이경호는 가야금, 양금, 단소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이태연의 집 사랑에서 모였으나 이영산의 집 사랑에서도 율객들이 연주하였다.

한국전쟁 후로는 송인화의 사랑에서 모이다가 송희철의 사랑에서 율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당시 율객으로는 심남섭, 권용세, 송인화, 이경호, 김덕규, 이태걸, 이종근, 송희철, 오재근, 이상덕, 윤창수, 이농춘, 최준현, 강신철 등이었고, 율회의 명칭은 없었다.

1960년대 초 율회는 대전정악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전 대흥동에 ‘대전정악원’ 을 설립하여 홍공식 변호사를 원장으로 추대하고 율객 및 동호인들이 모여 활동하였으며, 신창휴, 심남섭, 권용세 등이 실기지도를 맡았다.

지금과 같은 줄풍류의 역사는 매사 이경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경호는 1934년 이왕직아악부 교사인 최응모에게 줄풍류를 배웠다. 그가 익힌 음악은 1935년 『금쟁보』에 담아 남겼는데, 이 악보는 대전향제 줄풍류의 교재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그는 1911년 충남 연산에서 출생하였는데 호는 매사(梅史)이다. 그는 유성우체국장등을 역임하며 공직에 있었는데, 이 지역 풍류를 허복남 선생에게 먼저 배워 익혔다. 이후 1934년 신병 치료차 계룡산 엄사에 있던 이왕직아악부 교사인 최응모에게 가야금, 양금, 단소를 배웠고, 악보를 정리하여 대전풍류의 맥을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8년 고향인 충남 논산 정동리에 낙향하여 1983년에 작고하였다.

제2세대로 1950-60년대 대전의 줄풍류를 이어가게 한 인물이 바로 서강 권용

세이다. 그는 1915년 1월 12일 생으로 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출생했다. 청주농고에서 수학한 후 대덕군청 공무원으로 있었다. 1946년부터 조병직, 윤종선에게 시조와 양금을 배운 것을 시작으로 방호준에게 가야금 풍류를 배웠고, 예산 율객인 김명진 선생에게 단소풍류를 배웠고, 성낙준에게 짓대풍류를 배웠으며, 1962년부터 5년간 매사 이경호에게 대금, 단소, 양금을 배웠다. 1961년 대전정악회를 설립하고, 1962년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 부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국악교육활동을 계속하여 1976년 충남대학교 국악연구회 창립, 1978년 공주대학교 금슬악회 창립, 1991년 한밭정악회 창립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대전과 충남지역의 풍류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권용세는 주로 단소, 짓대를 연주하였고, 가야금, 양금, 장구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권용세 이후 안승춘, 임윤수, 홍인섭, 이농춘, 송석우, 장덕성, 성낙준, 강태준, 이병준, 김순희, 김광일, 이상귀 등이 대전의 풍류를 이어나갔다.

1997년 이경호가 남긴 『금쟁보』를 바탕으로 대전향제 줄풍류가 다시 복원되면서 그 후학들에 의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후학양성과 악보 출간등의 노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밭정악회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무형문화재 제 23호로 대전향제줄풍류를 인정받게 되었고 보유단체인 ‘대전향제줄풍류보존회’로 활약하고 있다.

제 3장 중고제 전승 자원 현황과 자료

1. 중고제 전승 자원 현황

중고제 판소리가 전승된 핵심지역은 홍성, 서산, 서천, 논산(강경), 공주 등이다. 이외에도 청양이나 부여, 금산이나 보령 등에서도 명창들이 출생, 활동하였지만 주요 판소리의 활동 무대가 주로 이 5대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명창들과 관련한 행적이나 유적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중고제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들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이 다섯 지역은 과거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거나, 물산이 풍부하고 유통, 소비가 많아 광대들이 활약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남아있는 명창들의 문화 유적들을 살펴볼 것이다.

1) 홍성

가. 최초의 명창 최선달(최예운, 崔禮雲)

홍성지역에서 발굴된 가장 큰 문화유적은 ‘최선달’ 관련 유적이다. 그간 최선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홍성지역의 향토사학자 황성창, 배동순, 김정현 선생님 등의 발굴과 노력으로 최선달의 본명과 생가터, 묘역 등이 알려지게 되었다.¹⁸⁾ 이를 계기로 필자는 후손과 함께 족보와 증언, 설화, 비문, 묘역터 등을 검증¹⁹⁾하고 최선달이 판소리 광대의 효시이며 결성사람이라고 한 데 대한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최선달은 하한담과 함께 판소리의 효시로 꼽히는 첫 소리꾼인데 그간 전설처럼 내려오던 구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처지라 조사를 통해 최선달의 유적과 가계, 주변의 상황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최선달은 본명이 최예운(崔禮雲)(1726.10.7.-1805.5.2.)으로 결성 출생이다. 해주 최씨 좌랑공파 25대손으로 부친 최춘기(崔春起)와 모친 광산 김씨 사이에 2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예로 결성면장을 지낸 최재설이 “25세손인 예운 할 아버지는 명창으로 이름나서 가선대부의 품계를 국가에서 제수받았다” 는 모필 글씨를 바탕으로 묘역을 찾았고, 가선대부 품계 비석을 찾았다. 명창으로서 이러한 벼슬을 부여받은 이는 최선달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가비 광대로서 판소리를 빛낸 최초의 명창이었다. 최선달이 광대의 효시로 불리어진 것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첫 명창이자 당대 어전에서 소리를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선달의 후손들이 현재 결성농요의 핵심 소리꾼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선달의 애초 묘역은 현재 이장되어 선산으로 옮겨졌는데, 결성농요보존회 앞마당에 당시의 비석이 남아있고, 명창관련 기념비문도 여러 고증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다. 다음은 결성농요보존회 앞에 세운 최선달 명창 기념비의 내용이다.

18) 결성농요보존회, 『결성농요』(결성농요특색과 최선달·김창룡 후예들), 1995. (제본책) 김정현, “최선달의 흔적이 결성농요로 다시 살아나- 우리지역의 숨겨진 이야기/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崔先達)’”, <홍성신문>2009. 03.02. 기사

19) 2017년 9월 25일 현지조사. 당시 후손 최덕수(결성농요사무국장), 김정현(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전상진(이용노마을신문편집인, 기자)선생님들과 동행했다.



<최선달명창기념비(결성농요보존회 앞)>

<한국 판소리의 선구자 최선달 명창 기념비문>

국가와 민족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시대의 빛이 되었던 지사와 열사 그리고 훌륭한 예술인을 많이 배출한 홍성군은 의리의 고장이요 예술의 고장이다 홍성의 역사 인물 가운데 한국 판소리 250년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판소리의 선구자 최선달 명창이다. 최명창의 본명은 예운(禮雲)이며 선달은 별칭이다. 해주 최씨(海州 崔氏) 좌랑공파(佐郎公派)의 후예로 조선 영조2년(1726)에 오늘의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578번지에서 태어나 순조 5년(1805)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십대조인 환(獮)이 덕산현감으로 있을 때 이웃의 결성고을과 인연을 맺었고 팔대조인 사(泗)가 결성현감으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후손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부친 춘기(春起)공은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최명창은 18세기 양반 출신 비가비 명창의 대표적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소리에 남다른 재질이 있었다. 석당산과 누에산, 풍거섬 등 여러 곳에서 득음을 위한 피나는 수련 과정을 거쳤으며 팔십 평생을 판소리의 기초를 닦는데 헌신하였다. 그는 천안시 목천면 출신의 하은담(河殷潭) 명창과 함께 조선 광대의 효시로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하였는데 품계를 받은 명창은 그가 처음이다. 최명창의 판소리는 결성의 농요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만물소리는 최선달이 직접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성농요는 1993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현재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후손인 최광순과 최양섭이 초대예능보유자로서 활약을 하였으며, 소리꾼의 다수가 최명창의 후손이다. 최명창의 묘소는 본디 결성면 성남리 중리마을에 있었으나 2014년에 금곡리 해동마을로 옮겼다. 이장을 계기로 결성농요보존회에서 최명창을 선양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 지난날의 구비(舊碑)까지도 같은 장소에 함께 세워 후인들에게 길이 본을 보이고자 한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영성 짓고 국전서예부문 초대작가 長江 변수길 쓰고 2016년 9월 홍성 결성농요보존회 세우다)

기념비 안의 내용에서 우리는 최초의 명창이라 일컫는 최선달이 해주 최씨 최예운이라는 점, 그의 생몰연대와 출생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726년에 태어나 1805년까지 살았던 최예운은 양반집안에서 태어나 대대로 홍성군 결성면에서 살았고, 어릴 적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하여 고향의 석당산과 누에산, 풍거섬 등에서 수련하며 판소리를 연마하고 득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명창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하한담은 위 비문의 하은담과는 다른 인물로, 하은담은 하한담보다 한세대 후손이므로 오류가 있다. 아직 하한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후손 하은담이 목천의 광대였을 것으로 보아, 하한담 역시 목천을 고향으로 두고 활동하지 않았을까 추정될 뿐이다.

최예운은 판소리 명창의 시조이자 최초의 비가비광대라 할 수 있다. 익산의 비가비 광대 권삼득이 1771년생이니 이보다 50여 년 앞서 최예운이 태어나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삼득 시대에는 이미 판소리가 퍼져 있었고,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권삼득이 출문을 당할 정도로 판소리 문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권삼득보다 50여년 앞서 판소리 명창의 칭호를 받고 활동한 최예운 시절의 판소리는 고졸하고 투박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소박한 이야기노래를 판소리로서의 예술성을 가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최예운이었을 것이다. 특히 최예운을 비롯한 양반가문에서 판소리 명창이 출현한 것은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데, 기존의 가객들이 중인이나 광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보면 판소리는 애초 상층계급의 영향 하에 발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예운이 가선대부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최선달 관련 설화를 통해보면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 부른 노래를 듣고 한양의 관리가 그를 데려가 어전에서 소리를 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판소리를 부른 명창으로서 벼슬을 제수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최예운이 어전에서 소리를 하고 벼슬을 받았던 것은 애초 그가 양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판소리 명창들은 명예직이나 벼슬을 받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유일한 예인이 되었다.



<이장 전 최예운 묘소>
(결성군 성남리 내남마을)



<최예운 묘소에 있었던 가선대부 비문>
(결성농요보존회 앞)



<이장 후 최선달 묘소>
(결성면 금곡리 해동마을 :일명 해창마을)



<최예운 생가터>(결성면 성남리 중리마을)

결성의 최선달이 1726년 태어난 최예운이라는 사실은 판소리사의 여러 국면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선달 최예운이 18세기 전기의 인물로서 판소리 명창으로서의 칭호를 최초로 받았다는 점은 그가 판소리로서의 정체성을 최초로 세운 인물이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판소리 명창 최선달의 등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예운이 명창으로 이름이 나서 가선대부의 직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판소리 광대의 사회적 인정과 지위 상승의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이어 많은 명창들이 명예직이나 벼슬을 수여받았고 다른 예인들과는 차별되는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세기 전기에 이미 판소리는 다수의 양반, 중인, 부호 청중을 획득해 나아갔고, 이에 상응하여 소수인에 의한 다액의 물적 보상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청자들의 지향은 기량의 연마와 명성 획득을 통해 ‘또랑광대’의 평면으로부터 솟아올라 ‘어전명창, 국창’의 예술적 사회적 대우는 받는 쪽으로 모아졌던 것이다.²⁰⁾

유만공(柳晩恭)은 그의 『歲時風謠』(1843)에서 「四月八日」題下の 17수 중 한 수²¹⁾에서 판소리 연창이 허두가와 본사가로 이루어지며, 춘향가 연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여러 명창 중 이름난 광대를 뽑아 감상하는 실력중심의 감상 풍토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명창이 되기 위한 각고의 수련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선달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판소리 연행기반이 이미 18세기 전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최선달이 해주최씨 좌랑공과 25세손으로 비가비 광대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초의 광대가 양반가 출신의 비가비였다는 점은 판소리가 초기 성립시부터 양반층의 절대적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18세기 음악 환경의 변화는 궁중음악으로부터 민간악으로의 변화가 진행되던 때였고, 구체적인

20) 김흥규, 「19세기 전기 판소리의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논집』30, 안암어문학회, 1991, 15쪽.

21) 纒過春榜萃優倡 春榜 나고 곧바로 광대를 가려 뽑아

名唱携來ト夜良 명창을 데려다가 좋은 밤을 택한다네
歌罷靈山呈演戲 허두가 소리 마치고 연희가 벌어지니
一場奇絶現春香 기이하고 빼어났구나 춘향가 한 마당

『한문 악부·사 자료집』5(계명문화사, 1988, 39쪽. 김흥규, 위의 논문, 9/16쪽 재인용.

특징으로는 첫째, 6대강이 해체되면서 리듬구조는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장단이 형성되며, 둘째, 5음 음계는 유지되지만 3음 중심의 선율 골격과 그것의 전조 기법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음악어법은 바로 판소리의 ‘이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감성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²²⁾고 보는 것이다. 최예운이 이미 18세에 악에 심취하여 누에산 칠성단에서 독공을 통해 이룬 판소리는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비가비 광대였으므로 판소리 사설의 정리나 창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구비서사시의 연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하한담 최선달이 이룬 판소리 연행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한담의 존재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18세기 전기 유행하던 성악의 양식은 가곡, 가사, 시조, 잡가, 민요 등 다양하였을 것인데 결성을 기반으로 한 판소리 광대 최선달 최예운의 탄생은 충청도 혹은 경기도 음악어법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때 이루어진 판소리는 염계달이나 김성옥 등 중고제의 발생과 융성으로 이어졌다. 한양으로의 진출과 활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판소리는 경기 충청의 토리나 음악어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삼득과 염계달, 고수관이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고 이들이 만든 창법이 설령제, 추천목, 경드름, 변청, 엇청 등 경토리 위주의 것인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가 정체성을 가지기 이전 단계에는 많은 양식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이야기와 음악적 기반은 배뱅이굿이나 장대장타령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판소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그 내용은 장단과 사설, 창법과 음조 등에서 다른 음악양식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만들어낸 광대의 효시가 바로 최선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예운의 발견과 고증은 판소리사의 미흡한 부분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사실들을 제공해준다.

최예운의 뒤를 이어 권삼득이나 정춘풍 같은 비가비 광대가 출현했고, 이 사실은 판소리가 양반 실기인이 나올 정도로 매우 예술적으로 흡입력 있던 장르라는

22) 백대웅, 「18세기 음악사에 나타난 음악 양식의 변화」, 『한국학연구』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76쪽.

점을 알려준다. 판소리가 가진 상하층의 이념과 교직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나. 금강권 중고제 명문, 김창룡 일가

김창룡(1870-1943)은 김성옥-김정근-김창룡-김세준-김차돈으로 이어지는 판소리 명문가의 핵심적인 인물로 근대 5명창 중 한 사람이다. 서천에서 태어났지만 한동안 홍성 결성면에서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에는 김창룡 일가와 관련된 일화와 유적이 있다. 김창룡 제적부가 발견되어 공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관련 증인들이 기록되었다.²³⁾

황성창의 조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성면 용호리로 김창룡이 5형제 아들과 함께 이사해 온 것은 1913년 봄 나이 42세 때이다.²⁴⁾ 처음 이사해왔던 집은 용호리 덕우부락 백무현(白武鉉) 집 옆인데 10여 간의 초가집이었다. 그 후 3년 뒤에 2차로 이사해 간 곳이 용호리 조광성 집자리(용호리 624번지) 집이었다. 여기에서 김창룡 형제와 부인 그리고 아들 5형제 해서 8명이 동거했었다. 90세인 안상달(1906.11.3.) 노인이 82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안상달이 10세 때(1915년) 김창룡(44세)에 용호리 장터에서 연극무대를 만들고 노래하는 것을 구경하였다고 장면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다. 용호리에 사는 백무현 노인은 안상달 노인보다 4세가 적은데 그 나이 18세 때 1928년 군산을 갔었다가 군산 영정골목에서 김창룡(57세)을 뵈었는데 극장에 넣어주고 자주 오라해서 세 번이나 창룡의 노래를 들었다고 세세히 말을 전해주곤 한다. 백무현이 용호리 소전 마당 연극무대에서 김창룡을 마지막 본 해가 그의 나이 13세였다고 하니 김창룡이 결성땅을 떠난 것은 1921년 50세 였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증언은 여기 와서 제자를 삼았다는 최유선이 19세 때 홍성까지 이삿짐을 저다 주었다는 해가 1921년이다.²⁵⁾

김창룡은 1913년부터 1921년 사이에 홍성군 결성면 624번지에서 8년간 살았다.

23) 황성창(홍성군 사료조사위원), 「홍성의 중고제 명창 김창룡 가문에 대한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충남·대전지회, 『충남 역사·문화의 자료와 현장』, 한울앤앤씨, 2012, 381-401쪽.

24) 김창룡이 결성으로 이사한 것은 더 이른 시기인 듯하다. 1895년 부친 김정근이 용호리 624번지에서 사망한 제적부의 기록을 보면 김정근은 적어도 1895년 이전 결성면으로 본적을 올렸다. 김창룡의 사망기사에 '홍성출신'으로 기재되어 있고 14세에 상경한 것으로 나타난다.(매일신보 1943.2.25.) 따라서 김창룡은 서천에서 태어난 후 상경을 했다가 1913년부터 결성에서 8년을 보낸 것이며, 김정근은 이미 이전 시기에 결성에서 살았을 것으로 본다.

25) 결성농요보존회, 『결성농요』(결성농요특색과 최선달·김창룡 후예들), 1995. (제본책), 123-124쪽.

당시에 ‘여정놀이터’에는 각 지역에서 판소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놀기도 했고, 용호리 장터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했다고도 한다. 동네 부잣집의 공연을 나갈 때는 큰 아들 세준을 고수로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김창룡이 홍성지역에서 기른 제자들도 여럿²⁶⁾이다. 최봉이, 최화순, 김연식 등은 결성의 명창이자 광대였다. 1925년 이후로는 서울로 상경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볼 때 결성의 김창룡 주거지나 당시 용호리 장터 등에 대한 문화유적 지정이 필요하다.



<김창룡이 살던 용호리 집 뒤편 언덕 여정놀이터에서 바라본 장터가 열렸던 곳>

다. 조선을 흔들었던 연예기획자, 한성준

한성준은 현재에도 홍성을 대표하여 기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한성준의 춤과 관련한 내용만 부각되고 그가 명고수로 활약하던 사항은 연구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성준(1874-1941)은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7세 때 외조부 백운채로부터 춤과 북장단을 익히고 남다른 재

26) 황성창, 위의 책에 소개됨.

능을 보였다. 30대 중반 박순조에게 고법을 익히고 박기홍의 수행고수로 따라다니면서 서울 무대에 등장, 당대 최고의 명창들의 북장단을 도맡아 치면서 명고수의 반열에 올랐다. 명고수로 참봉 벼슬을 하사받은 그는 1934년 설립된 ‘조선성악연구회’의 일원으로 국악 대중화 운동을 펼쳤고, 이후 1938년에는 명고수의 길을 넘어서 근대 전통춤 교육의 산실인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해 전통춤을 창작하고 복원하는 동시에 후진을 양성하며 남은 여생을 바쳤다.²⁷⁾ 그는 홍성에서 자라던 시절 근처 안동 김씨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며, 그 집안의 잔치판에 자주 불려나갔다고 하는데, 훗날 그가 단아하고 품위있는 춤을 춘 것은 안동 김씨 가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의 생가는 갈산면에 있으며 말년에는 예산군 덕산면 북당리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는 생전에 갈산초등학교에 기부를 한 연고로 그의 묘소를 갈산초등학교 뒤편에 모셨는데, 후에 이애주 교수(전 서울대)가 갈산면 상촌리 서부면 구 도로 방향 야산으로 이장하였다. 현재 묘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²⁸⁾ 한성준의 고법과 장단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당대 한성준 관련 기초자료의 축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7) 흥주문화연구회·홍성군, 『중고제(내포제)와 한성준, 소리와 가락을 찾아서』, 제1회 중고제(내포제)전통문화육성사업결과보고서, 2016, 62-70쪽.(전상진, “한국 가·무·악 선구자, 한성준 선생의 예술혼”)

28) 전상진 선생님과의 인터뷰, 2017.09.25.



갈산초등학교 뒤편 이장 전 한성준 묘소 “고 청주한공성진지묘, 일명 성준”이라 쓰여있다

라. 충청도 동편제의 거장, 정춘풍과 유공렬

이 외에 홍성 지역과 연관된 큰 인물은 정춘풍과 유공렬이다. 정춘풍은 19세기 중반 활약한 비가비 광대로 동래 정씨 가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정춘풍은 박만순, 김세종, 이날치 등과 병세하며 일세를 울린 대가이며, ‘남에 고창 신재효요, 북에 정춘풍’이라는 말을 들었다.³⁰⁾ 그는 자가독공으로 대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조를 주장하여 불렀으므로 정노식은 그를 ‘동편’이라 하였다. 그의 창법은 박기홍, 조기홍, 유공렬에게 전수되었는데, 박기홍은 박만순 수하에 있다가 정춘풍 문하에서 대가를 완성하였고, 동편의 법통을 혼자 두 손바닥 위에 받들어 들고 끝판을 막다시피한 종장³¹⁾이었다. 박기홍이 송만갑의 소리를 듣고 “장타령 아니면 염불이다. 명문 후예로 전래 법통을 붕괴한 패려자손이다”라고 혹평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한 박기홍의 창법은 “처음에는 담담히 아무 흥미가 없는 태도로 하여 소

29) 최혜진, 『판소리 유파의 전승 연구』, 민속원, 2012, 41쪽.

30) 정병헌 교주, 『조선창극사』, 2015, 122-123쪽.

31) 정병헌 교주, 위의 책, 203쪽.

리가 싱거웁기 짝이 없다. 청중은 염증이 나서 하품과 졸음이 나올 지경이다. 그리하여 중판 째 이르더니, 소리는 점점 흥미있게 되어 간다. 난 데 없는 판청이 뛰어나오기 시작한다. 그 특색인 성조를 한 마디 뽑아 질러내니 완전히 벽공에서 떨어지듯 한다. 장내 공기는 변환하여 하품하고 졸던 간관들은 귀를 번쩍 들고 지수는 소리 좌우에서 쏟아져 나온다. 완급, 장단, 억양, 반복을 법도에 맞도록 창거창래할 제,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도한다. 그러하다가 소리는 다시 점점 담박무미하게 된다. 이러한 제작으로 조종하면서 달야토록 계속하였다” 라고 전해진다.³²⁾

정춘풍의 소리가 이전의 충청도 소리와 달라진 점은 ‘우조’를 주장한다는 것과 변화무쌍한 소리를 짜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춘풍의 소리와 이전의 소리가 달라진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청이나 담박무미한 창법 등은 기존의 중고제 창법이 기반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가신(歌神) 혹은 가선(歌仙)으로까지 평가받은 박기홍은 <적벽가> 중 ‘조조군사 사향가’를 더듬으로 남겼다. 나주 출신의 박기홍이 정춘풍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춘풍 시기에는 이미 충청을 넘어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춘풍-박기홍-조학진-박동진으로 이어 내려온 소리는 고제 동편제이면서 중고제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정춘풍에 대한 조사 발굴이 필요한 이유다.

정춘풍의 수제자로 극찬을 받던 유공렬은 홍성군 고도면 가곡리에 살다가 1928년 칠순이 되던 해 한성준의 권유로 상경하여 공연을 한다.³³⁾ 당시 신문에는 유공렬을 정춘풍제 명창으로 소개하면서 대단한 홍보를 했던 것으로 보아 정춘풍에 대한 향유층들의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춘풍, 유공렬이 같은 홍성의 인물이므로 이들에 대한 유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들은 초기 동편 소리를 개발하였는데, 충청도 소리 즉 중고제적 창법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지역적 기반을 경기, 충청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중고제 명창으로 아우르는 게 필요하며 관련 자료와 유적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서산

32) 정병헌 교수, 위의 책, 203-204쪽.

33) 노재명,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채륜, 2012, 335쪽.

가. 내포권 중고제 명문, 심정순 일가

중고제 판소리사에서 심정순 명창을 빼놓을 수 없다. 심정순(1873-1937)은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학돌재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심춘희이다. 심정순은 50대 후반 서울 송인동에 살다가 중풍에 걸려 서산읍으로 이사하여 말년을 보냈다. 심정순 가계는 충청남도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음악 가문이다. 심정순의 아버지 심팔록으로부터 심정순-심재덕·심매향·심상건·심화영으로 이어지는 중고제 명가문을 이루었다. 이 중 심화영에게 극히 일부분의 소리가 전승되고, 산조, 판소리, 병창은 온전한 전승을 이루지 못하였다. 현재는 심화영의 승무를 외손녀 이애리가 전수하고 있다.

심정순은 1910년 전후하여 상경한 후 장안사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판소리, 재담, 병창, 산조, 풍류에 두루 능했다. 송만갑이나 정정렬, 이동백 등 근대 5명창이 활약하기 10년쯤 앞선 시기에 이미 인기를 얻었다. 심정순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가야금 독주를 주로 하였으며 심상건은 가야금 병창과 산조, 심매향은 민요와 잡가를 주로 하였다.³⁴⁾ 심재덕의 동생인 심화영은 판소리 토막소리와 승무를 계승했다.

심정순의 판소리는 이해조에 의해 개작되어 <매일신보>에 1912년 3월 17일부터 심청가는 ‘강상련’으로, 그 해 4월 27일부터 흥보가는 ‘연의각’으로, 같은 해 6월 16일부터는 수궁가는 ‘토의간’으로 연재되었다.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심정순의 창본이 그대로 이용될 정도로 심정순의 판소리는 당대 가장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심정순 관련 유적지로 개발해야 할 곳은 그의 생가와 심재덕이 운영하던 낙원식당이다. ‘낙원식당’은 현재 서산시 동현로 120-1번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사유지로 되어 있다.³⁵⁾ 이 곳은 심정순, 심재덕, 심화영이 살면서 당시 명창들이 교류하고 풍류를 즐기던 장소이다. 이 자리에서 심정순은 환갑잔치도 하였다. 이 자리는 현재 사유지로 건물을 철거한 상태이다. 낙원식당이 판소리 문화공간으로서 활약했다는 점에서 판소리 유적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정순은 이동백, 김창룡, 한성준 등과 친분이 있어서 함께 공연을 자주

34)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家의 소리』, 2009, 58-59쪽.

35) 2017년 12월 이 낙원식당 자리는 모두 헐리고 집터만 남았다.

다녔다. 다음은 <매일신보>에 실린 공연홍보기사이다.

名唱의 同情音樂 音波에도 哀調가 넘쳐

하로밤받게 만나문 동정음악

이십팔일에는 더욱 재미있다.

◇哀訴 - 拍手의 第一夜

일찍이 도선에서 명창(名唱)으로 높은 임흥을 가지고 있는 리동빅(李東伯) 심정순(沈正淳) 김창룡(金昌龍) 삼씨를 뒤시하여 구차조합원일동은 이번 참담한 수해의 리재동포를 위하여 힘이 미치는대까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구제할 목덕으로 대정권번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재작이십칠일밤부터 이일간 예당으로 수해리재민구제 도선음악대회를 본사리청각(本社來靑閣)에서 개최하였는데 그들이 이번에 음악대회를 연 목덕이 아름다울뿐 안이라 위리전귀삼씨의 성악은 일밤니 한뜻기를 숙양하던 터임으로 가최의 찬동이 물미듯하얏섯는데 이제 이십팔일밤 하로저녁을 더흥흥할 터이라한즉 일반은 수해리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그 명창들 성악을 듣기위하여 다수히 입장관람하기를 바란다더라.³⁶⁾

심정순은 고수관, 방만춘, 김봉문 등과 함께 내포권의 중요 명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이전 시기 판소리 중고제의 대표적 명창이다. 심정순 관련 유적의 발굴과 보호가 이어져야 하고, 관련 판소리 문화가 복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6) <매일신보> 1925년 7월 29일 2면 기사.



낙원식당에서 열린 김정순의 환갑잔치

나. 판청 일수 고수관

고수관(1764-1843)은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출생으로 전기 8명창의 한 사람이다. 그는 만년에는 공주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공주 지역에서의 활동 상황은 알 수 없다. 염계달의 창법을 이어받아 경드름 추천목이 장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판청 일수’라는 별명처럼 변청과 엇청에도 능하였다. 그의 ‘자진사랑가’는 대표적인 더듬으로 남아있다.

<조선창극사>에 기술된 고수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수관은 순·현·철 삼대를 역과(歷過)한 인물이다. 충남 해미 출생으로, 충청도 공주에서 만년까지 거생(居生)하였다. 소장(所長)은 <춘향가>인데 염계달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 한다. 송모염의 증 후배이나, 또한 그들과 병견(並肩)하여 일세를 용동(聳動)한 대가였다. 성음이 극히 미려하여 판 목청을 자유자재로 발휘함은 타인의 만만(萬萬) 불급처(不及處)였다 한다. 문식이 꽤 있고 첩이(貼移)³⁷⁾한 재주가 있어 소리 좌석의 서화나 기타 광경을 적용하도록 의외에 임시로 만들어 불

37) 원래의 사실과 관련된 말을 덧붙임.

러서 간관(看官)을 경탄케 하는 일이 예사였으며, 당년에 대구감사 도입 초연석(初宴席)에 불려가서 소리를 하는데 <춘향가> 중 기생 점고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고전 중에 있는 기명(妓名)으로 호창(呼唱)하지 아니하고, 다수한 시재(時在) 기생의 이름의 의의(意義)를 시적(詩的)으로 만들어 불려서 좌석을 경탄케 하여 일시 회자하였었다 한다.

고수관은 자하 신위와 만년까지 교유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다듬어 나가고, 예술가로서 대접을 받았다. 권삼득((1771-1841)보다 조금 앞선 인물이기는 하나, 권삼득-염계달-고수관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소리는 즉흥성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산에는 고수관의 생가터와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고수관은 고북면 초록리의 꼬작집에서 꽃샘 물을 먹고 노래를 불러 피를 토하며 목소리가 트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꽃샘은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의 젓줄로 인식할 만큼 마을의 대표적인 샘물인데,³⁸⁾ 현재는 사유지가 되어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아쉽다.

다. 방만춘 일가와 김봉문

방만춘(1825-?)은 해미 출신으로 적벽가를 특장으로 하고 서울에서 명성을 드날렸다고 한다. 황해도 봉산의 절에서 득음하는 과정이 『조선창극사』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적벽가 중 화전을 더듬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는 아귀상성과 살세성으로 유명하였고, 황해도 봉산의 음률가와 <심청가> <적벽가>를 운색, 개작하였다고 한다. 방만춘의 손자로 알려진 방진관은 마지막 흥패고사³⁹⁾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유성기음반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물과 관련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나 해미의 명창 방봉관, 방만득, 방덕희 등에 대한 증언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⁴⁰⁾ 해미의 방씨 일가를 추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김봉문(1876-1930)은 서산 출생으로 박기홍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흥보가 중 ‘박물가’를 더듬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가 박기홍의 제자이므로 ‘동편’ 계열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심정순과 함께 공연을 다니는 것으로 보아 중고제와 연관이 깊고 충청도 판소리를 하는 명창이었다고 보인다.

38) 최혜진, 위의 책, 45쪽.

39) 흥패고사: 광대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집에 불려 가서 그 집안의 부귀를 하례하는 덕담을 외우는 것.

40) 노재명, 위의 책, 245-246면.

독자구락부

▲조선의 명창으로, 유명하던, 심정순(沈正淳) 김봉문(金奉文) 두 광대는 각지방으로, 도라단이며, 도처의 찬성을 받더니, 경성에 구연극이, 말못된다는 말을 듣고, 지석히 역여, 연극을 일층 기량하고, 불량한 광대의, 횡위를 단속하야, 구연극을 유지하기로 공론하고, 일전에 경성으로, 올라와서, 어제밤부터 장안사에서, 출연한다 훈족, 목덕은 대단히 묘타만은, 말디로, 시힘을 흘닌지 잘못하다가는 「번기눈이」⁴¹⁾

위의 기사를 보면 심정순과 김봉문은 함께 각처를 돌아다니며 인기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구연극으로 불리던 창극이 여러 불량한 풍토를 조성한다고 비판을 받아 연극을 개량하고 불량한 광대의 행위를 단속하기로 공론하고 장안사에서 공연한다는 내용이다. 김봉문은 박기홍의 제자이지만 심정순과 같은 서산 출신으로 친분이 있었을 것이고, 심정순 일행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중고제 판소리의 영향권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서천

가. 중고제의 가왕, 이동백

이동백(1866-1949)은 서천 출생이다. 이동백의 생가지는 ‘충남 서천군 중천면 도만리 대백제로 1265번길 99’이며 생가터를 알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희리산 중턱에 위치한 그의 생가지와 그가 득음을 했다는 용당굴 가는 길은 표지판과 소리길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동백은 생전부터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고, 각종 신문기사나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들, 유성기음반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히 남아있다. 그러나 생가터와 주거지 등이 일찍부터 발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적보호나 문화공원 조성 등의 노력은 매우 빈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가지 표석



명창 이동백

41) <매일신보> 1913년 10월 7일 3면.

이나 소릿길 안내문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서천에서는 이동백 선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7회(2019) 이루어졌고,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나. 중고제의 적통, 김정근/김창룡

금강권 중고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김성옥은 강경 일꽃리에서 살다가 여산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근(1825-1895)은 김성옥의 아들이자 김창룡의 부친으로 중고제 김성옥 가계를 이은 중요한 인물이다. 김정근은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거하여 거기서 1870년 김창룡을 낳았고, 아들 김창룡은 1913년 무렵 결성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였다. 김정근은 서천에서 살다 결성에 본적을 두고 1895년 3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⁴²⁾



명창 김창룡

김정근은 ‘무숙이타령’을 잘한 명창으로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고, ‘삼궁점’이라는 장단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백이나 김창룡, 황호통의 스승으로서 가문의 소리를 이었다. 김정근은 일찍이 결성으로 본적을 옮겨 결성에서 말년을 보냈고, 김창룡은 1913년 이후 8년 여간 결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따라서 서천군 성주3리 성주새길145번지 근처의 김창룡 생가터에는 그리 오래 살지 않은 듯하다. 현재 김창룡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자리만 있을 뿐이다.

4) 공주

가. 황호통

공주 사람으로 황호통이 유명하였다. 생몰연대는 미상이나 1850년 경 출생한

42) 김창룡의 제적등본 참조(황성창, 앞의 논문 390-400쪽.)

것으로 보인다. 박동진 명창의 증언에 의하면 황호통은 공주읍 소개면 사람으로서 김정근에게 소리를 배웠는데 호통치는 기세로 소리를 잘하여 황호통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주 감영 선화당에서 소리를 하면 30리 밖까지 들렸다고 하며 나무장사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⁴³⁾ 공주의 향토사학자 이결재 선생의 말에 따르면 황호통의 아들이 옛날 공주 갑부 김갑순의 행랑채에서 말년까지 의탁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김갑순이 그의 소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⁴⁴⁾

황호통에 대한 <조선창극사>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황호통은 충청도 공주 인으로 김정근에게 수학한 후, 정창업 등 선배와 교유하여 문견(聞見)을 확충하여 기예 완성에 이르러,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다. 고종 시대에 성망이 일세에 진동한 명창인데 목청이 양성이고 우렁차서 호통 기운이 많으므로, 호통의 별명을 얻어서 호통으로 행세하게 된 것이라 한다. 백점택, 이창운과 상허(相許)하여 교의(交誼)가 심후(甚厚)하였더라.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고, 그 특장처로는 <춘향가> 중 어사도가 암행하여 민정을 탐문하면서 남원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황호통은 연기의 백점택, 청주의 이창운과 매우 친하였다고 전하며, <춘향가>와 <심청가>를 잘하였고, <조선창극사>에 어사또가 남원 향하는 대목을 더듬으로 남길 만큼 기량이 뛰어났다. 박동진 역시 황호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황호통과 관련된 유적지가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⁵⁾

나. 황해천/김석창/박상도/이동백/김창룡/고수관

황해천은 <조선창극사>에는 출신 지역이 나오지 않지만 <탄세단가>에 충청도 사람으로 나오며, 박동진은 그가 공주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황해천의 스승은 하은담이라는 기록이 김연수의 <창본 춘향가>에 나온다고 하니 18세기 말~19세기 초의 명창이라고 하겠다. 그는 자웅성이 특장인데 신재효의 광대가에도 황해천은 ‘적막공산 밝은 달에 다정하게 응창자화 두우제월 맹동야’ 라고 묘사되어 다정하게 속삭이듯이 부르는 자웅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창극사』에 나오는 김석창과 박상도 명창도 공주 사람이다. 김석창은 금

43) 노재명, 앞의 책, 314쪽.

44) 2017.09.2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보존회 사무실에서 이결재 인터뷰.

45) 이결재 선생님은 당시 황호통의 주거지를 지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손녀가 살풀이 명인 김숙자이다. 김석창은 이동백, 김창룡과 동배였는데, 해미읍성에서 이동백과 소리를 할 때 김석창은 100냥, 이동백은 15냥을 받아 이동백이 자존심이 상해 그릇을 깨고 화를 내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석창은 아니리와 부침새로 고명하였다고 하니, 장단놀음과 재담에 재주가 있었다고 보인다. 김석창의 소리는 김덕순을 거쳐 김숙자, 이창배, 나성엽 등에게 이어졌다고 한다. 박상도는 고종시대의 인물인데 황호통과 동년배로 <적벽가>에 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동백과 김창룡도 공주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백은 서천 출생이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충북 진천에서 지내다가 공주에서 오래 살았으며, 자신을 공주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김창룡은 처가가 공주이고 역시 공주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걸재 선생은 황호통의 거주지는 물론 이동백과 김창룡이 공주에 머물던 장소도 기억하고 있다. 이 외에 고수관도 만년에 공주에서 거했다고 하니 공주는 당대의 명창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창룡은 “소리해서 돈이 되는 곳은 공주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한다.⁴⁶⁾

공주는 물산이 모이는 대도시이면서 상업적으로도 활발하여 연회패들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많은 명창들이 거쳐서 간 것으로 보인다. 공주 지역에서 터를 잡고 활약한 명창들이 많고 또 전근대시기까지도 사랑방에서 단가를 하는 것이 풍토였다⁴⁷⁾는 증언을 보면 공주가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중고제의 현대적 개척자, 박동진

박동진(1916-2003)은 생전에 자신의 소리가 중고제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현대에 가장 중고제다운 판소리를 이어갔던 명창이라 할 수 있다. 중고제 특유의 즉흥성과 불통일성, 평조 위주의 담담한 소리와 재담이 많은 아니리, 자가독공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정렬의 <춘향가>, 김창진의 <심청가>, 유성준의 <수궁가>, 박지홍의 <홍보가>, 조학진의 <적벽가>를 물려받았다. 이중 김창진과 조학진은 모두 중고제 소리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조학진은 정춘풍-박기홍으로 이어지는 <적벽가>를 불렀는데, <적벽가> 중 남병산 축문이 정춘풍

46) 2017.09.29. 이걸재 인터뷰.

47) 2017.09.29. 이걸재 인터뷰.

제라고 한다. 박동진은 전수관 앞마당에 김성옥, 이동백, 고수관, 정춘풍, 정정렬의 기념비를 세워 선배 명창들을 잇고자 하였다. 김성옥, 이동백, 고수관, 정춘풍 모두 충청의 명창들이었으며 정정렬 역시 계룡산 갑사에서 3년여간 수련을 하기도 하였다.

박동진은 현대 판소리사에서 매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현재 전수조교 김양숙, 강정자가 그 모든 소리를 다 전수받은 것은 아니다. 박동진은 <적벽가>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었지만 타계 후 아직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공주에서는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을 지원하고, 판소리학교,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를 운영한다. 개인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판소리전수관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박동진 명창의 여러 업적과 유물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물전시관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판소리 문화유적지의 선도모델로 적합하다.

이 전수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시민강좌가 이루어지고, 환경도 매우 좋기 때문에 박동진 판소리를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에 보관 중인 작품들이 전시만 될 것이 아니라 작품집을 만들어 후속 연구를 추동하고,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논산

가. 금강권 중고제의 시조, 김성옥

김성옥(1801-1834)은 논산 강경 일곳리에서 태어나고 여산에서 33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김성옥의 처남은 판소리의 중시조 송홍록이다. 옹포에 살던 송홍록과 교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곡을 연구하다가 진양조를 개발하였다는 일화로 보아, 당시 판소리는 가곡이나 가사, 시조의 영향 하에서 정가풍의 곡조⁴⁸⁾로 불리어졌고 이러한 단계를 중고제로 볼 수 있는 중고제 효시의 역할을 하였다. 중고제는 염계달-고수관-한송학 등이 경토리를 기반으로 한 창법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중고제는 경기, 충남북부 지역(내포권)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김성옥은 금강권을 중심으로 양반적인 미학이 가미되고 점잖은 독서풍의 중고제를 개발하였을 것이다. 이 두 계보가 중고제의 양대산맥으로서 전승

48) 정가풍의 곡조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정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되었고, 특히 김성옥은 김정근-김창룡-김세진-김차돈으로 이어지는 중고제 명가문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 진양조를 개발, 완성시킴으로써 판소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여기서 창시된 진양조는 송홍록이 호남으로 이주하면서 육자배기토리와 결합하여 정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풍부한 현재의 판소리 모습을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현재 김성옥의 생가는 강경의 향토사학자들의 고증 결과 옥녀봉 근처 해조문 아래 터였던 것으로 비정되었다.⁴⁹⁾ 그 자리는 옥녀봉에서 강경포구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예전에 강경포구 근처 광대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한다. 김성옥의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중고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6)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유적 발굴과 과제

현재 충남지역 판소리 유적과 관련한 발굴 작업은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수관 생가터와 공원 조성, 이동백 생가지 표석,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등이 판소리 문화유적으로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충청지역(특히 충남권)이 판소리의 역사를 태동하게 한 발생지역이며, 판소리 명창이 다수 배출된 곳이라는 점, 근현대시기 이전에 중고제 판소리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판소리 유적 발굴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결성의 최선달이 판소리의 비조 최예운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판소리 문화의 주요 유적지로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적으로는 홍성, 서산, 서천, 공주, 논산이 중고제의 핵심라인을 이루는 곳이다. 홍성, 서산은 내포권 판소리로 고제의 원형을 간직한다고 볼 수 있고, 논산, 서천, 공주는 중고제 판소리의 음성과 유통을 가능케 한 금강권 판소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금강권의 판소리 향유는 전북지역으로의 판소리 저변을 넓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송홍록 등이 중고제의 영향 하에서 새로운 판소리 기법을 창안하고 동편제로 뻗어나게 한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약 35명의 중고제 명창들과 연관된 유적, 유물, 가계 등을 조

49) 2017년 6월 22일 강경역사문화원 김무길 선생님의 해설로 옥녀봉 일대 답사를 했다. 70년대 초까지 강경포구가 있었다고 하며, 87년 이후 근처의 집을 철거하면서 생가터 가옥이 철거되었다고 한다.

사하여 기초연구를 이루어놓을 필요가 절실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정보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2. 중고제 관련 자료

1)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리스트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조선일보	1921.11.08	기사	투서함	박팔괘
조선일보	1924.12.18	(뉴스)	驚異의눈! 驚異의귀!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25.04.29.	기사 (뉴스)	開城에 朝鮮音樂大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25.05.07	기사 (뉴스)	東西音樂盛況	이동백
조선일보	1926.11.09	기사 (뉴스)	명창은 늙는다	심상건, 김창룡, 한성준
조선일보	1926.11.09	기사 (뉴스)	명창총출 특별연주회	심상건, 한성준, 김녹주, 김창룡, 송만갑, 김창환
조선일보	1926.11.10	기사 (뉴스)	한곳에 모인 명창	심상건, 한성준, 박녹주, 김창룡, 송만갑, 김창환
조선일보	1926.11.10	기사 (뉴스)	라디오 십일일의 방송	김창룡, 한성준
조선일보	1926.12.09	기사 (뉴스)	라디오 구일의 방송	심상건, 한성준
동아일보	1926.12.16	기사 (뉴스)	라디오방송	심상건, 김창환 등
조선일보	1927.02.12	기사 (뉴스)	조선가무대회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27.03.05	기사 (뉴스)	라디오방송	김창룡
조선일보	1927.05.28	기사 (뉴스)	명이팔일로 임박한 조선정악대회	심상건 지용구 등
조선일보	1927.06.09	기사 (뉴스)	우미관연예회 무료공개	김창룡, 이화중선 등
조선일보	1927.06.10	기사 (뉴스)	일류명창출연 우미관 공개 오늘밤부터	김창룡
동아일보	1927.10.30	기사 (뉴스)	충주지국 본보독자위안 가극회개최	박팔괘
동아일보	1927.12.21	기사 (뉴스)	대구김천방문 조선정악대회	심상건, 이동백
조선일보	1927.12.21	기사 (뉴스)	경성여자미술 조선정악대회	심상건, 이동백
동아일보	1928.01.27	기사 (뉴스)	근우회 주최로 자선음악대회	심상건
동아일보	1928.02.12	기사 (뉴스)	숨엇든 명창유공렬 악단에 재현	정춘풍 유공렬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조선일보	1928.02.15	기사 (뉴스)	명창 유공렬노인 서울에 왔다	정춘풍 유공렬
조선일보	1928.02.19	기사 (뉴스)	국제음악을 가미한 조선음악협회공연	심상건, 이동백
동아일보	1928.02.20	기사 (뉴스)	조선음악공연 데일회로 개최	심상건, 이동백
조선일보	1928.03.04	기사 (뉴스)	성황이 기대되는 조여원 건축 기성음악	심상건, 유공렬
조선일보	1928.03.05	기사 (뉴스)	정춘풍류 유씨독창	심상건, 유공렬
동아일보	1928.03.07	기사 (뉴스)	명창 유공렬독창회	심상건, 유공렬
조선일보	1928.03.09	기사 (뉴스)	금구일 유명창독창회	심상건
조선일보	1928.03.27	기사 (뉴스)	慶州에서 朝鮮音律大會 廿八日부터	이동백 심상건
동아일보	1928.09.16	기사 (뉴스)	조선주보주최 동서음악대회	심상건, 이동백, 김상순 등
조선일보	1928.11.19	기사 (뉴스)	忘却된 朝鮮의 歌曲과 意義 김흔名唱演奏	심상건 박종기 김종기이중선
조선일보	1928.11.21	기사 (뉴스)	남녀일류명창망라 전개될 조선악의 비경	심상건, 안기옥, 박종기
조선일보	1928.12.07	기사 (뉴스)	라디오 칠일 방송	심상건
조선일보	1930.09.02	기사 (뉴스)	전조선명창대회	심상건 등
조선일보	1930.09.15	기사 (뉴스)	초추양야에 필도명창대회	이동백, 김창룡 등
동아일보	1930.09.27	기사 (뉴스)	남녀명창망라 음률협회창립	김창룡, 한성준 등
동아일보	1930.10.19	기사 (뉴스)	본보독자위안	이동백 박팔괘
동아일보	1930.11.19	기사 (뉴스)	음률협회 제일성 십구,이십양일	조학진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1.03.29.	기사 (뉴스)	조선음률협회 제이회공연 삼십, 삼십일양일 단성사에서	심상건,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1.03.30	기사 (뉴스)	조선음률협회 공연제이일 삼십일일칠시반	심상건,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1.05.13	기사 (뉴스)	구극계패장 호성극단공연	김창룡,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1.05.01	기사 (뉴스)	관성지국주최 조선명창대회	김창룡, 한성준 등
동아일보	1932.04.12	기사 (뉴스)	궁민구제코저 연주회를 개최	김창룡
조선일보	1933.06.07	기사 (뉴스)	라디오	심상건 정원섭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조선일보	1933.06.27	기사 (뉴스)	궁중서 뜻든 아악을 공개	이동백, 심상건
동아일보	1933.08.08	기사 (뉴스)	전통음악과 무용의 밤 천도교기념관12일야개최	이동백, 조학진, 심상건 등
조선일보	1933.8.30	사진	가야금의 심상건씨	심상건
조선일보	1933.12.15	기사 (칼럼/논단)	조선가요개설 시사 시조론	정춘풍
조선일보	1934.05.13	기사 (뉴스)	조선음악연구회 명창들이 발기조직	이동백, 김창룡
조선일보	1935.01.01	기사 (뉴스)	레코-드화 된 춘향전	김창룡 한성준
조선일보	1935.03.07	기사 (뉴스)	라디오	박팔괘 한성준
조선일보	1935.03.08	기사 (뉴스)	라디오	박팔괘 한성준
동아일보	1935.07.27	기사 (뉴스)	납량음악 진남포지국에서	심상건
조선일보	1935.11.25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초동명창대회	이동백, 김창룡
조선일보	1935.11.26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명창대회개최	이동백, 김창룡
조선일보	1936.01.01	사진	寫眞은 右로부터 申不出, 李東伯, 韓成俊, 蔡極文.	이동백, 한성준
조선일보	1936.01.01	기사 (좌담/대담)	도라뭇오는 榮譽 御前演奏의 그넷날	이동백, 한성준
조선일보	1936.01.24	기사 (뉴스)	奎二幕八場 春香傳 崔獨鵬 脚色 李東伯 助唱 東洋劇場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6.02.08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서 배비장전가극화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6.04.20	기사 (뉴스)	조선물산장려 춘기선전강연	이동백, 심상건
조선일보	1936.5.13	기사 (뉴스)	라디오	박팔괘
조선일보	1936.06.11	기사 (뉴스)	유충렬전 부민관에서 상영중	심상건,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07.03	기사 (뉴스)	조선성악의 개선된 간부	심상건, 정정렬, 오테석 등
조선일보	1936.08.27	기사 (뉴스)	남녀명창의 출연 수해구제구악대회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08.28	기사 (뉴스)	수해 구제 자선 천악대회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09.12	기사 (뉴스)	가극 춘향전 공연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09.15	기사 (뉴스)	"이런 畵는 생전처음"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6.09.15	기사	絢爛! 淸秋의 藝園 開陳할	이동백 등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뉴스)	舊樂의豪華版	
조선일보	1936.10.08	기사 (칼럼/논단)	고전가곡의 재출발 창극춘향전 총평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10.08	사진	사진은 성연의 원로들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6.12.09	기사 (뉴스)	구악계에 또 희소식 가극 심청전 공연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7.01.03	기사 (좌담/대담)	病床의自嘆으로 진양조의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7.01.06	기사 (뉴스)	축복바든 무용조선 세계수준에 육박	조택원 심상건
조선일보	1937.01.03.	기사 (좌담/대담)	名唱에게 듣는往事	이동백, 김창룡, 송만갑, 정정렬
조선일보	1937.01.03.	기사 (좌담/대담)	병상의 자탄으로 진양조의 편곡	김창룡
조선일보	1937.01.03	사진	김창룡	김창룡
조선일보	1937.02.18	기사 (뉴스)	성악연구회십사회공연 가극숙영낭자전상연	김창룡,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7.03.05	기사 (뉴스)	사람은 늙으면 그만 演劇도 젊을때할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7.05.23	기사 (뉴스)	조선성연정총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7.06.10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가극 편시춘 공연	김창룡,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7.06.10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제16회공연 6월21일부터 동양극장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7.12.10	기사 (뉴스)	광양유원신축기념 음악대회 개최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1.09.	기사 (뉴스)	素人名唱金錫九氏 新春獨唱大會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1.11	기사 (뉴스)	唱劇調의革新위해 奮然挺身한新進名唱	김창룡, 한성준 정춘풍 등
조선일보	1938.01.12	기사 (뉴스)	구악계의 혜성 신진명창 김석구독창회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1.19	기사 (뉴스)	역사가의 협찬을 받아 고상한 가사를 창작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4.01	기사 (뉴스)	라디오	심상건 한성준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조선일보	1939.10.19	기사 (뉴스)	라디오	심상건 정원섭
조선일보	1938.02.28	기사 (뉴스)	朝鮮聲樂會總動員 토끼타령上演	이동백 등
동아일보	1938.03.13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창극 토끼타령 상연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15	기사 (뉴스)	조선향토예술대회 개방되는 예술의 전당	김창룡, 임방울 등
조선일보	1938.04.21.	기사 (뉴스)	조선특산전람회 본사주최 기념향토연예대회 연예조선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2.	기사 (기획/연재)	판소리대회 조선특산품전람회기념회 전조선향토연예대회총관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5.	사진	寫眞上으로부터李東白,宋萬甲,韓成 俊,金昌龍,林芳	김창룡, 한성준
조선일보	1938.04.25	기사 (사고)	朝鮮特產品展覽會紀念 全朝鮮郷土演藝大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8.04.25	기사 (사고)	郷土演藝入場券 本社庶務部에서豫賣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8.04.27	기사 (사고)	찬연한 고전의 향연 춘향전전창의 밤 개최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8	기사 (뉴스)	全朝鮮郷土演藝大會 판소리大 第二夜 "沈淸傳"全唱의밤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9.	사진	本社主催 特産展 第四日 朝鮮獨特的"땅재조"人氣의大旋風!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9.	사진	수천관중 무아경	김창룡,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8.04.29.	기사 (뉴스)	향토예술의 대집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4.29.	사진	사진설명	이동백, 송만갑, 김창룡, 정 정렬,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8.05.14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오년주기념 춘향 심청 흥부전공연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8.05.25	기사 (뉴스)	朝鮮聲樂研究會의 定期總會經過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8.05.26	기사	성악연구회 신역원 개선	이동백, 김창룡 등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뉴스)		
조선일보	1938.08.04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의 장거 고전문학 옹고집창극화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8.08.08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서 창극 옹집 상연 8월8일부터 동양극장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1.08	기사 (칼럼/논단)	近代朝鮮의名唱 故 宋萬甲一代記	송만갑 등
동아일보	1939.01.27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 춘향전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1.27	기사 (사고)	창극 춘향전 대공연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1.29	기사 (뉴스)	조선성악연구회서 호화 춘향전 상연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1.31	기사 (사고)	창극 춘향전 대공연	김창룡 등
동아일보	1939.03.02	기사 (뉴스)	명창대회공연 청안지국주최	이동백,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39.03.15	기사 (뉴스)	一代名唱李東白 隱退記念公演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1	기사 (기획/연재)	隱退公演아페두고 돌아보는七十平生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3	기사 (기획/연재)	李東白 一代記 ㉔ 名唱되기도아쉬운일	이동백
조선일보	1939.03.24	기사 (기획/연재)	李東白 一代記 ㉕ 出世첫舞臺는晉州官家 百年佳約도여기서매졌다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5	기사 (사고)	一代名唱 李東白隱退記念演奏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8.	기사 (기획/연재)	李東白 一代記 ㉖ 십장가서러운대목에 상궁나인도느껴올어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8	기사 (뉴스)	李東伯隱退公演 曲目解説 (上)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9	기사 (뉴스)	李東伯隱退公演 曲目解説 (下)	이동백 등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조선일보	1939.03.29	기사 (기획/연재)	李東白 一代記 ⑤ 七月誕辰의 御前演奏로 通政벼슬에옥관자부처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9	기사 (사고)	李東白一代記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29	기타	李東白朝鮮日報社事業部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30	기사 (기획/연재)	李東白 一代記 ⑥ 僻除聲치지안허도 威風이 四面에떨쳐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3.30.	기사 (뉴스)	李東伯隱退의 記念大演奏會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5.12	기사 (뉴스)	조선소리 경창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9.05.21.	기사 (뉴스)	名唱李東白翁隱退記念巡廻 各地方의要請으로 老軀를끌고"前線"에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5.23	기사 (뉴스)	朝鮮聲樂硏究會 新陣容	김창룡, 한성준 등
조선일보	1939.05.27	기사 (뉴스)	민속예술의 정화 조선소리 피로쓴 중흥사	김창룡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5.28	기사 (뉴스)	廿九日開城座에서 李東白記念出演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6.28	기사 (사고)	名唱李果白翁隱退記念 公演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06.30	기사 (뉴스)	仁川서도大盛況 李東白翁隱退公演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39.10.26	기사	팔도속담 스크랩	고수관
조선일보	1939.07.07	기사 (뉴스)	朝鮮소리來歷記 名人名唱이간곳은어디【下(하)】	김창룡, 황호통
조선일보	1940.03.10	기사 (뉴스)	한해구제명창대회 남녀명창총출연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40.03.19	기사 (뉴스)	연아의 초만원	김창룡 등
조선일보	1940.03.29	기사 (뉴스)	독자위안명창대회	김창룡 등
동아일보	1940.03.31	기사 (뉴스)	독자위안명창대회	김창룡 등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동아일보	1940.06.19	기사 (뉴스)	향토음악의 정수 모은 의의 기쁜 조선음악전	심상건, 한성준 등
동아일보	1940.06.19	기사 (뉴스)	조선음악의 정수	심상건, 한성준 등
동아일보	1940.06.26	기사 (뉴스)	반도악극좌 공연	김창룡 등
경향신문	1947.02.13	기사 (뉴스)	창극의 회고	김창룡 등
경향신문	1947.10.11	기사 (뉴스)	조미문화교류 조택원씨 11일 도미	심상건, 조택원
조선일보	1948.02.07	기사 (뉴스)	가야금 명수 구미에 순례	심상건, 조택원
조선일보	1949.06.09	기사 (사망)	李東伯翁永眠	이동백
조선일보	1949.06.15	기사 (칼럼/논단)	悼 李東伯氏 (上)	이동백
조선일보	1949.06.16	기사 (칼럼/논단)	悼 李東伯氏 (下)	이동백
동아일보	1955.01.04	기사	방송 푸로	심상건
경향신문	1955.07.29	기사 (칼럼/논단)	새로운 창극의 창조	정춘풍
동아일보	1962.04.02	기사	판소리 박녹주 가야금 심상건	심상건
동아일보	1962.04.05	기사	화창한 봄철맞아 민족의 향연 국악의 중진 총망라명창 명인대회	심상건 등
동아일보	1962.04.12	기사	당대의 소리를 총동원한 잔치 절창의 가락은 낭랑히	심상건 등
동아일보	1963.05.22	기사	명창명인의 세계 고행에 압세증 나기도	심상건 김연수 김재선 김광식 박녹주 박초월 성금련
동아일보	1963.05.24	기사 (발표명단)	판소리名唱系譜	정춘풍 한송학 김정근
동아일보	1964.06.01	기사 (칼럼/논단)	名唱回想 第3回名唱·名人大會를 맞아	이동백 등
경향신문	1968.10.26	사진	명창 李東伯 은퇴기념공연(1939,3)가운데흰두루 마기입은 노인이 李東伯명창	이동백 등
경향신문	1968.10.26	기사 (기획/연재)	新劇六十年의 証言 (8)창극운동	이동백 등
동아일보	1971.07.02	기사 (칼럼/논단)	판소리의 藝術性保存을	이동백 등

언론사	일시	형태	제목	주요 키워드
동아일보	1971.11.22	기사 (기획/연재)	박헌봉씨 문화재관리국에 국악녹음테이프 기증	심상건, 박종기 등
동아일보	1973.02.13	기사 (기획/연재)	演藝手帖 半世紀 歌謠界 (7) 留聲機의 등장	이동백 등
경향신문	1973.11.13	사진	조택원, 심상건, 심태진, 김옥진	심상건, 심태진
조선일보	1973.12.11.	기사 (기획/연재)	朝鮮日報綴을 통해 본 民族의 파노라마 現代史의 瞬間 92 74歲의 紅顏...全國 누빈 人氣절정 名唱 李東伯의 隱退공연	이동백 등
경향신문	1974.4.29	기사 (기획/연재)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심상건
경향신문	1986.05.29	사진	일세를 풍미한 판소리의 명창宋萬甲과 李東伯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87.05.27	기사 (뉴스)	朴綠珠, 李東伯, 宋萬甲	이동백 등
한겨레	1991.06.05	기사 (뉴스)	전설적인 명창소리 CD로 듣는다 신나라레코드사 판소리 5명창 CD출반	이동백 등
한겨레	1994.03.09	기사 (뉴스)	지역 판소리 맥 잇기 충청의 소리'중고제' 되찾자	고수관 한송학 김석창 황호통
경향신문	1995.11.25	기사 (뉴스)	명창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동백 등
조선일보	1999.09.08	기사 (뉴스)	名唱 이동백선생 조형물 세워	이동백 등

2)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내용

가) 음악기사 내용 리스트

1. 투셔함 조선일보 1921.07.08
2. 名唱은 늙는다 그들의 예술을 다시들을 기회가 업슬것이 아니냐
特別演奏會와 讀者優待 조선일보 1926.11.09.
3. 朝鮮名唱을모은 難再의 大演奏 이미 발표한 일곱 사람외에 녀류명창의
강소춘도 참가

- 本社讀者半額優待 조선일보 1926.11.10.
4. 朝鮮歌舞大會 조선일보 1927.02.12.
5. 忠州支局 本報讀者慰安 歌劇會開催 조선일보 1927.10.30.
6. 大邱金泉訪問 朝鮮正樂大會 동아일보 1927.12.21
7. 鄭春風流 劉氏獨唱 오는 구일에 朝鮮女子學院爲하야 조선일보1928.03.05.
8. 今九日 劉名唱獨唱會 女子學院을 爲하야 조선일보 1928.03.09.
9. 舊劇名唱大會 全州劇場에서 조선일보 1928.10.15.
10. 忘却된 朝鮮의 歌曲과 意義 김흔 名唱演奏 조선일보 1928.11.19.
11. 男女名唱網羅 音律協會創立 동아일보 1930.09.27.
12. 本報讀者慰安 동아일보 1930.10.19.
13. 音律協會 第一聲 十九, 廿兩日 동아일보 1930.11.19.
14. 替劇界霸將 虎聲劇團公演 조선일보 1931.05.13.
15. 기다리고 기다리든 녀류 명창의 공연 단하로 받게 아니남은 내일밤
공회당에서 매일신문
1931.09.28.
16. 音律協會 第三會 公演 二十二日 午後八時 市內公會堂에서 조선일보
1932.06.22.
17. 朝鮮聲樂研究會 新陣容 조선일보
1932.04.13.
18. 朝鮮樂協會에서 東西音樂會 開催 이십삼, 이십사일 공회당에서 조선일보
1933.01.15.
19. 大田에 열린 朝鮮名唱大會 매일신문 1933.02.16.
20. 朝鮮音樂研究會 名唱들이 發起組織 朝鮮樂界의 喜報
조선일보 1934.05.13.
21. 納涼音樂 鎮南浦支局에서 동아일보 1935.07.27.
22. 朝鮮韓樂研究會 名唱大會開催 조선일보 1935.11.26.

23. 도라묵오는榮譽 御前演奏의 그 넷날 조선일보 1936.01.01.
24. 名唱(명창)에게 듣는 往事(왕사) 조선일보 1937.01.03.
25. 寫眞은 右로부터
申不出(신불출),李東伯(이동백),韓成俊(한성준),蔡極文(채극문),...
조선일보 1936.01.01.
26. 鼓手五十年韓成俊氏 조선일보 1937.03.27.
27. 그들의 懷古談① 通政大夫下賜 조선일의 명창 五十年 精進의 가지가지
朝鮮聲樂會 이동백 매일신문 1937.04.29.
28. 그들의 懷古談② 三代를 繼續하여 노래길에 精進 圓覺社舞臺에서 活躍
朝鮮聲樂會 金昌龍 매일신문 1937.05.04.
29. 朝鮮聲樂研究會의 新作 唱劇 片時春 二十三日부터 東劇社 公演
매일신문 1937.06.11.
30. 春香傳全篇 레코드化 동아일보 1937.06.11.
31. 全朝鮮演芸大會 판소리大會 第二夜 “深靑甌” 傳唱의 밤
조선일보 1938.04.08.
32. 朝鮮鄭土藝術大會 開放되는 藝術의 殿堂 조선일보 1938.04.15.
33. 朝鮮特產品展覽會 本社主催 記念郷土 藝大會 演藝朝鮮 萬華鏡
豪華 種目總登場!
조선일보 1938.04.21.
34. 朝鮮特產品展覽會紀念 全朝鮮郷土演藝大會 조선일보 1938.04.22.
35. 本社主催 特産展 第四日 朝鮮獨特의 “땅재조” 人氣의 大旋風!
조선일보 1938.04.29.
36. 數千觀衆無我境! 조선일보 1938.04.29.
37. 寫實說明 조선일보 1938.04.29
38. 近代朝鮮의 名唱 故 宋萬甲一代記 조선일보 1939.01.08.

39. 朝鮮소리來歷記 名人 名唱이 간곳은 어디 [下] 남은이는 李束伯.金昌龍
雨氏뿐

朝鮮音樂舞踊研究會 沈載德氏談 조선일보 1939.07.07.

40. 藝術賞 受賞者 韓成俊氏 祝賀會 孫女 英淑嬢 後援會

매일신문 1941.04.13.

41. 唱劇界 元老 金昌龍氏 朝鮮唱劇

매일신문 1943.02.25.

나) 일제강점기 충청권 음악관련 기사 내용

1. 투서함

| 조선일보 1921.07.08

이사회가장차못되랴고 그림인지잘되랴고그림인지는모르되 참벌 괴과망측한일도
잇셔요 요사이평양의쇼위화류계리하느곳은 년래의금전공황과 당디의일반사회가
전일보다 만히 각성하엿슴을따라 그화류계의주인이되는기생(妓生(기생))들의영업
시세가 전보다말이못되여가며 그러케만튼부랑자들도 지금에는한삶도문전에열신
하지안이하야 그네들은 전일무한히시세가쫓튼때를꿈속갓치사모하며 요사이는일
푼전에도곤란하야한참때의흔하엿든 금빈여금반지는 던당궁의 던당품으로드러가
고 고량진미가 오히려임예맛지안는다하야 텃도(天桃(천도))를상하며 향기로운권
연들마다하야 뚜 ㄹ 대를 빠 ㄹ 고누어잇섯다 △십년가는세도가업는세음으로인제
는 일 삼식에도 동한괴색이가득하야 참으로그들의곤궁한경상은불상하게되엇다
그러나 동정할수는업는모양이다 요사이그들이호강은고사하고 엇더케하엿스면
이궁한경사이나면할가하야 밤낮으로그계책을연구하기에 되를써 ㄱ이며 한번부호
의자식 거닐여들기만 하면 온갓슈단을다부리여 궁한경상을면하느동시에 그를괴
여코 ㄱ경버선을생기고야말니라실심하고 별방침을다시사용하야보는중이엿다△요
사이는 평양중밤월선이라하는 십칠세된계집도 우와갓흔경우불면치못하야심히곤
란경에잇슴으로 전괴와갓흔방침을생각하는중에 한피들어더가지고 지금으러브터
한두어달전에 전라도잇는 가야금잘하는광대 박팔괘 (朴八卦(박팔괘))를고빙하야
자괴의집에서 항상머불게하며 가야금을배인다하고 저와갓흔기생 이삼인이 매일
모히여 징땡하고 강습하는중이다△그리고 일방으로는 잇더한사람을물론하고 강
습환영이라는쇼문을노아 흑연극장에서나 기타잇던곳에서영창광내의 류창한음조
도 가야금을병주하는노래를듯고 우리나라고대예술에 무한히현모함을크게늦기여
괴회만잇스면 나도 한번배호리라하는 허기가 득한 청년들이 이쇼문을어듯고 인
제야뜨스을달하괴회가이러랴다하야 그장쇼의여하함은 도시생각지도 못하고 다
만가야금만 배흠양으로 만흔청년들이 방월선의집을 들고나고하야요사이월선의
거주하는 관역골은가야금배호려단이는 청년들의발자취가끈일때가업는모양이다

△방월선이는 오죽이것을기회라하여 그중에서좀인물도깨끗하고 재산도넉한청년은 자기의살을베혀먹을 듯이 다정히하여 다른사람이한번오면 그는 세 번네번오게하여 아쥬저의 통락안에집어넣는모양이라 그런중 그청년들사이에는 심지어 그리스도교안에서 오날까지에자라나 극히암전하든 청년까지걸녀들었다는대 이쇼문이 사람의입을건너 평양일반 광포되지 그곳에단이는청년들의부모들은몰로니오교회측에서도심히염려하여 엇던방책을강구하는중입니다(평양시찰원)

2. 名唱은 늙는다 그들의 예술을 다시들을 기회가 업슬것이 아니냐 特別演奏會와 讀者優待 | 조선일보 1926. 11. 9

조선사람의 것은 모든 것이 쇠퇴하여 간다. 음악과 가곡인들 그 운수를 버서날 길이 잇스 라. 넷날의 명창들은 한사람 두사람 늙어가고 새로이 나타나지는 못하게 된다. 만인의 역 개춤을 자아내는 가객이 지금 몇사람이나 잇슬것이나? 마춤 일동축음기 주식회사 조선 총 대리점(日東蓄音器株式會社 朝鮮 總代理店)인 조선축음기상회는 그 슬어져가는 명창들 의 예술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 종래의 명창으로 명평잇는 가객

송만갑, 김창환, 김해 김록주, 박록주, 심상건, 한성준, 이화중선 등 십여명을 경성에 모 아노코 레코드에 집어넣는중인바 이거회를 리용하여 명창 총출의 연주회를 열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잇는 일이 될 곳이라하여 오는 십일밤에 조선 극장에서 특별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본사에서 이를 후원하는 동시에 본보에 독자를 위하여 좌기와 가티 할인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조선 명창의 소리를 하는 밤에다 들을 수 잇는 됴므로나 늙어져가 는 명창의 소리를 앗가운 생각으로 들어보는 됴므로나 다시 엇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가 될줄로 믿습니다.

보통 입장료		본보 독자
일등 이원	=====	일원 오십전
이등 일원반	=====	일원
삼등 일원	=====	칠십전

그리고 본보 독자를 위하여서는 구일신문란에외에 독자증을 인쇄 하겠습니니다.

3. 朝鮮名唱을모은 難再의 大演奏 이미 발표한 일곱 사람외에 녀류명창의 강소춘도 참가

本社讀者半額優待 | 조선일보 1926, 11, 10

일동축음기주식회사(日東蓄音器株式會社)에서 레코드에 바키위하여 각디에 허터

저있던 일류 명창들이모여든 교회에 동회사의 총 대리덤인 조선축음기상회(朝鮮蓄音器商會) 주최와 본사 후원으로 명창 총출동의 특별연주회를 개최한다함은 기보와 갖거니와 장일에는 작일 본지 발에 표하였던

송만갑, 김창환, 김창룡, 김록주(김해), 박록주, 심상건, 한성준

일곱사람이외에 대구의 녀류명창 강소춘(姜笑春)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강소춘은 일부 에서 조선배편이후 녀창으로든 데일이라고까지 칭찬하는 사람이며 제비표레코드에 들었는 [달거리] 가튼것도 널리 선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절작의 걸작으로 치는 명평이 잇는 가수인즉 십일밤 연주회의 성황은 미리 추측할수가 잇슬 것이다.

독자반액입장

할인권은 란외에 별항과 가티 명창을 망라하여 특별연주하는 동시에 본보 독자들을 우 대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좌기와 가티 개당하고 본보 독자에게는 특별히 반액으로 하였사 오니본지란외 잇는 할인권을 리용하여주시옵

보통요금 상층, 이원 본지 독자 일원

하층, 일원 반원

4. 朝鮮歌舞大會

| 조선일보 1927.02.12.

朝鮮歌舞大會(조선가무대회) □□男女名唱總出(남녀명 창총출) 래십사일부 터우미관에서

◇=本紙讀者優待(본지독자우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잇스나이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면되어 버린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것 도업지마는 그중에도 더욱히 가무(歌舞(가무))가 튼 것은 남의 그것에 비하여 월 수히 예술덕가치가 잇스나 재래 습관으로 이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종 비천배도 돌리혀 오늘날에 잇서서는 서양소리를 하는 사람은 음악가(音樂家(음악가))라는 끔찍한 이름알에서 신사대우를 받으며 조선 소리를 하는 사람은 광대라는 이름으로 천대를 하는 불합리한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계에 명성이 높흐든 명기명창들은 퇴패하여가는 조선재래의 가(歌(가))와극(劇(극))을 부활시키며 그의 참된 가치를 발휘하고자 조선구가무흥행부 朝鮮舊歌舞興行部(조선 구가무흥행부) 주최도 조선명창대회(名唱大會(명창대회))를 오는 십 사일부터 일주일간 계속으로 시내관렬 동(貫鐵洞(관철동)) 우미관(優美館(우미관))에서 개 최하고 각종가무와 기예를 흥행하기로 하였다는 바출장배우는 알에 와갓고 입장료는 이원 일원이며 데사일부터는 특히 본보 독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반액 을 할인할 터 이더라

◇出演(출연)할名唱(명창)

李東伯(이동백) 宋萬甲(송만갑) 金昌龍(김창룡) 李花中仙(이화중선) 金海金 綠珠
(김해김녹주) 申錦紅李中仙(신금홍이중선) 金秋月(김추월)

(사진은리화중선)

5. 忠州支局 本報讀者慰安 歌劇會開催 조선일보 1927.10.30

忠州支局 本報讀者慰安 歌劇會開催 本報忠州支局에서는讀者慰安歌劇會를去二十 日(거이십삼일)부터 二十五日(이십오일)까지三日間當地金順五氏家(삼일간 당지김순오씨가)에서開催(개최)하였는데朝鮮劇界(조선극계)에일홍농흔朴 八掛(박팔괘), 池東根(지동근), 白點奉(백점봉), 鄭海施外(정해시오)여러俳優(배우)들의各種神妙(각종신묘)한技術(기술)과清雅(정아)한音樂等(음악등)으로讀者慰安會(독자위안회)는자못盛況(성황)을일우고開會(폐회)히였는데이어서 出演(출연)한俳優諸氏(배우제씨)를請(청)하이簡單(간단)한晚餐會(만찬회)도잇 섯다더라(忠州(충주))

6. 大邱金泉訪問 朝鮮正樂大會

| 동아일보 1927.12.21

大邱金泉訪問(대구김천방문) 朝鮮正樂大會(조선정악대회) 금일부터사흘동안 경성여자미술학교(京城女子美術學校(경성여자미술학교))주최와 대구(大邱(대구))세신문지 국후원으로 조선 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조선정악대회))를금이십 일일은대구조양관(大邱朝陽館(대구조양관))에서명이십이일은대구좌(大邱座(대구좌))에서매일밤일곱시부터 열터인데 목덕은조선고악을 부활하려 함이라하 며낮에는 대구각남녀학교를 순회하며정악을 교재(教材(교재))로 들린다하며 악사는정악외에성악으로 리동백(李東伯(이동백))군"가야금""산조"로심상건(沈 相健(심상건))군과 리화녀자전문의 정악강사도 출연할터이라느바 귀경도중에는 김천에 들러대회를열터이라더라

7. 鄭春風流 劉氏獨唱 오는 구일에 朝鮮女子學院爲하야

| 조선일보 1928. 3. 5

조선(朝鮮)에 독보하든 명춘풍류(鄭春風流)의 명창 류공렬(劉公烈)씨의 노래가 연단우 에서 경성동호자제씨의 압혜 공개될날은 갖가왔다. 더욱이 그 수입은복 못받는 조선가명부 인내에게 관명한 길을 열어주려고하는 조선녀자학원 경영비에 기부한다는 뜻 깊은 독창회 이라. 오는 구일밤 조선극장 류공렬 독창회가 얼마나 기대가 큰 것은 구악에 취미를 가진 분은 다 알 것이다. 구일 단 하로밤 공연뿐임으로 동호자제씨에게 입장치못하는 유감이잇 슬가하야 두가지로 만명 하얏스며 조연자로는 녀류명창으로 이제는 가명의 사람이 된 박월 덩(朴月庭)

녀사이며 새로운 길을 밟는 청년 노래군 강남중(姜南中)군이며 가야금의 명수로
덩평잇는 심상건(沈相健)군도 잇서 인기는 자못 비등하는 모양이더라.

8. 今九日 劉名唱獨唱會 女子學院을 爲하야 | 조선일보 1928. 3. 9

누차 보도한바 조선 구식 기영부인의 교육의 관인 조선여자학원의 경비를 얼마
라도 보태기 위하여 특히 명창 류공렬(劉公烈) 로인이 자진하야 독창회를 개최
하고 그날 수입전부를 그 학원에 바치기로 되었는데 이날은 조선 가고중에서도
가장 우아(優雅)한 것만을 추리고 또한 남녀명창의 조연(助演)도 잇서서 지금까
지 보지못하든 순 조선 음악회인바 입장료는 일원과 이원이라하며 프로그램은
알에와 갖다한다.

第一部

- 一, 盧花月(短歌)(伽椰琴拉唱) 沈相健
- 二, 瀟湘八景(沈清傳)(伽椰琴拉唱) 沈相健
- 三, 白鷗詞(短歌) 姜南中
- 四, 江南曲(興夫傳) 姜南中 音
- 五, 〇仙樓行(短歌) 劉公烈
- 六, 夢中歌(春香傳) 劉公烈
- 七, 春塘試科(春香傳) 劉公烈
- 八, 御使南行(春香傳) 劉公烈

第二部

- 一, 群翎譜(伽椰琴拉唱) 沈相健
- 二, 花牌歌(伽椰琴拉唱) 沈相健
- 三, 楚漢歌(短歌) 朴月庭
- 四, 江山風月(短歌) 姜南中
- 五, 離別歌(短歌) 劉公烈
- 六, 달거리(短歌) 劉公烈
- 七, 南屏祭風(三國誌) 劉公烈

◇入場券豫賣所

- ▲安國洞 以文堂
- ▲仁寺洞 東亞婦人商會
- ▲鐘路四街里 和信商會
- ▲塔洞公園前 朝鮮蓄音器商會

9. 舊劇名唱大會(구극명창대회) 全州劇場(전주극장)에서

| 조선일보 1928.10.15 기사(뉴스)

全北全州劇場(전북전주극장)에서는지난九日(구일)부터舊劇朝鮮名唱大會(구극조선명창대회)를開催(개최)하고春香歌全篇(춘향가전편)을演出(연출)하는바一週間(일주간)을繼續(계속)하0海日午後八時(매일오후팔시)부터開演(개연)한다는데 藝題(예제)는左(좌)와如(여)하더라

(全州(전주)) 憎舞(승무) 판스 叙舞(검무) 출타기 鐵棒(철봉) 짜부링 가야금 短歌(단가) 판소리 三南立唱(삼남입창) 京城坐唱(경성좌창) 西道雜歌(서도잡가) 男女合唱(남녀합창) 並唱(병창) 名唱金昌煥(명창김창환) 李東伯(이동백) 姜南中(강남중) 女李花中仙(여이화중선) 李中仙(이중선) 李與元(이흥원) 林鐘元(임종원) 趙鎮蕙(조진혜) 方能鉉(방용현) 林(임) 相文(상문) 池東根(지동근) 李仁順(이인순) 林庚(임경) 鶴(학) 金鐘成(김종성) 沈相根(심상근) 李花成(이화성) 朴瓊花(박경화) 吳香花(오향화) 文月中仙(문월중선) 金玉鍵(김옥진) 文秀技(문수기)

10. 忘却(망각) 朝鮮(조선)의 歌曲(가곡)과 意義(의의)깊은 名唱演奏(명창연주)

| 조선일보 1928.11.19. 기사(뉴스)

이져버려가는 조선의 노래를 치저내고저

일축회사주최와 본사후원의 연주회 개최

二十一日(이십일일)부터 三一間(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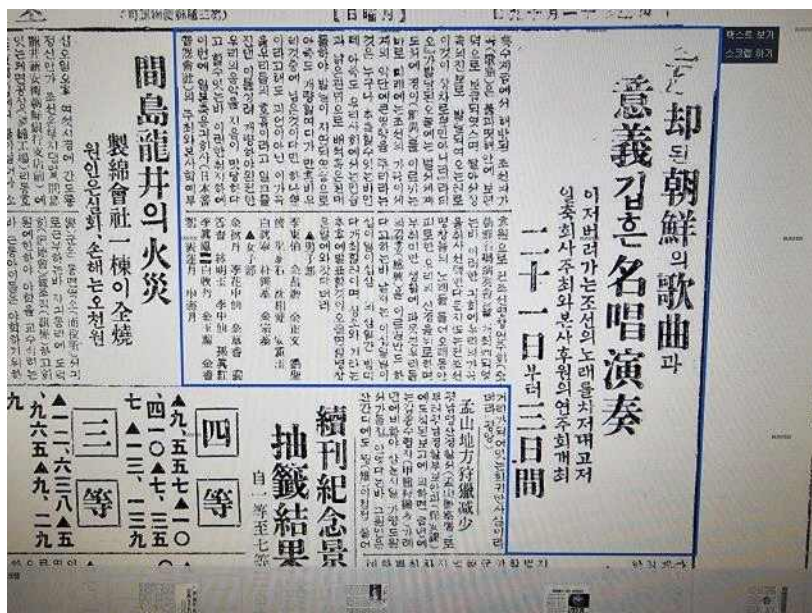
특수계급에서 해방된 조선의 가곡(歌曲(가곡))은 불과몇해안에 보편적으로 보급 되었으며 따라서 장족의 진보로 발달되어오는터로 이것이 장차로뿐만아니라 [라디오]가 발달된 오늘에는 벌써세계도처에 경이(驚異(경이))를 일으키는 바로 미래에는 조선의 가곡이세계의 악단에큰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누구나 주측할수있는바인데 아즉도 우리사회에서는 인습과 낡은관념으로 배척혹은천대를하야하나 뿐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닌 이가곡을 우리들의 호흡이라고 일크를진댄 일르상려 개량하야 완전한 우리의 음악을 지음이 맛당하다고 할수있는바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에 일본축음기회사(日本蓄音機會社(일본축음기회사))의 주최와 본사학예부후원으로 전조선명창연주회(全朝鮮名演奏會唱(전조선명창연주회))를 개최케되었는바 이러한 기회에 우리의 가곡을 취사선택한다든지 또는 전조선 명창들의 노래를 들어오래동안 피로한 우리의 신경을 위로하며 무취미한 생활에 파묻친 우리들의 감흥(感興(감흥))을 이르킬만도 하다 고하는바 날자는 이십일일이 십이일이십삼의 삼일간 밤마다 개최할터이며 장소와 기타는 추후에 발표할것이오 출연할명창은 알에와 갖다더라

▲男子部(남자부)

李東伯(이동백) 金昌煥(김창환) 金正文(김정문) 劉聖俊(유성준) 吳太石(오탈석)
沈相健(심상건) 安重玉白眞奉(안중옥백진봉) 朴鍾基(박종기) 金鍾基(김종기)

▲女子部(여자부)

金秋月(김추월) 李花中仙(이화중선) 金草香(김초향) 裴雪香(배설향) 林明玉(임명옥)
李中仙(이중선) 孫眞紅李眞鳳(손진홍이진봉) 白牧丹(백목단) 金玉葉(김옥엽)
金香葉(김향엽) 表蓮月(표연월) 申海月(신해월)



11. 男女名唱網羅 音律協會創立

| 동아일보 1930. 9. 27

조선위가곡(歌曲)과 음률(音律)을 개선하며 발달 시키자는 목적으로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가 설립되었다 주장한 이들은 조선가곡계의 유수한 명창 송만갑(宋萬甲) 리동백(李東伯) 등 남녀수십여명이며 그외사계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리기세(李基世) 조학진(曹學班) ○씨도 참가했다 이십오일 오후네시시내국일관에서 그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알에 와가티 임원을 선거하고 명창의연주가잇스후 동아흡시경에 폐회하였다

▲ 會長金昌煥 ▲副會長宋萬甲 ▲總○姜元三, 韓成俊 ▲統理李基世, 李元培
▲專○所는市内鐘路二丁目朝鮮蓄音機商會內

12. 本報讀者慰安(본보독자위안)

| 동아일보 1930.10. 19

명창대회개최 [청주] 본보청주지국에서는조선명창 리동백(李東伯(이동백))일행이

래칭함을 기회삼어 추곡독자위안명 창대회(秋期請者慰安大會(추기독자위안대회))를 지 난십륙일부터 삼일간당지 앵좌(櫻座(앵좌))에서 개최하였는데 리동백과 악계에 유명한박팔괘(朴八卦(박팔괘)), 명기윤계화(尹桂花(윤계화))외십여명이출연하여 성황을이루는중이다

13. 音律協會 第一聲 十九, 廿兩日 | 동아일보 1930.11.19

지난번 창립된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조선음률협회))에서는 그회의 목적인 조선음률과가사의 보유수정(補遺修正(보유수정))과 특히 잡스러운것을 전 부 고치고 여러가지로정화운동(淨化運動(정화운동))을해오든바이번 제일회로 공연회(公演會(공연회))를 열게되어 오는十九(십구), 二十(이십)일이틀동안 매일오후 일곱시부터조선극장에서 개최하리라는바출연할 인사들은 전혀 조선명창들을 망라하여 그수효에있서서더욱 골라 종래 이와가튼연예회에서 만히볼수 잇는 재담, 발님, 안일이등은 절대로 금지하고 참신한 무대장치까지너허정숙하 며 규를잇는 연출을보여져가 정화운동의 불만한 성적을나래내리라고한다 그리 고 출연할이 사들은 알에와가티 숨엇든조선가사의 선배들도 참가한다고한다

▲曹學珍(조학진) ▲金昌煥(김창화) ▲金昌龍(김창룡) ▲李素香(이소향) ▲吳太石(오태석)

▲沈相健(심상건) ▲朴綠珠(박녹주) ▲金替香(김초향) ▲韓成俊(한성준)

14. 替劇界霸將 虎聲劇團公演 | 조선일보 1931.05.13.

十日(십일일)부터미나도座(좌)에서오월십일일부터조선구극계에일음이놓흔 흐성극단(虎聲劇團一行(호성극단일행)))은 김봉업씨 주간(金奉業氏主幹(김봉업씨주간))으로 미나도좌에서창립일 주년기념으로 공개한다는바 명창은조선서 가장일 흠이놓은 李東伯(이동백) 金昌龍(김창룡) 林明玉(임명옥) 林明月金玉姬 等男女三十餘名(임명월금옥희등남여삼십여명)이出演(출연)한다더라

15. 기다기고 기다리든 녀류 명창의 공연 단하로 맞게 아니남은 내일밤 공회 당에서 | 매일신문 1931. 9. 28

이때까지 조선사람의 가슴에서 울어나와 조선사람의 입으로 불려진 순수한 조선가곡으로 하여금 품위를 향상해가고 새로운 이 시대의 정O하도록하고 또 조선서는 처음보는 녀류명창 세사람만으로 개최하게된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의 주최 본사학예부(本社學藝部) 후운의 음악회는 이제 하로밤을 압두고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었 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녀류명창 김초향(金楚香) 박록주(朴錄珠) 박월정(朴月庭) 세분과 금상 첨화로 복채를 잡게된 고수(鼓手) 한성준(韓成俊)씨는 이제 여기서 더

소개치안어도 그럭 량, 그 진가를 여러분은 잘아실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음악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귀역을 다시 새롭게하기위하여 그분들의 양력을 대략 소개하려고 합니다.

◇… 金楚香氏

맑은 산월의 향그러운 풍광을 가진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의 삼도(三道)는 자 고로 남도소리의 본바닥으로 만흔 명창을 내엇습니다. 명창 김초향씨도 강산의 예술적 정 귀를 타고난 분니다. 그는 본래 충청도 출생으로 대구에서 자라났습니다. 열네살부터 노래 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해 두해 지나갈수록 그 가슴에 감추어잇든 예술적 천재는 더욱 빛났 든것입니다. 송만갑(宋萬甲)씨 여러명창에게서 노래를 배웠지만 그계통을 그대로 밟은 것이 아니오 독특한 그의 목으로서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한 개성을 보이게 되었스니 오늘날 김초향씨의 면목은 실로 거기에 잇는것입니다.(사진: 김초향씨)

◇… 朴錄珠氏

아직도 삼십이 못된 새파란 나히와 뜻가치 되지안는 세상의 괴로운 물결에 쪼 들리면 서도 명창의 치에 끼어서 조선악단의 총애를 밧는 박녹주씨 / 남쪽나라 서산(瑞山)이 나흔 려걸이니다. 아홉 살부터 노래를 배호앗다하니 꽤 일즉부터 배호엇스니 그의 천분은 굿대부터 가르치는 예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하니 천생 타고나온 재조는 어되로 가든지 빛 나는 것입니다. 그도 한선생에게서 배흔 것이 아니오 여러선생에게서 배호어가지고 독특 한 자괴의 목으로써 모든 것을 소화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삼십이 못되었스니 그의 예 술의 전도는 더욱 빛 날것입니다.(사진: 박녹주씨)

◇… 朴月庭氏

재래로 「명창」이라고하면 남도에서만 나는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문외한의 관념이지만 결코 그러치 안으니 서도에서도 만흔 명창을 내어엇습니다. 그것은 서도(西道)의 「수심 가」와 남도의 「육자백이」가 우리 조선노래의 대표가되었고 여기에 소개하는 박월정씨만 보아도 넉넉히 좌중할수잇습니다. 그는 풍광이 명 리하여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평안도 강 서출생입니다. 고향이 고향임으로 서도 스소리는 물론이고 서울노래는 그스스로도 자신을 가지는 바어니와 아조 목청 이 다른 남도스소리에 까지도 전문가의 칭송을 밧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좌충 우달로 남도스소리 서도스소리를 물론하고 명창으로 지목을 밧습니다.(사 진 : 박월정씨)

◇… 韓成俊氏

이번 녀류명창의 공연에 고수 한성준씨가 복채를 잡게 된 것은 실로 금상첨화

라 할것이니 명창의 노래가 흥겨운 그의 장단을 만나 더욱 빛나는 것은 들어본 이는 다 시인할것입니다. 지금 룡십이 가까웁니만 그재 삼사십장년의 괴개를 가진 씨는 홍성(洪城) 출생으로 일즉부터 사계에 발을 들려노았습니다. 지그와서 한성준씨라하면 대개 장단에만 들어난줄로 일반은 생각하지만 그는 명고수로서 만히 아시오 정재(呈才)로써도 일즉 일흠이 노았습니다. 줄도 잘 타고 승무도 잘추고 보통춤으로써 또한 그 독특한 괴술을 보어니 서울시내의 승무추는 분들은 대개 그의 류풍을 바뎸다고합니다. 그는 일즉 조선근대의 명창 박기홍(朴基洪)씨의 장단을 만히 첫스며 박씨도 반듯이 그에게 복을 치엿다하니 이로써 그의 력량을 넉넉히 알수잇는 것이오 그도 여기서 독특한 지보를 가지게 되엇을 것입니다.(사진: 한성준씨)

16. 音律協會 第三會 公演 二十二日 午後 八時 市內公會堂에서

| 조선일보 1932. 6. 22

점점 쇠잔하여 가는 조선의 음률을 부흥식하기 위하여 창립된 조선 음률협회에서 이 번에 제삼회 공연을 육일 이십이일 오후 팔시부터 시내 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입장료는 오십전식이요 가요 순서는 다음과 같다.

歌謠順序

- 一, 片時春 夢中歌 、 、 、 、 、 金小香
- 二 이몸이 離別歌 、 、 、 、 、 白点奉
- 三, 愁心歌 노래가락 、 、 、 、 、 金小香 金香蘭
- 四, 大丈夫恨 水宮歌 、 、 、 、 、 吳太石
- 五, 漁火青春 적벽가 、 、 、 、 、 李素香
- 六, 江山風月 박석태 、 、 、 、 、 丁貞烈
- 七, 楚漢歌 父親有別 、 、 、 、 、 金楚香
- 八、 竹杖芒鞋 朴打令 、 、 、 、 、 金昌煥
- 九, 여보 도령님 、 、 、 、 、 金小香 金楚香
- 鼓 、 、 、 、 、 韓成俊

17. 朝鮮聲樂硏究會 新陣容

| 조선일보 1932. 4. 13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 제육회 정기총회는 십이일 오후 칠시부터 시내 익선정(益善町)등 회관에서 열렸는데 전이사장 이동백(李東伯)씨는 인퇴하고 새로 선정된 이사장과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金昌龍 趙相鮮 韓成俊 金演洙 丁元燮 金龍承 吳太石 申快童 李震榮
金錦玉 金世俊 林素香 李蕭香 以上 十五名

18. 朝鮮樂協會에서 東西音樂會 開催 이십삼, 이십사일 공회당에서

| 조선일보 1933. 1. 15.

조선악협회(朝魚半樂協會)에서는 이달 이십이, 이십삼 양일간 시내 장곡천정 공회당(公會 堂)에서 「동서음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당야에 출연할 악사는 대동음악협회(大同音 樂協會) 김정순(金禎海)양을 비롯하여 시내 각학교 음악부원들이 두각을 닦고 나타날것 이요 코론비아 빅타등의 전속 악인들이며 동요계의 독보 록성동요연구회(綠星童謠研究會)의 소녀의 합창대며 기타 개인으로 이십여명의 출연이 잇고 전통악부에는 조선악협회 정악부와 소속 합동악단(合同樂團) 요곡부를 비롯하여 명창으로써 조학진(曹學珍) 리동백(李東伯) 오태석(吳太錫) 등의 국내의 굴지하는 가인들이 나올것으로써 이 밤의 인기와 기 대는 상상이상의 대성황을 예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입장료는 백권 일원 청권 오십전 흥권 삼십전이라는데 이 음악회에 시내 락원동 「킹홀」에서는 일봉의 금품을 기증하였다한다.

19. 大田에 열린 朝鮮名唱大會

| 매일신문 1933. 2. 16

「大田」京城朝鮮音律協會 主催와 本報 忠南總支局 後援으로 今月 十四日부터 三日 間大田 O心館에서 朝鮮一流名唱大會를 開催한다함은 임의 報道한바와 갓 거니와 豫定 과 가티 十四日 夜 七時부터 近 千名 OO의 拍于O不로 名妓名唱의 歌舞OO작의 엇는데 順序에 따라 出演되는 妙曲雅律은 O場한 人士를 O醉케 하였는데 特히 講習會 關係로 大田에 來集하였다가 當夜 入場한 各 郡, 面, 退客에게 큰 위안을 준 것은 實로 意味잇는 일이라 하겠으며 出演하는 名唱마다 提請又提請을 받게 되어 場內 OO가 自O 化한 가운데 同 十一時O OO 하였는바 多少 疲勞를 늦긴 名唱 一行은 몸의 健康을 回 復하여가지고 다음 날을 OO코 OO次로 儒城溫泉으로 向하였다 한다. (寫眞은 大田의 名唱大會)

20. 朝鮮音樂研究會 名唱들이 發起組織 朝鮮樂界의 喜報 | 조선 34. 5. 13.

쇠퇴하여가는 조선고래의 향토음악을 진흥 보급하기를 위하여 송만갑(宋萬甲), 리동백(李東伯), 김창룡(金昌龍), 정정렬(丁貞烈), 김용승(金容承), 리화중선(李花中仙), 박록주(朴綠珠), 김동강(金東岡), 오태석(吳太石), 김종기(金宗基)등 사계의 동지자급 유지들의 발기로 십일일 오전 열한시에 시내 공평동(公平洞) 이십구번지에서 조선음악연구회발기 총회 급 창립총회를 개최한 결과 사무소를 시내 공평동 이십구번지로 설치하기로 하고 리사 리 동백(李東伯)외 십사씨를 선정하였다한다.

21. 納涼音樂 鎮南浦支局에서

| 동아일보 1935.07.27

納涼音樂(납량음악) 鎮南浦支局(진남포지국)에서 每戶平均有興聲 [진남포] 본보 진남포지국(鎮南浦支局(진남포지국))에서는 오는廿七(입칠)일 오후八(팔)시반부터 동지공회당(公會堂(공회당))에서 납양음악대회(納涼音樂大會(납량음악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이번음악대회는 진남포에서는 처음잇는 모임이므로 벌써부터 인지가대단하다하며 이날은 사계의명성을망라한평양관 현악단원(平壤管絃樂團員(평양관현악단원))二十(이십)여명이 총출연하고 명가 수왕수복(王壽福(왕수복))최연연(崔妍妍(최연연))양과가야금명수 심상건(沈相鍵(심상건))씨가 특별출연할터이므로 그칭아하고 또미묘한 멜로디는 - (일) 반청중을 황홀심취케하고야 말것이라한다.

22. 朝鮮韓樂研究會 名唱大會開催 | 조선일보 1935.11.26.

사내관훈동(寬勳洞(관훈동))사번지일에잇는 조선성악연구회(朝鮮輕樂研究會(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일류명창을 총출식혀 오는이십칠, 팔일량일간에 시내관철동우미관에서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고전적(古典的(고전적))성악을 연구하여 새로운작사가곡(作詞歌曲(작사가곡))으로서 일반대중압해 공개한다고한다 출연할가수는아래와갓다한다

宋萬甲(송만갑) 李東伯(이동백) 金昌龍(김창룡) 工直烈(정정렬) 吳太石(오태 석) 吳翡翠(오비취) 惟(신) 淑(숙) 曹鸚鵡(조앵무) 趙索玉(조소옥) 金鍊守(김연 수) 外二十餘名(외이십여명)

23. 도라못오는榮譽(영예) 御前演奏(어전연주)의그넷날

| 조선일보 | 1936.01.01.

華麗(화려),裕福(유복)튼 歌舞(가무)의 生活(생활)

社會部長(사회부장)

일흠부터가 좌감회니까 격식은 치우고 안즈신대로 이약이 해주십시오 지금편죽 국장이 말씀한대로 여러분은 다 한가지 기능에 잇서서 조선의 권위요 또한 제일인자이십니다 처음으로 무를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밟고나가시는그길을 선택하신 리유 즉 그방면으로 발심하신 동기를 먼저말씀해주섯스면 조켓습니다 먼저 리동백씨....

李東伯(이동백)

(귀가 좀 어두어서 엽헤안즌 한성준씨가 통역(?)을하였다) 이리케 안저서 말씀 드려서 무례합니다 우리 조선 구식에서 노래를 왜 배웠느냐?하면 그것을 잘하

면 참조았지요 대내(大內(대내))에 드러가서 소리를 하면 (御前演奏(어전연주))가 자(加資(가자))도 타고 재물도 내리시고 권세도잇고 돈잘벌고....그래 몸은 상놈 이라도 조키는 조았습시다 그러기 때문에 피를 토해가면서 그러케 애써 공부를 했지요 나도 그런 것이 소원이되어서 소리르 배웠더니 시방은 무세해서 그저 밥버러먹기에 정신이 업습시다

社會部長(사회부장)

넛날은 소리하는분을 몹시 천대를했다는데..?

韓成俊(한성준)

그러치요 보기에에는 버젓했습시다 대신이 입는 중추막에창의를립고 탕건을쓰고 뒤짐을지고...그러치만 그저겉핥말 잘못하면 ...담배를 먹는다든지 말씨를 잘못 한다든지 하면 그저대번잡어내려라해서매때리기 귀양보내디...그것이 정승이나 판서가튼이들분아니라 원이나 수령들도 그랬스니깐요. 하인이상으로 천대했지요 소리잘하고 장단잘친다고 귀엽도떡밧기는 했지만갓치잘못하면 그저....

그래지금내나히 예순돌이요 리동백씨는칠십입니다마는 갑오(甲午(갑오))까지도 그런천대를 바뎸습시다 허기야지금도 천대를밧지요 노름을가면부른이들이 음식을 가치 먹지안코 인사를하면 그냥 우둑허니잇고

社會部長(사회부장)

조택원씨는?

趙澤元(조택원)

한 십오년된것갓습시다 그때 『로서아』의 피난민들이 왔슬 때 | (곤)그때 내가 아마 중학이년급인지 다닐때입니다- 그사람들이『딤스』를 하는데 지금생각하니까 그것이 『로서아』의 농민무용이엇습시다 그래 구경을하니까 옷가튼것도 펍 단순하고 보기도 조코 그래서 그것을 조곰 배워가지고 작난을했지요 본래 나는 음악을 조아했는데 음악에는 소질이 업는것가태서 무냥으로 나갈작정을 하였습시다 그뒤에 내가 중학 오년땐것가튼데 일본의 석정막(石井漢(석정막))씨가 조선에 나와서 첫공연을 했습시다 그것을 보고 잇느라니까무엇인지 『힘』이 보이고 그 뛰노는 근육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듯 했습시다 그래서 그것을 꼭배우기로 결심을 했습시다

社會部長(사회부장)

채극문씨 바둑은 언제부터 두기 시작하섯습니까?

蔡極文(채극문)

알기는 아주어려서 아렸지요 그러나 본시 바둑이라는 것은 사업은 아니고전해 내려오는 말을 드르면 요(堯(요))님금이 창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역사가 사천년이 넘습니다) 그저 사람의 의견이 틱이는데 도움이 되는것이지요. 사업에는 그러니까 되려 방해가 된다고 하겠고 다만 교제상 또는 일하는 여가에 사람의 의견을 틱이게한 다든지 침착성을 기르는데 한 도움이된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월체어려서 우연히 배워진것이라동기는 업습니다

社會部長(사회부장)

가즈인 수는

蔡極文(채극문)

사람의 총명이란건십오세전것이라야합니다 나도 그저열두어 살때에 어른들이 두는 것을 억개너머로 한두번보고하는동아에 깨달어가지고 자연진보가 된것인데 그때는 공부에방해가된다고 어른들이 금하시니까맘대로 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령절어 한이십살되니까그저 지금수보다는 한점쯤못했을까요....그러다가 대구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나보다 나즌사람들과 대국을 해보니까 얼마아니해서 평등수가되었지요 그러니까 삼십때의 수가지금수라고 할 수 잇지요

編輯局長(편집국장)

조선서 처음바둑을 두기는 언제부터입니까?

蔡極文(채극문)

조선의 문물이란다중국것의 모방이니까 역시 중국서전해왔겠는데 중국에는 요님금이닌 공자니 맹자니 그런이들의 문헌에 바둑에대한 말이잇스니까 력사가 소상하지만 조선에는 전해오는 문헌이 업습니다 물론 전설이야만치만 그런 것은 미들수가업고 신자하의백씨 신금만씨가 기보를 만드렷다지만 그것도 발간이 아니되었습시다

徐廷權(서정권)

나는 어려서부터싸흙 즉 승부를 다투는데 흥미를만히 가졌습시다 그런데어느때까지 우리시골 순천(順天(순천))에서 활동사진구경을하는데 거기서 권투하는 장면을 비로소보고 그통쾌한데 맘이 끌려서 꼭한번배워볼걸심을 했습니다 그뒤 일천구백이십팔년 형님을 따라 공부하러 동경(東京(동경))으로 갔는데 그때 가튼 하숙에잇섯고 지금 내매부요선배인 황을수(黃乙秀(황을수))씨가 권투를 시작해가

지고 매일 좁은마당에서 연습하는기회에 다니면서 연습을 하게되었습니다

社會部長(사회부장)

문예봉씨는?

文藝峰(문예봉)

(매우 수집어한다) 별동기는업고 그저하고십혀서!

社會部長(사회부장)

그러면 동기는 그만끔말슴하고 그다음으로 기술을 닦그시는데 『붓토!』라고할른 지 좌우명(座右銘(좌우명))으로 알고 직혀오시는 신조(信條(신조))를 각각 말슴해 주시요! 가령 금주금연을 하신다든지 아침에 일즉이러나신다든지.....

韓成俊(한성준)

나는 어려서 한것이되어서 별로 그런것은업고 지금도 열흘만 장단을 아니치면 뒷손이 구더서 가늠이틀리니까 꿈문이에다 뒤손을너코 손을 익힙니다

社會部長(사회부장)

리동백씨는?

李東伯(이동백)

술 담배 다 아니먹습니다 그런 것 아니먹고 그저 버러먹기에 이러케 호박늪듯 이 늪어만갑니다 허허 (一同(일동)大笑(대소))

韓成俊(한성준)

저도 술은 아니먹습니다

趙澤元(조택원)

춤추는 사람에게는술 담배가 다 낫뵈니다 아니먹지요 일본가서 팔년동안공부하는동안에도 일체 아니먹엇습니다 매일 하는일은 아침에 일즉이러나서 자리속에 서 운동으랄고 그리고 이러나서 아침을먹고 쉬엿다가 다시 운동을합니다 드리 고 충분히자고 일즉이러나고.....

社會部長(사회부장)

문예봉씨는?

文藝峰(문예봉)

공부합니다

社會部長(사회부장)

특별한 것은 업습니까?

文藝峰(문예봉)

업습니다

羅雲奎(나운규)

아무것도업고....꼭된다는 신념만 가지고잇스니다만인이 다 안된다는데 나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져본적이 업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괴로운일을 하든지 피로라는 것을 모릅니다

社會部長(사회부장)

신불출씨? 혹자서 만담(漫談(만담))연습을 더러하십니까?

申不出(신불출)

아니합니다

洪種仁(홍종인)

처음부터 연습이 없시 하셧습니까

申不出(신불출)

아니했습니다

羅雲奎(나운규)

요즘 우습연습한다지요 호걸우습,영웅우습,간사한우습

一同(일동)

(우습)

社會部長(사회부장)

련습이업시그런 절곡한이야기가 됩니까?

申不出(신불출)

지금까만담이라고 한 것이 전부 연습이었스니까 지금부터가 정식이라고할가요

社會部長(사회부장)

문예봉씨 표정연습 아니하십니까? 영화배우는 체경을 압페다노코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한다는데요

文藝峰(문예봉)

그런거 아니합니다

李鐘模(이종모)

무용가는 매일 초름한 곱부식 먹는다지요?아

洪種仁(홍종인)

초는 왜?

李鐘模(이종모)

뼈가 보드러워지라고

一同(일동)

(笑(소))

社會部長(사회부장)

한성준씨 리동백씨 지금이라도 장단치기나 노래연습 아니하십니까?

韓成俊(한성준)

인제는 졸업을 해 서어나합니다

羅雲奎(나운규)

거다 『인찌끼』입니다 나는 유도는 도모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너머지는 사람들이 다 유도군이되어서 손을 대는송내만 내면 제껴제껴 너머가주지요

徐廷權(서정권)

다른 선수의 시함과 연습을 꼭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째서 실패하며 어째서 성공하였는지를 아주 성심껏 연구합니다 일과 삼어하는연습은 시합 일주일

전을 그중에도 제일 규측적으로 중요하게하는데 오전여섯시반에 꼭 이러합니다
 그래서 산보나 런닝을 하고 조반은 적게먹은 뒤에 겸심은 아니먹고 저녁을 좀
 만 히머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오후일곱시반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한두시간가
 량 계속합니다

24. 名唱(명창)에게 듣는 往事(왕사) | 조선일보 1937.01.03. 기사 (좌담/대담)



名唱(명창)에게 듣는 往事(왕사) 그 當代(당대)를 울리고 웃기어

史上(사상)에 남은 名唱(명창)의 群像(군상)

平安監司(평안감사)의 堂叔(당숙)인 廣大權三得(광대권삼득)

難兄難弟(난형난제)의 名唱宋光祿(명창송광록) 宋興祿(송흥록)

장자 衰殘(쇠잔)하려는 우리 傳來(전래)의 舊樂(구악)! 아니 지난해로부터 새로
 운 出發(출발)을 始作(시작)한 舊樂(구악)! 그러나 어떻게 發生(발생)되고 어떻게
 進展(진전)되야 왓든것인지 文獻(문헌)의 記錄(기록)이란 차줄곳이없고 오직 口
 碑(구비)로서 남아 傳(전)할뿐이다. 이 口碑(구비)로 남아 傳(전)하는 그것조차
 射界(사계)에 從事(종사)하는 老人(노인)몇분이 돌아가고 만다면 들을곳이 어디
 라? 廣大(광대)의 一生(일생)으로써 모든 苦難(고난)을 甘心(감심)하면서 舊樂(구
 악)의 守護神(수호신)이 되야준 宋萬甲(송만갑),李東伯(이동백),金昌龍(김창룡),丁

貝烈(정패열) 이네분이야말로 朝鮮(조선)의 보배의 자랑이다.

舊樂(구악)의 再生(재생)을 機會(기회)로 삼아서 그네분이 지내온 慶曆(경력)이
듯는것도 한갓 無意味(무의미)치는 안하리라.(답(답))

宋萬甲(송만갑), 李東伯(이동백), 金昌龍(김창룡), 丁貞烈(정정렬)

四氏(사씨)(問(문)) 本社記者(본사기자)

問(문) 지금으로부터 한 二白年前(이백년전) 紫霞申緯(자하신위)라는이의 時中
(시중)에 何(하) 物龍鍾李御史(물용종이어서) 至今占斷劇風流(지금점단극풍류)
라는 句(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春香歌(춘향가)가튼 판소리가 벌써
二白年前(이백년전)부터 잇섯더라는 것만은 明確(명확)합니다. 그런데 果然(과
연) 언제부터 지삭 되얏는지 좀더 明確(명확)하게 알 수는 업습니까? 또 처음으로
판소리를 시작한 분의 姓(성)名(명)은 傳(전)치를 안습니까?

答(답) 우리들도 판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얏는지는 잘 모릅니다.

問(문) 그러면 판소리로 아주 有名(유명)하든 넷 어른의 이름이나 좀 아리켜주
십시오. 萬一(만일) 그런 분의 事實(사실)을 적은 책이 잇거든 그冊(책)을 좀 빌
리어 주십시오

答(답) 冊(책)으로 된 것은 別(별)로 업지만은 二白年來(이백년래)로 有名(유명)
한 어른 들이야 大概(대개)들 알지요 위선 兩班廣大(양반광대)의 權三得(권삼득)

問(문) 自己堂姪(자기당질)인가 친족하인가 平(평) 安監司(안감사)로 잇슬 때 平
壤(평양)나려가 서 練光亭(연광정)에다가 妓生(기생)이며 日(일)者(자)패들을 모
아노코 한바탕 판소리를 하다가 監司(감사)조카에게 越境(월경)을 當(당)코 쫓겨
왔다는 그 분의 말습입니까?

答(답) 바로 그 어른이지요. 그리고 그역시 兩班出身(양반출신)인 鄭春風(정춘
풍)

問(문) 그는 進仕(진사)까지 지나지 안하얏 습니까?

答(답) 그러치요. 그 다음으로도 毛(모) 興甲(흥갑), 朱(주) 상원, 廉(염)계달, 宋
光祿(송광록) 宋興祿(송흥록)가튼 어른이 모두 有名(유명)합니다.

問(문) 그中(중)에도 朝鮮名演(조선명창)에 宋光(송광) 祿(록), 天下名演(천하명
창)에 宋興祿(송흥록)이라고 하야 그 두분이 第一有名(제일유명)하지 안습니까?

答(답) 바로 한분은 宋萬甲氏(송만갑씨)의 祖父(조부)요 또 한분은 從祖父(종조
부)이십니다. 兄弟(형제) 두분이 다 名唱(명창)으로 한 때 울리엇지요.

問(문) 純祖(순조)때 荷屋金政丞(하옥김정승)이 한참 들날리판에 그사랑에 여러 幸(재) 相(상)이 모여 안저서는 朱氏(주씨)를 불러 深靑甌(심청전)을 듯다가 좀 淒(처)涼(양)스러우면 다시 宋氏(송씨)를 불러 春香傳(춘향전)을 들었다고 하여 春香傳(춘향전)으로 宋氏(송씨),深靑甌(심청전)으로 朱氏(주씨)가 그 唐詩獨步(당시독보)였다고 하는 데 朱氏(주씨)는 아마 朱(주)상원이라는 이겟지만은 宋氏(송씨)는 어느분 입니까?

答(답) 春香傳(춘향전)으로 有名(유명)한이는 宋興祿(송흥록)씨입니다.

問(문) 二三十年前(이삼십년전)만 도리켜도 春香傳(춘향전),深靑傳等以外(심청전 등이외) 江陵梅花(강릉매화) 傳(전) 일다 輩裨將(배비장)일따 元固執(원고집)일따 판소리가 만하단데 그 런 것은 다 傳(전)치를 안습니까?

答(답) 벌써 三十餘年前(삼십여년전)일입닌. 圓覺寺(원각사)에서 金昌煥(김창환), 宋萬甲(송만갑), 李東伯(이동백)등이 판소리를 劇(극)과함에 上(상)演(연)하야 所謂(소위) 唱劇(창극)이라는 것을 할때해본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몇사람이 다 죽는 날이면아 주 傳(전)치 못하고 말것입니다.

(上(상))은도 宋萬甲氏(송만갑씨) (下(하))는 金昌龍氏(김창룡씨)

25. (사진)은 右(우)로부터 申不出(신불출),李東伯(이동백),韓成俊(한성준),蔡劇文(채극문),... | 조선일보 ! 1936.01.01.



寫眞(사진)은 右(우)로부터 申不出(신불출),李東伯(이동백),韓成俊(한성준),蔡劇文(채극문) 徐廷權(서정권), 文藝峰(문예봉), 趙澤元(조택원), 李齊行(이제행), 羅雲奎諸氏(나운규제씨)

26. 鼓手五十年韓成俊氏(고수오십년한성준씨)

| 조선일보 1937.03.27 기사(프로필)

貧困(빈곤)과!待中(천대중)에서 鼓手(고수)로一生(일생)을바친丹誠(단성) 무덤속의

古色(고색)이 蒼然(창연)한 낡은壁畫(벽화)나 깨어진 돌조각을 뒤지 여 옛적文化(문화)와 藝術(예술)에 머리를숙으리는것이우리아이면서 아직도毒藥(독약)갓흔 李朝形式文明(이조형식文明)의 피를벗지못하야 蔑視(멸시)함인지 그것을후똥(형수)할 餘裕(여유)가 업슴인지 僅僅(근근)히보존하여온 命脈(명 맥)이나마 아직도살어잇는 民俗藝術(민 속예술)의 가지가지에는 눈도 떠보지못 하는 現狀(현상)이라고 할수잇다고 생각한다. 「소리」 더구나 「판소리」 或(혹) 은數千年傳統(수천년전통)을 가지고온 「춤」 이 낫벗든것이아니고 價値(가치) 가 업음도아니지만 環境(환경)이그러코 따라서 그돌틈에서가라나는 사람조차 엇지할수업는 制度(제도)아래 찌그러지고 꼬부타져 자라났스니 그러타고 이제 와서 그囊類(양퇴)함을 멸시하고 嘆(탄)하고만 말것이가 淫男蕩女(음남탕녀)의 입과 妓生(기생)아씨의 발장단에서 숨여가는 殘影(잔영)을 우리는그대로 버려 두고마는 二十世紀兩班(이십세기양반)으로 滿足(만족)하고 말것일가?여기에 생각하는바 잇서 우리는참된 再認識(재인식)을為(위)하야 為先(위선) 그들의 -生(일생)을 들어 그곳에 비최인 時代相(시대상)과 苦難(고난)을 通(통)하야 닥거온 修鍊(수련)의 相(진상)을 엇보려고하엿다.이번에 揭載(게재)하는 鼓手(고수) 韓成俊氏(한성준씨)는 今年六十餘歲(금연육십여세) 貧寒(빈한)과 腰待(천대)가운데서 「춤」 과 장단을 가지고 一生(일생)을 바치엿다. 우리는 먼 저 다른것은 여하간 「藝(예)」 그것만이라도 볼때에 말업시그것을 尊敬(존경) 하야 될줄안다.모든 「가락」 은 「장단」 에잇고 「장단」 의 근원은 「춤」 이라고 氏(씨)의말과가티 朝鮮(조선)에서는 「춤」 이그러게 貴(귀)한것이고 獨特(독특)한世界(세계)를 가졌것만 참말 今日(금일)은 이 「춤」 이야말로 거이그 存在(존재)까지모르게되여잇다.氏(씨)는 기피 생각한바잇서 조금도 거짓업시 變幻(변환)만흔 一生(일생)을 赤裸(적나)하게 告白(고백)하엿으니 讀者(독자) 여 여기에도 지난날의 生活相(생활상), 貧困(빈곤), 修鍊(수련), 戀愛(연애), 革命(혁명)--이展開(전개)되여 우리에게다시금 過去(과거)의 時代的(시대적) 성격(성격)을 回顧(회고)케하야 엇는것이 잇을것이며쓰러져가는 우리곳의 「춤」 이 어떤것이엇든가를 기피생각케할줄안다.

27. 그들의 懷古談① 通政大夫下賜 조선일의 명창 五十年 精進의 가지가지
朝鮮聲樂會 이동백 | 매일신문 1937. 4. 29.

생각하면 지나간 모든 일이 바로 엇그제 지난일 갖기도 하고 또한 짜마득한 넷 날일 갖기 도 합니다 호매한 過去를 더듬어 보면 깃벗든 일 슬핍던 일 야속했던 일들이 단편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지 안는 바도 아니지만은 이제는 나히를 만히 먹은 탓으로 모두가 신산스 러우며 過去를 回想해 볼 기운조차 생기지를 안습니다. 故鄉인 舒川서 어렸을 때 지나온 일을 이져버린 숨가터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합니다만 노래를 배호기 시작한 것은 열네살 때 부터인것마는 확실합니다. 처음 金正根이라느 이에게 노래를 배웠섯는데 처음에는 父母님께서도 無心코 내버려두셨다가 내가 하도 熱中하야 노래에 全心하게 되니가 그 때부 터

는 노래공부를 一切 嚴禁을 O했서지요 그러나 어른들의 눈을 속여가며 틈틈이 몰래 노래를 배호기를 二 三년 하다가 結局은 할 수 업서 노래공부를 斷念해 버리기로 하엿습니다. 죽어도 하고 십흔 노릇을 밋쳐 고만두고 보니 사람이 말러 죽을 지경이엿지요 그리 다가 집안형편도 변하게 되고 나이가 차차 들게 되니까 남자로 나서 한 번 먹은 뜻을 풀어 보지 못하면 살어서 무엇하나 하는 영큼한 생각이 나서 노래공부를 완성하야 朝鮮서 第一 가는 名唱이 되어보려고 O然이 故郷을 떠나버렸습니 다. 二十전후에는 가장 O力도 조흔 때이지만은 나 도 그때는 한참 野心滿滿했든 터이라 OO地로 도라다니며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차저단이며 修鍊을 싸엿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하야 음을 파고 음속에서 장 단 업시 近 三年동안이나 목청을 내 OO것도 그 때 일어엿고 名唱이 되기 위하야서는 무 슨 고생이래도 달게 밋갓다는 구든 결심으로 별별 고난을 당하 든 것도 그 때 일어엿습니 다. 嶺南으로 江原道로 近 十年이나 돌아단이며 修鍊을 찻는中에 남들에게 차차 노래 잘 한다는 소리를 듯게 되어 京城으로 올라 났습니 다 京城에서 이력저력 지내는 동안에 大家 집으로 불여단이며 노래를 하게 되고 차차 일흠을 어더 무슨 날이면 宰相家에 불여단이게 되엿습니다. 十年 넘어 積功한 보답이 잇서 名唱이란 소리를 듯게 되고 高爵大官들에게 貴여움을 밋든 그 때가 아마 가장 나의 OO했든 시대요 一生中 가장 OO했든 時代이든 것 갓습니다. 宰相家에 자조 드나드러 그들과 親分있게 지냈고 生活도 如意하 엿스며 그 때 우리네 노래뿐인 생활은 참말이지 靚안엿습니 다 그 뿐아니라 가 급 大內안에 드러가 노 래를 불으는 때도 잇섯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無限한 큰 榮光이 잇섯습니 다 나도 두 번大內에 드러가 OO에서 노래를 불러 그 때 우 에서 通政大夫를 내리신 일이 잇섯습니 다. 그 當時의 感激 그 때의 榮O롭든 일만은 아즉도 記憶에 새롭습니 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일이 一場春夢 이고 나느니 OO요 남는 것 恨O밧가 업습니 다. 내싸는 一生을 두 고 그래도 무 얼 해볼가 하고 精進해 왓스나 지금와서는 무엇때문에 노래공부를 하엿든가 하 는 OO, 自覺뿐입니 다 近六十年을 두고 싸어 온 그 O功, 그 熱心을 만일 다른 길에다 또닷드라면, 하는 後悔와 돈 주고 못주는 그것만 조아서 靚은 날을 無O 하게 OO하엿든 自覺의 念이 하로에도 명번식 납니 다. 다 늙으막에 와서는 無力한 힘을 모아 聲樂會라고 組織을 하여노앗스나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노래를 잘 살려나갈 수 잇슬지 의문입니 다. 이 點에서 사회적 後援이 잇기를 바랄 뿐 입니 다.(사진 : 이동백씨)

28. 그들의 懷古談② 三代를 繼續하야 노래길에 精進

圓覺社舞臺에서 活躍 朝鮮聲樂會 金昌龍 | 매일신문 1937. 5. 4.

내가 노래를 배호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일곱살 짜부터인가 봅니다. 그러케 일즉 노래공부 를 시작하게 된 原因은 집안 어른이 모다 노래를 위해서 一生을 밋치 시기 짜문입니 다. 祖 父甘(金O玉씨)께서는 일즉 도라가시엿스나 일흠난 名唱으

로 진양調를 처음 불으기 시작 한 분입니다. 조부님과 朝鮮 近世의 名唱인 宋興祿씨와는 男妹間으로 두 분이 젊었을 새 부터 意氣相合했든 모양입니다. O親(金正根)에서도 祖父님의 뜻을 이어 一生을 노래공부에 맞치시엿습니다. 지금은 다 他界해버렸습시다만은 OO의 有名한 名唱 黃好O 柳政 學가튼 이들이 다 O親의 弟子이고 李東伯씨 역시 O親에게 노래를 배운 분입니다. 고향 은 原來 全羅道이나 자라나기는 忠淸道 O川에서 헛고 서울로 오기는 三十四 五歲 때이니가 지금부터 거진 三十餘年前인가 ㅂ니다. 그 재 서울에는 圓覺社가 생긴 OO로 圓覺 社가 되기 때문에 서울노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悅OO자리에 長安社가 잇섯고 朝鮮劇 場자리에 演興社가 잇섯기 때문에 이 세 곳의 늘 出演을 하엿습니다. 우리의 全盛時代는 아모래도 甲午以前으로 그 ㅈ는 노래군의 生活도 훨씬 安定되엿고 못사람들의 OO도 만히 바덧습시다 李東伯씨도 그 ㅈ 大內에 드러가 노래를 불으고 通政大夫로 下賜바더 우리 사이에는 李通政이라고 불으지만 나도 東伯씨와 더부러 通政大夫를 下賜바 덧습시다 圓覺寺도 업서지고 長安社 演興社도 다른 ㅈ이 되어버리고 黃金町에 光武臺가 되엿섯스나 예전 ㅈ지 못해서 우리는 地方으로 단이며 겨우 O命을 保存하게 되엿다가 最近 에 와서야 京城에다 자리를 ㅈ고 차차 무엇을 해볼가 하고 잇습시다. 그러나 노래 게나 불을줄 아는 사람은 다 六,七十이 넘어 늙어버리고 뒤를 이을 젊은이들이고 그리 만치 못 합니다. 나도 그동안 애써 가르쳐 불냐고 한 사람이 여럿 잇섯스나 中途에 고만 두는 사람 이 大部分이고 예전과 ㅈ치 一生을 노래에 ㅈ기 겠다는 사람이 업기 때문에 한편으로 ㅈㅈ 하고 서운하기 ㅈㅈ이 업습시다. (寫眞 은 金昌龍氏)

29. 朝鮮聲樂研究會의 新作 唱劇 片時春 二十三日부터 東劇서 公演

| 매일신문 37. 6. 11.

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新作 唱劇 「片時春」(四幕六場)을 六月 二十一日부터 五日間 市内 東洋劇場에서 上演할 터이런데 그동안 「沈淸傳」 「春香傳」 「變神將傳」 등을 새 로운 形式의 唱劇으로 上演하야 好評을 사왔드니만큼 이번 公演에도 「팬」들의 期待에 어그러지지 안게하기 為하야 方今 洞會會員은 猛練習을 하고 잇는 중이라고 한다.

▲ 脚色 金容承

▲ 演出 丁貞烈

▲ 唱 宋萬甲 李東伯 金昌龍 丁貞烈 鼓手韓成俊

▲ 出演者 吳太錫 丁南希 趙相鮮 金世俊 申快童 金演洙 丁元燮 徐鴻九 朴綠珠 李素 香 林小香 金任洙 成美香外 男女 二十名·

30. 春香傳全篇(춘향전 전편) 레코드化(화) | 동아일보 1937.06.11 기사(뉴스)

劇(극)으로 映畫(영화)로 언제까지나 一般大衆(일반대중)의興味(흥미)를 붓잡고 있는 春香傳(춘향전)은 이번에 빅타 - 蓄音器會社(축음기회사)에서 그全篇(전편)을 레크 I 드에 너허 未久(미구)에 發查(발매)하리라는데 吹込者(취입자)는 판소리의 一流名唱(일유명창) 丁貞烈(정정렬), 李花中仙(이화중선), 朴綠珠(박녹주), 林芳蔚(임방울), 金素姬(김소희), 韓成俊(한성준)(鼓(고))諸氏(제씨)라고.

31. 전조선향토연운대회 판소리大會 第二夜(제이야) “深靑甌(심청전)” 傳唱(전창)의 밤 | 조선일보 1938.04.08. 기사(뉴스)

金二十八日(금이십팔일)밤 府民館(부민관)에서 판소리대회는 작야 춘향전(春香傳(춘향전))으로 대인기와 공전의성황으로써 끝마쳤다. 판소리대회의제이야(第二夜(제이야))인 오늘밤은 역시 가튼시간으로 밤 일곱시부터 부민관의 가튼 무대에서 공연하게되였다. 출여하는 이는 작야와 동일하게 다음일곱분이 맞기로 되엿다(입장요금은 일반 五十錢(오십전) 讀者(독자)는 三十五錢(삼십오전)으로 畵引(할인))

“深靑甌(심청전)” 全篇輪唱順(전편운창순)

金延壽(김연수)

深靑母(심청모) 삭바느질 데서부터 신령에 빌어 심청(深靑(심청))을 나흔 후 자장가 부르는데까지

金如蘭(김여란)

심청모 산후별증으로 눈물흘러 유연하고 죽은뒤에 심봉사 젓동냥하는데까지

林芳蔚(임방울)

심청이 인제 애비대신으로 안타까히 눈먼아비를 위하여 밥동냥단이는데

朴綠珠(박녹주)

만고효녀심청이 눈먼아비를 위하여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며 사당에 눈물로하직하는데

李東伯(이동백)

불상하다 우리 심청임당수 기픈물에 아까운몸 빠진이후 천신어도으심이 되어 송천자 화초바테 강선화(降仙花(강선화))가 된곳까지

宋萬甲(송만갑)

고령으로 드러누웠으나 어판소리대회에 한목 마지막으로 끼워붙양으로 이번에 비장한 결심으로 출연해야 송씨의 제일명장인 한 장면을 노래하기로 되었다.

伽倻琴併唱(가야금병창)

正南稀(정남희) 吳太石(오택석)

이 두분이 찬조출연하여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가야금병창))으로 단가 (短歌(단가))를 노래하기로되었다

32. 朝鮮鄭土藝術大會(조선향토예술대회) 開放(개방)되는 藝術(예술)의 殿堂

| 조선일보 1938.04.15. 기사(뉴스)

朝鮮鄭土藝術大會會期場所決定(조선향토예술대회회기장소결정)

開放(개방)되는 藝術(예술)의 殿堂(전당)

四月廿五日(사월입오일)부터 十日間(십일간)……

府民館(부민관)과特設露天劇場(특설노천극장)에서

各方面(각방면)에暴風的人氣捲起(폭풍적인기권기)!

本社三大事業記念(본사삼대 사업기념)

본사에서는 본보지령륙천호돌파와 혁신오주년기념 삼대 사업 중의 하나인 조선 특산물전람회(朝鮮特產品展覽會(조선특산물전람회))와아울러 이 전람회를 더 욱 의의있고 빛나게하기위하여 전조선 향토연예대회(全朝鮮鄉土演藝大會(전조 선향 토연예대회))를 열터이라함은 이미발표한바어니와 그내용으로 벌써소개한 걸궁 패, 꼭둑각시,몽산탈춤, 산대도감, 짚지패등각도민 속노리대회(各道民俗(각도민 속) 노리大會(대회))춘향전, 심청전등, 「판소리」 대회 와멋 팔도여류명창 경창대회(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팔도여유명창경창대회))외에 조선고무용대회 (朝鮮古舞踊大會(조선고무용대회))맹인재담(甞人才談(맹인재담))등을 추가하 야 본사대 강당에서 열리는 조선특산물 전람회와가티 오는이십오일부터 오월사 일까지 열 흘동안 제일연예장(第一演藝場(제일연예장))인 부민관 대강당에서와 제이연예장 (第二演藝場(제이연예장))인본사특설로천극장에서 그호화러운막을 열게되였다제 일연예장인 부민관 대강당에서는 이십칠, 팔이틀동안판소리대 회 오월이일에는 조선고무용대회 삼, 사랑일에는팔도 녀류명창경 창대회가 각각 잇슬터이며 본사 가 태평통일정목 전 리왕직미술품제작소터에 삼천여명을 수용 할만큼특설한 제 이연예장에는 오는이십오일부터 오월사일까지열흘동안 전라도 걸궁패를게 속하 야 출연식히는하편 산대도감 몽산탈춤 꼭둑각시맹인재담 짚 지패등을 사흘식

혹은 이를식박구어 연출케 되었는데 판소리 대회는 조선성악 연구회(朝鮮韓樂 硏究會(조선성악연구회))의 리동백(李東伯(이동백))김창룡(金 昌龍(김창룡))림방울 (林芳新(임방울))김연수(金鍊守(김연수))박록주(朴綠珠(박녹주))김여란(金如蘭(김 여란))씨등 전원이 총출동하여 춘향전(春香傳(춘향 전))과 심청전(沈淸傳(심청 전))을 전부노래하고 조선고 무용대회는 한성준(韓成俊(한성준))씨 지휘하에 조 선음악무용 연구회(朝鮮音樂舞踊硏究會(조선음악무용연구회))원 전원이 옛날궁 정에나대가지연례(宴禮(연례))때에추든 고무용 을 줄터이고달도여류명창 경창대 회에는 부내각권번의 명창기생은물론이려니 와 전조선팔도의여류명창이 총출동 하여 향토색이 농후한 자기고장노래를 노래 부를터이며 각도민속노리대회인 걸 궁패, 산대도감, 봉산탈춤, 꼭두각시, 짚지패등 은 그대개가 쇠퇴하여져서 그전 모를 옛물수업는것을 본사가 막대한비용을액기 지안코 기술자를전조선적으로 초빙하여 진용을가추어출연케하는것인만큼그어 느것이고모두조선향토연예를전 적으로 엿보는 조흔기회가 될것으로 보사는 절 대의자신을 가지고 만천하독자 에 이향토연예대회를 이바지하려는것이다 (사진은 몽산탈춤의 한 장면)

33. 朝鮮特産品展覽會(조선특산품전 랑회) 本社主催(본사주최) 記念郷土 藝大 會(기념향토연예대회) 演藝朝鮮(연예 조선)의萬華鏡(만화경) 豪 種目總登場 (호화종목총등장)! | 조선일보 1938.04.21. 기사(뉴스)

朝鮮特産品展覽會(조선특산품전람회) 本社主催(본사주최) 記念(기념)

郷土演藝大會(향토연예대회) 演藝朝鮮(연예조선)의萬華鏡(만화경)

豪華種目總登場(호화종목총등장)! 民俗(민속)노리大會(대회)

女流競唱大會(여유경창대회) 古(고) 舞(무) 踊(리) 大(대) 會(회)

판소리 大(대) 會(회)

본사에서서는 오는 어십오일부터 오월사일까지 열흘동안본사대강당에서 열릴 본 사주최 조선특산품전람회(朝鮮特産品展覽 (조선특산품전람회))를 더욱 빛나 게 하기위하여 그 기념으로전람회 기간중 조선향토연예대회(朝鮮郷土演藝大會(조 선향토연예대회))를아울러 열기로되야 제일연예장인 부민관 대강당에서는이 십 칠,팔 어들동안 「판소리」 대회 오월이일에는 조선고무용대회(朝鮮古舞踊 大會 (조선고무용대회))상, 사 양일에는 팔도여류명창경창대회(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 (팔도여류명창경창대회))를 각각 열고 제이연예장인 본사특설 노천극장 에서는 오는이십오일부터오월사일까지 열흘동안 전다도 걸궁패를 계속출연시 키는 한 편 꼭두각시 봉산탈춤 산대도감 짚지패 맹인재담등을 이틀식 혹은 사흘 식 바 꾸어 출연케되였다

그런데 본사에서서는 어미살어저업서지고 또는나말히 쇠퇴되여가는조선고래의 음

악과 무용연극등을 될수잇는한도까지 완전한것으로 재연출하여 일반의인식 을 새로히하고져 막대한경비를드리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등지로부터 걸궁페 의 노련한기술가를뽑아모호고 산대도감짚지패 봉산탈춤의 기술자를널리모아 각각 완전한단을 조직하여벌써부터 맹연습을시키는동시에]

민속 노리대회 의효과를백퍼센트」로 발휘하기위하여 부내태평통일정목 전조선미술품제작소(朝鮮美術品製作所(조선미술품제작소))자리에노천극장을 건설 키 로 되어 이미공사에 착수, 주야진행중으로 머지안하야삼천여명관중을 수용할 평 장한 대극장이 본사여페 나다니게되였다 아외에

판소리대회는 이동백(李東白(이동백))김창룡(金昌龍(김창룡))임방울(林芳蔚(임 방울))박녹주(朴綠珠(박녹주))김여란(金如蘭(김여란))김연수(金演守(김연 수))남녀 명창 여섯명이 우리대증에게 가상 귀익은향토문예의 대표작 춘향전(春香傳(춘 향전))과 섬청전(沈淸傳(심청전))을 첫번부터 끝까지 노래하고

고무용대회는 사계의 대가인 한성준(韓成俊(한성준))씨를 중심으로 조직된 조 선음악무용연구회(朝鮮音樂舞踊研究會(조선음악무용연구회))가 그회의 처녀 발 표대회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주는춤추되 우리가 지금엔몰수업는 과거급제 하 고추는춤,한량(閑良(한량))춤, 상좌(上佐(상좌))춤등을출터이며

여류명창경창대회는 경성각기생권변의 일류명 창은물론 전조선팔도의 일류명 기명창들이 총능장하야 향토색이농후한 자기고장노래들 소리쳐불르고 재담(才談(재담))에는 이미발표한 망인재담외에 은되증인 사계의대가 박춘재(朴春載 (박 춘재))씨가특히 본사의 계획에찬성하야 최후익봉사로 특별 출연을하고 그의 장 기인 「발작난」도 아울러공개할터로 출연과목으로보나 출연인물로보나 이 조선 향로연예대회야말로 아직까지우리가 가져보지못한 조선연예의 시간적 공 가적 의 총등장으로 자랑할수잇는대회로 본사는이연예의 만화경 (萬華鏡(만화 경))을 조서트사품전람회 와한께 본사지령 육처흐돌파와혁신오주년기념의 서울 로 마 처하독자에게 아니 전조선대증에게 자시을가지고이바지하려는것이다(커 트는 (상)고무용"포쯔" (하)탈춤"포쯔"

34. 朝鮮特產品展覽會紀念(조선특산품전람회 기념) 全朝鮮鄉土演藝大會(전조선향토연예대회) | 조선일보 1938.04.22 기사(사고)

朝鮮特產品展覽會紀念(조선특산품전람회기념)

全朝魚券郎土演藝大會(전조선향토연예대회)

民俗藝術大(민속예술대)페-젠티

第二會場(제이회장)

本社左隣空地假設劇場(본사좌인공지가설극장)

山始都監出演李春植(산대도감출연이춘식)(指揮者(지휘자))金星泰(김성태) 金學先(김학선)

鳳山(봉산)탈출出演李(줄연이동벽)(引率者(인솔자)金景錫(김경석) 哦明花(엄명화)
金振玉(김진옥) 金武淑(김진숙) 韓相健(한상건) 金錦仙(김금선) 金守正(김수정)
金柳色李潤華(금유색이윤화) 金學元(김학원) 羅雲仙(나운선) 金成振(김성진) 梁錫鉉(양석현) 方永煥李國權(방영환이국권) 延學朋(연학봉) 金明根(김명근) 韓周弘(한주홍)

꼭두각시出演李元明(출연이원명) 指揮(지휘)로八人姓名未著(팔인성명미착) 忙人才談出演朴春福(맹인재담출연박춘복) 金光石(김광석)

잔지 패出演金泰運(출연김태운) 卓福萬李命山탁복만이명산) 李命吉白樂堂(이명길백락당)

걸궁패 農樂出演金在先(농악출연김재선) 朴雲先方千汝以上慶北(박운선방천여이상경북) 吳弼善(오필선) 金五星(김오성) 韓一成(한일성) 宋昌奉以上全(송창봉이상전남) 金在弘崔晚策(김재홍최만영) 趙熙範上以京畿(조희범상이경기) 金泳(김영)

口外數人(외수인)

各地(각지)의 精萃(정취)를 뽑아서 一園(일단)을構成鄭漢奎(구성정한규) 石元順(석원순) 李允四金貴得(이윤사김귀득) 金德根(김덕근) 金光彩朴春載才談演出朴春載(김광채박춘재재담연출박춘재) 金與烈金泰運(김흥렬김태운)

會場案内(회장안내)

第一會場(제일회장) (夜七時開演(야칠시개연))

▲四月廿七日(사월입칠일) 판소리大會(대회)

■四月廿八日春(사월입팔일춘) 香(향) 傳沈(전침) 淸(청) 傳(전)

▲五月二日古典舞踊大會(오월이일고전무용대회)

▲五月三(오월삼).四日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사월팔도여유명창경창대회)

第二會場(제이회장)

自四月二十五日至五月(자사월이십오일지오월) 四(사) 日(일)

晝午後一時(주오후일시)부터 五時(오시)

夜午後七時(야오후칠시)부터十一時(십일시)

香樂歌舞大(구악가무대)페-젠티

第一會場(제일회장)

本社右隣府民館大講堂(본사우인부민관대강당)

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팔도여유명창경창대회)

演出(연출)

成珊瑚珠(성산호주) 全羅(전라) 金順姬(김순희) 咸鏡(함경) 全花鮮(전화선) 慶尚(경상) 敢明花(감명화) 黃海(황해) 李素如慶尚(이소희경상) 金壽香咸鏡(김수향함경) 金碧桃(김벽도) 平安(평안) 裴雪香(배설향) 慶尚(경상) 洪錦花(홍금화) 忠淸(충청)(以上地方(이상지방)) 市內各券番總員(시내각권번총원)

古典舞踊大會(고전무용대회)

出演(출연)

韓成俊(한성준) 李南活(이남활) 韓立分(한입분) 李秀松(이수송) 趙燕王(조연 왕) 崔壽成(최수성) 李華隱(이화은) 趙錦香(조금향) 白萬金(백만금) 方能鉉(방 용현) 趙孝全金丁(三효전금효정) 金德鎮(김덕진) 李岬王(이경왕) 洪(喜)口淑(숙) 金明花(김명화) 韓英淑(한영숙) 朴珍紅(박진홍) 金再粉(김재분) 韓蓮化(한련화) 李剛化(이강화) 張紅心金周卿(장홍심김주경) 金奉業(김봉업) 金萬三(김만삼) 金光彩(김광채) 金晴(김청)양 金世俊(김세준)

판소리大會(대회)

出演(출연)

李東白(이동백) 金昌龍(김창룡) 林芳蔚(임방울) 金鍊守(김연수) 朴綠珠金如蘭(박녹주금여란) 外數人(외수인)

入場料(입장료)

第一會場五十錢讀(제일회장오십전독) 者(자) 三十五錢(삼십오전)

35. 本社主催(본사주최) 特産展(특산전) 第四日(제사일) 朝鮮獨特(조선독특)의
“땅제조” 人氣(인기)의 | 조선일보 1938.04.29. 기사(뉴스)



神奇(신기)한 才操(재조)와 律動(율동)은 恍惚境(황홀경) 第一演藝場(제일연예장) 서는 深靑靑全唱(심청전전창)

第一演藝場(제일연예장)

본사주최의고악무 (古樂歌舞(고악가무))대회는 지난 이십칠일밤 일곱시반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첫날의 막을 열었었는데 근래에 보지 못하던 대성황을 이루고 제이일인 이십팔일밤 일곱시 반부터는 심청전 (深靑靑(심청전))의 전곡을 창극으로 상연하게 되었다. 심청전은 충향전과 함께 고전(古典(고전))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것 역시 조선의 일류명창들이 부르게 되었다.

김연수(金延壽(김연수)) 김여란 (金如蘭(김여란)) 임방울(임방울(林芳蔚)) 박녹주(朴綠珠(박녹주)) 이동백(李東伯(이동백)) 김창용(金昌龍(김창용)) 등제명창이 이 위대한 고전을 살리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고 잇스며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조선성악연구회))의 증진으로 명고수의 충호를 받는 정원섬(丁元纖(정원변))씨가 풀연을 할터이므로 이밤의 찬란한 성과는 영위히 고악상에 금자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요기에 더욱 감격할 사실은 이 뜻잇는 밤을 위하여 오래동안 병석에 누엇던 명창 송만갑(宋萬甲(송만갑))씨가 비장할 뜻으로 병구를 무대에 올려서 찬조하게 되었는데 이밤에 부르는 그의 노래가 그의 절창(絶唱(절창))이 되지 나안 홀가하고 여러 방면의 이야기거리가 되고있다.

第二演藝場(제이연예장)

이와 병행하여 제이 연예장(演藝場(연예장))의 민속예술대회는 일련야대만월을 이루울뿐 아니라 각 바연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이십팔일부터는 줄타기 명수 리정업(李正業(이정업))씨와 김봉업(金奉業(김봉업))랑씨가 “땅재조” 라는 것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아모데도 소개되지 안흔것으로서 선기한재조와 놀라운 를동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케할것으로 민속예술대회의인기는 장안에 크다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36. 數千觀衆無我境!

| 조선일보 1938.04.29

심청이팔려갈때의가련한장면에 婦人席(부인석)에서는 涕泣聲(체읍성) 판소리大會(대회)

第二日盛觀(제이일성관)

전날 춘향전전 창대회(春香傳全唱大會(춘향전전 창대회))로 수천관중을 도취시킨 본사주최의 구악가무(舊樂歌舞(구악가무))도 「페젠티」의 이틀째밤심청 전(沈淸傳(심청전))전창대회는 이십팔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부민관에서 열리엿 다 이날은 제일일보다 더만흔 군중이 모여들어회장아페 빠치여잇는 장사진!가 특한 이밤의 뜻잇는모임에참여하겠다고 정각을 한시간이나압서서 문열리기를 기다리고섯던 관중이 문을열자 밀물처럼쏘다져 드러가서 장내는 삼시간에 입 추의 여지가 업시 팍드러차게되엿다 막이열리자 한승호(韓承鎬(한승호))의 「푸로로그」로부터 대망의 심청의 창극이버려져서 김연수(金演洙(김연수))씨가 첫대목인 「삭바누질 관대도복」 을전형적광대의 쯤로 불러내고 오태석(吳太石(오태석))씨의 「곽씨 부인사별」 의 대목을 거쳐 김소희(金素姬(김소희))씨 가미미미그래서 곽씨의장사를마치고 집으로들어오는장면을 노래하다음 정남 희(丁南希(정남희))씨가 심청이가 장승상덕으로가는대목을 가야금(伽椰琴(가 야금))병장으로연출하야 청중을 취하게 하엿다 그다음 심청이 고양미삼백석으로 뱃사공에게 몸팔려가는대목을 박록주(朴綠珠(박녹주))씨가 구슬푸게 노래 하야 심청전 「스토-리」가 그 노픈고비에 다해서 장래의 부녀들은 모두눈물 을출렸다 그다음 수궁가(水宮歌(수궁가))를 김창룡(金昌龍(김창룡))씨가 북려 절찬을 바덧스며 끄드로 리동백(李東伯(이동백))씨가 심봉사 눈뜨는데를 그로숙한 몸짓손짓과 역양에넘차는 노래로 황후된 심청이를맛나 심봉사 춤을주고 날뛰 는장면을 그려내듯하니 관중은 이백발의 국창의역창에 저윅히 머리를 숙 옳다 이리하야오후열시반쯤 끝을막엿다

37. 寫實說明

| 조선일보 1938.04.29

(右上(우상))土室(악사실)스냅 名唱四態(명창사태)…(右上(우상))宋萬甲(송만갑)(右

下(우하))金如蘭(김여란)(左上(좌상))동백(左下(좌하))金昌龍(김창룡) (右下(우하))
第一演藝場(제일연예장)판소리대회觀衆入口(관중입구)

(右上(우상))줄타기 (左上(좌상))第二演藝場觀衆(제이연예장관중)(左下(좌하)) 山
臺都監(산대 도감) (中(중))配人才談(맹인재담) 下段(하단)(右(우))걸궁패(中 (중))
상모돌림(左(좌)) 朴春載才談(박춘재재담)

38. 近代朝鮮(근대조선)의 名唱(명창) 故(고) 宋萬甲一代記(송만갑일대기)

| 조선일보 1939.01.08. 기사 (칼럼/논단)

노래잘하는 송만갑(宋萬甲(송만갑)) 일대명창 송만갑이라면 조선방방곡곡에서 모
르느 이가 업슬만큼 그의이름은 전조선에 떨쳐잇섯다. 그러툃 송만갑씨가 금년
새해 첫날인 정월초하룻날 칠십사세를 일기로 다시도라오지못할 황천의길을 떠
나고 말엇다

송만갑씨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곳은 전라북도 구례 (求禮(구례)) 군봉북리(鳳
北里(봉북리))엿다 그의 조부된느 송흥록(宋興祿(송흥록)) 은 당대 뿐아니라 조
선국창으로 제일가는 이엿으니 순조(純祖(순조))때 정승으로 잇던 하옥김좌근(
荷屋金左根(하옥김좌근)) 정성이 심청전은 주상원으로부터서듯고 춘향전은 송
흥녹에게서 드렸다는 특히 춘향전명창으로 유명

한 분이엿다 그뿐만이나리 전조선팔도에 퍼진 창법(唱法(창법))은 거의 송흥녹을
동해서 전차되엿섯다

이러케 유명한 조부를 모신 송만갑씨는 일곱 살부터 노래에 특수한 천품을 타
고나그소리가 청장미묘(淸狀美妙(청장미묘))하야 특히 그조부의 총애를바더 네
가크면 반드시 내뺏을바뜨려 후세에 전할것이라는 부탁을 재삼재하여왔섯다 그
러다가 조부도 세상을 떠나매 그다음은 아버지되는에게서 노래를 배우는데
특히 경치조코 풍광조흔 명상대천을차져서 보따리를 질머지고다니면서 노래공
부를 시켰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한번드름녀 곳 그대토 잘해왔는데 다만한가지 딱한일은 울음
우는장면은 암만 가르켜야 영 되어먹지를 안헛다. 심청이 우는 장면, 춘향이 우
는 장면등이 원일인지잘되지를 안헛다. 그래서 그아버지되는이가 일부러 굶은
회초리를 여페다가 여러개씩 깍거세워두고는 울음을 잘 울지 못할때마다 이 회
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가르켰다고 한다.

열일곱살부터 전주(全州(전주))는 영문 대령광대로 그 명성이 점점노파져서 그
후로는 창부(唱夫(창부)) 로 팔도를 도라디녀 갈수록 그 노래는 난숙해가고 그
창법이격을 이루었는데 어서부터 특히 잘부르는 노래가 잇섯스니 그것은 흥부

놀부 진중의 스렁스렁 톱질이야이 대목의 노래는 송만갑씨가 가장 잘부르던 곳이다. 그리고 심청전에서는 심봉사가 곱씨부인을 뭇고도라와 심청이를 붓안고 자탄하는곳이었다.

이러다가 서울로 올라오게되기는 고종제(高宗(고종))께서 전조선에 산재한 일류 명창을 부르셨는데 처음으로 나타난분이 김창환(金昌煥(김창환))시와 송만갑시였다. 그다음으로 정정렬(丁貞烈(정정렬),이동백(李東伯(이동백)) 이런이들이 차례차례로 상경하게 되었던것이니 이러케 일류명창이 서울에 모혀가지고 생긴것이 유명한 원각사(圓覺社(원각사))니 지금으로부터 삼십팔년전일이다

이때에 비로소 판소리를 연극적으로 불리는 소위 창극(唱劇(창극))이 라는 것이 생겨났스니 실로조선구약 사상에잇서 그들의 공적은 놀라웁다고 하지인할수 없다

이르케 원각사에서 날마다 창극을 상연하여 팔년동안 끄을어와서 비로소 조선 판소리가 새로히 또는 널리 일반사회에 퍼졌스니 이때가 송씨의 일생에서 가장 활약만히 하던시절이요. 또 조선구약이 전성하던 시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에서 소리하고 감찰(監察(감찰))의 직함을 엇게까지되였다

그 후 원각사가 해산되자 자연모두 동서로 흐터가서 용이하게 명장의 지위를 보존하기 어려워스나 그후 세월은 흘러 이십여년이 지낸 오년전 즉소화구년오월에 조선의 명창은 다시 한곳에 모혀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조선성악연구회))를 창설하였다. 이 연구회가창팀이후 송씨는 교육부장(教育部長(교육부장))으로 오년동안 하루와가티 이회관에서 제자를 양성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칠십이리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삼사십명의 제자를 가르키기에 조금도 게홀리 하지안코 심지어 이세상을 떠나기 사흘전날도 역시 병석에잇스면서 노래를 가르키였다 그리하여 평생소원은 내 생명이부튼동안은 노래를 가르켜야한다고 했던 것이다

작년봄 모진감기로 대단히 위중했스나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작년오우러 본사 주최의 판소리대회에 출연하였고 지난십이월팔일은 대구(大邱(대구))에가서 명창 대회에 참석했고 방송으로는 작년 구월십구일이 최후였스니 이것이 모두가씨로서는 감개기픈 마즈막 절창이었다.

그리고 송만갑씨의 슬하에는 이남 삼녀를 두었스며 유족은 시내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상왕십리정))칠백사십일번지의 이십사호에거주한다.

[사진은 생전최후의 기념 사진과 영결식장광경]

39. 朝鮮소리來歷記 名人 名唱이 간곳은 어디 [下] 남은이는 李東伯.金昌龍
 雨氏뵈 朝鮮音樂舞蹈研究會 沈載德氏談 | 조선일보 1939. 7. 7

다음은 지금으로부터 한 이백년전 옛날로 올라가서 당시의 명창을 간단히 소개 하며 동시에 현대의 명창들에 이르기까지 간단히 간단히 이름을 열거하는 정도의 소개를 하려한 다. 조선의 『광대』가 연대적으로 가장 오랜 옛날에 비로소 가지었던 선배 『명창』네 사람이 었스니 즉 『모흥갑』『고수관』『염계달』등이었다

- ① 모흥갑(毛興甲)…경기 죽산(竹山) 사람으로서 평양 연광정(練光亭)에서 덜미 소리를 내어 이십리박까지 들리게 하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 ② 고수관(高守寬)…충남 해미(海美)사람으로서 그의 특장은 『자진사랑가』였다.
- ③ 염수달(廉秀達)…충남 덕산(德山)사람으로서 그는 춘향가중에서도 『군조사령』 나오는 대목을 잘 불렀다. 이상의 명창들보다 조금 뒤져서 송흥록(宋興祿) 형제를 비롯하여 다섯사람의 명창이 나오게 되었다 그들을 대강 소개하면
- ④ 송광록(宋光祿)…역시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의 장끼는 춘행가였고 어찌나 성량(聲量이 풍부하던지 남이 길게 숨을 열두번이나 쉴 사이에 그냥 소리를 지른다는 유명한 소문잇는 명창이었다.
- ⑤ 송흥록(宋興祿)…송광록의 형되는 사람으로서 귀곡성(鬼哭聲)으로 유명하였스며 더 구나 이들 형제는 당대의 "천하명창"이란 별호까지 차지한 쟁쟁한 명창들이었다.
- ⑥ 주덕기(朱德基)…전남 창평(昌平)사람으로서 심청가(심청가)를 잘 불렀스나 성질이 조치 못하여 일반에게 호감은 받지 못하였다.
- ⑦ 권삼득(權三得)…이는 당시에 「양반광대」란 별명을 들은 만큼 궁중출입이 자졌고
- ⑧ 김성옥(金成玉)…이는 「진양조」의 박자를 비로소 창안한 명창으로 름이 높다.

다음에 이후죽순(우후죽순)의 기세로 일어났던 명창들의 이름을 열거하여 보면

- ⑨ 전희중 ⑩ 신만엽 ⑪ 김세종 ⑫ 정창렬 ⑬ 정춘풍 ⑭ 김정근 ⑮ 이날치 ⑯ 방만춘 ⑰ 박 만순등으로서 이들중에서도 「이날치」가 그중 유명하였다.그의 본명은 이정숙(이정숙)이라 하였고 전남 영광(靈光)사람으로서 그의 특장은 「새타령」이었다. 「이날치」의 제자로서 ① 배희근 ② 이창윤 ③ 김채만 가튼 명창이 잇섯던 것을 기억해 두어야할 것이다. 정춘풍은 특히 당시 대원군(大院君)에게 총애(寵愛)를 바든 명창으로서 진사(進士)가지 지낸 양반광대이며 연전에 신문지상에 발표 되었던바와 갖치 그가 비명횡사를 하였다는 것은 무근한 헛소문이

다. 춘풍은 지금 가고 업스나 그의 제자로서는 박기흥 조기흥이란 이가 나서 얼마 전까지도 조선의 명창으로 이름을 떨치었다.

그리고 춘풍의 제자 「박기흥」과 가튼 연대에 나온 명창으로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송만갑(宋萬甲) 김창환(金昌煥)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 김정근(金貞根)의 제자로서는 ① 황호릉 ② 김창룡 ③ 이동백등 그야말로 명실이 상부한 당당한 명창들이 뒤를 이어 나왔스니 이들중의 명자 김정근은 「진양조」의 박자를 창안한 「김성옥」의 손자요 그의 부친은 유지를 계승하여 「삼공잡이」란 박자를 만들어 냈스니 말하자면 조선 소리의 곡조는 이들 김씨문중에서 거의 작곡된거나 다름없다.

이상과 가튼 순서로서 대략 현대의 이르기까지의 명창은 열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대의 명창 김창환이 간후 근대 조선의 사대 명창으로서 꾸준히 이따의 예원을 지키고 있던 ① 송만갑(宋萬甲) ② 정정렬(丁貞烈) ③ 김창룡(金昌龍) ④ 이동백(李東伯) 중에서도 또다시 송(宋) 정(丁) 두 명창이 선후하여 작고하니 남은 사람이라고는 현재 이동백 김창룡씨 박계는 업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즈막으로 최대의 성의를 기우려 대접해야 될 오늘의 두 명창인 것이다.(사진 (上)이동백 (下)김창룡)

40. 藝術賞 受賞者 韓成俊氏 祝賀會 孫女 英淑嬢 後援會

| 매일신문 1941. 4. 13

朝鮮藝術興을 위해 『모던』 일본사에서 朝鮮藝術賞 第二會 受賞者중 舞踊部分에는 朝鮮 舞踊界의 元老 韓成俊氏가 受賞 決定되었다 함을 棋譜하였거니와 이를 祝賀하는 뜻에서 〇〇〇〇協會에서는 十一日 午〇 六時부터 明月館에서 祝賀를 열었었다 韓氏의 〇〇朝鮮〇〇〇〇 에 一生을 바친 功勞가 큼은 말할 나위도 업는 것이나 氏의 家業은 四 代를 繼承하야 舞踊에 〇進하고 있다는 것이 近代에 보기 드문 일로 되어있다 그런中에 서도 氏의 門下生으로는 崔承喜, 趙澤元, 〇五〇 등 〇十〇名의 제자가 있는바 氏의 四 代를 〇承할 孫女 韓英淑嬢이 잇서 歌樂과 聲樂은 물론 무용에 잇서 天才를 발휘하야 昨年 東京公演 마치고 〇〇〇〇 朝鮮舞踊과 西洋舞踊을 研究中이라고 한다 그리하야 그 座席에서 韓嬢의 藝術을 못듯고 〇〇을 〇〇하자는 뜻으로 韓英淑後援를 〇〇하자는 意見이 一致되어 演藝協를 中心으로 活動하게 되었는데 〇〇會의 結成을 보면 第一會 舞踊發表를 열리라고 한다(사진: 〇〇舞를 추는 韓氏)

41. 唱劇界 元老 金昌龍氏 朝鮮唱劇

| 매일신문 1943. 2. 25

〇〇할〇 김창룡(金昌龍)씨는 二十四일 오전 一시 二十五分 부내 〇익정(〇〇町) 十四번지의 자택에서 뇌일혈로 七十二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김씨는 리동백

(李東伯)씨와 함께 조선 창극계의 쌍벽으로서 지칭되어온 명창인데 충남 음성(음성)의 출신으로 十四세때에 이 길에 뜻을 두고 상경한 후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통정(通政)의 가자를 맞고 일대의 명창으로서 일흔을 날렸고 또 일찍 구한국시대에 국립극장에 해당하는 원각사(圓覺寺) 초창기의 한사람으로서 五十여년동안 조선 창극사에 남긴 족적과 공로는 큰바 잇서 그의 별세는 창극계의 물론 일반으로부터 크게 애석되고 있다. 발인은 二十九일 오전 十시로 되어있다. (사진: 고 김창룡씨)

3) 일제강점기 충청권 명인 명창 잡지 기사 내용

가) 잡지기사 내용 리스트

1. 「조광」 제17호, 3권3호(1937.3.1.) 靑葉生

七十平生을朝鮮 노래로 바친 情熱名唱.苦難의代記 名唱李東白傳

2. 「조광」 제18호, 3권 4호 4월호(1937.4.1.) 鼓手五十年 韓成俊 前記

나) 잡지기사 내용

1. 「조광」 제17호, 3권3호(1937.3.1.)

七十平生을朝鮮노래로바친 情熱名唱.苦難의代記 名唱李東白傳靑葉生

前記 當代名唱 李東白氏 七十平生을 「판소리」藝術로 몸을바친그에게 우리는 唱夫이니 「광대」이니하는以上 좀더認識을갖일必要가없을가 「판소리」그것은 險한길을 거러온 朝鮮의 唯一한民俗音樂이었다. 그러케생각한다면 그도亦是 다시 얻기어려운 存在일것이다. 記者 는 그의-生을듣고 讀者와같이 참된再認識을얻고져 數次往訪하여 그의히미한 記憶을더듬어 告白을듣기로하였다.

左는 그의 對答을綜合한 一代回想(記이다).(寫眞은李東白氏)

一.千字책뒤집어엮고흐리山窟속에修鍊

내出生地는 至今忠淸南道舒川-옛적일흔은 庇仁郡一方面都萬里 도마니」洞里입니다. 生日일 二月初사흘인데 그전해十月에 父親이도라가시고 遺腹子외아들노태어났읍니다. 집에서는 三寸宅과같이 머슴두고 農事짓고있었지요. 어렸을때요 어렸을때야 작난치고 놀고별것있읍니까. 소리에대하여 처음귀를기우리고 듯 기도한것은 十歲前後이였읍니다. 그리고는書齋에서 千字를뵈이는데 암만 배와도 도무지 드러오지않었읍니다. 하늘천 따지하고는 그아래는 惝惝이였읍니다. 그래도 읽기는 史略初卷까지 읽었는데 天皇氏는 以 木德으로王하고 또그아래는

알수없었습니다. 十五六歲때인듯합니다. 하로는 訓長에게 어찌도 종아리를 마졌던지 그만 울고 채을다집어던지고 소리배우려나 섰습니다. 그때부터 소리하는사람들을 쫓차다니었는데 그때名唱인 崔相仲氏에게도 뵈이고 金貞根氏한 데 한달 가량 소리를배웠습니다. 처음소리를 感嘆하야 드른것은 沈淸傳인데 내天性에 맞는것도있었겠지만 그至極한 孝心에 感服하야 나또한번 소리를잘하야 그것을 世上에알니움으로 내一生의 事業으로 삼는것이어린마음에도 크게 의미있는일이 라고 생각되었읍니다. 그리고는 決心이더하야 집의 어른들몰내 「도마니」 흐리山이라는곳 용나왔다는 窟이있는데 그때 그 山임자인 宋掌儀한데 말씀디렸읍니다.

「장익님 저를 솔나무 마흔個만주세요」하니 宋生員은 무엇하려고 그러느냐고 무러보기 예사정이야기를하고 나무를 얻어 움집을짓고 밤에가서 혼자공부도하고 소리연습을하엿읍니다. 그것이 十九歲二十歲먹든때입니다. 먹칠한듯한 캄캄한 밤중에는 잠생이울고 무시 무시하엿지요 勿論 무서운생각도없겠읍니까 그러나 처음은 탁하고 흰목이나부르고 또부 르면 차츰차츰실낫같이 열니여오고 고개를 드는 자미에 무서움도 마즈막에는 다잇엿지요 그리고 낮에冊을보다가는 저도모르게 꼬꾸라져 잤습니다. 고생이요 고생이야 목에서 피가 나오고 노래를 너머블러서 배가붓고 하엿으니 다른것은 더말할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어 른들 몰내하는것이니 고생도스러웠읍니다.

二. 放浪十年관소리修鍊의荊路

장가는 열세살때 朴氏를마져 十五歲에는 三寸宅이 집을나고 홀오마님을모시고 있었읍니다. 그때도역시 소리하는것을 향그럽게 알지안을때이니 母親께서나 어른들이 말니기도 하엿지요만은 한번決心한나에게는 꼭살길이 그것밖에는없어 뵈엿읍니다. 不孝하엿지요 그래서 그후한때는 도마니에서 曹承旨의 廳直이노릇도 몇해하엿읍니다. 그때도 종종 舒川에잇든 當代名唱 金惠鐘先生에게 聞見을 하엿읍니다. 이聞見이라는것이 참말어려운것 있었읍니다. 그리다가 二十五六歲 때 뜻을품고 京畿로올러와 이곳저곳을 放浪하다가 慶尚道 晉州로 내려갔읍니다. 그것이 庚子年안해이엿든가봅니다. 晉州가서 그곳 리谷寺에 머물러 玉泉庵에서 玉泉大師에게 念佛工夫도 두어달하엿지요 그後는 차츰 목도좋아지고 所聞이나서 江原道春川에 警務使이든 金貞根氏가게실때 가서잇었고 그다음은 昌原가서도 잇었고 昌原은 韓昌洙大監마마의 誕辰때입니다. 馬山, 金海, 釜山, 東萊로 다니며 왔다 갔다했읍니다. 그때는말이나 나귀타고 활을메고 가다가는 쉬여서 활도쏘고 마치 옛적 花郎그대로의 생활이엿읍니다. 그리다가 咸安郡에서 沈聖倫(名字不明)氏가 집을주고 도와 주어서 어머님을모시고 잇다가 그곳서 도라가셨읍니다.

그때일입니다 내가三千浦에갔다가 어떤旅幕에서 자는데 不漢黨이 밀려와서 말

도아니 하고 폭행을당하였는일이있습니다. 그래 자기도 알수없는 蓬辱에 하도기가 마키고 憤하 야 서울와서 李大將께 말씀하였더니 그놈들을 모주리 잡아다가 處刑까지 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러타고 그들을 참아 處刑할수야 있습니까 李大將께 다시빌어서 그들을 노 아보내게 한일이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旴州서 이었나봅니다. 노래를너머 불러서 그 렷치요 하초의열이 올라와 산症에걸녀서 苦生한것이 이치지않읍니다.

허대도 좋고 노래를하는사람의 生活이니 女性과의情事도 많겠대구요 천만에 그러치않읍니다. 제일 지금은내가나히많아서 차츰전같이 교한마음이 없지만 젊었을때는 僻교만하 야 똑똑하였으므로 女子가 그리 갖가히하지않엿읍니다. 남들도 그렇게 무슨 情事가 많은 듯이 아는모양이나 전에세월에도 그때문에 誤解를사고 별망신도하였읍니다 그것은 또요 다음말씀하기로하고 --. 그러나 이상한일이지요 사람이 아모리 잘못생겨도 艷福을 타고 있 는사람도있고 잘생겨서도 아모女子도 따르지않는수가 있습니다.至今妓生들을 보아도 얼 골이나 學識이나 못한테도 서방이따르는것이있고 남보다 나으면서도 人氣가없어서 空空 알코 가난하게지나는 妓生이있지않읍니까?나역시 타고나기를 여자자따르지안는 성품인지 그런女難이란것은없고 그러타고 나를理解하고 도와주는사랑도 없엿읍니다. 또 요행 나에게는 그런 情慾의생활이 내노래의 生命인 목에는 무서운 독해인줄알기때문에 노래를한번 잘해야겠다는 결심을가진 나에게는 극히조심 하지않을수 없엿읍니다 그러케되니 무슨 애 듯한 情事라는것은고없었는데 旴州서마는 평생 본처외에는 직혀오든것을 어떤점지않은 집 과수인데 진심으로 情을주는이기있어서 避하다못해 同居한일이있습니다 그때의 子息 이 하나있었는데 그後旴州를 떠나 上京한後에는 自然司 갈니여 아해만대려다 지금같이있 고 그이는 그후출가하였다고 합니다.

三. 처음은沈淸傳그다음은春香傳

아까도 말씀한것과같이 처음 나의노래를 배우려는결심은 소리로서 한번 名唱이 되여보 겠다는것과 孝心에 감탄하야 그것을 잘불러서 沈淸이의天孝 春香傳의절개 박타령의 和 睦을 말노보다 노래의 感激으로 宣傳하겠다는것이없음으로 이러한 沈淸傳이나 春香歌의 歌詞를고치여 淫蕩한 노래로 부르고 또한 그러한것을 좋아하는것을 나는 絶代로 反對하 여왔읍니다. 이러케 판소리자체의타락을 나는통분히 여깁니다. 소리라는것은 言短聲長이 라든가 高低 淸濁 遠近의 五行으로 말마다 글자마다 韻이있는 것인데 가령 天-地- 이렇 게 高低가 없고 더퍼 놓고 슬푸게만하야 關雲長이- 하면 일흠만 -오이-(實例를불러본다) 하고 일흠에 高下를 부치는 일이있으니 기가막힌일이고 聽衆도 無理解하야 슬푸게만하면 좋다고하니 어드되엿읍니다. 처음 무엇부터 뵈였나고요 처음은 沈淸歌부터 임니다. 그 다음이 春香傳襄神將傳, 花龍圖, 토기타령, 박타령입니다. 아까말씀한 金貞根 金惠鍾氏에게 배우고는 그밖에 특별한선생은 없고 혼자서 연구하고

工夫한것입니다. 唱夫라는말 은 그래도모르지만 「광대」라는말은 어드서 나온것인지 참말 얼토당치않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선생에게 들으니 「광대」라는것은 본시 탈을쓰고 춤추는것이였다고 합니다 이런말을 드렸읍니다. 옛적에 漢族의 使臣이 이땅을침범하려고 미리수탐을 나왔는데 그것을알고 黃海道등혈嶺에다가 마지하고 마즌便산에 氣骨이壯大한 키 큰 사람을 모아다가 괴상한얼굴 의 탈을해서쓰고 빈두름박에다 긴장대를꼬자 가지고 춤을추며 「휘드령재주를」넘었다지요 이것은 한計劃인데 使臣이 저것이무엇이나고하니 이곳장사들이 춤을춘다고 하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 긴장대곶에 둥근것이 무엇인가고하여 가져와보니 이번에는 정말 강철 노만든것을 갖다주니 어떻게들수가있어야지요 그런데 춤추는사람들을 그것을 휘휘 내저 으니깐 그만 놀나서 이땅을 침범치못하고 朝貢만 피마(馬名)三千 女子三千 男子三千式 바치게하였는데 그것이 妓生을 두게한 시초요 在家僧을있게하였다고요. 그러니깐 「광대」라는것은 이 「휘드령재주」하는것을 말한것임으로 「탈」이라는광字를 쓰 는것이 올타고합니다. 그런데 昌德宮役事할때에 빛광字 광字를쓰고 큰대字하고 光大라고써서 내걸었든일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온것인지 그다음부터 「광대」라는말이 떠돌았읍니다. 唱夫라는것은 李朝때 노래하든사람을 그렇게불냈읍니다. 전에는 다아시다싶이 花郎이라는것이 있지않 었읍니까. 그러나 그것이 李朝에와서 없어지고는 노래가 世上의천대도받고 차츰 低級한 곳으로 치웃치고말었으나 그러나 우리의精神만은 決코 忠孝와 節操와 信義和睦等사람 의 根本人情을 노래로서 感興을주어 世道人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겠다는것을 변치않고갓이고 있습니다. 科擧가있었냐구요?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별다른것이 아니고 그때 에 科學及第한사람들이 소리잘하는이를 뽑아서 前에입든 花郎들의 옷을그대로입히여 관 자를부치고 활 옷을입고 나섰는데 그것이 科學이였읍니다. 그때에그것을 唱夫라고하였지 요 그것이 큰榮譽로 생각되였읍니다. 風樂을잡히고 소리를부르며 長安으로돌때 박대받 든 우리의역개도 높았을것이아닙니까? 우리들이 千萬不當한 「광대」라는것과 또 탈춤추는 광대와 재주넘는才人을 잘區別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소리까지도함께 섞여서 그價値 를 알지도못하고 兩班階級의심한 차별도 우리들도 천대를 받은것입니다.

四. 우리도兩班의子孫이오

그러나 이것은 세상사람의 기막힌 잘못생각입니다. 우리들은 前에名唱들을 보아도 相當한집 子孫들입니다. 「광대」라고 천대받기는 참말 억울할일입니다. 네! 그럼 벼슬도하였지요 처음忠淸道서 廳首, 全羅道서는 執綱 京畿서는 大方 그다음 에 正二品通政大夫의직함도 받았읍니다그것은 昌德宮에 드러갈때입니다. 그럼그담은 서울을나와서 지나든것을 말씀하겠읍니다.

五. 昌德宮의華麗한옛記憶

아모대로그던지 「판소리」의 根本精神은 잊지 않으나 아러주는이가 或이스나 드무렸읍니다. 그리고 우리의생활이라는것은 亦是 이날까지 一定한 收入이 없는 窮乏한 것입니다. 그래서 放浪生活로 도라다니였든것입니다. 서울와서 살기는 四十歲지난다음입니다. 서울와 서도 어떤때는 病과 貧困으로 죽을지경이든때도 있었읍니다. 그때에 金承旨 金眞氏가 昌德宮에 말씀디려서 한달에四十圓式 내려 주어살든 일도있읍니다. 내親한 親舊는 나의 鼓手 姜散守氏가있었고 그의子弟 美元參氏와는 至今도 갖가히사귀나 그외는 生死를갈 이할 동무는없었읍니다. 그럼 昌德宮애드러가든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昌德宮에서 벼슬을한것은 李太王 上監마마 誕辰때입니다. 그때에나밖에 또沈昌煥 그리고는 慶尚道젊은이들이 많았읍니다. 하로는 上監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는

「너이들의 所願을푸러줄터이니 말하야보아라」 무르시기에

「저는 一平生 모시고 소리를부르기所願이올시다」 하엿읍니다. 어떤때는 金仁浩氏가 득겁이 재주를 御前에서 펼덕펼덕넘다가 그만上監 앞에까지와서 펼덕자빠지니 上監께서는 그냥 「허허허」하시고 우스시고 마렸는데 그것이 아직 귀에쟁쟁합니다. 또하나 그때俳優組合이있었읍니다. 그것은 그리오랜일이 아니올시다. 本是李朝도 읍하실때부터 漢陽에는 어찌 梨木이 많었는지 벌이나 뜰이나 집에까지 가지를 드리웠었다고합니다. 그래서 「伐梨使」가있었다지요 그래 이런 쓸쓸한곳이니 上監께서 도읍은하시여도 마음에들지않어 四十次나 開城에往來하셨다는 말씀을드셨읍니다. 그래이런 쓸쓸하데임으로 소리하는사람을 불러오려고 하나 그때는花郎이 다反逆의무리 의 子孫임으로 宮에 가치두시지않고 멀리두어왔다고합니다. 至今貞洞近處에 獎學院에 이런이가 있었고 또그때 가차이 모시는 「아동시악시」라는것이 있어서 이내에모시고 소 리도하고 近侍하엿읍니다. 이것을 「점내취」 獎學院에 있는것은 「점외취」라고하야 자조 싸흠도 이려났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종에 俳優組合으로 되여 宋大臣께서 만드시고 宗廟앞에있었읍니다.

우리들도 이組合에드러서 宮애드러갔읍니다. 그런데처음妓生이 宮內애드러가기는 至今朝鮮券番 即茶洞組合에서 드러갔는데 그때마춤 廣橋組合은 宮을직히는 直屬組合이라 싸흠이났었으나 茶洞서는 우리는 俳優組合에 들어서드러간것이라고 하야 마춤내 訴訟까지있었는데 廣橋組合이 진일이있읍니다. 이렇게우리들도俳優 組合에들어서 여러번 宮關에 드러갔읍니다. 어떤때는 宮뜰에서春香傳을 至今歌劇과같이 俳優를내여서 實演 하여본일이있읍니다.

梅花가滿發한뜰에서 건네를매고 그때 春香이에는 人物곱고 아릿다운妓生 香心이가하 였고 李道승은 「설경파」라는妓生이고 御使는 「남수」라는 妓生입니다. 그이들은 다어디 로갔는지 모르는사람도있고 至今있는사람도있읍니다.

六. 日誌를써서變을避했소

이러한 서울살림에 정말 남은 무슨 호강이나 하는것같이 생각하나 決코그러치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우리의본뜻을모르니 그것이 항상괴롭고 빈궁하니 困難하였고 그外에 도 別誤解와 逢辱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번가는집 이면 그집婦人과 情을通했다 고 소문이났습니다 어이없지요 그다음부터는 꼭꼭 日誌를 써두고 또나혼자가지않고 다른 사람을더리고 가거나 더리고못갈일이면 主人이게신줄알고야 갔습니다.

어떤때는 어떤大監宅에 갔었는데 누가 그大監婦人과 情을通한다는 말을돌여서 그래할 수없이 그大監을찾어가서 日誌冊을내뱉이며 어니날어니때 이리이리한일로만나지않았을 니까 하고 겨우 禍를免한일이있습니다. 또는 내얼골이 名唱金O龍氏와같어서 어떤때는 누가自己婦人을 通했다고 망신을주어 기막힌逢變을하였 드니 그後에 잘못인줄알고 사과 하였습니다. 참말 「외입」이라고는 正直히 말씀 합니다 아해난 사람까지 다섯사람밖에는 없 습니다. 그이야기요? 그것은放浪하 든 時節에꿈같이맞난것이고 그리고至今 妻朴氏를 맛 났습니다. 本妻에는 애들과 孫子까지있었으나 다 죽고말어서 至今처가 本妻가되였습니다. 이런이야 기가 무슨쓸데가있습니까. 마즈막으로 나의 원되는것이나 말씀하겠습니다.

七. 마즈막내所願

먼저도 말한것같이 「판소리」의 根本精神을모르고 음탕한노래로알고 부르며 또 그런것 을 듣기 좋아하는것이 기가막히고 또하나는 소리하는사람을 아직소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천대하는것이 일생동안 내가슴에 사뭇친 기맥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義모임聲樂研究會를 더改造하여서 집도 한萬圓주고 샀으니 이제는方針을고치겠습니다. 安만生活問題가 急하여도 우리의 權威도 세워서 料理집에는 가지않고 會館에와서 듣도록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좀더서로 研究하고 改良라야 새로作도하고 發表도하려고합니다. 先生님도 좋은노래를 지여오시요 그러면 우리들이 作曲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기의소리를믿고 傳할만한 弟子가 없는것이 섭섭합니다. 먼저도말하 였으나 나의소리에對한 唱法이 五行으로 韻律을따러하는데 어쩐지 열 만치熟練한사람들 도 내게와서는 찢찢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보는눈이 다른사람과는 다릅니다. 지금나히 七 十二歲인데도 衣食을爲하여야는 前日과다름이없어 請하면가야됩니다. 그러나 제가-生을 두고 버리지않고 소래가 價値있는것이라 는자랑은 至今까지도 갖고있습니다.

2. 鼓手五十年 韓成俊 前記 「조광」 제18호, 3권 4호 4월호(1937.4.1.)

朝鮮에남은 民俗藝術로 「판소리」는 그래도 느즈나마 새피로 化粧하여 無理解의

돌작 밭에서 낡은幻像을 살니려하는 氣運이보이나 「춤」만은 겨우 그 衰殘한餘脈을 떼카단한 妓生아씨들의 억개춤과 발장단에 엇빌뿐 무덤속 의 壁書도 埋葬 富함運命을 목도하고있다. 「소리」에는 「장단」이 그生命일대 장단을 나은 「춤」은 모든가락의 어머니가 될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리」보다 더한 待遇를 받았으니 毒藥같은 李朝 의形式文明은 춤추는 사람이나 재주하는 사람이 나 다같이 하야 卑賤한 特殊階級으로 取扱하여왔 스며 그들 亦是環境에 아침하야 살지 않으면 앓될 것이였다. 이多雜한抑壓의길에서 오직 춤을 사랑 하는 一念으로 六十平生 「장단」에 몸을바친 한藝 術家가있다. 그는 記者가쓰고저하는 韓成俊氏이다. 果然 朝鮮 「춤」은 있으나 없으나 그存在조차 알기어려운 이때 그의生涯에나타난 時代의얼굴과 生活의斷面을 그려보며 그의修鍊과 苦生希望을들어 이궁금한消息을 讀者에게 傳하여줌도 헛된일은 아닐듯싶다.

一. 울며뺨은貧苦와修鍊의첫길

처음저에게 부탁하실때부터 조금도 거리낌이나 감추는것없이 말해주어야겠다 하시고 내생각도 비록過去의 生活이 그時代로봐서나 나個人으로서나 敢히 말 못할恥辱의 길이었 든것도 있지만 그랬다고 남이 다아는것을 숨기던지 조케말하던지하면 그럴사록 더 나자신 이 나 지는것이요 거짓없이 말씀하는가운데 저의 모든것을 알려 주실것같이 생각이되어서 무슨 말씀이던지 있던대로 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제 李基世氏를맞나서 무러보았드니 亦是 「正直하게만 이야기하라」고 하신단말이요 나도 그것이 제일조켓다고 생각합니다. 汁城子高道面 高南 下道里 갈미洞里에서 貧寒한農家에 태어나고 나기는 甲成年여름 六月十二日입니다. 맞아들노 同生五男妹가 있었읍니다. 三間房에 祖 父母와 父母님이 같이 계시고 農事를짓고 겨우 지나는 形勢지요 마춤 그洞里는 安東金氏 에 兩班들이 많이 살든곳입니다. 그런곳에서 나는 철모를 六七歲부터 祖父되시는 自雲採氏 라는 이한테 춤추는것과 복치는것을뵈기 시작하였읍니다. 원체 가난하니 글공부는 변변 히 하지도못하였고 또 뵈려고 하지도않았읍니다. 祖父는前부터 조선춤을 잘하였읍니다. 모말을놓고 그우에 두레복을 언즈면 어린내키로는 세서아복을 칠수있었읍니다. 집에서엿 더케 가난하였섰는지 춤공부할때는 뵈잠뱅이, 하나만 입고 하였지요. 그러나 할머니 한데는 외아들손자로 대단히 귀염을받었고 나만은입는것이나 먹는것이나 兩班의아들들에게 뵈그 지 않도록하여 주시느라고 애도 많이 씹습니다. 그래서 늘 헛투로 먹지않어왔읍니다. 어 떤때는 저녁에 한번 수수밥을 주시기에 내가 먹지않았드니 그만 몰내나가시드니 흰밥으로 맛고아도 주신일도있는데 그때에 어데서 밧고아다주섯는지 저는 모르나 말없이나가서서 밧고아주시든 記憶이 늘 잊치지않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춤이라고 별노없든 때이라 어린 七八歲兒孩가 복치고 춤추는것이 新奇하게 貴염을받어서 金氏宅에서 特別히 貴염도 많이받고 兩班宅에 자조出入하면서 그들의子孫과 거이가치 자러나다싶이하였으니 자연 히 禮法의 모든 凡節을 알게되였읍니다. 그때 金參

判宅의 恩愛를 많이입고 咸陽郡守이 든 金尚明氏(名字不明)와는 종종 至今도 書信往來가 있었읍니다. 그때 그것이 七八歲때 임니다. 갈미서 한三十里되는 골에 당곳이 있었는데 길이험하고 강을건너 가운데 하라버 지 역개에 올라안자 갓전임니다. 그리고 그곳서 춤을추는데 아마 어린것이 춤을추는것이 奇異하였던 지 그때돈으로 七十兩가량 버려온 일이있었읍니다. 그러나 춤추는데대한 무슨 자각이있는것도없고 모도 다른이들이 칭찬해주는 바람에 신이나서 할뿐이었 지요. 그래 서 八九歲때붙어는 科學가있어서 紅牌使令白牌使令이나서 고사당차 레와 幕所소분에 四面玉調와 소래, 춤이있고, 산소에서 즐치고재주도 넘었는데 그런데 춤추려가는일이 만었읍니다.

그리다가 十四歲때 洪城 골 徐學祖氏에게 줄과 재주를 三年間배웠읍니다. 그리고 이 여서 隣邑德山골 修德寺라는 골에가서 二十歲나도록 춤과 장단공부를 하 였읍니다. 그리 고 이여서 隣邑德山골 修德寺라는 골에가서 二十歲나도록 춤과 장단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붙어 차춤 장단이 소리와 얼마나 중한 관계가있은 지 알고 한번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넘으며 춤이라는것이 모든 장단의 시작이 란것을 알게되고 그도역시 열심히 배호려고 하였 읍니다. 겨우맛을 알아온셈이 지오 춤도 처음은 오금이 피로하나 하도하고나면 차춤 다시 피로한속에서 이러 남니다. 장단 亦是 팔아픈것을 무엇이라고 다 말하겠습니까만 하도치면 내중에는 손이치는것이 많이고 장단이 장단을 치는것이 됩니다. 그동안 살님은 역시고 단스러웠고 열일곱에 장가를갔으나 얼마안되어 돌림病을죽고, 乙 未年二十二歲 대에 다시 장가갔읍니다.

二. 白牌使令紅牌使令·東學亂

二十一歲에 洪城진영장사도가 불너서가고 선달, 진사科學이 瑞山泰安地方으로 많 이 단였읍니다. 그리고 甲午年四月十六日 그것이 朝鮮의 마즈막 科擧때임이 다. 그전에 도 종종 서울에 往來하였는데 그때는 金學根氏孫, 金聖奎氏가 十四歲에 進士及第도 내려올때임니다. 權勢있고 돈있든 집안이니 그러케 어려서 되 었든것인데 人物도 꽤 伶俐하여서 어린몸이나 마음쓰는것은 어른과다름이 없었 읍니다. 우리들이 禮山까지 마중나갔는 데 연건 애삼을넙고 영대를띠고 갔드니 나어린 그는 行裝속에서 다시 차림옷과 갓병거지 보손까지 준비하였다가 내어 주며 그말씀하는것이나 행동이위엄이있고 숙성하였습니다. 그때 倚伏준것은 순 인점복 남전대에五色주머니 허리의 五色手巾, 花扇과, 갓병거지에는 운얼귀뜯을 쓰고 굴짓타향(孔崔지치)에 五色실을 드린것이였읍니다. 그러케 복색한 사람이 셋인데 소리하는사람 춤추는사람 그리고 흥패사령이라는 小童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사 면 잡고 갔읍니다.

그러나 그해 冬至달에 突然 世上은變하야 洪城에東學兵亂이 이러나 乙未年봄 에는 洪 城있는 儒道軍이敗하고 數萬名의 人名이 傷하였읍니다. 나는 그해 七

八月에 東學黨에 들었지요 그것은 洞里사람이 많이 다들기도하고 腐敗한當時에 正心修道하는 바른길이라 고하여 맞게된것입니다. 그 修羅場된 이야기야 말하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나는 싸흠이날 때 젊은마음에 나가보고도 싶었으나 아부지가 친히 나가보시고 우리들은 절대로 말였지 요. 그때는 사도가울고 피난하였읍니다. 단번에 세상은 변하야 東學黨이 세력을잡고 각골 에 「접주」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세력을잡고 있었읍니다. 그때가 바로 甲午年입니다. 金 學根參判이 李昌九라는 이한데잡혀갔는데 그때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죽인다고하야 家族도 못따라가고 七十老人이 혼자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이의 恩惠를생각하고 말 하면 나도 東學軍이라고하겠다 하고 갔읍니다. 마마도 보선발채로 따라왔는데 卞山을들 어 結城까지갔읍니다. 하장들이라는 步驕판에태우고갓섯고 늙은 老人이라 아모기운도 없었읍니다.었읍니다.

높은 대돌아래 꿀니여놓고 문초를하는데 兩班의腐敗한것과 金參判의 罪狀을 들어서 이런말을 무려보았읍니다.

「兩班은 사람을 송장도없이 죽이느냐? 들어보아라 고대島사람이 保寧으로 打作을실고 왔는데 二百石가운데 餓섬이 不足하다고하야 노아 보내지도않고 行낭방에 가두어서 行랑 구리를식히고 마즈막에는 배를태와 더리고 바드러간다고 하면서 배속에서 얼마나 매질을 하였던지 마즈막에는 안타가워 제물을 물에던져 죽게 하였으니 송장도없이 죽이는것이 많 이고무었이나?」

하니 精神도못차리고 기운없는 老人이라 對答도 변변히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모를일이요」

하고 대답한즉 壯丁十名을 불으더니 이老人을 발버죽이려고 하였읍니다. 그때 마춤 박 알에서 당나귀탄 손님二十名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東學직강 孫秉熙先生의 通書를가지 고 오든사람입니다, 그中에 鄭氏라는이가 있었는데 그이가 「나는 직강의 通書를가져온 사 람이라」고하며 그通書를 읽는데 그중에도 개인이나 私事의원함을 풀지말나는 條目이있 었으며 그外에도 옛 條目이있었는데 이것을범하면 處刑한다는것을 크게읽을때 접주는 그 만 낮빛이 변하였읍니다. 이윽고 접주가잡어온 罪人을 풀게하고 다시 인사하야 서로 아는 사람이라 위로 하여서 노아보내니 金泰判은 그자리에서 억하여 목메이게 우는것을 보았읍 니다. 나도 같이갔다고 서로다 인사하고 다시 도라온일이 있었읍니다. 乙未年七月에는 다 시 妻을마짓는데 亦是生活도 困難하고 職業이 이러한 性質이니 이곤 저곤 放浪하게 되었읍니다.

三、 浮萍草苦樂의 이모양 저모양

그래서 가차운洞里 고을노붙어 멀리서울 平壤地方까지 흘러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 科學는다없었던때이라 어떤때는 굿중패 남사당 모래굿패에 서 끼여서다니고 당 굿에다가서 춤추고 貴한어른에 生辰때에도 가서놀고 東西不定으로 다니는것입니다. 굿중패 남사당이라는것은 小鼓를가지고 洞里마다 다니며 고사해주면 그때는 「꽃반」이 라고 쌀을담은 소반을 주는것인데 그런것은 조금도 돈버리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正月 달에는 初하로부터 十五日까지 四方에서 당굿이라는것이 있었는데 어니해인가 安民島에 가서 잘 노랐는데 피리불고 춤추고 재주하는 사람들이가서 오래묵으며 놀며 오든것아니 다. 二十八歲때인가 봅니다. 平壤을갔는데 名妓를 찾아가니 南道사람이왔다고 얼마나반가워 하는지몰랐습니다.

그것은 觀察使생신인데, 그때 名妓는 예년, 高月仙, 明花이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때 妓 生은 至今과달려서 세도하는 名妓이었습니다. 밖에서 왔다는말을 傳하니 「얼마나 올려 기수고 하였느냐」고 하면서 반가히 맞아드리고 얼마있다가 「浮碧樓노름」을 하였는데 名 妓들이 모이고 감사를請해야 크게 잔치를베푸렸습니다. 그리지 浮碧樓아래는 비단상사가 많이왔는데 춤출때마다 그비단을 階下로 쏘아내어주어서 그대에 한七十匹가량 배에실고 왔습니다. 남사당패에 다니면 한洞里서 한 열대人兩 스무兩씩 생기면 놓아가지고 도라다였고 별 收入은 없었습니다. 二十五歲에 後妻申氏가 세상을 떠나고 그아들이 맞아들인데 지금도 故鄉에있습니다. 그리다가 異常한일은二十七歲에 安東 金炳斗氏宅 祖父山인 安山 靑龍 날끝에 墓를 얻어썼는데 상놈으로는 얻기 어려운거이나 특별히 빌려준것이지요 그때부터 異常하게도 신세가페이고 차츰 돈도모게 되었습니다.

四. 사랑받고 돈버른 서울살림

서울와서는 설혼한살때에 새문안에 圓覺舍라는것이 一太皇帝께서와 伊藤博文先生이 짓게하여주셔서 생기고, 演興寺라는것도 생겨서 그곳에가서 月給四十五圓 식받고 定期로 興行하였으며 사사노름도 있어고하니 收入이차츰 늘었습니다. 또 三十三歲때에는 平壤 名妓로 雲幌大監만자제와같지 살림하다가 그대로 서울서 살으셨는데 나는속으로는 시영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랑을받았어 그곳에서 잡자고 밥먹고 점심은 五錢짜리 설녕탕한그릇 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생과 賤待에분이나서 돈냥이라도 모으려고 이를갈고 점 심도 아사먹었지요 그러나 그마마는 그때는 賤人이라 여러大監마마와 交際하며 지나는體 面이라 시영아들이라고는 못하고 사랑만 받고 있었습니다. 배표으면 그때는 고려전 한푼 으로 黃粟두개를사서먹고 한푼 두푼모아 漢城銀行, 韓一銀行에 二十錢。三十錢式 貯金 하여 九年間 모힌돈이 二千四百圓이되어 四十二歲에 金聖根氏基地와, 논. 여든한마지기 집 六十餘間을 거저얻다싶이사고 四十二歲叫 시골新村(拱城골)로 移舍하였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五. 잊지 못할 그이와의 로-맨쓰

서울 生活中에 다만하나 잊지지않는 이상한일이었습니다. 그것은 三十二歲때 입니 다. 五月端午날 演興舍 낮노리에 노름을 폐하고 나오는데 어떤 장옷쓴婦人이 문간에 지 키다가 손오로찌르고 따라오라는 짓을하기에 무슨일인지 몰라서 따라가니 밀통사조끼를 보에싸서 주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밀통사조끼를 나만안입었는데 그때에받고 아마 나를동정하야 주나보다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담에는 또 옷한벌 모시향나저고리, 도루마고이, 행건, 보선까지 주었습니다. 그다음은 한달에두번씩 꼭 제가해 입었다기 알맞게 철을따러주었습니다. 그런것이 열넉달동안 나는 어떤貴하신 몸으로 계신이가 넘어도 특별히 생각해준다고 오직 감격한 생각만 품고 있었을 니다. 장옷의 모양은 다같으나 그이것은 남색끼이 달려서 곧 알기쉬우며요 그런데 주는것 은 그이가주나 그담에 구경드러왔을 때 자세히보면 또한婦人이 가치있었는데 事實은 그의 兄되는이가 심부름만하고 그젊어되고 외모자태가 아름다운이가 그동생이 었습니다. 그런데 하로는 亦是 따라오라는 짓을하기에 따라가니 이리 저리다니다가 시구문안 어 떤草家집 중문으로 쑥 드러가서 그다음은 한참서서도 소식이없드니 어떤 늙은 婦人이 나오드니 드러오라고 하기에 드러가니 참말 어떤젊은 婦人이 아래목에 앉았는데 인물도 입 부거니와 어떤大家집 婦人인듯싶어 귀골로생기고 엄숙한것이 이를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히 나도입을못떼고 그이도 말없이 한참이나 앉었으니 딱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즈막에는 생각하여보니 이런 젊지않은이가 나같은사람을 생각해주어서 이렇게 一年餘나 참 말 정성을 다하여주니 고맙기限없어 고맙다는 인사를하니 역시 그이는 말이없이 깎어논듯 고개를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만이 생각해보니 저이가 나를생각하여 주시는것이 무슨 뜻이 있는것인 줄 알때에 고맙기도하나 저런이가 왜 나같은 사람을講하기까지하고 귀한 몸으로 그럴까 생각할때 일변고맙고 일변 그이신분을 생각하야 분한생각도나서 그만 그이손 을 덤석잡고

「당신까지 귀한 몸으로 어찌하야 이런사람에 그렇게 정성을 쓰십니까」

하고 역하야 말하니 그래도 그이는 말없이 앉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을차려 내가주 는데 떡꼭을잘하여 주것만 어드먹게 되었을니까 서로 말없이 얼굴만보고 서로먹지도 못하고 헤여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올때에 내일날때에 「廣嬌다리에와서 기다리라」합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하야 낮때에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살펴보니 또兄되는이가 나와서 가기에 따 러가서 그때에는 두번째이라 그이도 이야기하고 정에못이게 잠자리를 가치하고는 그담은 칼로버힌듯 딱 끈어져버리고 마렸지요. 무엇때문인지 나도 지금까지 영문을모르고 일생동 안잊지않고 있습니다.

六. 수없는 장단가락, 춤도 가지가지

장단과 춤을 六七歲때부터 해왔으니 도라다보면 기구한 생활에서 무슨意義를 크게 깨 다른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오늘날 비록 춤이라는것이 명색은 없어졌으나 그래도 민간의 춤으로 지금까지 해오지않으면 없어지고 말것을 생각하고 그다지 자기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장단같은것도 참말 어려워서 가령 보통진양調, 중머리, 하나 종류는자진것 느진것, 잔머리, 언머리, 해서 각각 느긋고자준것이 西洋拍子보다는 變化가참말無雙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장단은 본시 춤가락에서 나오는것임으로 모든것의 시초가 춤이지요 이춤이라는것은 대개 古代에 中國서 드러온것 或은 佛歌에서 나온것으로 或 新羅時代같은 藝術이發達 할때 된것들이 많은데 그起源은 자세치않습니다. 대개 춤의기본은 「진세춤」이라는것인데, 반서름, 봉동채라는것이다 여기서 왔읍니다. 「진세춤」은 나알기에는 堯님금때춤인데 이것 들은 어니時代에 드러와서 南道무당에 傳한것인데 그것을 뵈왔지요 그담은 僧舞 가있읍니다. 이會舞는 或 어떤 紀錄에 이런말이있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 開城에 추정 승, 黃정승, 兩宅이 있는데 추정승宅아들이 죽었을때 喪興가 黃정승宅앞에서 발이 떠러지 지 않아서 黃정승宅處女가 먹리꼭지를 포려던지니깐 떠러져가기때문에 그때부터 그따님 이생각한것이 있어서 妓生이되어 黃眞이라고 일흠짓고 歌舞와 詩文을 잘하였는데 그때에 儒道處士가 敵되는 佛敎道僧 「만석중」의 道를깨틀면 千秋에 일흠을 남기리라고하야 勸하는말을듣고 따라다니며 道를깨들여고하야 안되었든것이 會舞를 추어서되었다고 하 는말이있으나 이것은 俗說이고 果然 그런記錄이 있는지는 의문이지요 그렇게 무슨 음탕 한것은 아니인줄압니다. 그런데 再昨年 내가 府民館서 한번公演한 댜부터는 信侶들이 抗議를하야 이제부터는 當局서도 信舞는公演을 許可해주지않는데 藝術로서 貴한 이춤을 理解하지못하는 僧侶들의 心理를 알수없읍니다. 춤은 그外에도 念佛춤, 靈山會相춤, 打鈴춤, 긱거리, 神仙舞, 花郎舞, 鶴춤, 劍舞, 상자舞 등이 있습니다.

이춤은 긴것이 二十分 짧은것은 十五分밖에 안되는데 이압날로 研究하면 얼마나 좋겠읍니다. 저의춤춘記錄은 仁川鑄錢局노름에 근치지 못하게하야 세시간 동안 춘 일이있읍니다. 日前에 참 崔承喜氏왔을때에 打鈴 춤추는것을 보았는데 역시 재주있는 사람인줄알고 놀냈읍니다. 年前에 내가 빅타-, 켈넘비아, 포리돌, 吹込으로 九年째 數十次 東京大阪에 다니는데 東京갔을때 崔承喜가 찾아와서 춤을 뵈와달나고하야 十四日동안 時間을 定하 고다니면서 四十餘가지 춤을뵈와주었는데 그때도 빠르게 잘뵈왔는데 이번에 보니깐 용하 게하는줄알았읍니다. 西洋式으로 번역을하는 것같은데 좀더專門으로 研究하여 주었으면 하는 慾心이 났았어요. 참말뵈이는이는 妓生도있고 婦人도있고 南道사람도있고 차춤 趣味로 大學生들도 하나 얼마나 熱을가지고 꺽꺽이해줄지가 문제이지요 생각

하면 원통한 말 다 무엇이라고 말다 못하겠습니다. 再昨年에 弟子들과가치 府民館에서 公演했는데 서툴게하여서 失敗만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저 춤뵈와주고 래디오 放送이나 노는座席에 請하면것고할 따름입니다. 마음 만은 있으나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朝鮮舞踊을 살닐지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文責 在記者)

3) 일제강점기 음반자료

(1) 이동백

[SP]

1. VICTOR 42971-B 북 남자 충청도·조선어 조조가관공계비논디 가객 리동백
2. VICTOR 42983-A·B 충청도·조선어 가야금 남자 단가 가객 박팔괘
3. VICTOR 42986-A·B 북 남자 충청도·조선어 심청가 가객 리동백
4. 백발가 -1925년 녹음 · MIMC-0292
5. 잡가 새타령(3:17) -1928년 6월 6일 녹음 · MIMC-0018,
MIMC-0291, MI12LP-0553, MI12LP-15 38. MICD-0536
6. 백발가(3:23) — 1928년 6월 6일 녹음 · MIMC-0018, MIMC-0291,
MI12LP-0553,
MI12LP-15 38, MICD-0536
7. 죽장망혜 — 1928년 녹음 · MIMC-0291, MIMC-0293
8. 천리강산— 1935년 녹음 · MISP-0153(음질 아주 양호),
MIDAT-0283(MISP-0153)
9. 잡가 새타령 — 1935년 녹음 · MISP-0153

[MC]

10. 이동백 특집 방송 -1991년 방송 · MIMC-0025
11. 잡가 새타령, 단가 백발가 -1928년 6월 6일 녹음 · MIMC-0165 [12인치 LP]
12. 명인명창선집(1) 판소리 5명창 - 송만갑 · 이동백 · 김창환 · 김창룡 · 정정

릴 · MI12LP-0553, MI12LP-1538(동일반 2장)

13. 빅타 유성기원반 시리즈(13)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소리:이동백·임방울·임옥
돌·방진관·심상건·정광수. ·M112LP-0700~0701(동일반 2장)

[CD]

14.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1) GREATVOICES OF THE P'ANSORI(1)
판소리 5명창 - 金昌煥·宋萬甲·丁貞烈·李東伯·金昌龍 · MICD-0536

15. 빅타 유성기원반 시리즈(13)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 MICD-0423

16. 국악 CD 선곡집-우리소리 우리가락 제2 집 불멸의 명인명창(2) ·
MICD-1669

17.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음반 - 서울대인을 위한 한국의 전통음악 ·
MICD-0831~0832(동일반 2장)

(2) 심정순

[SP]

1. N6050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五〇 停車場托領 沈正順 朴春載

2. N6055 ROYAL RECORD NIPPONOPHONE 6055 趙子龍曹操大戰 趙子龍도
도대전가 唱 沈正順 <每日申報> 1912.7.12. 4면 趙子龍오림산대전가

3. N. 6060 <每日申報> 1912.7.12. 4면 휘모리평양가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六〇 急速平壤歌 待郎君歌 朴春載 沈正順

4. N. 6069

<每日申報> 1912.7.12. 4면 춘향옥중가 리별가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六
八 春香獄中歌 沈正順 朴春載 初版: 일축 K222-A 판소리 春香獄中歌 蘭香
이란 妓生이 伽倻琴竝唱 沈正順 일축 K222-B 판소리 春香離別歌 춘향이리가
막혀 伽倻琴竝唱 沈正順

5. N. 6070 <每日申報> 1912.7.12. 4면 자진단가 <音盤と蓄音機>1921.5. 六
〇七〇 急速平壤歌 待郎君歌 朴春載 沈正順 6. N6071 NIPPONOPHONE
6071 瀟湘八景歌 沈正順 朴春載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七一 瀟湘八景
歌 沈正順 朴春載

7. N6074 <每日申報> 1912.7.12. 4면 가진난봉가 <音盤と蓄音機>1921.5. 六
〇五〇 停車場托領 沈正順 朴春載

8. N6076 NIPPONOPHONE 6076 南原使令呼春香托領瀟 사령춘형부르는가
<每日申報> 1912.7.12. 4면 남원사령호춘행가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七
六 南原使令呼春香歌 沈正順 再版: 일축 K224-A 短歌 使令春香呼出歌 軍奴
使令이나간다 伽倻琴竝唱 沈正順 일축 K224-B 短歌 御使發行歌 御使發行하는
데엿다 伽倻琴竝唱 沈正順
9. N6083 <每日申報> 1912.7.12. 4면 토기화상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
八三 玉兔畫像 沈正順 朴春載 再版: 닙보노흥 K225-A 특기화상 沈正順 朴春
載 柳明甲 닙보노흥 K225-B 룡자배기 沈正順 朴春載 柳明甲
10. N6084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八四 朴鉅歌 沈正順 朴春載
11. N6085 닙보노흥 K226A(6085) 남원사령술주정가 沈正順 朴春載 文永洙 닙
보노흥 K226B(6093) 평안도상허창영변가 沈正順 朴春載 文永洙 <每日申報>
1912.7.12. 4면 주정타령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八五 南原使令酒醉歌
沈正順 朴春載
12. N6093 닙보노흥 K226A(6085) 남원사령술주정가 沈正順 朴春載 文永洙 닙
보노흥 K226B(6093) 평안도상허창영변가 沈正順 朴春載 文永洙 <每日申報>
1912.7.12. 4면 주정타령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八五 南原使令酒醉歌
沈正順 朴春載
13. N6098 ROYAL RECORD NIPPONOPHONE 6098 KOREAN SONG 千字文
歌 천자뒤푸리 趙子龍曹操大戰 도자롱도도대전가 唱 沈正順 <每日申報>
1912.7.12. 4면 천자뒤푸리 <音盤と蓄音機>1921.5. 六〇九八 千字文歌 沈正
順

(3) 김창룡

[SP]

<춘향가> 중 고수관(高壽寬, 1764-?) 더늠 '자진사랑가' 염계달(廉季達) 더늠 '돈타령'(Regal C155-A 名唱制 사랑가·돈타령 金昌龍)

<흥보가> 중 권삼득(權三得, 1771-1841) 더늠 '놀보,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

<수궁가> 중 박만순(朴萬順, 1830?-1898?) 더늠 '토끼 화상'(Columbia 40249-A 名唱制 제비가·특기화상 金昌龍)

<심청가> 중 정춘풍(鄭春風) 더늠 '화초타령'(Regal C154-A 名唱制 花草歌 金昌龍) 송광록(宋光祿) 더늠 '범피중류'(Columbia 40279-A 名唱制 泛彼中流 金昌龍 鼓韓成俊)

<심청가>'화초 타령' (Regal C154-A 名唱制 花草歌 金昌龍) '수궁 풍류'(Regal C154-B 沈淸傳 水晶宮드러가는데 金昌龍) 단가 <추월강산> (Polydor 19302-A 短歌 秋月江山 金昌龍 鼓韓成俊)

<대장부한>(Columbia 40233-A·B 短歌 大丈夫恨(上)·(下) 金昌龍)

<춘향가> 중 '사벽도 사설'(Regal C114-A·B 春香傳 春香房그림가(上)·(下) 金昌龍 鼓韓成俊) '기생점고'(제비(標朝鮮)레코-드 B114-A 春香傳 기생점고(上) 金昌龍 長鼓韓成俊)
 <심청가> 중 '곽씨부인 유언 대목'(넙보노홍 K502-B 郭氏夫人別世時遺言歌곽씨부인죽을때유 언하난데(上) 金昌龍 韓成俊)
 '심봉사 탄식가'(일축조선소리반 K554-A 沈淸傳 심봉사자탄가 沈淸使自嘆歌 金昌龍 長鼓韓成俊)
 <흥보가> 중 '놀보 내외, 박씨 보고 좋아하는 대목'(일축조선소리반 K637-B 南道판소리 興甫傳 놀보제비가(下) 金昌龍 鼓沈正淳)

(4) 방진관

[SP]

• 녹음방초(3:06) -1936년 2월 28일 녹음 · MIDAT-0063(SP7~8)

[12인치 LP]

• 빅타 유성기원반 시리즈(13)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 MI12LP-0700~0701(동일반 2장)

[CD]

• 빅타 유성기원반 시리즈(13) 30년대 판소 미상) 판소리 걸작집 · MICD-0423

• 국악 CD 선곡집-우리소리 우리가락 제2 집 불멸의 명인명창(2) · MICD-1669

(5) 김차돈

[SP]

• 춘향가 중 쑥대머리(3:26) -1934년 녹음 · MIDAT-0197

[CD]

• 콜럼비아 유성기원반(2) 판소리 명창 김창룡 · 그 손녀 김차돈 · MICD-0185

[MCT]

• 김차돈 증언 -1999년 녹음 MMICRO-0028~0029(2TAPE)

• 김차돈 증언 -1999년 녹음 MMICRO-0033(대담·녹음:노재명)

(6) 박동진

[MC]

• 태평가 -1970년대 녹음 · MIMC-0908

• 반갑구나(춘천가), 만고강산(일본어) - 1980년대 후반 공연 실황 · MIMC-0011

[12인치 LP]

• 호남가, 몽유가 -1968년 녹음 · MI12LP-0647(재판). MI12LP-0648(초판)

• 호남가, 광대가 -1968년 녹음 · MI12LP-0221~0250(30LP)

[CD]

• 적벽부, 진국명산, 흥문연, 운담풍경, 공 도난이, 초한가 -1971년 녹음 · MICD-0114

• 태평가 -1970년대 녹음 · MICD-1522

• 광대가 -1990년 녹음 · MICD-0537~0539

• 진국명산, 광대가 - 1993년~1994년 초반 녹음 1-8 · MICD-027

[VHS]

• 광대가 -1988년 무렵 녹음·촬영 · MIVHS-0097(방송 수신 녹화:노재명)

• 광대가 -1995년 녹음·촬영 · MIVHS-0497(방송 수신 녹화:노재명)

- '98 신년 덕담가 · MIVHS-0302(방송 수신 녹화:노재명)
[DVC]
- 즉흥 단가 -1997년 공연 실황 MI6V-0185

4)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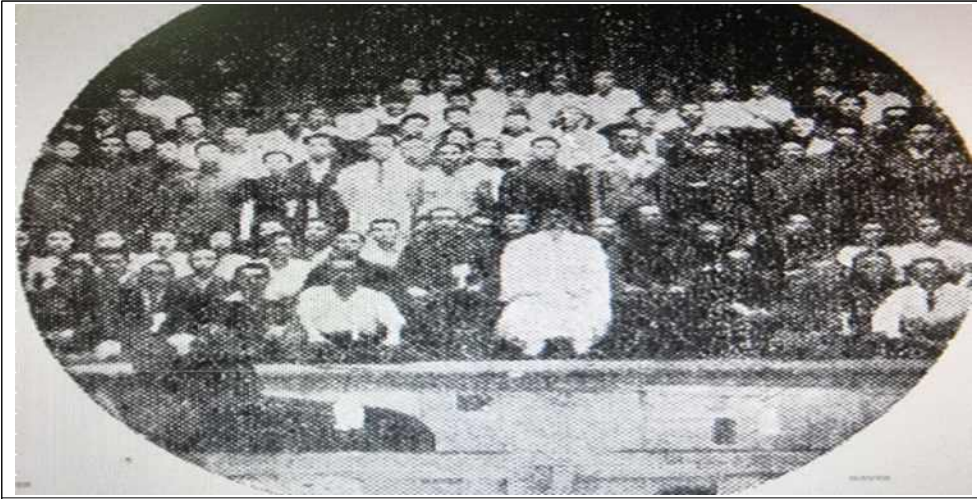
(1) 이동백





<이동백>







<이동백 은퇴기념>



<이동백 은퇴기념 공연 전> (1939.8.5.)



<조선성악연구회 일행> 1937



<이동백 장례식>



『정선조선가요집(精選朝鮮歌謠集)』. 1936

(2) 김창진 · 김세진



(3) 김창룡



(4) 유공렬



(5) 심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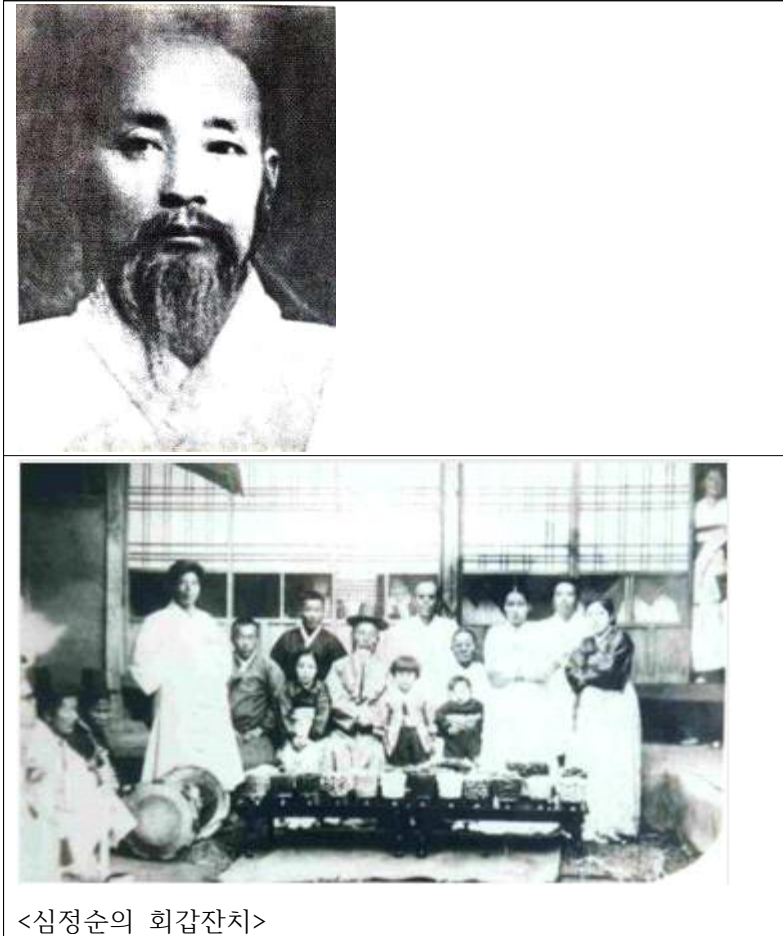
<1935년. 음반취입차 방문한 도쿄에서 심상건과 딸 심태진>

(6) 한성준





(6) 심정순



(7) 심재덕



5) <조선창극사> 중고제 관련 인물과 내용

○ 황해천

황해천은 이조 정·순 영대 간 인물로서 권삼득의 후배이요 송홍록·염계달·모흥갑의 선배인데 자웅성에 특장하였다 한다. 희세의 명창으로 전하였으나 그의 역사와 예술이 인물 무문한 것은 후인의 유감이다.

○ 염계달

염계달(廉季達) - 문헌에는 염계량(廉季良) 으로 出

염계달은 경기도 여주군 출생으로 (혹은 충남 덕산군 출생) 순헌철(純憲哲) 3조를 거쳐 온 사람이니 충주에서 거생하였다. 유시부터 영오하고 가용에 천재가 있었으므로 (있었으므로) 그 충동을 받어서 10년 작정하고 충청도 음성 벽절로 판소리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서 짱끼전 1권을 습득하였다.

하날(하늘)이 나를 암연히 도음(도움)이라 하여 심중에 대희하고 벽절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하로(하루) 같이 공부하는데 밤에 조름(졸음)이 오는 때에는 상투에 끈을 달아 천정에 매고 하기를 향용하였다(향용하였다).

이리 독실히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력은 짱끼타령에 들었다. 가세가 적빈하여 의식에 궁박하므로 거으(거의) 사승에게 걸식하였고 의관이 없어서 반나체로 출입하기를 향다반하였다. 그리하여 연한대로 공부를 마치고 세간에 나오자 성명이 일세를 풍미하였다. “헌종대황의 부르심을 받고 어전에서 누차 소리를 하였고 소리가 가경에 들어가면 경우를 딸리(따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울리고(울리고) 능히 웃기게 하였다. 대왕의 총애를 입어서 동지의 직계를 제수하심을 받았다.” - 경성 모노인 음률가 담. “그는 장끼타령과 홍보가에 장하였고 권삼득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고 한다.” - 이동백 담.

더듬으로 춘향가 중 십장가 중에서 춘향이가 장하에서 당돌하게도 충신불사이군이요. 열녀불경이부의 말을 끌어다가 “예의는 양반의 집에서만 가질 독점물이나 미천한 사람에게는 정절도 금물이나” 인경을 주장하며 정조를 절규하면서 곳곳내(끝끝내) 신입 변부사의 음악무도한 성욕을 거항하다가 마침내 참혹하게도 혼절하고 만것을 삼문 밖에서 듣고 서있든 여러 한량이며 활자들과 여러 기생들이 차탄하면서 그 이중 출하화적 결백한 정조를 찬미한 대목이다.

“이때 남원부 한량들이며 기생들이며 남녀로소 없이 모여든다. 손뼉들을 치며 “춘향이가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던다. 어서 가서 구경하자.” 삼문 밖에 당도하니 연약한 춘향 다리 유혈 남자가 되었구나. 여러 한량덜이 이 꼴을 보고

“아스라 정절도 쓸 대 없다. 저 매를 맞고 어이 살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골 사또 모지도다. 저런 형벌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또 있으랴. 집장사령놈 눈 익켜 두어라. 삼문 밖 나서면 급살을 줄리라.” 어떤 오입장이 하는 말이 “웃령이 지엄하니 져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춘향이 매 맞는 것은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것다. 이 꼴도 저꼴도 보지 말고 행화촌(杏花村)으로 가서 술이나 먹자.” 한 기생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잘 죽는다. 잘 죽는다. 춘향이 잘 죽는다.” 여러 기생들이 “저 년 미쳤구나. 네가 춘향과 무슨 전혐(前嫌) 있드냐? 아무리 원수척이라도 오늘날 이 정색은 낙루(落淚)하고 돌아설데 춤을 추니 웬일이냐?” 저 기생이 대답하되 “너의들 내 말 들어바라. 황해도 해주감영 일지홍(一枝紅)이 나 겨시고, 평안도 평양감영 월천부인(月天婦人)나 겨시고, 경상도 진주 의암부인(義岩婦人)나 겨시고, 전라도 담원 땅에 열녀 춘향이 나 겨시니, 우리 교방청 의다가 정문을 덩그렇게 지어놓고 선판감이 생겼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는가.” 여러 기생들이 이말 듣고 “영덕전 지은 후 상량문이 제 격이요, 악양루(岳陽樓) 준수 할제 범희문(范希文)의 동정일호(洞庭一湖)가 제 격이요, 등왕각(藤王閣) 잔치할 제 왕자안(王子安)의 낙하고목(落霞孤鶩)이 그도 또한 제 격이요, 열녀 춘향 죽게 될 때 네 말 하나가 제격이로다.” 운운. 박만순 이날치 전창, 전도성 방창.

○ 방만춘

방만춘(方萬春)은 거금(距今) 120년 전 순조 시대에 충청남도 해미읍에서 출생하였다. 유시(幼時)부터 총명하고 그 성악의 재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대성을 기망케 하였다. 11세에 해미군 일락사에 가서 소리 공부를 시작하여 약 10년간을 꾸준히 계속하였는데 그 중에도 적벽가를 전공하고 공부를 마친 뒤에 22세 때에 서울로 와서 처음으로 성명을 드날였다(드날렸다).

수작 두유하다가 다시 뜻한 바 있어 황해도 봉산군 어느 절에 가서 4년간을 고심탁마 할 때에 성음 수련으로 주야 없이 목을 써서 성대가 극도로 팽창하여 발성을 못할 경우에 이르렀다. 그 괴롭고 답답함을 어찌 형언할 수 있었으랴. 하로(하루)는 절 기둥을 안고 목이 터지도록 전력을 다하여 소리를 몇 번이나 질냈다(질렸다). 그러나 목은 여전히 터지지 아니하여 나중(나중)에는 죽도록 힘을 써서 소리를 질너 (질러) 놓고는 기력이 자진하여 그 자리에 꺼꾸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절 목공이 산에서 나물(나무)를 하다가 뜻밖에 절이 문허지는(무너지는) 듯한 웬 굉장한 소리가 들니므로(들리므로) 깜작(깜짝) 놀나(놀라) 곧 쫓아 내려와서(내려와서) 본즉 여러 사승들은 다 외출하고 방씨만 홀로 뉘 잃은 사람 모양으로 앉았을 뿐이다. 뇌성한 일도 없고 웬 소리가 그리 굉장하게 났느냐고

물른(물은) 즉 방씨는 괴이하게 생각하면서 모르는 일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가 기둥을 안고 목을 터치기 위하여 죽을 힘을 써서 소리를 질러 목이 툭 터지는 바람에 굉장하게 울녀(울려) 나왔든(나왔던) 것이나 기력이 진(盡)하여 정신을 잃고 꺼꾸러졌으므로 자기 스스로는 전연 몰랐든(몰랐던) 것이다. 이리하여 성량은 웅장하게 발달되고 공부는 성가에 이르렀다. 그 후에 봉산읍 음률가로 시문에 소양이 있는 이와 가치(같이) 적벽가와 심청가를 고전에서 운색 개작하였다.

"적벽가의 초고는 여러 사람의 다년 전독하는 동안에 파열되어 겨우 수장지편이 여존하여 있고 심청가는 그 사손이 보존하여 있다 한다."

모흥갑, 송흥록과 병시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는데 모는 고동상성으로 송은 귀곡성으로 방은 아귀상성 살세성으로 당세 독보 하여서 지금까지 유명하다. 적벽가에 특장하였거니와 적벽화전의 장면을 할 때에는 그 광경은 좌석이 온통 바닷물과 불빛 천지로 화(化)하였다 한다. 그 더듬으로 적벽가 중 적벽강화전의 일절을 좌계(左揭)하노라.

○ 고수관

고수관(高壽寬) '판천일수'

고수관(高壽寬)은 순헌철(純憲哲) 3대를 역과한 인(人)이다. 충남 해미 출생으로 충청도 공주에서 만년까지 거생하였다. 소장은 춘향가인데 염계달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 한다. 송모염(宋牟廉)의 좀 후배이나 역(亦) 그들과 병견하여 일세를 용동한 대가이었다. 성음이 극히 미려하여 판 목청을 자유자재로 발휘함은 타인의 만만 불급처이었다 한다. 문식이 꽤 있고 첩이한 재조가 있어 소리 좌석의 서화나 기타 광경을 적응하도록 의외에 임시로 만들어 불러서 간관을 경탄케 하는 일이 예사였으며 당년에 대구감사 도입초 연석에 불려가서 소리를 하는데 춘향가 중 기생 점고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고전 중에 있는 기명으로 호창하지 아니하고 다수한 시재 기생의 이름의 의의를 시적으로 만들어 불러서 좌석을 경탄케 하여 일시 회자하였었다 한다. 춘향가 중 가진(자진) 사랑가가 그의 더듬으로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 1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허둥둥 내 사랑아. 어화 내 간간 내 사랑이로구나. 여 바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태도를 보자. 이만큼 오느라, 오는 태도를 보자. 빵긋 웃고 아장아장 거러라, 걸는 태도 보자. 너와 나와 맛난 사랑 허물없는 부부 사랑. 화우동산 목단화같이 평퍼지고 고흔 사랑. 영평바다 그물같이 얼키고 맺인 사랑. 룩수청강 월양조 격으로 마조 등실 떠노는 사랑. 네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어화둥둥 내 사랑 내 간간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울긋불긋 수박 웃봉지 떼떠리고 강릉 백청(江陵白淸)을 달으르 부어 반간지로 더벅 질너

붉은 점만 내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내사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시금 털털 개살구 애기 배면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생울(生粟)을 줄야? 숙울을 줄야? 능금을 줄야? 앵도를 줄야? 돛 잡아 줄야? 개 잡아 줄야? 내 몸둥이 채 먹으랴느냐? 여보, 도련님. 내가 사람 잡아 먹는 것 보았소? 예라 요것 안 될 말이로다. 어화둥둥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사랑이 모두 내 사랑같으면 사랑 거려 살 수 있나? 어허둥둥 내 사랑 내 간간이로구나.’ 운운. 송만갑 전도성 방창.

고씨 만년에 화류병에 걸려서 코먹은 소리(鼻音)로 상기 사랑가를 하였으므로 비음으로 방창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 김성옥

김성옥은 순조시대 인물인데 충청도 강경 일곳리에서 성장하고 후에 여산읍에 이거하다가 30여세에 조사하였다. 그는 학슬풍으로 좌각이 되어서 수년간 출입을 못하고 병석에 누워서 가곡을 연구하다가 진양조를 발견하였다.

송흥록과 남매간이므로 송이 종종 심방하였다. 어느때 찾아가서 근래는 병세기 어떠하며, 과히 고적하지 아니한가의 의미의 말을 늦은 중모리로 부르면서 방으로 들어섰다. 김은 병석에서 고독의 비애를 몹시 느낀다는 의미의 말을 진양조로 화답하였다. 그때까지는 중모리만 있었고, 진양조는 없었다. 늦은 중모리에 한 각만 더 넣으면 진양조가 된다.

송은 처음 들은 후에 가게에 일대 신발견이라고 송하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후 송은 이것을 다년간 연마하여서 극치의 완역을 이루었다. 그런즉 진양조는 김성옥으로부터 창시하여 송흥록에게서 완성된 것이거니와, 김씨가 진양조를 창시한 만큼 사계에 공헌한 바 위대하였으나 악질로 신고하다가 조사하였으므로, 그 천재를 다하여 대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한을 머금고 넘어진 것을 위하여 후세의 탄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 김제철

김제철(金齊哲)은 충청도 출생으로 순헌철(純憲哲) 3대간 인물이며 송모염고(宋牟廉高)의 후배이고 주덕기와 동배인데 당세 8명창 중 1인인 만큼 사계의 대가이다. 중년 이후로는 경상도 함양에서 살았다. 심청가에 장하고 특히 석화제를 잘 불렀다 한다.

그의 더듬으로는 심청가 중 심청의 탄생하는 대목인데 “갑자 사월 초파일날 꿈 하나를 얻었으되 이상 맹랑 괴이하다. 천지 명랑(天地明朗)하고 서기반공(瑞氣幡空)하며 오색채운(五色彩雲) 두루더니, 선인옥녀(仙人玉女) 학을 타고 하늘로서 내려온다. 머리 우에 화관(花冠)이요 몸에는 하의(霞衣)로다. 월패(月佩)를

느릿차고 옥패(玉佩) 소리 쟁쟁(錚錚)하며 계화(桂花)가지 손에 들고 언연히 내려와서, 부인 앞에 재배하고 곁으로 오는 양이 뚜렷이 월궁 향아 달 속으로 들어온 듯, 남해 관음이 해중(海中)으로 솟아난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할 적에 선녀의 고은 모양 애연히 여짜오되,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서왕모의 딸일러니, 반도진상(蟠桃進上) 가는 길에 옥진비자(玉眞妃子) 잠깐 만나 수작을 하옵다가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정배(定配)되어 갈 바를 모르더니, 태상노군(太上老君) 후토부인(后土夫人) 제불보살(諸佛菩薩) 석가님이 덕으로 지시하여 지금 찾아 왔아오니, 어엿이 역이소서.”하고 품에 와 앉이거늘 곱씨부인 잠을 깨니 남가일몽이라. 부부 몽사를 의론하니 둘의 꿈이 같은지라 태몽인 줄 짐작하고 마음에 희한하여 못내 기뻐 녀이더니 그날부터 태기 있으니 신불(神佛)의 힘이런가, 하늘이 도으심이런가,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므로 하늘이 과연 감동하심이던가 부더라. 곱씨부인 어진 범절(凡節) 조심이 극진하여 좌불변(坐不邊)하고 입불피(立不跛)하며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하며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하고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하고 목불시사색(目不視邪色)하여 십삭(十朔)을 고히 채이더니, 하로는 해복(解腹) 기미가 있든가 부더라. “애고 배야. 애고 허리야.” 몸져 누어 알으니, 심봉사 겁을 내어 이웃집을 찾아가서 친한 부인 다려다가 해산 수발 시키랴 제, 집 한단 들려 갈고 새사발 정화수 소반 우에 바쳐놓고 좌불안석(坐不安席) 급한 마음 순산하기 바랄 적에, 향취가 진동하며 채운(彩雲)이 들우더니 혼미 중래 탄생하니, 선녀같은 딸이로다. 이웃집 부인 들어와서 아기를 받은 후에 짬을 갈나 누여놓고 밖으로 나가는데, 곱씨부인 정신 차려 “여보시오, 서방님. 순산을 하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오?” 심봉사 기쁜(기쁜) 마음 아기를 더듬어 샅을 만져 보아 한참을 만지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아기 샅은 만져 보니 아마 아들은 아닌가 보오.’ 운운.

○ 이석순

이석순은 경기도 안산 출생이며 헌철고(憲哲高) 3대간 인물이다. 김제철 신만엽과 동배이며 염계달 고수관 등 선배와 병세하여 울닌(울린) 명창이다. 춘향가에 특장하였고 그 더듬으로는 유명하게도 전래한 춘향방 그림가이다.

“동편을 바라보니 상산사호 네 노인이 송하암상에 바둑판을 놓고 점점히 버려갈 제 동원공(東園公)은 백기(白碁) 한 점 손에 들고 흑기(黑碁)를 다 처널 듯이 요만하고 앉어 있고, 하황원(夏黃園)은 흑기 한 점 손에 들고 백기를 다 처널 듯이 요만하고 앉어 있고, 기리계(綺里季)는 훈수를 하다가 무색을 당한 후 바둑판을 안 보려고 요만하고 돌아 앉고, 녹리선생(用里先生)은 세상사를 모다 잊고 백우선(白羽扇) 으로 낮을 가리고 반만 비껴 요만하고 앉어 있고, 청의동자(青衣童子)는 쌍상루 꽃고 색등거리 입고 호로병(葫蘆瓶) 차고 유리대(琉璃臺) 앵무잔(鸚鵡蓋)에 불로초 가득히 부어 들고 녹리선생 전에 술 진지 하느라고 요

만하고 서서 있고,

서편을 바라보니 진(晉) 처사 도연명이 팽택(彭澤) 원을 마다 하고 추강상(秋江上) 배를 타고 심양(溥陽)으로 가는 양 역력히 그려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서산에 지는 해 진 끈으로 매어두고 학발 양친(鶴髮兩親) 불로초를 얻어다가 부모 봉양하는 그림. 북편을 바라보니 위수 상(渭水上) 강태공(姜太公)이 문왕을 받기 여겨 낙수대를 강에 던지고 군신유의의 본을 받아 따름 따름 따라가고, 부춘산 엄자릉은 간의대부 마다하고 양구를 펼쳐 입고 동강칠리탄에 낙수줄 던진 경을 역역히 그렸구나.” 김세종 박만순 전창, 전도성 이동백 김창룡 방창, 전편 진양조 우조창.

○ 최낭청

최낭청은 충청도 청안 출생으로 헌철(憲哲) 양대간을 올린 명창이었다 한다. 옛날 시대에 있어서 성명으로 전치 아니하고 직함으로만 전한 것이 그리 괴이한 일이 아니다. 철종시대에 어전에서 판소리를 하는데 “춘추는 연년록인데 왕손이 귀불귀하라”라고 하여서 철종대왕의 가상히 역이심(여기심)을 받고 일시 세인의 구(口)에 회자하였다 한다. “왕손은 귀불귀”를 “왕손이 귀불귀하라”라고 고치여 불러서 그 축처를 피한 것이 임기응변하는 재기도 있거니와 그 문식이 있음을 넉넉히 보인다. 그 역사와 예술이 인물된 것을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

○ 송수철

송수철은 충청도 청양 출생으로 순헌철간(純憲哲間) 인물인 듯하다. 춘향가에 장하였고 창법은 호걸제로 하였다고 한다. 철종대왕께서 총애하셔서(총애하셔서) 선달의 직계를 수하시고 이워서(이어서) 장까지 하사하셨다 한다. “씨의 역사나 예술에 관한 것으로 전문한 것이 없으나 그 당시에 있어서 특색을 발휘한 명창으로 성망이 일세에 높았다고 한다.” 이동백 김창룡 담

철종대왕의 수직사장의 우대가 있었던 만큼 그 인품과 예술의 여하는 미루어 족히 알 수 있다.

○ 임창학

임창학은 충청도 한산인으로 헌철(憲哲) 양대를 올린(올린) 명창인데 춘향가에 장하였고 춘향가 중 어사 출도하는 대목이 그의 유명한 더듬(더늠)이다.

“서리 하나 얼는(어른)하니 부채질 곳덕, 기침 한번 캐얌 건넌산 바라볼 제 출도하라는 령이로구나. 난데없난 역졸들이 물 메듯 들어오며, 사또 나오신다. 역장(驛長) 나가라. 삼문 앞에 웃дук 서 도용채(땅을 원형으로 획 긋는 것인데 즉 암호 표시) 그린 후 폐문(閉門) 북 쿵쿵 세 번을 나더니, 삼문 후닥딱 “암행어사 출도야!” 웬난 소리 강산이 뭉어지고 천지가 뒤끄는 듯 초목금순들 아니 떨

나. ‘하늘에 닿는 해도 발을 잠깐 머무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소리를 못하고 푸득푸득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천지가 진동하고, “공형(公兄) 들나.” 웨는 소리 육방이 녀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딱 “아이고 죽겠소.” “공방!공방!” “공방이오.” 포진(鋪陳) 들고 들어오며, “안할나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나?” 등채로 휘닥딱 “아이고 박터졌네.” 죄수 별감 녀을 잃고 이방 호장은 곡격으로 발광하여 덤병이고, 삼색 나졸 분주하네.

각 읍 수령 도망할 제, 그 거동이 장관이다. 인궤(印几) 잃고 과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宕巾)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임실 현감은 갓을 급히 쓰노라고 갓모자를 뒤켜쓰고, “여보아라. 어느 놈이 갓 구멍을 막었구나.” “갓을 뒤켜 쓰셨소.” “압다. 언제 바로 쓸 새 있더냐? 좀 눌러다 고.” 하여 그대로 짝 누르니, 갓이 벌걱 뒤집힌다. 겨오 갓을 쓰고 나소 오줌을 눈다는 것이 칼짹을 쥐고 누니, 오줌 맞은 하인들이 “허. 요새이는 하늘이 비를 끊여 나리나 보다.”하고 갈팡질팡하고. 구례 현감은 말을 꺾구로 타고, 채죽 질을 하니 말이 뒤로 달아난다. 황겁하여 “이 말이 웬일이냐? 본래 목이 없느냐?” “꺾구로 타셨소. 내려서 바로 타시오.” “이 애, 어니 겨를에 바로 타랴. 목을 빼여다가 말 똥구녕에다 박어라.” 하고 성화를 내고, 여산 부사는 쥐구멍에다 상투 박고, “내 상투좀 배어 주렴으나.” 하고. 이때에 본관 사또는 적이 정신을 차리어 바지에 똥을 싸서 겁결에 내아로 뛰어 들어가서, “어 추어라. 문 들어 온다. 바람 다더라.” 하며 거동 언어 수작이 뒤석겨 나오고, 모다 말이 빠져 이가 헛나가고. 이 모양으로 덤병이니 차 소위 말 아니로구나.

이때에 서리 역졸 별떼 같이 달려들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함부로 둘러 쳐노니, 부서지난 게 거문고요, 깨지나니 북 장구라. 교자상도 불어지고, 다담상도 깨여지고, 준화꽃은 흩날리고, 화깃쫂각은 산산히 부서지고, 양각통은 으스러지고, 사초롱은 미여지고, 이런 야단법석이 없구나. 그만 큰 잔채도 다 깨어져서 동헌이 텅 비었는데, 눈치 바른 수통인(首通引) 대뜰에 선뜻 올라 “급창 흰화(喧譁) 금하라.” 이때에 어사또 동헌대청에 뚜렷이(뚜렷이) 앉아 삼방하인 분부하여 대기치 버려(벌여) 꽃고 숙정패 내어 꽃고 좌기한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운운. 이동백 정정렬 방창.

○ 정춘풍

정춘풍(鄭春風) - 비가비(동편)

정춘풍은 현, 철, 고 3대간 인물이다. 충청도 어느 저가 에서 출생한 양반광대로서 권생원 후 제일로 굴지한다. 박만순, 김세종, 이날치 등과 동시하여 일세를 울린 대가이다. 원래 유가에서 성장하여 진사과에 등(登)한 만큼 한학의 조예가

상당하고 창극조에 대한 이론과 박식에 재(在)하여는 고금을 통하여 남에 고창 신재효요, 북에 정춘풍일것이다.(단 신재효는 이론으로 승하고 정춘풍은 실제로 승하였다) 실제가로 당시에 있어서 박만순, 김세종, 이날치 등과 호유장단이 려니와 그 학식의

우여함과 이론의 고상함을 저네들과 불가동일어요 재인 계급에서 출생한 저네들과 양반 계급에서 출생한 정춘풍과는 좋은 대조이다. 정씨 성격이 소방하여 사물에 애체가 없을 뿐더러 불우외락하여 농세적으로 춘풍이라 자호하고 도처 춘풍으로 생애를 마쳤다 한다. 광대로서 아호로 행세한 이가 춘풍이 효시일 것이다. 유가 출신으로 창극조로 타인에게 학득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술적 천재는 문일지십하여 자가독공으로 고금을 종합하여 마침내 대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창조는 우조를 주체로 하고 제작은 동파가 분명하나 자신의 자부가 강한 만큼 초연이 거하여 동이니 서이니 파에 속함을 불설히 역였었다.(여겼었다)

대원군의 지우를 얻어서 일시는 대원군의 사랑은 자기 사랑같이 알고 종유하였다 한다. 가조와 음률에도 정통하여 역시 일대가를 일우웠으며(이루었으며) 적벽가에 특장하였고 그 창법은 수문도인 박기흥에게 많이 전수하였다. 만년에 전라북도 여산군에 이거하다가 사하니 년이 68세이었던라. 더듬으로 후에 전한 것은 소상팔경 단가인데 박기흥, 송만갑에게 전창하여 현하 광대와 기생들의 성장하는 바이다.

소상팔경가 1.산악이 잠형하고 …(중략)… 송만갑 방창.

○ 한송학

한송학은 현종 시대에 경기도 수원릉 안에서 출생하여 고종 시대까지 울린 명창이다. 외모가 청송무학 같으다 하여 이름을 송학이라 하였다 한다. 수원 용주사에서 수년간 판소리 공부를 한 일이 있었다 한다. 새타령과 흥보가에 장하고 최장으로는 장끼타령이었다 한다. 이제 그 더듬으로 장끼타령 중 까토리(까투리) 해몽 1절을 좌게(左揭)하노라.

“건곤이 배판할 제 만물이 번성하여 귀할손 인생이오 천할손 짐승이라. 날짐승도 삼백(三百)이오 길짐승도 삼백이라. 공의 화상 불작시면 의관은 오색(五色)이요, 별호는 화충(華虫)이라. 산금야수(山禽野獸)의 천성(天性)으로 사람을 멀리하여 운림벽계상(雲林碧溪上)에 낙락장송(落落長松) 정자 삼고, 상하평전(上下坪田)들 가운데 퍼진 곡식 주어 먹어 임자 없이 생긴 몸이 관포수(官砲手)와 사냥개에 걸핏하면 잡혀가서 삼태육경(三台六卿) 수령방백(守令方伯) 다방골 제갈동지 실토록 장복하고, 좋은 것 골라내어 사령기의 살대 치레와 전방의 문지채며 온 가지로 두루쓰니 공덕인들 적을소냐. 평생 숨의 자취 좋은 경치 보려 하고

백운청산(白雲靑山) 상상봉에 휘위휘위 올라가니, 몸 가벼운 보라매는 예서 떨
 령 제서 떨령, 몽치든 모리군은 예서 우 제서 우. 냄새 잘 맡는 사냥개는 이리
 훗 저리훗 워새포기 떡갈잎을 뒤적뒤적 찾아드니, 사라날 길 바이 없네. 사이길
 로 가자 하니, 부지기수(不知其數) 포수들이 총을 메고 둘러섰네. 엄동설한(嚴冬
 雪寒) 주린 몸이 어대로 가잔말가? 상하평전(上下平田) 너른 들에 콩날 흑시 있
 겠으니 주으려 가자세라. 이때 장끼 차장 불작시면 다홍대단(大緞) 곁마기에 초
 록궁초(草綠宮綃) 깃을 달아 백룡(白龍) 동정 시처 입고 주먹벼슬 옥관자(玉貫
 子)에 열두 장목 만신평체 장부기상 좋을시고, 까토리 치장 불작시면 잔 누비속
 저고리 폭폭이 잘게 누벼 상하의복 가추입고, 아홉 아들 열두 딸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평원 광야 너른 들에 줄줄이 퍼져가며 “널랑
 저 골 좃고, 우리랑 이골 좃자. 알알이 두태(豆太)를 주을세면 사람의 공양(供
 養)은 부러 무엇 하리.” 천생만물(天生萬物) 제마다 녹(祿)이 있으니 일포식일포
 식(一飽食)도 재수라고 점점 주어 들어갈재, 난데 없는 붉은 콩 한날 덩그렇게
 놓였거늘, 장끼란 놈 하는 말이, “어화 그 콩 소담하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이 마다 하리. 내 복이니 먹어보자.” 까토리 하는 말이 “아직 그 콩 먹지 마
 소. 설상(雪上)에 사람 자취 수상도 하여지라. 다시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
 고 비로 싹싹 쓴 자취 심히 고이하매 제발 덕분 그 콩 먹지 마소.” 장끼란 놈
 하는 말이, “네 말이 미련하다. 이때를 의논컨대 동지석달 설한이라. 첩첩이 쌓
 인 눈이 곳곳이 덮였으니 천산(千山) 조비절(鳥飛絶)이오, 만경(萬逕)에 인종멸
 (人種滅)이라. 사람 자취 있을소냐?” 까토리 하는 말이 “시기는 그러할 듯하나
 간 밤에 꿈을 꾸니 대불길(大佛吉)하온지라 자량처사(自量處事)하옵시오.” 장끼
 란 놈 하는 말이 “내 간 밤에 일몽(一夢)을 얻으니 황학(黃鶴)을 비껴타고 하늘
 에 올라가 옥황께 문안하니, 나를 산림처사 봉하시고 만석고의 콩 한 섬을 상
 급(賞給)하셨으니, 오늘 이 콩 하나 그 아니 반가운가? 옛글에 이르기를 기자감
 식(飢者甘食)이오 갈자이음(渴者易飲)이라 하였으니 주린 양을 채여 보자.”

까토리 이른 말이, “그대 꿈 그러하나, 이내 꿈 해몽하면 무비(無非) 다 흉몽(凶
 夢)이라. 어제 밤 이경 초에 첫잠 들어 꿈을 꾸니, 북망산(北邙山) 음지(陰地)
 쪽에 구진 비 뿌리며, 청천에 쌍무지개 홀지(忽地)에 칼이 되어 그대 머리 덩겅
 베여 나리치니, 그대 춘당대(春塘臺) 알성과(謁聖科)에 문관 장원(文官壯元) 참
 여하여, 어사화 두가지를 머리 위에 숙여 꽂고, 장안대도 상에 왕래할 꿈이로
 다. 과거나 힘써보세.”

까토리 또 하는 말이, “삼경 야에 꿈을 꾸니 천근들이 무쇠 가마 그대 머리 흠
 뻑 쓰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아조 풍덩 빠졌거늘, 나 혼자 그 물가에서 대성통
 곡하여 뵈니 그대 죽을 흉몽이라. 부대 그 콩 먹지마소.” 장끼란 놈 이른 말이,
 “그 꿈은 더욱 좋다. 대명(大明)이 중흥(中興)할제 구원병 청하거든 이내 몸이 대
 장되어 머리 위에 투구 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을 평정하고 전승 대장 되올

꿈이로다."

까토리 하는 말이, "그는 그렇다 하려니와, 사경에 꿈을 꾸니 노인 당상하고 소년이 잔치할제, 스물 두 폭 구름 차일(遮日) 바쳤든 서발 장대 우지끈 똑딱 부러지며 우리 둘의 머리에 아조 흠뻑 덮여 보이니 답답한 일 볼 꿈이요. 오경초에 꿈을 꾸니 낙락장송 만정한대, 삼태성(三台星), 태을성(太乙星)이 은하수를 돌렸는데, 그 일점성(一點星)이 똑 떠러져 그대 앞에 내려져 뵈니, 그대 장성이 그리 된 듯, 삼국 적 제갈무후(諸葛武侯) 오장원(五丈原)에 운명할 제 장성이 떠러졌다 하더이다." 장끼란 놈 하는 말이, "그 꿈 염려마라. 차일 덮여 보인 것은 일모청산(日暮靑山) 오날 밤에 화초병풍(花草屏風) 잔디장판에 동걸로 베크개 삼고 칩잎으로 요를 깔고, 갈잎으로 이불 삼아 너와 나와 추켜 덮고 이리저리 궁글 꿈이요. 떠러져 보인 것은 옛날 현원씨(軒轅氏) 대부인(大夫人)이 복두칠성 정기타서 제일 생남(第一生男) 하여있고, 견우 직녀성은 칠월칠석 상봉이라. 네 몸에 태기 있어 귀자(貴子) 낳을 꿈이로다. 그런 꿈 많이 꾸어라."

까토리 하는 말이, "계명 시(鷄鳴時)에 꿈을 꾸니 색저고리 색치마를 이내 몸에 단장하고 청산녹수 노니다가 난데없는 청삽사리 입살을 악물고 와락 뛰어 달려들어 발톱으로 휘위치니 경황실색(驚惶失色) 갈 데 없이 삼발로 달아날제, 긴 삼대 쓰러지고, 굵은 삼대 춤을 추며 자른 허리 가는 몸에 휘휘친친 감겨 뵈니 이 내 몸 과부되어 상복 입을 꿈이오니 제발 덕분 먹지마소." 장끼란 놈 대노하여 두 발로 이리 차고 저리 파며 하는 말이, "화용 월태(花容月態) 저 간나위년 기둥서방 마다하고 타인(他人) 남자 질기다가 참바 올바 주황사(朱黃絲)로 뒷죽지 결박하여, 이 거리 저 거리 종로 네 거리로 북 치며 조리 돌리고 삼모장(三모杖)과 치도곤(治盜棍)으로 난장(亂杖) 맞일 꿈이로다. 그런 꿈 말 다시 마라. 앞정갱이 꺾어 놀라."

까토리 하는 말이, "기러기 북국에 울며 열제, 갈대를 물어 나름은 장부의 조심이오, 봉(鳳)이 천길을 떠오르되 좁쌀은 먹지 아니함은 군자의 염치로다. 그대 비록 미물이나 군자의 본을 받아 염치를 알것이니 백이숙제 총열 염치 주숙(周粟)을 아니 먹고 장자방의 지혜염치(知慧廉恥) 사병벽곡(謝病僻穀) 하였으니, 그대도 이런 것을 본을 받아 조심을 하려 하면 부대 그 콩먹지 마소." 장끼란 놈 이른 말이, "네 말이 무식하다. 예절을 모르거든 염치를 내 알소냐. 안자(顔子)님 도학(道學)님 염치로도 삼십 밖에 더 못살고 백이숙제의 총절 염치로도 수양산에 굶어죽고 장량(張良)의 사병벽곡으로 적송자(赤松子)를 따랐으니, 염치도 부끄럽고 먹는 것이 으뜸이라. 호타하(滹沱河) 보리밥을 문숙(文淑)이 달게 먹고 중흥 천자 되어 있고 표모(漂母)의 식은 밥을 한신(韓信)이 달게 먹고 한국 대장 되었으니 나도 이 콩 먹고 크게 될 줄 뉘 알소냐?"

까토리 하는 말이, "그 콩 먹고 잘 된다 말은 내 먼저 말 하오리다. 잔디 찰방

수망(察訪首望)으로 황천부사(黃泉府使) 제수하여 청산을 영이별 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대 마소. 고서를 불량이면 고집불통 과하다가 패가망신 몇몇이고. 천고진시항의 몹쓸 고집 부소(扶蘇)의 말 듣지 않고 민심소동 사십년에 이세 때에 실국(失國)하고, 초패왕의 어린 고집 범증(范增)의 말 듣지 않다가 팔천자제 다 죽이고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하여 자문이사(自刎而死)하여 있고, 굴삼려(屈三閭)의 오른 말도 고집불청(固執不聽) 하다가 진무관(秦武關)에 굳이 가쳐 가련공산 원혼 되어 강상(江上)에 우는 새 어복충혼(魚腹忠魂) 부끄럽다. 그대 고집 오신명(誤身命) 하오리다. "장끼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가? 고서 들 불작시면 콩 태자(太子)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쩍 천황씨(天皇氏)는 일만 팔천세를 같이 살아있고,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는 난 풍성(風成)이 상승(相乘)하여 십오 대를 전해 있고, 한태조, 당태종은 풍진 세계(風塵世界) 창업지주(創業之主) 되었으니 오곡백곡(五穀百穀) 잡곡 중에 콩 태자가 제일이라. 궁(窮) 팔십 강태공은 달(達) 팔십 살아 있고,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은 기경상천(驥鯨上天) 하여있고, 북방의 태을성(太乙星)은 별 중의 으뜸이

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 같이 오래 살고, 태백 같이 상천하여 태을선궁(太乙仙官) 되오리라."

까토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제 열 두장목 펼쳐들고 구 구뻑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같은 허뿌리로 드립더 짹 짹 으니, 두 고패 둥그러지며 멀리 우에 치난 소리 박랑사중(博浪沙中)에 저격시항(狙擊始皇) 하다가 버금 수레 마치는 듯 와지끈 푹푹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까토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든가. 남자 되어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토리 거동 불작시면, 상하평전(上下平田)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놓고 당글당글 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 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 두 딸과 친구 벗님네도 불상타 의론하며 조문애곡(弔文哀哭) 하니 가련공산(可憐公山)(落木天)에 울음소리뿐이로다.

까토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월야(空山夜月) 두견성(杜鵑聲)은 슬픔 회포 더욱 설다. 통감(痛感)에 이르기를, 독약이 고어구(苦於口) 이어행(利於行)이라 하였으니, 그대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변 당할손가. 답답하고 불상하다. 우리 양주 좋은 금실 놀더러 말할소냐? 슬니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이 되고 한숨은 바람 된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 할고?"

장끼 거동 불작시면 차위 밑에 옆대여서, "예라. 이년, 요란하다. 호환(虎患)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며, 선(先)미련 후(後)실기라 죽는 놈이 탈 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 살기를 맥(脉)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보소.” 까토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은 끊어지고, 간맥(肝脉)은 서늘하고, 태충맥은 걷어가고, 명맥은 떨어지네. 애고. 이게 웬일이오.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장끼란 놈 하는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칭을 살펴보소. 동자 부처 온전한가.”

까토리 한숨 쉬고 살펴보며 하는 말이, “인제는 속절 없네. 눈동자가 돌아가네. 애고 애고. 이 내 팔짜 이다지 기박한가. 상부(喪夫)도 자주 한다. 첫째 낭군 얻었다가 보라매에 체여가고, 둘째 낭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려가고, 셋째 낭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낭군 얻어서는 금실도 좋거니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낳아놓고 남혼여가(男婚女嫁) 채 못하여 구복(口腹)이 원수로다. 콩 하나 먹으려다 저 차위에 덜컥 치었으니 속절없이 영이 별하겠고나. 도화살⁵⁰을 가졌는가, 상부살(喪夫煞)을 가졌는가. 이 내 팔짜 험악하다. 불상토다. 우리 낭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이 드리 죽었는가, 망신살을 가졌는가, 고집살을 가졌는가. 어찌하면 살려낼고. 앞뒤에 섰는 자녀 뉘라서 혼취(婚娶)하며 복중에 든 유복자는 해산 구원 뉘라 할가? 운림 초당(雲林草堂) 넓은 뜰에 백년초(百年草)를 심어두고 백년 해로 하잖더니, 단 삼 년이 못 지나서 영결 종천(永訣終天) 이별초(離別草)가 되었구나. 저렸트시 좋은 풍신 언제 다시 만나볼가.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 한을 마라. 너는 명년 봄이 되면 또다시 피려니와, 우리 낭군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미망(未亡)일세, 미망일세, 이몸이 미망일세.’

한참 이리 통곡하니 장끼란 놈 반눈 뜨고, “자네 너무 서러마소. 상부(喪夫) 가진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이 말 저 말 잔말 마라. 사자(死者)는 불가부생(不可復生)이라 다시보기 어려우니, 나를 구지 보랴거든 명일 조반 일직 먹고 차위 임자 따라가면 금천(金泉)장에 걸렸거나, 전주(全州)장에 걸렸거나, 청주(淸州)장에 걸렸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감영(監營)또나 병영(兵營)또나 수영(水營)또의 관청 고에 걸렸든지, 봉물짐에 엮졌든지, 사또 밥상에 오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집 펴백건지 되리로다. 내 얼굴 못 보아 설어말고, 자네 몸 수절하여 정렬부인 되옵소서. 불상하다. 불상하다. 이 내 신세 불상하다. 우지 마라. 내 까토리, 우지 마라. 장부 간장 다 녹는다. 네 아모리 슬퍼하나 죽는 나만 불상하다.” 장끼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고패 번드디고 위 고패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쭈쭈 다 빠지네.

이때 차위 임자 탁침지는 망보다가 만선드리 설피(鼠皮) 휘양 우구려 쓰고 지팡막대 걸어짚고 허위허위 달려드러 장기를 빼여들고 희희낙낙 춤을 추며, “지아자 좋을시고. 안 남산 벽계수에 물 먹으러 네 왔더냐. 밧 남산 작작 도화(灼灼桃花) 꽃노리에 네 왔더냐. 탐식물신(貪食殍身) 모르고서 식욕이 과하기로 콩

50) 도화살(桃花煞): 호색과 음란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四柱).

하나 먹으려다가 녹수청산 놀든 네가 내 손에 잡혔구나. 산신께 치성하여 네 구족(九族)을 다 잡으리라.” 장끼의 빗문 혀를 빼내여 바위 우에 얹어놓고 두 손으로 합장하여 비는 말이, “아까 놓은 저 차위에 까토리마저 치어옵소서. 나무 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꾸벅꾸벅 절하고 탁침지 내려간다.

까토리 뒤미처 발버가서, 바위에 얹친 털을 울며불며 찾아다가, 칙잎으로 소렴하고, 땡땡이로 대렴하고, 원추리로 명정(名旌) 써서 애송목(松木)에 걸어놓고, 발머리 사태난 데 금정 없이 산역하여 하관(下棺)하고, 산신제(山神祭)와 불신제(佛神祭) 지내고 제물을 차릴 적에 가랑잎에 이슬 받아 도토리 잔 삼아 다마놓고, 속새 대로 수저 삼아 칭가유무(稱家有無) 형세대로 그렇저렇 차려놓고, 호상(護喪) 소임으로 집사(執事)를 분정(分定)하니 누구누구 드렸든고. 의관 좋은 두루미는 초헌관(初獻官)이 되어있고, 몸 가벼운 제비새는 접빈객(接賓客)이 되어있고, 말 잘하는 앵무새는 진설(陳設)을 맡았구나. 따옥이 끓어앉아 축문(祝文)을 낭독하니, 그 축문에 하였으되, “유세차(惟歲次) 모년 모일(某年某日) 미망(未亡) 까토리 감소고우(敢昭告于) 현벽(顯辟) 장끼 학생부군(學生府君) 형귀 둔석(形歸窀穸) 신반실당(神返室堂) 신주기성(神主既成) 복유존령(伏惟尊靈) 사구종신(捨舊從新) 시빙시의(是憑是依)”라 하였더라. 운운.

○ 김정근

김정근(金定根) - 중고제

김정근은 진양조를 창시한 김성옥의 사자(嗣子)로 충청도 강경리에서 출생하여 철고(哲高) 양대간에 무숙이타령으로 파히 명성이 있었다. ‘상궁접’이라는 곡조를 창시하였으니 조선 소리의 곡조는 김문(金門)에서 거의 다 되다싶이(되다시피) 한 것이다. 시조와 음률에 한숙(嫻熟)하였고 문인으로는 현대 명창 이동백이가 있다 한다. 사자(嗣子) 김창룡 담.

○ 윤영석

윤영석은 충청남도 오천군 출생이니 고종 시대에 있어서 토별가로 일세를 울린 (울린) 명창이다. 성음이 거대하되 탁성과 중성은 없고 세세상상성으로 질너(질러) 내여서 사람을 경탄케 하였다 한다.

창법이 어떠하냐 하면 처음에는 담담무미하게 하다가 중판에 이르러서 가진(갓은) 목청과 다단한 기량을 발휘하는 식이었다 한다. 한송학과 동배이었다 한다.

○ 정홍순

정홍순은 연대와 생장지가 모호하나 단 김정근과 동시대이다는 전언으로 미루어 보면 철고(哲高) 양대간에 충청도 한산 강경 등지 출생인 듯하며 이동백 담

에 의하면 흥보가로는 당시 독보로 일세를 울린(울린) 명창이었다 한다.

○ 최상준

최상준(崔相俊) - 동편

최상준은 충청도 한산에서 출생하여 철고(哲高) 양대간에 울린 명창이다. 흥보가에 장하였고 그의 장기로는 흥보가 중.

“흥보 이 말 듣고 하릴없이 형의 집으로 건너간다. 흥보 치장 차리고 가는 거동을 불작시면 …(중략)… 놀보의 모진 마음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고 지끈지끈 함부로 치다가 제 기운에 못 이기어 몽둥이를 내던지고 숨을 헐떡이며, ‘이놈 내 눈 앞에 뵈지 마라.’” 운운.

○ 백점택

백점택(白占澤) - 중고조

백점택은 충청남도 연기인(燕岐人)으로서, 철고 양대 간에 울린 명창이다. 이날치, 김정근의 후배로서 <춘향가>에 장하였고, 특장처로는 <춘향전> 중 어사도가 남원 부중에 들어서서 민정을 시찰한 후 황혼시에 춘향 집 문전에 당도한 대목이다.

박석티를 올라서서 사면을 둘러보니 산도 예 보든 산이오, 물도 예 보든 물이로 구나. 동대문 밖 선원사(禪院寺)는 야반 종성(夜半鐘聲) 듣던 데라. 좌편은 교룡산(蛟龍山)이오, 우편은 영죽고개. 광한루야 잘 있더냐, 오작교도 반갑도다. 객사청청유색신(客舍青青柳色新)은 나구 매고 노던 데요, 청운낙수(靑雲落水) 맑은 물은 내 발 씻던 청계수요, 녹수진경(綠樹秦京) 넓은 길은 왕래하는 옛길이라. 춘향이 추천하던 수양버들은 예와 같이 잎이 풀래 꾀고리만 올려낸다.(진양조, 우조) 옛일을 생각하니 반갑기도 하건마는 인사 변천(人事戀遷)을 헤어보니 감개 또한 무량하다. 한 걸음 두 걸음 완보하여 남대문 밖 다다라 부중으로 들어서서 민정도 살피고, 예 보던 곳을 구경도 하다가 그렁저렁 황혼이 되었구나. 건천리(乾川里)로 돌아들어 춘향의 집을 찾아가니, 문전이 영락하고, 행랑채는 찌그러지고, 면회(面灰)한 앞뒤 담도 간간이 문어져 옛 면목이 간 곳 없다. 뜰 앞에 거친 풀은 사람 자취 히미하며, 연못가에 두루미 한 쌍 놓았던 것도 한 짝은 간 데 없고 한 짝만 남아 있어, 한 날개 등에 엮고 또 한 날개 반만 들고 징검징검 길룩 뚜루룩 울음을 울고, 예 보던 벽오동은 바람을 못 이기어 추레하고 서서 있고, 섬 밑에 창송 녹죽(蒼松綠竹)만 옛 빛을 띠고 있다. 은행나무 밑에 주린 청삽사리 기운 없이 조으다가, 구면 객(舊面客)을 몰라보고 보시실이 일어나며, 쿵쿵 짓고 내뺏는다.

“네 이 개야, 짓지 마라. 주인같은 손이로다. 네의 주인 어디가고 네가 나와 반

기느냐?”

중문을 바라보니, 내 글씨로 붙인 입춘(立春) 풍마우세(風磨雨洗) 다 떨어지고, 충성 충자(忠字)만 남아 있어 바람에 펄펄떨어 하는구나. 어찌하면 이렇도록 황량하게도 되었을가. 중문을 엿보아도 인기척이 전혀 없다. 동산에 달 떠오고 심회는 산란한데, 은은히 사람의 소리 들리거늘, 한 걸음 두 걸음 찾아가서 들쭉동백 엉크러진 사이에 은신(隱身)하고 살펴보니, 이때에 춘향 모가 칠성단 우에 등불을 밝히고, 새 소반에 정화수를 받혀놓고, 분향재배 비난 말이 “천지지신(天地之神) 일월성신(日月星辰) 관음 제불(觀音諸佛) 사해 용왕(四海龍王) 팔부신장(八府神將) 성주(城王) 조왕 전(竈王前) 비나이다. 한양 거(漢陽居) 이몽룡을 전라감사나 암행어사를 접지하여 주옵시면, 옥중에 죽는 자식 살려 낼까 바라오니, 천지신명은 감동하여 살려지다, 살려지다.”

빌기를 다한 후에 기운 없이 비슬비슬 상단의게 손을 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어사도 기가 막혀 한숨 쉬고 일어서서 자취 없이 가만 가만 다시 문전에 이르러 기침을 크게 하고. 운운.

○ 이창운

이창운(李昌雲) - 중고조

이창운은 충청도 문의 인(人)으로 철고(哲高) 양대간에 올린 명창이다. 이날치, 김정근, 정창업의 후배이고 백점택과 동배이다. 당시에 있어서 적벽가를 출중하게 잘하였다 한다. 씨(이창운씨)의 장기 중에서 적벽가 중 원조타령도 유명한데 박유전, 이날치의 새타령 이후 드물게 보던 것이었다 한다. 이제 그 더늠을 좌계(左揭)하면 이러하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층잡하여 만학에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칠 제 …(중략)… 가련타 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었으랴. 병에 좋다, 쑥국쑥국 저 쑥국새.” 운운. 전도성, 이동백, 김창룡 창.

○ 황호통

황호통(黃浩通) - 중조제(중고제)

황호통은 충청도 공주 인(人)으로 김정근에게 수학한 후 이날치, 정창업 등 선배와 교류하여 문건을 확충하여 기예 완역에 이르러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다(이루었다). 고종 시대에 성망이 일세에 진동한 명창인데 목청이 양성이고 우렁차서 호통 기운이 많음므로(많으므로) 호통의 별명을 얻어서 호통으로 행세하게 된 것이다 한다. 백점택, 이창운과 상허하여 교의가 심후하였더라.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고 그 특장처로는 춘향가 중 어사또가 암행하여 민정을 탐문하면서 남원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어사또 시내를 따라 풍경을 완상하면서 걸음걸음 올라가니 하늘에 달(달을) 듯 한 뉘 봉오리 중턱에 일좌 불당이 있고 거기서 재 올리는 종 소리가 울여 (울려) 온다. 이 절은 만복사라. 일즉 춘향모 월매가 자식을 비노라고, 논 섬직 이 시주하고 정성으로 비던 곳이다. 춘향이 낳은 후에도 해마다 두 번씩 춘추 재를 올리더니, 춘향이 애매한 죄로 중장(重杖)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도량을 소쇄(掃灑)하고 불공 축원을 하겠다.

어떤 중은 편관(編冠)을 쓰고, 또 어떤 중은 낙관(絡冠)을 쓰고, 어떤 중은 가사(袈裟)를 메고, 또 어떤 중은 바라(鉢羅)를 들고, 어떤 중은 광쇠(廣釧)를 들고, 또 어떤 중은 죽비(竹篋)을 들고, 어떠한 중은 목탁을 들고, 또 어떤 중은 정쇠(鉢釧)를 들고, 조고만한 상좌중놈 상모 단 복채를 양손에 갈라쥐고, 법도는 두리둥둥, 광쇠는 광광, 목탁은 또도락.....또도락, 죽비는 철철, 정쇠는 땡땡 바라는 철르릉.....철르릉. 그 중에 늙은 중이 목탁을 똑딱 치며 옆에었다 이러났다 하며, “남무사방(南無四方) 정토(淨土) 극락세계(極樂世界) 삼십육억(三十六億) 구천구백(九天九伯) 동명동호 (同名同號) 대자재비(大慈大悲) 아미타불(阿彌陀佛) 석가여래(釋迦如來) 미륵불(彌勒佛)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오백나한(五百羅漢) 팔부신장(八部神將) 지성축원(至誠祝願)”

“해동 조선국 전라좌도 남원부 봉죽면(鳳竹面) 강선리(降仙里) 거(居) 임자생 성 춘향은 신운불길(身運不吉)하여 옥중에 가치어 모진 형벌에 명재경각(命在頃刻)이오니, 한양 삼청동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암행어사나 점지하여 주옵시기를 소원성취”하며, 바라는 처르릉, 광쇠는 광광, 법고는 두리 둥둥, 목탁은 또도락. 팔 폭 장삼 너른 소매 장단 맞아 너울 너울, 법고 치는 저 상좌는 광풍(狂風)에 나비처럼 이리로 뒤적 뒤적 저리로 뒤적 뒤적 흔들거려 복을 치니, 상계(上界) 일시(一時) 분명하다. 어사또 감격하여 혼자말로 ‘내가 우리 선영 덕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의 덕이로구나.’”

운운.

○ 박상도

박상도는 거금(距今) 90여년 전 인(人)이니 충청도 공주군 출생이다. 황호통과 동배로서 적벽가로 일세를 울린 명창이었다 한다.

○ 김충현

김충현은 경기도 인(人)이다. 고종 시대에 있어서 춘향가로 올린 명창인데 황호통, 박상도와 동배이었다 한다.

○ 유공렬

유공렬은 거금(距今) 77년 전에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재질은

나이 겨우 8,9세에 가요에 능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14,15세 경에 당시 국창으로 명성이 높은 박만순 문장에 이르러 수년간 도야를 받아서 판소리에 대한 향방을 알았다. 그 후는 독공으로 계속하다가 운봉 남원간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4,5년간 정마정탁하였다. 30세경에 전주 대사습장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비로소 세간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도성, 송만갑 등과 동배로서 김세종, 이날치, 정창업 등 선배들과 추종하여 실제적 견문을 확충하였다.

이리하여 소리는 원숙하여지고 명성은 원근에 쟁쟁하였다. 40세 전후하여 경성에 올라와서 원각사 광무대 당년에 김창환, 송만갑과 병견하여 더욱 명성은 일세에 높아졌다. 이리하여 고순(高純) 양대를 통하여 최근까지 울린 명창이다. 고향에서 한산한 생애를 보내다가 10여 년 전에 병사하였다 한다. 그는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고 춘향가 중 이별가에 특장하였다 한다. 이제 그 더듬으로 이별가 중 일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춘향과 이도령이 이리 농정하여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질길(즐길) 대로 질기고(즐기고) 놀 대로 놀 짝에(적에) 유파 같은 광음이 추월춘풍 벌써 일년이 지내었고나. …(중략)…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 도련님 대강이가 둘 돌렸오(돌쳤소). 애구 무서워라, 이 쇠뿔뿔아 하고 도련님께로 와락 달려들어 다리를 꼬집고 팔을 물어 뜯는다.”

○ 이동백

이동백(李東伯, 일명 종기 鐘琦) ‘중고제’

이동백은 거금 칠십사 년 전에, 충청남도 비인군(庇仁郡) 도만리(都萬里)에서 출생하였다. 팔구 세부터 십삼 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독서에는 뜻이 없고 가요에만 취미가 있으므로, 그 기호(嗜好)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글공부를 폐기하고, 이내 김정근 김세종 문장(門帳)에 이르러 얼마 동야 도야를 받아서 비로소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십 전후에 도만리(都萬里) 희리산 용구(龍口)에서 이년간 독공하고, 후에 진주 이곡사(里谷寺)에 가서 삼년간 연마하였다. 삼십 오육 세 경에 창원(昌原) 읍내로 가서 이후 구년 간 거주하는데, 성명은 원근에 쟁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지 인사의 고애(顧愛)를 입어서,佳人(佳人)과의 결혼도 그 때 이루었다. 사십오육 세 경에 경성 서대문 내에 원각사가 창립된 시절에, 경성으로 올라와서 선배 김창환, 송만갑을 보좌하여 창극계에 노력하였다. 그리하는 동안에 조(調)와 기량은 완역에 이르고, 성망(聲望)은 날로 높아졌다. 혹은 연흥사(延興社), 광무대(光武臺)에 종사하며, 혹은 협률사(協律社)에 참가하여 송만갑과 같이 지방 순회도 누차 하였으며, 각종 소장(所長)을 주야로 종종 라디오로 방송하였다, 수년 전에 송만갑, 정정열과 같이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한 이래 일변으로 성악 발전에 노력하고, 일변으로는 남녀 소방배 훈도에 노력한다. 금년 삼월 경에 조선일보 주최로 경성

부민관(府民館)에서 은퇴 기념식을 거행하고 식후에 고별(告別)로 창극조 한 바 탕을 성심껏 하었는데, 내참자(來參者)가 양일 간 수천에 달한 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약 일개월간 은퇴 기념 고별 차로 조선 전국 대도시를 방문하면서 소리를 하였다. 그 장건(長建)한 체격(體格)은 당당한 위장부(偉丈夫)이다. 대하면 일종 불가침할 위기가 있는 듯하다. 성음이 극히 미려하거니와, 그 각양각색의 목청은 들을 때마다 청신(淸新)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체격과 이러한 미성으로 무대에 올라서 가진 기예를 발휘할 때, 혹은 골계(滑稽)로 사람을 웃기고 혹은 비곡(悲曲)으로 사람을 웃식하게 하는 데는 만당의 청중은 모두 혼취(昏醉)하며, 유시호(有詩乎) 왕양(汪洋)하여 만리창해에 편주일도귀하처(扁舟一棹歸何處)의 느낌을 주며, 더욱 하성(下聲)의 웅장(雄長)한 것은 당시 비주(比儔)가 없다. 송만갑과 병시(並時)하여 일세를 풍미한 것이 어찌 심상한 일이라. <심청가>, <적벽가>에 장하고 ‘새타령’은 이날치 이후에는 당대 독보라고 한다. 단조격(調格)이 고아(高雅)하지 못하여 야비(野卑)한 데 흐르는 힘이 없지 아니하나, 통틀어 말하면 절장보단(截長補短) 하여 일대가(一大家)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더늠을 축음기에 다수 취입하였거니와, 그 최장처인 ‘새타령’ 일편을 아래에 적는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든다. 남풍 쫓아 펼쳐나니 구만장천(九萬長天)에 대붕(大鵬)새 문왕(文王)이 나게시니 기산조양(岐山朝陽)에 봉황새, 문화기우 깊은 회포 울고 남은 공작새, 소선적벽(蘇仙赤壁) 칠월 야에 알연장명(戛然長鳴) 백학(白鶴)이. 글자를 뉘전하리,佳人相思) 기력이 생증장액수고란(生憎帳額繡孤鸞)[14]하니 어여쁠사 채난(彩鸞)새 약수(弱水) 삼천 리 먼먼 길 서왕모의 청조(靑鳥)새. 위보가인수기서(爲報家人數寄書) 소식 전튼 앵무새. 성성제혈염화지(聲聲啼血染花枝)에 귀촉도(歸蜀途) 불여귀(不如歸). 요서몽(遼西夢)을 놀나 깨니 막교지상(寞教枝上) 꾀꼬리. 만경창파 녹수 상에 원불상리(願不相離) 주란동정 돌아들어 관명우질(觀鳴于埗) 황새. 비입심상백성가(飛入尋常百姓家) 왕사당년(王謝當年) 저 제비. 양류지당담담풍(楊柳池塘淡淡風)에 둥둥 뜨는 진경이. 낙하(落霞)는 여고목제비(與孤鶯齊飛)라고 추수공장(秋水共長) 따옥이. 팔월변(八月邊)풍 높이 떠 백리추호(百里秋毫) 보라매. 금차하민수(今此下民誰敢侮予)감모여(今此下民誰敢侮予)연비여천(鳶飛戾天) 소리개. 쌍배총구안에 쌍거쌍래(雙去雙來) 비둘기. 춘산무반독상구(春山無伴獨相)에 대목정정(代木丁丁) 때저구리. 어사 부중에 밤이 들어 울고 가는 가마귀. 정위문전(廷門前尉)에 기뜨렸다 작지강강(鵲之疆疆)까지. 만강소우몽강남(滿江疎雨夢江南)은 한가하다 해오리. 우후청강(雨後淸江) 맑은 흥(興) 묻노라 갈매기. 추래견월다귀사(秋來見月多歸思)하니 열고 놓으니 두루미 산림비조(山林飛鳥) 뭇새들이 농춘화답(弄春和答) 짝을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 공기적동 공기쭈루룩 수궁소명 가가갑수리 날아든다. 야월공산(夜月空山) 깊은 밤에 구던새는 슬피 운다. 오색채의(五色彩衣)를 떨쳐입고 아홉 아

들 열두 딸을 좌우로 거느리고 상평전(上平田) 하평전(下平田)으로 아조 펄펄
 날아든다. 장끼 까토리 울음 운다. 꺾꾸루루 울음 운다. 저 무슨 새가 울음 우
 나 저 벼꼭새가 울음 운다. 꽃 피어서 만발하고 잎피어서 우거진데 청계변(淸溪
 邊)으로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도 벼꼭, 저 산으로 가도 벼꼭, 좌우로 날아 울
 음 운다. 야월공산(夜月空山) 저문 날에 저 두견이 울음 운다. 이산으로 오며
 귀촉도(歸蜀道), 저 산으로 가며 귀촉도(歸蜀道), 짝을 지어서 울음 운다. 저 꾀
 꼬리 울음 운다. 황금 갑옷 떨쳐입고 양류청청(楊柳靑靑) 버드나무 제 일음 제
 가 불러 이리로 가며 꾀꼬리루, 저리로 가며 꾀꼬리루, 머리 곱게 곱게 빗고 물
 건네로 시집 가고지고 가가감실 날아든다. 저 할미새 울음운다. 무곡통 한섬에
 칠푼오리(七分五厘)하여도 오리(五厘)가 없어 못 팔아먹는 저 방정맞은 할미
 새, 경무년(庚戌年) 대풍시절(大豐時節)에 쌀을 양(兩)에 열 두말 씩 해도 굴머
 죽게 생긴 저 할미새. 이리 가며 팽당그르르 저리로 가며 팽당그르르 가가감실
 날아든다. 머슴새가 날아든다. 초경(初更), 이경. 삼사오경 사람의 간장 녹이라
 고 이리로 가며 붓붓, 저리로 가며 붓붓, 이리 한참 날아든다. 저 비둘기 우름
 운다. 콩하나 팻 하나 물어다 놓고 수놈은 물어 암놈 주고 암놈은 물어 수놈을
 주며 주홍 같은 입을 대고 궁글궁글 울음 운다. 저 무삼 새가 우는고. 오색단
 청(五色丹青) 때저구리 연년(年年) 묵은 고목(枯木)나무 버레 하나 얻으려고 오
 르며 딱따그르 내리며 딱따그르 이리 한참 우름 울고. 저 가마귀 울음 운다. 아
 랫넉 갈가마귀 옷넉의 떼가마귀 거지 중천 높이 떠서 까옥까옥 울음 운다. 소
 상강 떼기러기 장성 갈재 넘으려고 백운을 무릅쓰고 뚜루룩길룩 너울너울 춤을
 춘다. 저 종달새 울음 운다. 춘삼월\ 호시절(好時節)에 한길릉 오르며 종지리
 두 길 오르며 종지리, 아주 펄펄 노니는구나.

○ 김창룡(金昌龍)

김창룡 ‘중고제’

김창룡은 거금 육십팔 년 전에,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황산리(黃山里)에서 출
 생하였다. 칠 세부터 그 부친 정근에게 판소리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십삼 세에
 이르러 다소 향방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이날치 수하에서 일 년간 지침을 받
 아서, 비로소 소리는 자리가 잡히었다. 그 후로는 홀로 연마하가, 김창환, 박기
 흥 등 성배와 종유하여 견문을 확충하였다. 삼십이 세 경에 경성에 올라와서
 연흥사(延興社) 창립에 노력하여 공헌한 바 불선(不黜)하였다. 그리하여 창법과
 기량은 숙달하였다. 최근에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등과 재휴하여 조선성악연
 구회에 참가하여 원로로서 음악 소장배 지도에 게을리 아니하며 종종 라디오
 방송을 한다. 자가(自家) 전래의 법제를 계승한 만큼 고곡미(古曲味)가 다소 있
 고, 천품(天品) 성대가 좋아서 며칠을 계속하더라도 상하지 않는 점은 장하다.
 그 소장으로 축음기에 취입된 바 수종(數種)이 있거니와, <적벽가>에 장하고
 <심청가> 중 ‘꽃타령’이 특징이다. <적벽가> 중 삼고초려 장면 약간을 아래에

적는다.

당당한 유향숙은 신장 칠척 오촌이오, 면여관옥(面如冠玉)이오, 자고기이(自顧其耳) 수수과슬(手垂過膝)이라. 오모홍포(烏帽紅袍) 옥대(玉帶)를 쌍고검(雙股劍) 비껴차고 적로마(駙廬馬) 상 두렸이 앉은 거동 제왕의 기사이요. 관공 위의 불작시면 신장 구척 면여중조(面如重祚)하고 단봉안(丹鳳顏) 와잠미(卧蚕眉) 이척 오촌 삼각수(三角鬚) 성약홍종(聲若洪鍾)이라. 청건(靑巾) 녹포(綠袍)쌍 청룡도(靑龍刀) 비껴 들고 적토마(赤兔馬) 상에 앉은 거동 위풍이 늠름(凜凜). 장익덕(張益德) 위의를 불작시면 곰의 등 범의 머리, 먹장얼굴 쌍고리는 몸에 앵무전포(鸚鵡戰袍) 머리에 녹건(鹿巾) 팔사모장창(八蛇矛長鎗) 눈 위에 솟게 잡고 흑준마(黑駿馬) 상에 엮은 거동 진삼국지맹장(眞三

國之猛將)이로다. 안거(安車) 사마(駟馬) 와 현세옥백(玄總玉帛)으로 예단(禮單)을 갖춘 후 남양용중(南隆陽中) 찾아 갈제, 이때는 건안(建安) 찰년 춘정월이라. 삭풍은 늠름하고 우설(雨雪)은 비비(霏霏)한대 천산조비절(千山鳥飛絕) 만경인종멸(萬徑人蹤滅)이라. 험악한 좁은 길로 행로(行路)하기 어려워라. 양양(襄陽) 땅 돌아들어 와룡강(臥龍岡) 바라보지 경개 무궁 좋을시고, 산불고이수려(山不高而秀麗)하고 수불심이징청(水不深而澄清)이라. 지불광이평탄(地不廣而平坦)하고 임불다이무성(林不大而茂盛)이라. 원학(猿鶴)은 상관(相觀)허고 송죽(松竹)은 교취(交翠)로다. 서로 재촉하여 남양 초당을 다다라 시문(柴門)을 두다리며, 동자 불러 묻는 말삼, “선생이 계옵시나?” 동자 여짜외되, “선생계옵서 춘수(春睡)깊어 초당에서 주무시나이다.” 현덕이 이 말 듣고 운장과 익덕에게 분부하여 문밖에 세워두고 완완(緩緩)히 거려 들어가 계하(階下)에서 서서 기다리기를 오래 하되, 선생이 잠을 깨지 않는지라. 장비 대노하여 이른말이, “저 선생이 이같이 거만하뇨? 일개 촌부자(村夫子)로 써 우리 형장(兄長)을 이대지 홀대(忽待)하니 무례막심하도다. 내 집 뒤에 가 불을 놓

아도 아니 일어나나 불리라.” 하는 지라. 운장이 곁에 섰다가 익덕의 손을 더벅 잡고 “현재여. 천하 대사를 할랑이면 여간 소절을 생각하리오?” 재삼 만류하지라. 이 때 공명선생이 게우 잠을 깨어 글을 읊어 가로되, “초당춘수족(草堂春睡足)하니 창외일지지(窗外日遲遲)라. 대몽수선각(大夢誰先覺)고 평생아자지(平生我自知).” 읊기를 파한 후에 동자 부러 묻는 말삼 “속객(俗客)이 와 계시나?” 동자 여짜오되, “전일 두 번 오셨든 유향숙계옵서 계하에 서서 기다린 지 오래로소이다.” “어찌 일즉 고치 아니하였나뇨”하고, 공명이 즉시 외관을 정제하고 당에 내려 현덕을 맞아 예필(禮畢) 좌정 후에, 현덕이 눈을 들어 공명을 잠간 보니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오각운건(五角輪巾)을 쓰고 몸에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손에 백우선(白羽扇)을 들었으니, 은은한 풍도(風道)와 표표(飄飄)한 기골(氣骨)은 만고 흥망지재를 흉중에 품었는 듯. 현덕이 배읍(拜揖)하고 “우비(愚備) 선생을 뵈옵자 수삼 차 온 뜻은 다름 아니오라 한실(閑室)이 경퇴(傾

類)하고 간신이 농권(弄權)하거늘, 비(備)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의를 천하에 퍼고자 하나 병미장과(兵微將寡)하고 지식이 천단(淺短)하와 홍복(洪福)치 못하오니, 원컨대 선생은 경제지재(經濟之材)를 품은지라. 비를 위하여 출산상조(出山相助)하사이다.” 공명이 대답하되 양(亮)은 본대 포의한사(布衣寒士)로 남야에 밭 갈기와 강호에 고기 낚기 평생에 일삼으니, 공명이 꿈 밖이오, 또한 천하대사를 내 어이 감히 알리이까?“ 현덕이 배움하고 다시 말삼하되, ”선생 곧 아니오면 창생을 어이하며 사직을 어이하오리이까?“ 하고 하음없는 눈물이 의금(衣衾)을 적시거날, 공명이 그 정성이 지극함을 보고 ”존교여차(尊教如此) 하오니 존의(尊意)를 받을려니와, 이제 조조는 백만 병으 르거나려 협천자(挾天子) 호령하니 닷투기 어려웁고, 손권은 강동에 웅거(雄據)하여 지험민부(地險民富)하지, 가히 도모치 못할지라. 익주(益州)난 험색(險塞)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에 천부지토(天府之土)요 형주(荊州)난 북거한면(北據漢沔)하고 서통파촉(西通巴蜀)하니 가히 용무(用武)할 땅이라.“

공자 불러 형주도(荊州圖)를 내여오라 하여 벽상(壁上)에 거러놓고 하는 말이 “현주(賢主). 이곳을 얻었으면 한실(閑室)을 가복(可復)이오, 제업(帝業)을 가성(可成)이라.” 하고 아우 균(筠)을 불러 부탁하는 말이, ”내 유황속의 삼고지은(三顧之恩)을 갚고자 하여 아니 가지 못하리니, 너는 몸소 밭 갈 농업을 폐(廢)치 말고 내 공성(功成)한 후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동원(東園)의 저 원학(猿壑)은 어나때에 다시 보며, 남양의 묵은 산전(山田) 뉘라서 매어주리.“ 머리에 오각운건(五角輪巾) 몸에 학창의(鶴擎衣)며, 백우선(白羽扇) 손에 들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신야(辛野)에 돌아오니, 장불만십(將不滿十)이오 병불만천(兵不滿千)이라. 대상(臺上)에 높이 앉아 천하사를 의논한다. 운운.

○ 김봉문

김봉문은 충청도 서산군 출생이다. 박기홍 제자로서 순종 이후로 최근까지 성명이 쟁쟁하다가 54세를 일기로 하고 10년 전에 고향에서 병사하였다 한다. 사(師) 박기홍의 창법을 많이 계승한 만큼 동파의 면목이 약여하였거니와 흥보가에 장하였다 한다. 그 특장으로 흥보가 중 박물가 1절을 소개하면 여좌(如左)하다.

박 한 통을 또 따다놓고 켜다. “여여루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주소.” 밀거니 다리거니 쓰삭 쿡각 툅 타노니, 박 속으로 원갓 세간이 다나온다. 자개함농 반다지며 용장 봉장 귀두주 쇠금들미 삼충장 게자다리 옷거리며 쌍룡그린 비접고비 용두머리 장목비 늦촉대 백통유기 셋별같은 요강 타구 그득히 버려놓고 우단이불 대단요며 원앙금침 잣벼개를 반다지에 쌓아놓고 사랑치레 더욱 좋다. 용목괘상 벼루집 화류문갑 각계수리 용연벼루 거북연적 대모책상 호박필통 황홀하게 버려놓고 서책을 쌓았으되, 천자(千字), 유합(類合),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맹자, 시전, 서전, 대학, 중용, 길길이 쌓아놓고 그 곁에 순대 모안경 화류체경 진묵 당묵 순황모 무심필을 산호필통에 꽂아놓고 각색 지물이 또 나온다. 락곡지 별백지 도침지 간지 주지 피딱지 갓모 유삼 유지 식지 다 나오며 또 필육이 나온다. 길주명천 가는 벼, 회령 종성 고흔 벼, 당포 춘포 옥진포 발이포 사승포 중산포 가는 무명, 강진 해남 극세목, 고양 꽃밭을 이생원의 맛달아기 보름 만에 맞혀내던 세목 관디차로 봉해 있고, 의성목(義城木) 안성(安城)목 만경(萬頃)목 송도(松都) 야달이목이며, 가는 모시 굵은 모시 임천(林川) 한산(韓山) 극세저(極細苧) 각색 비단 또 나온다. 일광단 월광단 서왕모 요지연에 진상하던 반도문(蟠桃紋)이 황홀하고, 백설이 만공산한테 절개 있는 송조단, 등태산(登泰山) 소천하(小天下)하던 공부자의 대단이오, 양진(兩陣)이 합전(合戰)하니 뇌고함성(擂鼓喊聲)의 영초단, 시여추기(詩如秋氣) 쟁고(爭高)하니 장부 절개 송금단, 가는 님 손 더벅 잡고 가지 말게 도리불수, 인의예지 효제충신 우리 인생의 모본단, 남당초당(南堂草堂) 깊은 곳에 잠재하던 와룡단(臥龍緞)이 구역꾸역 나오고, 쓰기 좋은 양태문 매매흥성 수갑사 인정 있는 은조자요, 부귀다남 복수단 삼순구식 궁초로다. 뚜두럭꾸벅 말굽장단 서부령섭적 새발문 문계 문계 운문단 만경창해(萬頃滄海) 조개단 해주(海州)자주 몽고삼승(蒙古三升) 접영 관사 길상사 생수삼팔 왜사 갑징 생초 등물(等物)이 더럭더럭 나올 적에

흥보 안해 좋아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는 말이, “붉은 단 퍼런 단아. 펍도 많이 나온다. 우리 한푸리로 비단으로 옷 한번 하여 입어 봅시다.” “그리 하세. 그런데 무엇으로 할고?” “나는 송화색 비단으로 할라능만.” 하고 흥보 안해가 옷을 차리는데 똑 이렇게 차리던 것이었다. 송화색 대단 저고리 치마 바지 속것 고쟁이 버선까지 송화색 대단으로 하여 놓으니 참 가관이다. “내가 어떻게 봐오?” “우에서 아래까지 노란 것이 꼭 피꼬리로세.” “나는 무엇으로 하여 입을고? 흑공단으로 하여볼가?” 흑공단 망건 당쫄 관사 저고리 바지 두루막이 버선까지 흑공단으로 새가말게 차려 놓으니 역시 가관이것다. “여보, 마누라. 나는 무엇같이 봐이는가?” “똑 가마구 같오.”

흥보 웃으며, “또 한 통을 타봅세.” 먹줄 쳐서 톱을 거러놓고, “어이여라, 톱질 이야. 수인씨(燧人氏)는 불을 내어 교인화식(教人火食)하여 있고, 복희씨(伏羲氏)는 그물 맺어 교인전어(教人佃漁)하여 있고, 황제씨(黃帝氏)는 백초(百草)를 맛보아서 약을 내고, 잠총(蠶叢)은 누에 치기 시작하여 만 인간 잎이었고, 의적(儀狄)은 술을 내고, 여와씨(女媧氏)는 생황(笙簧)내고, 채륜(蔡倫)은 조희 내고, 몽념(蒙恬)이는 붓 만들고, 그나마 천종만물(千種萬物)이 유지자(有志者)의 창조함이니, 우리는 박 타는 재주를 창조하여 봅세. 슬근슬근 당기어라.” 슬근슬근 쓰삭 툇 타놓으니, 순금 궤 하나에 금거북 자물쇠로 채였으되, “흥보 개탁하라.” 하였거늘, 흥보 은근히 좋아라 하여 꿇어 앉어 열고 보니, 황금 백금 오금(烏金) 십상천은(十上天銀)이며 밀화 호박 산호 금패 진주 주사 사향 용뇌 수은

이 가득 찼거늘, 쏟아 놓면 여전히 가득가득 차고, 쏟고 나서 도로 달고 열고 보면 도로 글로 하나 가득하니, 흥보 내외가 좋아라고 이렇게 쏟고 보니 어연간에 큰 장자가 되었구나. 흥보 너무 좋아라고 그 마누라더러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집이 협착하여 어따가 두면 좋을가. 우리 저 박 한통 마저 타고 집이나 지어보세.”

한 통 남은 것을 마저 따다 놓고 흥을 내여 켜겼다. “여복소, 마누라. 정신 차리고 힘써 다녀주소. 슬근슬근 톱질이야. 우리 일을 생각하니 옛그제가 꿈이로다. 남 없이 고생타가 일조(一朝)에 부가옹(富家翁)이 되었으니 어찌 아나가 질길소냐.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주소 톱질이야.” 슬근슬근 쓱싹 쿵 각 툯 타 놓으니, 박 속에서 일등 목수들과 각색 곡식이 나올 적에 목수들은 위선 명당을 가려 터를 닦고 집을 짓는데, 안방 대청 행랑 고간 선차 춘여 말굽도리 내외분합 물림되와 살미살창 가로다지 입구 짜로 지어놓고, 앞 뒤 동산에 기화이초(奇花異草)를 난만(爛漫)히 심어 있고 양지에 방아 걸고 음지에 우물 파고 문전에 버들 심고 울 밖에 원두 놓고 안팎 고왕에 곡식이 쌓였으니 동편 고에는 정조(正租)가 만석이오, 서편 고에는 백미(白米)가 오천석. 전후 고왕에는 두태잡곡(豆太雜穀)이 각 오천석이오, 참깨 들깨가 삼천석이오. 또 탄 노적한 것이 십여 더미요 돈이 십만 구천냥이오. 일용전(日用錢) 몇 천 냥은 침방 속에 들어있고 원갓 비단과 은금보패(銀金寶貝)는 다시 고에 쌓고, 말리같은 사내종 열쇠같은 계집종 앵무같은 아이종 나며 들며 사환하고, 우격부리 잣박부리 우격지격 시려 들여 앞뒤 뜰에 노적하고 담불담불 쌓아놓니 흥보 안해 좋아라고 춤을 추고 돌아다닌다.

○ 한성준(韓成俊)

나 이제 [조선창극사]를 편술함에 당하여 명창 광대 남녀 아울러 십여 인을 들어 기록하였거니와, 이에 따라 고수도 또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속담에 ‘부처님 살 찌고 안찌기는 식수장이 손에 다렸다’는 것과 같이. 아무리 명창 광대일지라도 고수의 한 마치 장단에 그 성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고수 이명창’이라느니 말도 있고, 또 ‘수[웅(雄)]고수 암[자(雌)]명창’이라는 말도 있다. 조선에 극창이 생긴 지 이백여 년 간 금일의 생존자까지 남

녀 명창이 근 백 명이 된즉, 이에 따라 명고수도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은 상상에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수로서 그 성명을 알린 이는 겨우 송광록, 주덕기 아래에 별도로 전한 이가 없으니, 어찌 유감이 아니라. 현대에 다행히 한성준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 고수로서의 천재를 발휘하여 창극계의 일대 조역(助役)의 지위를 점령 하였으니, 이제 그 대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성준은 충청남도 홍성 인으로 거금 육십필 년 전 출생인, 팔세 때로부터 북

패를 잡기 비롯하여 그 외조에게 배우다가 다시 박순조(朴順祚) 문하에 들어가 완벽(完璧)을 이루고, 십칠 세부터 지난 갑오년까지 고수로서 십오 차의 창방(唱榜)을 치렀으며, 그 뒤로 김창환, 박기흥, 송문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열 등 제 명창의 고수로서 현재 남녀 명창 광대들의 고수로 계속 중이다. 양성한 문도가 사십여 인에 달하나, 그 문장(門牆)을 엿본 자는 강대홍(姜大弘) 이외 삼사 인에 불과하다 한다. 그런데 창극의 장단으로는 평타령 중머리 진양조 엿머리 휘모리 다섯 가지가 있는데, 광대의 기량에 따라 완급장단(緩急長短)을 임의로 늘이고 줄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씨는 춤이 당세의 명무(名舞)로 그 제자가 남녀 아우러 이백 여명이 되는데, 다 상당이 성명(聲名)을 드날리는 축이라고 한다. 춤 장단에는 지세장단 쇠장단 고산 연불장단 꺾음살পুর이 봉동채 밧탕고 살পুর이 국거리 타령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몇가지는 여간 고수로는 이름도 무른다고 한다. 어쨌든 한성주와 같은 고수는 불세출의 기술가(技術家)라 아니 할 수 없다.

6) 중고제 장르별 · 인물별 사전 수록 내용

가) 판소리

염계달	방만춘	고수관	김성옥	김정근	김창룡	김창진
김세준	김차돈	김제철	이석순	최남청	송수철	임청학
정춘풍	한송학	윤영석	정흥순	최상준	백점택	백점봉
이창운	황호통	박상도	김충현	김봉학	김석창	유공렬
이동백	김봉문	심정순	심재덕	박동진		

○ 염계달[廉啓達]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순조(1800~1834)·헌종(1834~1849) 무렵 판소리명창.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또는 충남 덕산군(德山郡) 출생. 일명 염계량. 중고제(中高制)의 시조. 조선후기 8명창 중의 한 사람.

1826년(순조 26)에 지은 신위(申緯)의 「관극시」(觀劇詩)에 나오는 명창이고, 경드름이라는 특이한 가락을 만든 그의 더늠은 춘향가 중 "십장가"(十杖歌)에 전한다. 모흥갑·송흥록과 동배(同輩)인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소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충청도 음성(陰城) 벽절로 들어가 판소리공부를 하던 도중에 장끼전 한 권을 얻어 "장끼타령" 공부에 전력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헌종(憲宗)의 부름을 받고 어전(御殿)에서 누차 소리를 했고, 헌종의 총애로 동지(同知)라는 벼슬을 받았다. 김성옥(金成玉)과 더불어 중고제 판소리의 시조로 꼽히는 그의 특장은 "장끼타령"과 흥보가(興甫歌)이며, 권삼득(權三得)의 창법을 많이 모방했다고 한다. 경기도 향토가요조 판소리를 응용하여 여러 대목의 소리를 짜서 이를 경드름 곧 경제(京制)와 추천목이라 불렀다.

경드름은 "한강수타령"이나 "오봉산타령" 같은 경기민요(京畿民謠)의 토리를 판소리화시킨 것이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대목을 잘했다. 그의 더듬으로 춘향가에서 '네 그 큰 내력' 대목과 수궁가에서 '토끼 욕하는' 대목은 추천목으로 되어 있다. 박만순(朴萬順)·이날치(李捺致)가 전창(傳唱)하고, 전도성이 방창(倣唱)한 것은 정노식(鄭魯湜)의『朝鮮唱劇史』에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염계달[廉季疸]

유형 인물 시 대 조선 출생-사망 미상~미상

성격 명창 출신지 경기도 여주 성별 남

내 용

후기 8명창중의 한 사람이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고 충주에서 살았다. 모흥갑(牟興甲)·송흥록(宋興祿)과 동배(同輩)이다. 어려서부터 판소리에 재질이 있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충청도 음성에 있는 벽절이라는 절로 들어가 10여년간 판소리를 수련하고 나와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헌종 때 어전(御前)에서 판소리를 하여 동지(同知)벼슬을 받았다. 김성옥(金成玉)과 더불어 중고제(中古制) 판소리의 시조로 꼽히고 있는 그는 「장끼타령」과 「흥보가」를 잘하였고 권삼득(權三得)의 창법을 많이 본받았다.

경기도 향토가요조 판소리를 응용하여 여러 대목의 소리를 짜서 이를 경드름(京調)과 추천목이라고 불렀다. 경드름은 경기민요 「창부타령」, 「도라지타령」과 같은 민요의 토리를 판소리화시킨 것이며, 추천목은 「한강수타령」, 「오봉산타령」과 같은 민요의 토리를 판소리화시킨 것이다.

특히, 그는 「춘향가」중에서 십장가 대목을 잘하였는데, 그의 더듬으로 「춘향가」에서 '남원골한량' 대목은 경드름으로 되어 있고 「춘향가」에서 '네그 큰 내력' 대목과 「수궁가」에서 '토끼 욕하는' 대목은 추천목으로 되어 있다. 그는 판소리에 경드름을 도입한 명창으로 공이 크다.

[두산백과]

염계달[廉季達]

출생-사망 ? ~ ? 활동분야 예술 출생지 경기 여주

조선 후기 순조·헌종·철종시대에 활약한 판소리의 명창. 경기 여주 출생. 권삼득(權三得)의 창법을 모방하여 노래하였으며, 판소리에 경드름(京調)을 도입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헌종의 총애를 받아 동지(同知)의 직계(職階)를 제수받았다. 《장끼타령》과 《흥보가》를 잘 불렀으며, 더듬으로 《춘향가》 중의 <십장가(十杖歌)> <돈타령>과 《수궁가》에서 토끼가 자라에게 욕하는 대목 등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전통연희사전]

염계달 [廉季達]

염계달(廉季達)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의 출신지로 거론되는 곳은 경기 여주군과 충남 예산군 덕산면이며, 만년에는 충북 충주에 거주했다고 한다.

염계달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권삼득(權三得, 1771-1841)의 창법을 많이 본받았으며, 고수관(高壽寬, 1764-?)이 그의 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또 그의 소리 수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10년 공부를 작성하고 길을 떠난 염계달은 도중에 <장끼전> 사설이 적힌 책을 습득했다. 이에

"하늘이 나를 암연히 도움이라" 하고, 정말 10년 동안 소리 공부에 매진했다. 『조선창극사』에서 그가 소리 수련한 곳을 충청도 음성의 벽절로 소개했는데,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신록사(神勒寺)이다. 신록사 경내의 동대(東臺) 위에 있는 다층전탑(多層壇塔)을 벽돌로 쌓은 데서 고려 때부터 이곳을 벽절(壁節)이라 부르기도 했다. 밤에 잠이 오면 상투에 끈을 달아 천장에 매달고 소리를 했다는 일화도 함께 전한다.

염계달은 헌종 때 어전(御前)에서 수차례 소리를 했으며, 동지(同知) 벼슬을 받았다. 신위(申緯, 1769-1845)가 <관극절구십이수(觀劇絶句十二首)> 중 제5수에서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은 호남의 소문난 광대(高宋廉牟噪海秋), 하 좋아 나를 흘려 시를 읊게 하니(狂歎引我脫詩囚)"라는 시구로, 대명창인 고수관(高壽寬, 1764-?)·송흥록(宋興祿)·모흥갑(牟興甲)과 나란히 그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로써 당시 그 위상과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의 향토민요적 특성을 활용한 가볍고 밝은 느낌의 경드름과 그네를 뒤통 흥겹고 흥청흥청한 느낌의 추천목을 개발했다. 고수관제 더듬으로 알려진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도 염계달의 소리제를 받아서 짠 대목이다. <춘향가> 중 '남원골 한량'과 '돈타령', '이별가', <수궁가> 중 '토끼 욕하는 대목' 등이 그의 대표적인 경드름·추천목 대목이다. 한편 그는 김성옥(金成玉, 1801-1834)과 더불어 중고제(中古制) 판소리의 시조로 꼽히기도 한다.

<장기타령>과 <흥보가>가 장기였으며, <춘향가> 중 '남원골 한량 대목'이 그의 더듬으로 전한다. 김창룡(金昌龍, 1872-1943)이 1930년에 녹음한 <춘향가> 중 '돈타령'(Regal C155-A 名唱制 사랑가·돈타령 金昌龍 鼓韓成俊) 유성기 음반에, 이 대목이 염계달의 더듬이라는 설명이 삽입되어 있다.

○ 방만춘

[한국전통연희사전]

방만춘(方萬春)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며,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방진관(方進寬, 본명은 방응교(方應教, 1860?-?))의 조부이다.

11세부터 해미군의 일락사(日落寺)에 들어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황해도 봉산의 어느 절에 가서 4년간 독공했다. 손자 방진관이 그의 소리를 계승했다. 22세에 상경해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해도 봉산으로 들어가 소리를 연마했다. 그러나 과도한 수련으로 인해 아예 발성조차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방만춘은 목을 킁 목적으로 절 기둥을 안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다가 기진했다. 마침 절의 목공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절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내려왔다. 그 자리에는 방만춘이 홀로 뒤통을 잃고 앉아있었고, 목공이 들은 굉음은 짝 막혔던 방만춘의 목이 한 번에 툭 툭하며 나온 소리였다. 한편 방만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율객과 함께 봉산에서 <적벽가>와 <심청가>를 운색·개작했다는 설이 있으나, 실제 사설은 전하지 않는다. 목청을 갖혀가면서 힘차게 내는 소리인 아귀성, 아주 가늘게 그리고 미약하고도 분명히 내는 소리인 살세성을 잘 구사했다. <적벽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적벽화전 대목'을 특히 잘 불렀다. 그가 이 대목을 부르면 소리판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 듯했다고 전한다.

참고문헌

박황,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6.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25년(순조 25) ~ 미상

출신지/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정의/조선후기 아귀성과 살세성의 곡에 능했던 판소리의 명창.

내용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출신. 어려서부터 판소리에 재질이 있어서 11세 때 해미 일락사(日落寺)에 들어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22세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름을 떨쳤다.

또한 황해도 봉산 어느 절에 가서 4년간 목소리를 닦은 뒤에 목이 툇어 큰 명창이 되었다. 황해도 봉산에서는 성명 미상의 율객(律客)과 함께 「적벽가」와 「심청가」를 고전에 맞게 운색하였다 한다. 그 「적벽가」와 「심청가」의 사설이 근래까지 전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그는 목청을 찾혀가면서 힘차게 내는 소리인 아귀성, 아주 가늘게 그리고 미약하고도 분명히 나는 소리인 살세성과 같은 곡을 잘하였다. 특히 「적벽가」를 잘했으며, 「적벽가」 ‘불지르는 장면’에서는 소리판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 느낌이었다 한다.

손자 진관(進寬)이 그를 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진관이 취입한 음반 몇 장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판소리』(강한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판소리소사』(박항, 신구문화사, 1974)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현종(1834~1849) 무렵 판소리명창. 충청남도 해미읍(海美邑) 출생. 출생/ 1825년

어려서부터 판소리에 재질이 있어서 11세 때 해미 일락사(日落寺)에 들어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22세 때 상경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또한 황해도 봉산(鳳山) 어느 절에 가서 4년간 목소리를 닦은 뒤에 목이 툇어 큰 명창이 되었다. 황해도 봉산에서는 성명 미상의 율객(律客)과 함께 적벽가(赤壁歌)와 심청가(沈淸歌)를 고전에 맞게 운색했다고 한다. 목청을 찾혀가면서 힘차게 내는 소리인 아귀성, 아주 가늘게 그리고 미약하면서도 분명히 나는 소리인 살세성과 같은 곡을 잘했다고 한다.

당시에 모흥갑(牟興甲)은 고동상성으로 유명했고, 송흥록(宋興祿)은 귀곡성(鬼哭聲)으로 유명했지만, 방만춘은 아귀상성과 살세성으로 독보적이었다고 한다. 적벽가를 특히 잘 불렀던 방만춘의 더늠은 적벽가 중 "적벽강대전"(赤壁江大戰)에 전한다. 그의 소리를 전승한 손자 방진관(方進寬)이 취입한 음반 몇 장이 남아 있다.

[두산백과]

요약/한국의 판소리의 명창. 《적벽가》 중 <화전장(火戰章)>과 《심청가》에 특히 뛰어났고, 특수한 발성법으로 당대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저서로 《방만춘창본》을 남겼는데, 이는 《적벽가》 《심청가》를 고전(古典)에서 운색 개작한 것을 실고 있다.

출생-사망/1820 ~ ?

충남 해미(海美) 출신. 11세 때 해미 일락사(日落寺)에서 10년간 공부하고, 22세 때 상경하여 첫선을 보인 뒤, 뜻하는 바가 있어 다시 황해도 봉산(鳳山)의 어느 절에 들어가 4년간 수련한 다음 마침내 대성하였다. 《적벽가》 중 <화전장(火戰章)>과 《심청가》에 특히 뛰어났고, 아귀윳청·살세성과 같은 특수한 발성법으로 당대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저서로는 《방만춘창본》을 남겼는데, 이는 《적벽가》 《심청가》를 고전(古典)에서 운색 개작한 것을 실고 있다.

○ 고수관

[한국전통연희사전]

고수관(高壽寬, 1764-?)은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태어났으며, 만년에는 충남 공주 지역에 거주했다고 전한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고수관의 전승계보는 알려진 바 없으나, 염계달(廉季達)의 소리를 많이 계승했다고 한다.

신위(申緯, 1769-1845)가 <관극절구십이수(觀劇絕句十二首)> 제5수 중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은 호남의 소문난 광대(高宋廉牟噪海秋), 하 좋아 나를 흘려 시를 읊게 하니(狂歎引我脫詩囚)"라는 시구를 통해, 대명창인 송흥록(宋興祿)·염계달·모흥갑(牟興甲)과 나란히 고수관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당시 고수관이 판소리 명창으로서 지녔던 명성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또 신위의 문집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26책에는 신위와 고수관 사이의 교분이 매우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3월 3일에 늙은 광대 고수관이 흥성에서 왔기에 술을 내놓고 소리를 들었다. 지난 을유년 봄을 돌이켜보니 총사 이기원과 함께 고수관을 붙잡아서는 한 달이나 즐겁게 지냈고, 나는 관극시 열 수를 지었었다. 옛정을 생각하며 지어서 주다(三月三日 老伶高壽寬來自洪鄉 故置酒劇 回憶乙酉春 同李杞園揔使拉高伶 作一月之歡 余有觀劇詩十絕句 感舊題贈)>는 1840년에 고수관이 흥성에서 신위를 찾아오자, 그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판을 벌이면서 느낀 감회를 읊은 시이다. "늙었어라 고수관 그래도 아직 살아(老矣高伶能不死), 능름히 소리함이 예와 다름 없고녀(掀鬚演劇尙風姿)", "지난날의 술한 소리판으로 옛꿈을 더듬으며(往事千場尋舊夢), 서로 만나 한번 웃고 시름을 털어내네(相逢一笑imagefont今悲)"라는 시구에는 노령임에도 여전히 능름하게 소리하는 고수관의 모습, 그리고 지난 날 소리판에서 함께 어울렸던 추억이 담담하게 묘사된다.

1843년에 신위는 고수관을 마지막으로 만나 "팔순에 만나 보니 귀밑머리 세었고(八旬相對鬢毛蒼), 세월은 거품처럼 소리판에서 부서졌네(泡滅光陰演劇場)", "뒤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다 해도(縱使後期能有日), 예전의 춘향가 소리를 다시 해낼 수는 없으리(不堪重理舊春香)"라는 시를 지었다. 이미 귀밑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80세의 고수관을 바라보는 자신의 쓸쓸하고 서운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고수관은 문식(文識)과 재주가 뛰어나, 소리판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설과 곡조를 지어 부를 줄 알았다. 대구감사의 부임 축하연에 참석한 고수관이 그날 잔치에 참여한 기생들의 이름에 멋진 시를 붙여 <춘향가>의 '기생점고'를 바꾸어 불렀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한편 신재효(申在孝, 1812-1884)가 <광대가(廣大歌)>에서 고수관을 '고동지(高同知)'라고 지칭한 데서, 그가 동지 벼슬을 제수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음이 매우 미려했을 뿐만 아니라,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해 '판창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판의 현장성을 살려 변화무쌍한 기교를 부릴 줄 알았다는 점에서, 그는 음악적 임기응변이 탁월한 인물로 평가된다.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고동지(高同知) 수관(壽寬)이난 동아부자(同我婦子) 탐피남묘(鑑彼南畝) 은근문답(愍勤問答)하는 거동 근과농상(勤課農桑) 백낙천(白樂天)이라"라고 하여, 고수관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백낙천에 빗대어 표현한 바 있다.

중중모리로 부르는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가 그의 더듬이다. 염계달의 소리제를 따른 추천목으로 되어 있어, 흥겨우면서도 흥청흥청하는 느낌을 준다. 만년에 앞니가 다 빠져 독특한

순음(唇音)으로 부른 것이 주덕기(朱德基)에 의해 그대로 방창되어 널리 퍼졌다. '자진사랑가'는 현재까지도 <춘향가>의 주요한 소리대목으로 불리고 있다.

참고문헌

유영대, 「판소리에서 임기응변과 변조의 의미-고수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회, 1998.

이보형, 「판소리팔명창음악론」, 『문화재』 8, 문화재관리국, 1974.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칭별칭/기타 판청일수 출생 - 사망/ 미상 ~ 미상

출신지/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생애

조선 순조·철종 때의 8명창 가운데 한 사람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에서 태어났고, 말년에는 공주에서 살았다. 염계달(廉季達)의 소리를 많이 본받았으며,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판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남이 따를 수 없었다 한다. 그래서 '판청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더늠인 「춘향가」중의 '자진사랑가'는 염계달의 소리제를 받아서 짠 추천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수하기 이를 데 없다. 신재효(申在孝)도 「광대가(廣大歌)」에서 “고동지(高同知) 수관(壽寬)이난 동아부자(同我婦子) 탐피남묘(鑑彼南畝) 은근문답(殷勤問答)하는 거동 근과농상(勤課農桑) 백낙천(白樂天)이라.” 하여, 그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백낙천에 비기고 있다.

또한, 그는 유식하고 글재주가 있어 소리판에서 즉흥적인 한시를 잘 지었다 한다. 그의 더늠 '자진사랑가'는 송만갑(宋萬甲)·전도성(全道成)에 의하여 방창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많은 명창들이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판소리소사』(박황, 신구문화사, 1974)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판소리팔명창음악론」(이보형, 『문화재』8, 문화재관리국, 1974)

[두산백과]

요약/조선 후기 순조·철종 때의 판소리 명창. 당시 8명창 중의 한 사람으로 성음(聲音)이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판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춘향가》 중 <사랑가>를 잘 불렀으며 판소리 이론가로 유명한 신재효와 신위도 그의 노래를 좋아했다.

출생-사망/? ~ ? 별칭/일명 고소관(高素寬)

활동분야/예술 출생지/충남 해미

충남 해미(海美) 출생에서 출생하여 만년에는 공주에서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성음(聲音)이 섬세하고 아름다워 판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판청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당시 8명창 중의 한 사람으로 문식(文識)에도 뛰어났으며, 즉석해서 많은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 소리는 《춘향가》중에서 특히 <사랑가>를 잘 불렀으며, 늙어서는 병으로 코먹은 소리를 냈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이것까지 흉내를 내었다고 한다. 판소리 이론가로 유명한 신재효와 신위(申緯)도 그의 노래를 좋아하여 여러 번 초청하고 극회(劇會)를 베풀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상감영에 초청을 받아 춘향가의 기생을 점고하는 대목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기생 이름마다 즉흥시 한 수씩을 붙여 불러서 참석자들을 경탄케 했다고 한다. 그의 그의 행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하는게 없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순조(1800~1834)·헌종(1834~1849) 때 판소리명창. 충청남도 해미(海美) 출생.

염계달(廉啓達)의 소리를 많이 본받았다.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탄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남이 따를 수 없었다고 하여 '탄청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더듬인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는 염계달의 소리제를 받아서 짠 추천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수하기 이를 데 없다.

신재효(申在孝)도 그의 "광대가"(廣大歌)에서 고수관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곧 백낙천(白樂天 772~846)과 비기고 있다.

그의 이름은 순조(1800~1834) 때 신위(申緯)가 1826년(순조 26)에 쓴 「관극시」(觀劇詩) 중 당시의 판소리명창 고·송·염·모(高·宋·廉·牟) 즉 고수관·송흥록·염계달·모흥갑과 함께 언급되었다. 1827년(순조 27)에 작성된 「팔도재인등장」(八道才人等狀)에 나오는 명창이다. 추천목에 뛰어난 고수관의 더듬은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에 전한다.

송흥록·모흥갑·염계달의 후배인 고수관은 염계달의 창법을 많이 모방했고, 춘향가를 잘 불렀다. 만년에는 공주(公州)에 거주하였다. 성음(聲音)이 아주 미려(美麗)하고, 목청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었고, 문식(文識)이 꽤 있어 소리 좌석의 광경에 맞게 임기응변해서 소리를 잘 불렀다.

당시 대구감사(大邱監司)의 도임연(到任宴)에 불러간 고수관은 춘향가 중 기생점고(妓生點考)하는 대목에서 그 당시의 기생 이름을 시적(詩的)으로 만들어 불러서 좌석을 경탄케 했다고 한다.

갑신년(甲申年) 즉 1824년(순조 24) 그는 손선출(孫硯出)·송인영(宋人英)·하은담(河殷潭) 등과 함께 「완문등장팔도재인」(完文等狀八道才人)을 작성하여 호조(戶曹)에 올렸다. 이 등장은 「팔도재인등장」과 함께 판소리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춘향가 중 자진 "사랑가"는 그의 더듬으로 후세에 전한다. 송만갑·전도성이 방창(倣唱)한 사랑가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김성옥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성옥(金成玉, 1801-1834)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충남 강경(현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부근에서 태어났다고 하나 정확한 출신지는 알 수 없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송흥록(宋興祿)의 매부이자, 판소리 명창 김정근(金定根)의 아버지, 판소리 명창 김창룡(金昌龍, 1872-1943)·김창진(金昌鎭, 1875-?) 형제의 조부이다. 김성옥의 소리는 김정근-김창룡-김세준(金世俊)으로 전승되었다.

김성옥은 염계달(廉季達)과 더불어 중고제 소리의 법제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선창극사』에서는 김성옥이 진양조장단을 처음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일화를 제시했다. 김성옥은 심한 학슬풍(鶴膝風)으로 앞은뱅이가 되어 수년간 바깥출입을 못하고 누워 지냈다. 병석에서 소리를 연구하던 그는 우연히 진양조장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척간인 송흥록이 종종 그에게 문병을 가곤 했는데, 하루는 그가 "근래는 병세가 어떠하며, 과히 고적하지나 아니한가?"라는 의미를 담은 소리를 늦은 중모리로 부르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김성옥은 병석에서 고독의 비애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을 자신이 발견한 진양조장단에 얹어 화답했다. 송흥록은 이것을 듣자마자 가계(歌界)의 일대 발견이라고 칭송했고, 김성옥은 이 곡조를 완성해

세상에 전해줄 것을 청했다. 물론 김성옥이 처음으로 진양조장단을 창시한 것인지, 다른 악곡에 쓰이던 것을 판소리에 적용한 것인지는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판소리에 진양조장단을 도입하는 데 그의 공로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01년 ~ 1834년

정의/조선후기 진양조장단을 처음 판소리에 응용한 판소리의 명창.

내용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 출신. 전기 팔명창 중 한사람인 송흥록(宋興祿)의 매부이자 판소리 명창 정근(定根)의 아버지이며, 판소리 명창 김창룡(金昌龍)의 할아버지이다. 진양조장단을 처음 판소리에 응용하였고 송흥록에게 실천하도록 하였다 한다. 그의 소리는 김정근-김창룡-김세준(金世俊)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전통연희사전』(전경옥, 민속원, 2014)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 유적 현황 연구」(최혜진, 『구비문학연구』 48권, 2018)

[두산백과]

요약/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 처음으로 판소리에 진양조장단을 창시했다. 송흥록이 진양조를 완성한 후 진양조는 중고제라 이름하게 되었고 김성옥은 중고제의 시조로 알려지게 되었다.

출생-사망/1801 ~ 1834 출생지/충남 강경

충청남도 강경(江景) 일끝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라북도 여산에서 사망하였다. 좋은 성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병으로 고생하다가 34대에 요절한 천재 판소리 명창이다. 젊은 시절 계룡산 암굴에서 고생하며 수련했던 탓에 다리는 뼈만 앙상하고 무릎은 부어올라 통증이 심한 학슬풍(鶴膝風)으로 앓은뱅이가 되었다. 다리를 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판소리를 연구하여 처음으로 판소리에 진양조장단을 창시하였다. 김성옥의 진양조를 듣게된 그의 처남이자 명창인 송흥록(宋興祿)이 판소리의 새로운 발견이라 여겨 수년간 연마하여 진양조를 완성하였다. 이후 진양조는 중고제라 이름하게 되었고 김성옥은 중고제의 시조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소리는 아들인 김정근(金定根)에게 이어지고 김정근의 두아들인 김창룡(金昌龍)·김창진과 이동백으로 이어졌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순조(1800~1834) 무렵 판소리명창.

충청도 강경(江景) 출생.

김정근(金定根)의 아버지이자 송흥록(宋興祿)의 매부가 되는 김성옥은 충청도 여산읍(礪山邑)에서 거주하는 동안 학슬풍(鶴膝風)으로 병석에 누워서 가곡을 연구하다가 진양조를 발견했다. 이 진양조를 송흥록이 완성시킨 내력에 대한 이야기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김정근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정근(金定根)은 충남 강경(현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김성옥(金成玉, 1801-1834)의 아들이자, 판소리 명창 김창룡(金昌龍, 1872-1943)·김창진(金昌鎭, 1875-?) 형제의 아버지이다.

중고제 명창인 아버지였던 김성옥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아들 김창룡과 김창진, 그리고 이동백(李東伯, 1866-1949), 황호통(黃浩通) 등이 그의 제자이다.

『조선창극사』 「김정근」 조에서는 김정근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상궁접을 처음 창시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2박의 중모리를 반으로 잘라 6박으로 나가는 장단으로 옛중모리와 비슷하며, 옛 명창들이 단가를 할 때 쓰던 장단이라는 설이 있다. 김정근은 시조와 음률에도 정통한 예인이었다고 한다. <무속이타령>을 장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미상 ~ 미상

성격/명창 출신지/충청남도 논산시 강경 성별/남

정의/조선후기 상궁접(삼공제비) 곡조를 창시한 판소리의 명창.

내용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 출생. 진양조를 창시한 김성옥(金成玉)의 아들로, 철종·고종 때에 「무속이타령」으로 명성이 높았다. 상궁접(삼공제비) 곡조를 창시하였다.

판소리의 곡조는 그의 가계인 김씨문중에서 거의 이루어지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시조와 음률에도 정통하였고, 문하에는 명창 이동백(李東伯)이 있으며, 그의 아들인 창룡(昌龍)도 역시 판소리 명창이다.

참고문헌

『판소리소사』(박항, 신구문화사, 1976)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김창룡 명창의 음악활동에 대한 문헌적 점검-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중심으로-」(송방송, 『판소리연구』13집, 2002)

[두산백과]

요약/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 중고제를 이었고 《무속이타령》을 잘 불렀다. 판소리 연구에도 관여하여 《상궁접》이라는 새로운 곡조를 창시했고 여러 명창을 길러 냈다.

출생-사망/? ~ ?

충남 강경 출생. 철종 · 고종 때의 명창으로 판소리 진양의 창시자인 김성옥(金成玉)의 아들이고, 일제강점기의 명창 창룡(昌龍)의 아버지이다. 소리는 중고제(경기 남부와 충청도 일대에서 발달한 판소리의 유파)를 이었고 《무속이타령》을 잘 불렀다. 판소리 연구에도 관여하여 《상궁접》이라는 새로운 곡조를 창시했고, 황호통(黃浩通) · 이동백(李東伯) · 김창룡(金昌龍) 등의 명창을 길러 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중고제 명창. 충청도 강경(江景) 출생.

진양조를 창시한 김성옥(金成玉)의 사자(嗣子: 맏아들)로 태어난 김정근은 "무속(武叔)이타령"으로 이름을 날렸다. '상궁접'(삼공제비)이라는 곡조를 창시한 명창으로 유명하다. 시조(詩調)

와 음률에 한숙(嫻熟)한 김정근의 맏아들은 김창룡(金昌龍)이고, 그의 제자로는 이동백(李東伯)이 있다. "무속이타령"을 잘 불렀던 김정근은 느린 진양장단으로 알려진 삼궁잡이(삼공잡이)장단을 창시한 명창으로 유명하다.

○ 김창룡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창룡(金昌龍, 1872-1943)은 충남 서천군 횡산리(현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동)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근대 오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김성옥(金成玉, 1801-1834)의 손자이자, 판소리 명창 김정근(金定根)의 아들이다. 판소리 명창 김창진(金昌鎭, 1875-?)의 형이자, 역시 판소리를 했던 김세준(金世俊)의 아버지, 김차돈(본명은 김선초, 1924-?)의 조부이다.

충청도 지방의 대표적인 중고제 판소리 가게에서 태어나, 7세(1878)부터 아버지 김정근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13세에 일 년간 이날치(李捺致, 1820-1892)에게 학습한 적도 있으나, 거의 가문소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소리 기반을 확립했다. 그러나 중고제의 약화와 함께, 그의 소리는 안타깝게도 후손이나 여타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다.

33세에 상경해 연흥사(延興社)에서 협률사를 조직했으며, 공연 및 라디오 방송 출연도 활발히 했다. 경성구파배우조합·조선음악협회·조선음률협회·조선성악연구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주요한 임무를 맡아 창극 공연을 주도하는 한편,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30대부터 서울 무대에서 활약했으나, 음반 취입은 54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 단가 〈추월강산〉(Polydor 19302-A 短歌 秋月江山 金昌龍 鼓韓成俊)과 〈대장부한〉(Columbia 40233-A·B 短歌 大丈夫 恨(上)·(下) 金昌龍), 〈춘향가〉 중 '사벽도 사설'(Regal C114-A·B 春香傳 春香房그림가(上)·(下) 金昌龍 鼓韓成俊)과 '기생점고'(제비(標朝鮮)레코-드 B114-A 春香傳 기생점고(上) 金昌龍 長鼓韓成俊), 〈심청가〉 중 '곽씨부인 유언 대목'(립보노홍 K502-B 郭氏夫人別世時遺言歌 곽씨부인죽을때유언하난데(上) 金昌龍 韓成俊)과 '심봉사 탄식가'(일축조선소리반 K554-A 沈淸傳 심봉사자탄가 沈淸使自嘆歌 金昌龍 長鼓韓成俊), 〈흥보가〉 중 '놀보 내외, 박씨 보고 좋아하는 대목'(일축조선소리반 K637-B 南道판소리 興甫傳 놀보제비가(下) 金昌龍 鼓沈正淳) 등을 유성기 음반으로 남겼다.

중고제 이전의 고제(古制)소리에도 매우 능숙했던 김창룡은 옛 명창들의 고제 더늠을 음반으로 남기기도 했다. 〈춘향가〉 중 고수관(高壽寬, 1764-?) 더늠 '자진사랑가'와 염계달(廉季達) 더늠 '돈타령'(Regal C155-A 名唱制 사랑가·돈타령 金昌龍), 〈흥보가〉 중 권삼득(權三得, 1771-1841) 더늠 '놀보,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과 〈수궁가〉 중 박만순(朴萬順, 1830?-1898?) 더늠 '토끼 화상'(Columbia 40249-A 名唱制 제비가·특기화상 金昌龍), 〈심청가〉 중 정춘풍(鄭春風) 더늠 '화초타령'(Regal C154-A 名唱制 花草歌 金昌龍)과 송광록(宋光祿) 더늠 '범피중류'(Columbia 40279-A 名唱制 泛彼中流 金昌龍 鼓韓成俊) 녹음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한편 63세에 『컬럼비아 춘향전 전집』, 64세에 『폴리돌 심청전 전집』과 『폴리돌 화용도 전집』 창극 음반 취입에도 참여했다.

『조선창극사』 「김창룡」 조에서는 김창룡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타고난 성대가 좋아서 며칠 동안 소리를 계속해도 상하지 않았으며, 성음이 우렁차고 깨끗했다고 한다. 소리를 길게 뻗어내어 고졸(古拙)한 느낌을 주었으며, 남도 특유의 계면조 선율은 비교적 적게 사용했다. 대신 비성·시성·뒤집는 목 등 다양한 목으로 감정을 적절히 표현했다. 이영민(李榮珉, 1881-1962)이 『벽소시고(碧笑詩稿)』에 "한번 소리하매, 맑기가 옥통소를 부는 듯하다(一歌淸

似玉洞簫"라고 평한 데서, 김창룡의 소리가 청아하고 맑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적벽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적벽가> 중 '삼고초려'와 <심청가> 중 '화초타령'을 특히 잘 불렀다. 이영민의 『벽소시고』 중 "만일에 '계산월' 대목을 부르게 하면(若教來唱鷄山月), 해하성의 십만 병사도 흩어버리리(散得垓城十萬兵)"라는 시구로부터 단가 <초한가>도 그의 장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시구의 '계산월'은 <초한가> 가사 중 "장자방(張子房)은 계명산(鷄鳴山) 추야월(秋夜月)에 옥통소(玉洞簫) 슬피 불어 팔천 제자(八千弟子) 흠을 적에"에서 "계명산(鷄鳴山) 추야월(秋夜月)을 줄인 말이다. 김창룡이 <초한가> 중 장자방의 옥통소 소리에 향우 군사들이 사기를 잃는 대목을 부르면, 십만 병사라도 절로 흩어질 만큼 구슬뿔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신은주, 「20세기 중고제 명창 김창룡」, 『판소리명창론』, 박이정, 2010.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72년(고종 9) ~ 1942년 4월 이후

출신지/충청남도 서천

정의/일제강점기 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 조선성악연구소를 만들어 후진양성에 힘쓴 판소리의 명창.

내용/전라도 출생. 조선 고종 말기와 민족항일기에 활약한 5명창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진양조를 처음으로 판소리에 넣었다는 김성옥(金成玉)이고, 아버지는 판소리에 삼공제비를 응용하였다는 김정근(金正根)이다.

따라서, 판소리 명문에서 태어난 셈이다. 아우 창진(昌鎭)도 명창으로, 한때 고종으로부터 참봉의 직계를 받기도 하였다. 7세 때 아버지에게서 판소리를 공부하였고, 13세 때에는 이날치(李捺致)에게 1년간 판소리를 배웠다. 그뒤 오랫동안 홀로 공부하다가 32세 때 서울에 올라와 연흥사(延興社) 창립에 공헌하였고다.

1934년에는 송만갑, 이동백과 조선성악연구회를 만들어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창극공연에도 참가하였다. 「적벽가」와 「심청가」를 잘하였고다. 특히 「심청가」중에서 '꽃타령'과 「적벽가」중에서 '삼고초려(三顧草廬)' 대목을 잘하였다.

원래 그의 집안은 경기도 및 충청도지역에 전승되는 중고제(中古制) 소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김창룡도 또한 자기 가문의 소리제를 그대로 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승이 끊어졌고 취입한 음반만 남아 있다. 그의 소리는 오늘날 전승이 끊어진 중고제 판소리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음반 중에서 「적벽가」중 '삼고초려', 단가 중 「장부한(丈夫恨)」, 「수궁가」에서 '수정궁(水晶宮) 들어가는데', 「심청가」에서 '화초타령'은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판소리』(정병욱, 집문당, 1981)

『판소리소사』(박항, 친구문화사, 1974)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김창룡 명창의 음악활동에 대한 문헌적 점검-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중심으로-」(송방송, 『판소리연구』13집, 2002)

[두산백과]

요약/ 한말 ·일제강점기의 판소리의 명창. 연흥사(延興社) 창립에 공헌했고, 조선성악연구회를

설립해 창극의 보급과 후진 양성에 노력했다. 《적벽가(赤壁歌)》를 잘했으며, 특히 《적벽가》 중의 <삼고초려>와 《심청가》 중의 <꽃타령> 등을 잘 불렀다.

출생-사망/1872 ~ 1935 별칭/중고제 명창

활동분야/전통예술, 판소리(중고제)

출생지/충남 서천

1872년 충청남도 서천(舒川)에서 출생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제인 중고제(中高制)의 판소리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처음으로 진양조를 판소리에 도입한 김성옥(金成玉)이 그의 조부이고, 고종 때의 명창 김정근(金定根)이 그의 아버지이다. 7세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판소리를 배웠고, 후에 동편제 명창 이날치(李捺致)에게 1년간 사사하였다. 30세 무렵에 상경하여 연흥사(延興社) 창립에 공헌하였고, 협률사(協律社)에서 공연하였다. 이동백(李東伯)·송만갑(宋萬甲)·정정렬(丁貞烈)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를 설립하여 창극의 보급과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적벽가(赤壁歌)》를 잘하였으며, 특히 《적벽가》 중의 <삼고초려(三顧草廬)>와 《심청가》 중의 <꽃타령(花草歌)> 등을 잘 불렀다. 1925년 첫 음반 취입에 나섰으며 일본축음기상회, 제비표, 콜롬비아 등에서 다수의 음반을 제작하였다. 김창룡의 중고제 맥은 이후 전승되지 못하였고 1943년 사망하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충남 서천(舒川) 횡산리(橫山里) 또는 전라도 출생. 김성옥(金成玉)의 손자. 김정근(金定根)의 아들.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 조사부 이사(調查部理事).

출생 - 사망/1872년 ~ 1943 (또는 1935)년

전라도에서 출생하고 충남 서천에서 자랐다.

어려서 부친 김정근에게서 판소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13세 이후에는 이날치(李捺致)의 문하에서 1년간 지침을 받고 비로소 소리를 터득했다. 그 후 홀로 연마하다가 선배인 김창환·박기홍 등을 만나 견문을 넓혔다.

32세 때 상경하여 연흥사(演興社) 창립에 큰 몫을 했고, 원각사(圓覺社) 시절 김창환·송만갑·이동백 등과 함께 활동했다. 1909년 원각사의 폐지 이후 송만갑 명창이 조직한 송만갑협률사(宋萬甲協律社)라는 사설 유랑창극단에서 이동백·한성준·유공렬·이선유 등의 단원과 함께 주로 지방에서 공연활동을 전개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들은 후 경남 통영(統營) 공연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1914년 5월과 6월 단성사(團成社)의 구극(舊劇) 공연 때 판소리 및 춘향가로 출연하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평의원.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는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는 강원삼, 선생은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기봉·김봉문 등, 여배우는 김해선·박금홍·박이화 등,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1926년 11월 11일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적벽가를 방송한 이래로 1942년 4월 24일까지 단가(26회)·심청가(13회)·적벽가(15회)·춘향가(20회)·흥보가(3회)·창극조(44회), 이상 총 123회나 방송국에 출연했다. 그가 방송한 단가는 "대장부"(大丈夫)·"만고영웅"(萬古英雄)·"초한가"(楚漢歌)를 포함해 모두 일곱 곡목이다. 1930~1942년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강남중·김세준·한성준 등과 함께 "광한루가"(廣寒樓歌)를 비롯한 판소리의 여러 눈대목을 방송하였다.

1930년 9월 15일 팔도명창대회 때 출연했으며, 1930년 9월 27일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

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 1931년 3월 30~31일 조선음률협회의 제2회 공연이 열렸을 때 단가 "초한가"를 공연했고, 1931년 5월 11일 호성극단 창립 1주년기념 공연 때 출연했으며, 1931년 5월 3~7일 조선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34년 5월 11일 조선음악연구회의 발기총회 때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1935년 11월 27~28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추동명창대회 때 출연했으며, 1936년 2월 9~11일 조선성악연구회의 가극(歌劇) "배비장전" 공연 때, 그는 송만갑·이동백·정정렬 등과 함께 출연했다고 조선일보 1936년 2월 8일자에 전한다.

1936년 8월 28~29일 수해구제구악대회 때, 1936년 9월 12일, 15~16일, 25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가극 "춘향전" 공연 때, 1936년 12월 15~20일 가극 "심청전" 공연 때, 1937년 2월 26~3월 2일 가극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의 공연 때, 1937년 6월 21~25일 가극 "편시춘"(片時春) 공연 때, 1938년 1월 11일 김석구독창회 때, 1938년 4월 27~28일, 5월 4~10일 전조선향토연예대회 중 판소리대회의 춘향전과 심청전 공연 때, 1938년 8월 8일 창극 "옹고집전"(雍固執傳) 때, 1939년 1월 29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창극 "춘향전" 때, 1940년 3월 16~17일 한해구제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37년 1월 3일 "명창에게 들은 생사"라는 제목 아래 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 이상 네 명창의 대담록(對談錄)이 게재됐다. 1937년 5월 20일 조선성악연구회의 제4회 정기총회 때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1938년 5월 23일 조선성악연구회 제5회 정기총회 때 이사로 선임되었다. 1939년 5월 13~14일 조선소리경창대회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1939년 5월 22일 조선성악연구회 제6회 정기총회 때 이사로 선임되었다. 장기는 적벽가 중 "삼고초려"(三顧草廬)와 심청가 중 꽃타령을 잘 불렀다. 심청가와 적벽가에 뛰어난 그의 장기는 심청가의 "꽃타령"이고, 그의 더늠은 적벽가의 "삼고초려"라고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일제강점기 여러 회사에서 취입한 음반은 일축음반(15매)·일동음반(10매)·콜럼비아음반(25매)·폴리돌음반(61매), 총 109매이다. 수궁가(토끼타령)·적벽가(화용도)·심청가·춘향가·흥보가 이렇게 다섯마당 모두가 취입되었다.

그가 부른 "곽씨부인 고용가"(雇用歌)를 포함한 심청가의 여러 눈대목과 적벽가·흥보가는 일축(日蓄)조선소리반에, 그리고 그가 취입한 적벽가("새타령"·"자룡이 맞나는데"), 춘향전("광한루 나가는데" 등 여러 눈대목), "놀보 제비가"·"특기(토끼)타령" 및 단가 "죽장(竹杖) 잡고" 등 여러 곡은 일축 제비표 조선레코드에 전한다. 한성준의 장구반주로 취입한 귀곡성(鬼哭聲)의 "범피중류"(泛彼中流) 등 여러 곡은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하고, 그가 취입한 창극 심청전전집·화용도전집은 폴리돌음반에 전한다. 그가 취입한 "곽씨부인 유언(遺言)" 등의 곡명은 『조선레코드총목록』에 전한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237~38쪽

○ 김창진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창진(金昌鎭, 1875-?)은 충남 서천(현재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김정근(金定根)의 아들이자, 판소리 명창 김창룡(金昌龍, 1872-1943)의 동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김정근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이후 가문 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주로 학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동진(朴東鎭, 1916-2003)에게 <심청가>를 전수했다. <심청가>를 장

기로 삼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박황,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6.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충남 서천(舒川) 출생.

김정근(金定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문(家門)의 창법과 제작이 서로 달라 집에서 쫓겨나 각처를 유랑하였다. 장기는 심청가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평의원.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는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는 강원삼, 선생은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기봉·김봉문·김봉업·김창룡·박팔괘·이봉운·임학준·장도순·조양운·지성근·한성준, 여배우는 김해선·박금홍·박이화·염계월·오옥엽·이금희,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서, 2012년, 240쪽

○ 김세준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남도명창·장구명인. 전라북도 곡성(谷城) 출생. 김창룡의 아들.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 조사부 이사.

출생/1894년

『朝光』(1937) 17호에 발표된 "조선성악연구회 현재 멤버"에 소개됐다. 1930년대 전반기 제금(提金)·해금으로 지용구·한갑득·한성준 등과 함께 가야금병창·가야금산조 및 "곽씨부인 별세"·"광한루(廣寒樓) 구경하는데" 등 판소리의 눈대목과 "김매는 노래"를 포함한 수많은 민요를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다. 그가 취입한 단가 "월하몽"(月下夢)은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하고, 그의 장구반주로 취입한 민요 "농부가"·"성주푸리"는 일본 빅타음반에 전한다.

1936년 2월 조선성악연구회의 직속단체로 창극좌(唱劇座)가 창단됐을 때 오태석·정남희·조상선 등과 함께 창극활동을 전개하였다. 1936년 2월 9~11일 조선성악연구회의 가극 "배비장전" (裵裨將傳) 공연 때 그는 송만갑·이동백·김창룡 등과 함께 출연했다고 조선일보 1936년 2월 8일자에 전한다. 1936년 8월 29일 수해구제자선구악대회 때 금일봉을 의연하였다. 1936년 9월 15~16일, 25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가극 "춘향전" 공연 때 사령(使令)으로 출연했고, 1936년 10월 28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가극 "흥부전" 공연 때 출연하였다. 1939년 1월 29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창극 "춘향전" 때 곡성현감(谷城縣監)과 중방과 사령(使令)으로 출연했고, 1939년 5월 22일 조선성악연구회 제6회 정기총회 때 이사로 당선되었다.

○ 김차돈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가야금병창). 가야금병창 명인.

일제강점기 그가 취입한 춘향전의 "썩대머리"·"명기명창"(名妓名唱)·"천재가희"(天才歌姬), 단가 "만고강산"(萬古江山)·"초한가"(楚漢歌)는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한다.

○ 김제철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제철(金齊哲)은 충북 청주(현재 충북 청주시)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성명을 김제철(金劑喆) 혹은 김계철(金啓喆)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안민영(安玟英)의 『금옥총부(金玉叢部)』에 따르면, 1842년에 안민영이 순창에 내려갔다가 주덕기(朱德基)와 함께 송흥록(宋興祿)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김제철이 신만엽(申萬葉), 송계학 등과 나가 안민영을 반겨주었고, 수십 일을 함께 즐겼다고 한다. 참고로 『금옥총부』에는 그의 성명이 김계철(金啓喆)로 되어 있다.

신만엽과 함께 판소리에 온화하고 명랑한 가풍의 석화제를 도입한 인물로 평가된다. 석화제는 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하다. 신재효(申在孝, 1812-1884)는 <광대가(廣大歌)>에서 "김선달(金先達) 제철(劑喆)이란 담탕(淡蕩)한 산천영기(山川靈氣) 명랑한 산하영자(山河影子) 천운영월(川雲嶺月) 구양수(歐陽修)"라 하여 그의 명랑하고 유현한 창법을 구양수에 비교한 바 있다. 당시 세인들이 그를 '가중처사(歌中處士)'라 칭한 것도 그의 이러한 창법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심청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이 그의 더늠이다.

참고문헌

이보형, 「판소리 팔명창음악론」, 『문화재』 8, 문화재관리국, 1974.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미상 ~ 미상 출신지/충청북도 청주

정의/생몰년 미상. 조선 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활약한 판소리의 명창.

내용

충청북도 청주 출신. 전기(前期) 8명창의 한 사람이다. 중년 이후 경상남도 함양에서 살았다. 「심청가」를 특히 잘하였고,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이 그의 더늠이라고 한다. 가야금병창과 비슷한 온화하고 명랑한 석화제로 소리를 하였다 하여 가중처사(歌中處士)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재효(申在孝)는 「광대가」에서 "김선달 제철이란 담탕(淡蕩)한 산천영기(山川靈氣) 명랑한 산하영자(山河影子) 천운영월(川雲嶺月) 구양수(歐陽脩)"라 하여 그의 소리를 구양수에 비교하여 명랑하고 유현한 음악성을 찬양하고 있다.

참고문헌

『판소리소사』(박항, 신구문화사, 1970)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판소리팔명창음악론」(이보형, 『문화재』제8호, 문화재관리국, 1974)

[두산백과]

출생-사망/? ~ ? 별칭/가중처사 출신지/충북 청주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충북 청주 출생. 순조·현종·철종 때 활약했으며 중년 이후는 고향을 떠나 경남 함양에서 살았다. 명창 주덕기(朱德基)와 동년배로 당대 8명창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심청가》를 잘 불렀으며, 더늠은 《심청가》중 심청이가 태어나는 대목이었다. 가야금 병창과 비슷한 온화하고 명랑한 '석화제'로 소리를 하였기 때문에 가중처사(歌中處士)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순조(1800~1834)·현종(1834~1849) 무렵 판소리명창. 충청도 출생.

송흥록·모흥갑·염계달의 후배이고 주덕기(朱德基)와 동년배인 김제철은 당대 8명창 중의 한 사

람으로 꼽히는 명창이다. 신재효(申在孝)의 "광대가"(廣大歌)에서 그는 구양수(歐陽修)에 비교하여 명랑하고 유현한 음악성을 찬양하였다. 중년 이후 경상도 함양(咸陽)에서 거주했고, 석화제로 심청가를 잘 불렀다. 그의 더듬으로는 심청가 중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인데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220쪽

○ 이석순

[한국전통연희사전]

이석순(李錫順)은 경기 안산(현재 경기 안산시)에서 태어나 조선 후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김봉학(金奉鶴) 등이 그의 제자이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사벽도 사설'은 그의 더듬이라고 한다. 이 대목은 진양조장단에 우조로 짜여 있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현종(1834~1849)·철종(1849~1863) 때 판소리명창. 경기도 안성(安城) 출생.

김제철·신만엽과 동년배인 이석순은 춘향가에 특장(特長)했고, 그의 더듬은 춘향가 중 춘향방(春香房) 그림가이다. 김세종·박만순이 전창(傳唱)하고 전도성·이동백·김창룡이 방창(倣唱)한 노래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최낭청

[한국전통연희사전]

최낭청(崔郎廳)은 충청도 청안(현재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며, 온전한 성명이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철종 앞에서 소리를 하던 중 "춘초(春草)는 연년록(年年綠)인데 왕손(王孫)이 귀불귀(歸不歸)를"의 "귀불귀를"이라는 사설을 "귀불귀하라?"로 고쳐 부르는 임기응변을 발휘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어전에서는 "왕손은 돌아오지 않네"라는 사설이 자칫 불경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왕손이 돌아오지 않으랴?"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왕은 최낭청을 크게 칭찬했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일화가 널리 회자되었다고 한다. 그는 즉석에서 한문구의 판소리 사설을 바꾸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문식(文識)과 재기가 뛰어난 창자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현종(1834~1849)·철종(1849~1863) 때 판소리명창. 충청도 청안(淸安) 출생.

철종 때 어전(御殿)에서 판소리를 할 때, "춘초(春艸)는 연년록(年年綠)인데 왕손(王孫)이 귀불귀(歸不歸)하다"라고 하여서 철종이 가상(嘉尙)히 여겨 당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하였다 한다.

○ 송수철

[한국전통연희사전]

송수철(宋壽喆)은 충남 청양(현재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그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송수철은 철종으로부터 선달(先達) 벼슬을 제수받았으며, 그를 총애했던 철종이 지팡이를 하사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고위직에 있었거나 국가에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70세가 되면 국왕이 지팡이와 의자를 내려 공을 치하하고 업적을 기리는 사궐장(賜几仗)의 풍속이 있었다. 신분이 높지 않은 판소리 창자로서 지팡이를 하사받았다는 것은, 당시 송수철에 대한 철종의 애호가 각별했음을 의미한다.

송수철은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고, 호걸제의 창법을 정립해 후대에 전수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호걸제를 덜렁제와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송수철의 더늠인 호걸제는 도량이 넓고 기개를 갖춘 사람들이 위엄 있는 성음을 구사하는 대목에 활용되며, 진양조장단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정태, 「'판소리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용어고찰」, 『판소리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현종(1834~1849)·철종(1849~1863) 때 판소리명창. 충청도 청양(靑陽) 출생.

춘향가를 잘 부른 송수철의 창법은 호걸제(豪傑制)로 했다고 한다. 철종의 총애를 받아 선달(先達)의 직계(職階)를 제수(除授) 받았다고 이동백·김창룡이 구술(口述)하였다.

○ 임창학

[한국전통연희사전]

임창학(林蒼鶴)은 충청도 한산(현재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를 알 수 없으며,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어사출도'가 그의 더늠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현종(1834~1849)·철종(1849~1863) 때 판소리명창. 충청도 한산(韓山) 출생.

춘향가를 잘 불러 유명한 임창학의 더늠은 춘향가 중 어사출도(御使出道)하는 대목이다. 이동백(李東伯)·정정렬(丁貞烈)이 방창(倣唱)한 노래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정춘풍

[한국전통연희사전]

정춘풍(鄭春風)은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충청도에서 태어나 만년에 전북 여산(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으로 이주했다고 하나, 정

확한 생물연대는 알 수 없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소과에 합격한 진사 출신의 비가비광대로, 따로 소리 스승을 두지 않고 독공으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동편제 명창 박기홍(朴基洪)이 그의 수제자이며, 조기홍(趙奇弘)과 유공렬(柳公烈, 1859-?), 유성준(劉成俊, 1873-1944)도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실제 소리뿐 아니라 판소리 이론에도 일가견이 있어 "남에 고창(高敞) 신재효(申在孝, 1812-1884)요, 북에 정춘풍(鄭春風)"이라는 말이 널리 전한다. 그에 대한 대원군의 애호가 각별해 운현궁을 마치 자기 사랑처럼 드나들었다. 일설에는 운현궁의 문란한 분위기와 소리꾼을 천대하는 풍토가 괴로웠던 나머지 대원군의 뜻을 어겼고, 전라도로 쫓겨나 그곳의 원에게 태형을 맞고 죽었다고 한다.

김창룡(金昌龍, 1872-1943)이 정춘풍의 <심청가> 중 '화초 타령'(Regal C154-A 名唱制 花草歌 金昌龍)과 '수궁 풍류'(Regal C154-B 沈淸傳 水晶宮)드러가는데 金昌龍) 더늠을 방창한 유성기 음반이 남아 있다.

『조선창극사』 「정춘풍」 조에서는 정춘풍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창법상으로 우조를 즐겨 부르고 동편제에 가까운 소리를 했으나, 스스로는 동편제나 서편제와 같은 어느 한 유파로 귀속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한다.

<적벽가>를 특히 잘했고, 단가 <소상팔경(瀟湘八景)>과 <심청가> 중 '화초 타령'·'수궁 풍류'가 그의 더늠으로 전한다. 김창룡이 녹음한 유성기 음반 음원 곡 앞에 이 대목이 정춘풍의 더늠이라는 설명이 삽입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석배, 「동편제 명창 정춘풍의 더늠 연구」,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6.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미상 ~ 미상 출신지/충청도

내용/조선 현종 때 충청도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소과에 합격, 진사가 되었으나 판소리를 익혀 명창이 되었다. 스스로 호를 춘풍이라 하고 판소리를 즐기며 한 세상을 살았는데, 학식이 있어 판소리 이론정립에도 공이 크다.

자기 이념대로 새로운 판소리를 개척하였는데, 사설(私說)을 정비하고 소리를 우조(羽調) 중심으로 짜서 매우 품위 있는 판소리로 이끌어내갔고, 이 점이 대원군에게 인정을 받아 대원군과 가깝게 지냈다.

그의 판소리는 고종 때의 명창 박기홍(朴基洪)과 조기홍(趙起弘)에게 이어졌으나, 그뒤로는 끊어졌다. 「적벽가」를 특히 잘하였고, 단가 「소상팔경」이 그의 더늠으로 전해진다.

참고문헌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두산백과]

요약/조선시대 후기의 판소리 명창이다.

출생-사망/미상 ~ 미상

박유전, 박만순, 이날치 등과 함께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명창이다. 1800년대 중반에 충청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소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세상을 떠돌며 홀로 소리를 익혀 명창이 되었다. 스스로 호를 춘풍(春風)이라 지었다 하는데 본명을 알 수 없으며 생물연대도 알 수 없다.

우조(羽調)를 주로 쓰고 동편제 창법을 구사하였으나 어느 파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또

창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고,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도 공이 컸으며 대원군에게 인정 받아 서로 교류하며 지냈다 한다.

자신만의 판소리를 개척한 정춘풍은 가사와 음률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적벽가를 잘 하였는데 그의 창법은 단 한사람의 후계자였던 박기홍(朴基洪)에게 전수되었다. 만년에 전북 여산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68세에 생을 마쳤으며, 그가 지은 단가인 <소상팔경가>가 전해지고 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철종(1849~1863)·고종(1863~1907) 때 동편제(東便制) 명창. 호는 춘풍(春風).

충청도 어느 유가(儒家)에서 출생한 정춘풍은 권삼득(權三得)처럼 양반광대(兩班廣大) 곧 비가비로 박만순·김세종·이날치와 동년배의 명창이다.

선비 집안 출신으로 한학(漢學)에 조예(造詣)가 깊은 정춘풍은 창극조(판소리)의 이론에 박식(博識)했으므로, 남에는 고창(高敞)의 신재효(申在孝)요 북에는 정춘풍이라고 하였다. 춘풍이라는 아호(雅號)로 행세(行世)한 광대로는 최초의 양반광대인 정춘풍은 판소리의 사설을 정비하고 소리를 우조(羽調) 중심으로 짜서 매우 품위 있는 판소리로 이끌었다. 대원군(大院君)과 가까이 지내면서 대원군의 사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한다.

만년에 전라북도 여산군(礪山郡)에 이거(移居)하여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난 정춘풍은 적벽가를 잘 불렀다. 그의 창법은 수문도(首門徒)인 박기홍(朴基洪)에게 전수되었다. 박기홍·송만갑이 전창(傳唱)하여 당시 기생과 광대들이 성창(盛唱)한 정춘풍의 더늠은 단가 "소상팔경가"(瀟湘八景歌)이다.

적벽가에 뛰어난 그의 더늠은 단가 "소상팔경"에 전하고, 한문에 깊은 조예를 갖추어 진사(進士)에 등과(登科)한 양반광대이다. 송만갑이 방창(倣唱)한 소상팔경가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한량(閒良)의 신분으로 판소리에 능한 명창 즉 비가비의 대표적인 명창은 최선달·권삼득·정춘풍이다.

○ 한송학

[한국전통연희사전]

한송학(韓松鶴)은 경기도 수원릉(현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소재의 용건릉으로 추정) 안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후기 팔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외모가 청송무학(靑松舞鶴) 즉 푸른 소나무에서 춤추는 학과 같다 하여 송학이라는 예명을 얻었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한송학」 조에서는 한송학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새타령>과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장끼타령>을 가장 잘 불렀다. <장끼타령> 중 '까투리 해몽 대목'은 그의 더늠이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중고제 명창. 헌종(1834~1849) 때 경기도 수원(水原) 출생.

외모가 청송무학(靑松舞鶴) 같다고 하여 송학(松鶴)이라고 이름을 붙인 한송학은 수원의 용주사(龍珠寺)에서 수년간 판소리 공부를 하고 일가를 이루었다.

새타령과 흥보가를 잘 불렀지만, 특히 장끼타령이 그의 최장(最長)이었다고 한다. 그의 더늠으

로 전하는 장기타령 중 까토리 해몽(解夢)의 일절(一節)은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윤영석

[한국전통연희사전]

윤영석(尹永錫)은 충남 오천(현재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며,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윤영석」 조에서는 윤영석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성음이 거대했으며, 탁성과 중성 없이 세상성으로 질러내는 소리가 대단했다. 담담하고 무미한 곡조로 소리를 하다가, 중간 즈음에 이르러 갖은 목청과 다단한 기량을 발휘하는 식의 창법을 구사했다. 윤영석은 〈수궁가〉를 장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중고제 명창. 충청남도 면천군(沔川郡) 출생.

한송학(韓松鶴)과 동년배로 토별가(兔鰲歌)로 유명한 명창인 윤영석은 세세상상성(細細上上聲)으로 청중을 경탄(驚歎)케 했다고 한다.

○ 정흥순

[한국전통연희사전]

정흥순(鄭興順)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충청도 한산(현재 충남 서천군 한산면)·강경(현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일대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출신지와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판소리명창. 전남 곡성(谷城), 충청도 한산(韓山) 또는 강경(江景) 출생. 세습단골집 출신.출생 - 사망 1858년 ~ 1942년

김정근과 동년배인 정흥순은 송우룡(宋雨龍)의 문하에서 7년 동안 소리공부를 했다. 독공하면서 철성과 수리성의 목을 얻었으며, 특히 흥보가로 유명한 명창이었다고 이동백(李東伯)은 전하였다.

○ 최상준

[한국전통연희사전]

최상준(崔相俊)은 충청도 한산(현재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며,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최상준」 조에서는 최상준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흥보가 밥 빌러가는 대목'을 특히 잘 불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충남 한산(韓山) 출생.

조선말기 고종(1863~1907) 때 활동한 그의 장기는 흥보가이고, 특히 흥보가 놀보에게 매 맞는 대목을 잘 불렀다.

○ 백점택

[한국전통연희사전]

백점택(白占澤)은 충남 연기(현재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확한 생몰연대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황호통(黃浩通)과 교의가 깊었다고 한다. 『조선창극사』 「백점택」 조에서는 백점택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박석티'를 특히 잘 불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두산백과]

출생-사망/? ~ ?출생지/충남 연기

판소리의 명창. 충청남도 연기(燕岐) 출생. 철종·고종 때 활약하였다. 판소리 중고제(中高制:경기·충청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판소리 유파)를 이었으며, 《춘향가》 중 특히 이도령이 남원부중에 들어서서 민정을 살핀 뒤 춘향집 문전에 당도하는 대목과 <박석고개> 대목을 잘 불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철종(1849~1863)·고종(1863~1907) 때 중고제(中高制) 명창. 충청도 연기(燕岐) 출생.

이날치(李捺致)·김정근(金定根)의 후배인 백점택은 춘향가를 잘 불렀고, 그의 특장으로는 춘향가 중 어사또가 남원부(南原府)에 들어서서는 대목인데,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그 사실이 전한다.

○ 백점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920년 ~ 미상 출신지/경기도 이천

정의/일제강점기 「흥보가」 중 비단타령이 일품인 판소리의 명창.

경기도 이천 출신. 고향에서 판소리를 배우다가 일제 때 상경하여 판소리공연도 하고 고수로 활약하였다. 경기·충청제 판소리를 하였는데 「흥보가」를 잘하였고, 특히 단가(短歌)는 일품이었다 한다.

광복 후에 창극활동에 참가하였던 바 1948년에 국극사(國劇社)의 창극 「선화공주(善花公主)」에 사신(使臣)역으로 출연하였고, 1950년에는 국극사의 창극 「만리장성(萬里長城)」에서 장백(將白)역으로 출연하였다.

일제시대에 콜롬비아음반에 판소리와 단가를 취입한 것이 남아 있고, 박녹주(朴綠珠)의 「흥보가」중 '비단타령'은 백점봉제라 한다.

참고문헌

『창극사연구』(박항, 신구문화사, 1976)

『창본춘향가』(김연수, 국악예술학교출판부, 1967)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경기도 장호원(長湖院) 출생.출생/1920년

1928~1941년 김광채·오택·주난향 등과 함께 남도단가(南道短歌)·남도입창(南道立唱)·남도잡가(南道雜歌)·농민음악·단가·"백종(白踵)노리"·"보렴(報念) 등 여러 곡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1932년 6월 22일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의 제3회 공연 때 출연해 "이별가"를 공연했고, 김종기·박종기·심상건 등과 함께 취입한 가야금병창·단가·"보렴(報念)"·"새타령"과 대금독주는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하고, 그가 취입한 단가 "몽유가"(夢遊歌)는 폴리돌음반에 전한다.

194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警務局)의 압력으로 인하여 화랑창극단(花郎唱劇團)과 창극좌(唱劇座)를 통합하여 조선창극좌(朝鮮唱劇座)로 개칭한 후 김연수 편곡의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을 공연했을 때, 노복 역을 맡은 그는 김연수(배좌수)·성추월(계모)·박후성(장쇠)·김녹주(장화)·김옥련(홍련)·최명숙(단신)·박영진(정부사)과 함께 출연하였다.

1948년 국극사(國劇社)의 창단원인 조상선·정남희·백점봉 등과 함께 유리춘 작 조상선 안무 및 편곡의 "선화공주"(善花公主)를 무대에 올렸을 때 사신(使臣) 역으로 출연하였다. 1950년 4월 국극사 주최 만리장성(萬里長城) 공연 때 장백 역을 맡은 그는 정남희(맹진사)·성추월(부인)·신숙(맹강녀)·조상선(석흥)·김준옥(정도령)·홍갑수(칠성)·조순애(시녀)·장영찬(만명)·성순종(무장)과 함께 출연하였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406~407쪽

○ 이창운

[한국전통연희사전]

이창운(李昌雲)은 충청도 문의(현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이창운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황호통(黃浩通)과 교의가 깊었다고 한다.

『조선창극사』 「이창운」 조에서는 이창운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적벽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그 중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하여..."로 시작되는 '새타령'이 그의 더늠이라고 한다. '원조타령'이라고도 불리는 이창운의 '새타령'은 이전 시기 박유전(朴裕全, 1835-1906)이나 이날치(李捺致, 1820-1892)가 불렀던 잡가 형태의 '새타령'과 다른 것이었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철종(1849~1863)·고종(1863~1907) 때 중고제 명창. 충청도 문의(文義) 출생.

이날치·김정근·정창업의 후배이고, 백점택(白占澤)과 동년배인 이창운은 적벽가를 잘 불러 유명했다. 그의 장기는 적벽가 중 "원조타령"(冤鳥打令)이다. 전도성·이동백·김창룡이 부른 그의 "원조타령"은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황호통

[한국전통연희사전]

황호통(黃浩通)은 충남 공주(현재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성음이 우렁찬 호통소리에 가깝다 하여, 호통이라는 예명을 얻었다.

김정근(金定根)에게 소리를 배운 후, 이날치(李捺致, 1820-1892), 정창업(丁昌業, 1847-1889) 등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백점택(白占澤), 이창운(李昌雲)과 교의가 깊었다.

『조선창극사』 「황호통」 조에서는 황호통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성음이 양성(陽聲)이면서 호통소리와 같이 우렁찬 음색을 띠었다고 한다. <춘향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특히 <춘향가> 중 '만복사 불공 대목'을 잘 불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칭별칭/기타 호통출생 - 사망/미상 ~ 미상

출신지/충청남도 공주

정의/생몰년 미상. 조선 고종 때의 판소리 명창.

내용/충청남도 공주출신. 본명은 알 수 없고 소리가 호통을 치듯 우렁차서 '호통'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다.

김정근(金定根)에게 판소리를 배운 뒤에 이날치(李捺致)·정창업(丁昌業) 등 선배 명창과 교류하며 판소리 견문을 넓혀, 김창룡(金昌龍)과 더불어 경기도·충청도 지방의 판소리인 중고제 판소리의 판을 막은 명창이다.

목은 양성(陽聲)이고 음량이 풍부하여 한때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쳤다. 「춘향가」·「심청가」를 잘 하였고, 특히 「춘향가」중에 '어사도가 만복사(萬福寺)에서 불공축원을 구경하는 대목'을 잘 불렀다 한다. 그의 소리제는 전승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두산백과]

요약/ 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이다. 목청이 양성이고 우렁차서 호통 기운이 많으므로 '호통'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출생-사망/? ~ ?출생지/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公州)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소리가 호통을 치듯 우렁차서 '호통'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정근(金定根)에게 소리를 배운 뒤에 이날치(李捺致)·정창업(丁昌業) 등 선배 명창과 교류하며 판소리의 견문을 넓혀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김창룡(金昌龍)과 더불어 경기도·충청도 지방의 판소리인 중고제(中高制) 판소리에 뛰어났는데, 목은 양성(陽聲)이고 음량이 풍부하여 한때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춘향가》에 뛰어났는데, 특히 어사도가 암행하여 민정(民情)을 탐문하면서 남원으로 향하는 대목을 잘 불렀다. 그의 소리제는 제자가 없어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백점택(白點澤)과 교분이 깊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중고제 명창.

충청도 공주(公州) 출생.

김정근(金正根)에게 수학한 후 선배인 이날치·정창업과 교류(交遊)하며 문견(聞見)을 넓힌 황호통은 백점택·이창운과 가깝게 지내며 활동하였다. 춘향가와 심청가를 잘 부른 그의 특징(特長)은 춘향가 중 어사도(御使道)가 민정(民情)을 살피기 위해 남원(南原)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박상도

[한국전통연희사전]

박상도(朴尙道)는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충청도 공주군(현재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나 1850년대를 전후해 활약했다고 하나, 정확한 출신지와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박상도」 조에서는 박상도를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그는 <적벽가>를 장기로 삼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 때 중고제(中高制) 명창. 충청도 공주(公州) 출생. 황호통(黃浩通)과 동년배인 박상도는 적벽가(赤壁歌)로 일세를 올린 명창이었다 한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총무.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회계는 강원삼, 선생은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기봉·김봉문·김봉업·김창룡·김창진·박팔괘·이봉운·임학준·장도순·조양운·지성근·한성준, 여배우는 김해선·박금홍·박이화·엄계월·오옥엽·이금희,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346쪽

○ 김충현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충현(金忠鉉)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김충현」 조에서는 김충현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 김봉학

[한국전통연희사전]

김봉학(金奉鶴)은 충북 진천(현재 충북 진천군)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이석순(李錫順)의 제자이다.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다.

김봉학(金鳳鶴, 1883-1943)은 전남 나주(현재 전남 나주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명창 김창환(金昌煥, 1855-1937)의 아들이자, 판소리 명창 김봉이(金鳳伊)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김창환으로부터 판소리를 10여 년간 배웠다. 김봉학은 후손이 소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로 인해 가문 소리의 법통은 그의 대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정광수(丁珹秀, 1909-2003)가 그의 소리 일부를 배워 전했다.

김창환협률사의 창극공연에 잠시 참여한 적도 있으나, 주로 지방에 은거하면서 소리를 연마하는 데 힘썼다. <흥보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김창환의 더늠인 '제비노정기'를 특히 잘 불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83년(고종 20) ~ 1943년

출신지/전라남도 나주

내용/전라남도 나주 출생. 원각사(圓覺社) 주석으로 있던 판소리 명창 김창환(金昌煥)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판소리를 10여년간 배웠고, 아버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풍채와 더불어 좋은 목과 재질을 타고나서 대명창이 되었다.

아버지는 원각사에서 활약하였지만, 그는 지방에 은거하며 판소리를 연마하다가 1907년 김창환 협률사(金昌煥協律社)의 창극공연에 참가하여 「춘향가」중 '어사와 초동'에서 초동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대명창이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 가리었다.

지방에 은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후손에게는 소리를 전하지 않아서 김씨가문의 소리는 그의 대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흥보가」「심청가」를 잘 하였고, 아버지의 더듬인 '제비노정기'에 능하였다. 현재 정광수(丁珖秀)가 그의 소리를 이어받았다.

참고문헌

『창극사연구』(박항, 백록출판사, 1976)

『판소리소사』(박항, 신구문화사, 1974)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호걸제 명창. 충청도 진천(鎭川) 또는 전남 나주(羅州) 출생. 명창 김창환의 맏아들. 이순석(李順錫)의 제자.

어려서 아버지의 발림·너름새·사체구성을 배웠다. 30세 무렵 협률사(協律社)에 참가했고, 서파(西派)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장기는 흥보가·심청가이며, 특히 김창환의 더듬인 "제비노정기"에 능하였다.

일제강점기 김봉이·박명옥과 함께 창극단인 광월단(光月團)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강용환(姜龍煥)·양학천(梁鶴天)과 어깨를 겨룬 그는 흥보가를 잘 부른 명창이었다고 이동백이 전하였다.

참고문헌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서, 2012년, 132쪽

○ 김석창

[한국전통연희사전]

김석창(金碩昌)은 충남 공주(현재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며,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살풀이춤의 명인 김숙자(金淑子, 1927-1991)의 조부이다.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창극사』 「김석창」 조에서는 김석창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중고제 소리의 마지막 명창으로 꼽힌다. <춘향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아니리와 붙임새 구사에 능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형/인물 출생 - 사망/미상 ~ 미상

출신지/충청남도 공주

정의/생몰년 미상. 조선 말기 판소리의 명창.

충청남도 공주 출신. 살풀이춤의 명인인 김숙자(金淑子)의 할아버지이다. 고종과 순종 때 판소

리의 명창으로 그 이름을 떨쳤다. 특히 '아니리'를 잘하였으며, 판소리 리듬변화의 기법인 '부침새'에도 능하였다.

아울러, 「춘향가」를 특히 잘 불렀다고 하는데, 그의 소리는 경기·충청 소리제인 중고제(中高制)로서, 그는 중고제 소리의 마지막 명창으로 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두산백과]

출생-사망/? ~ ? 출생지/충남 공주

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 충남 공주 출생. 경기·충청 소리제인 중고제(中高制)의 마지막 명창으로 고종·순종 양대에 걸쳐 특출한 아니리와 부침새로 이름을 떨쳤다. 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 등과 같은 시대에 활약하였는데, 《춘향가》를 특히 잘 불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연맞이 대목에 뛰어났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대한제국(1897~1910) 때 중고제(中高制) 명창. 충청도 출생.

이동백·김창룡과 동년배인 김석창은 아니리와 부침새로 유명했고, 춘향가를 잘 부른 명창이었다고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 유공렬

[한국전통연희사전]

유공렬(柳公烈, 1859-?)은 전북 익산(현재 전북 익산시) 또는 충남 홍성군 고도면 가곡리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어려서 판소리에 입문해, 15세(1873)부터는 박만순(朴萬順, 1830?-1898?) 문하에 들어가 동편제의 법통을 익혔다. 이후 김세종(金世宗), 이날치(李捺致, 1820-1892), 정창업(丁昌業, 1847-1889)과 같은 선배 명창을 수행하면서 공부했다. 정춘풍의 수제자라고도 한다. 30세에 전라도 전주 통인청 대사습에 나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40세를 전후해 상경한 유공렬은 김창환(金昌煥, 1855-1937), 송만갑(宋萬甲, 1865-1939)과 함께 원각사에서 창극을 공연했다. 『조선창극사』 「유공렬」 조에서는 유공렬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춘향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춘향가> 중 '이별가'를 특히 잘 불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59년 ~ 1934출생지/충남 홍성

정의/대한제국기 원각사, 광무대 등에서 활동한 판소리의 명창.

내용

충남 홍성 출신. 어려서 판소리를 배워 8, 9세에 판소리를 뛰어나게 잘 불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15세 때 박만순(朴萬順)의 문하에 들어가 몇년간 판소리를 배워 동편제 판소리의 법통소리를 터득하였다.

그뒤 5년간 남원·운봉 등지의 명산 대찰을 찾아다니며 홀로 판소리를 닦았다. 1893년전라도 전주 통인청대사습장(通人廳大私習場)에 나가 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니, 비로소 대명창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김세종(金世宗)·이날치(李捺致)·정창업(丁昌業)과 같은

선배명창을 따라다니며 현장학습을 하였다.

1900년에 상경하여 김창환(金昌煥)·송만갑(宋萬甲)과 함께 원각사(圓覺社) 창극공연에 참가하였다. 1907년광무대(光武臺)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1908년송만갑협률사(宋萬甲協律社) 공연에 참가하였다. 만년에는 고향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춘향가」·「심청가」를 잘하였고, 특히 「춘향가」중에서도 이별가에 출중하였다.

참고문헌

『창극사연구』(박항, 백록출판사, 1976)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홍성 지역의 명인 명창과 중고제 판소리의 면모」(최혜진,

『동아시아고대학』, 57, 2020)

[두산백과]

요약/한말·일제강점기의 판소리 명창이다. 송만갑과 협률사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하였다.

출생-사망/1864 ~ 1927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다. 15세 때 명창 박만순(朴萬順)의 문하에 들어가 수년간 수학하고, 그 후 4.5년 동안 운봉, 남원 등지의 명산대찰을 돌며 혼자 소리를 연마하였다. 30세 때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1908년 송만갑(宋萬甲)과 협률사(協律社)를 조직하여 지방 순회공연을 다녔다. 《춘향가》《심청가》에 능하였고 《춘향가》 중에서도 몽룡이 춘향에게 이별을 알리면서 부르는<이별가>가 더늠(명창이 판소리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대목)이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대한제국(1897~1910)·일제강점기 때 중고제(中高制) 명창.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출생.

출생 - 사망/1864년 ~ 1930년

10대 중반에 박만순(朴萬順)의 지도를 수년간 받은 후 운봉(雲峰)·남원(南原) 간의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아다니며 독공(獨工)하여 일가를 이룬 유공렬은 30세 때 전주대사습장(全州大私習場)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비로소 세간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도성·송만갑과 동년배인 유공렬은 선배인 김세종(金世宗)·이날치(李捺致)·정창업(丁昌業)을 추종(追從)하여 견문(見聞)을 넓혔다. 40세 무렵 상경하여 원각사(圓覺社)·광무대에서 김창환(金昌煥)·송만갑(宋萬甲)과 함께 활동하다가 병사(病死)하였다.

1909년 원각사의 폐지 이후 송만갑협률사(宋萬甲協律社)라는 사설 유랑창극단에서 이동백·한성준·김창룡·이선유 등의 단원과 함께 주로 지방에서 공연활동을 전개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들은 후 경남 통영(統營)공연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춘향가와 심청가를 잘 부른 유공렬의 더늠은 춘향가 중 이별가(離別歌)이다. 그 사설은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1928년 3월 9일 조선극장에서 열린 유공렬독창회 때 심상건·강남중·박월정과 함께 출연해 춘향전 중 "몽중가"·"춘당시과"(春塘試科), 단가 "달거리," 삼국지 중 "남병제풍"(南屏祭風)을 공연했다. 1928~1930년 남도단가(南道短歌)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 이동백

[한국전통연희사전]

이동백(李東伯, 1866-1949)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이른바 근대 오명창에 속하는 인물이다. 본명은 이종기(李鐘琦)이다. 조부가 풍류에 능했던 점, 육촌 여동생인 이어린년(李於仁連)이 은산별신곡의 주무였던 점, 말년에는 만신이었던 부인의 연고지 경기 평택시 칠원동 새말에 거주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동백도 세습예인 집안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판소리 학습기에 이규석(李圭錫)에게 사설을 얻어 보았으며, 동편제 명창 최상중(崔相仲)에게 잠시 소리를 배웠다. 13세(1878)에 중고제 명창 김정근(金正根)으로부터 약 1개월간 판소리를 공부한 후, 김세종(金世宗) 문하에 들어가 소리를 완성했다. 20세를 전후해 도만리 호리산의 용구(龍口)에서 2년간 독공(獨工)했고, 다시 진주 이곡사(里谷寺)에 들어가 3년간 공부했다. 정응민(鄭應珉, 1896-1963), 이화중선(李花中仙, 1899-1943), 조몽실(曹夢實, 1900-1949), 정광수(丁珖秀, 1909-2003), 강장원(姜章沅, 1909-1962), 한승호(韓承鎬, 1924-2010) 등이 그의 제자이다.

이동백은 35-36세경에 경남 창원에서 9년간 지내면서 명창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경상관찰사(慶尙觀察使) 이지용(李址鎔)의 부름을 받아, <적벽가> 중 '장판교 대전'을 불러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도움으로 혼인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45-46세 무렵 상경해 원각사(圓覺社)에서 창극 공연을 했으며, 이 무렵 고종으로부터 통정대부(通政大夫) 벼슬을 제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각사 해산 이후에 연흥사(延興社), 광무대(光武臺) 등에서 활동하거나 협률사에 참가해 지방을 순회했다. 61세에 최초의 창극 음반인 『일축조선소리반 춘향전 전집』 녹음에 참여했다. 65세에 조선음률협회를 조직하고, 68세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이사장을 맡아 판소리 교육 및 창극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60대에 잡가 <새타령>(Victor 49033-A 南道雜歌 各鳥打令(새타령) 獨唱李東伯 長鼓池東根), 단가 <백발가>(Victor 49033-B 短歌 江山景歌(강산경가) 獨唱李東伯 長鼓池東根), <춘향가> 중 '이별가'(Victor 49028-A·B 春香傳 離別歌(리별가, 上·下) 獨唱李東伯 長鼓池東根),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Columbia 40026-B 沈淸傳 沈奉事와沈皇后相逢 李東伯 長鼓李興元) 등을 유성기 음반으로 남겼다. 70세에 『폴리돌 심청전 전집』과 『폴리돌 화용도 전집』 창극 음반을 취입했다. 74세에 성황리에 은퇴공연을 하고, 1개월 정도 전국순회공연을 했다.

『조선창극사』 「이동백」 조에서는 이동백을 중고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풍채가 당당하고 성음이 매우 미려했으며, 하성의 웅장함은 당시 비할 자가 없었다. 이영민(李榮珉, 1881-1962)은 『벽소시고(碧笑詩稿)』 중 "타고난 성량은 견줄 이가 없는데(天質聲量不可攀), 춘당대 잔치에서 임금 은혜 감격스럽네(春臺絲竹感君恩). 여산폭포의 삼천 자 되는 세찬 물길(廬山瀑布三千尺) 남원의 어사출도하는 문에 날아 떨어지도다(飛落南原出道門)"라는 시로 이동백의 풍부한 성량을 여산폭포의 세찬 물결에 비유했다. 그 거대한 성량과 힘찬 선율은 <춘향가>의 '어사출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동백의 소리에서는 한 옥타브 이상의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선율의 도약 진행이 돋보이며, 고음의 가성으로 새 울음소리나 귀곡성을 표현하는 부분도 탁월하다. 한편 이동백은 독창성과 즉흥성이 뛰어난 명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소리판의 상황에 따라 사설과 곡조를 그에 걸맞게 짜서 불렀고, 같은 대목이라도 부를 때마다 달리 했다. 물론 이 점은 제자들로 하여금 소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잡가 계열의 <새타령>을 특히 잘 불렀다. 그가 남긴 <춘향가> 음반의 사설은 <나손본 사본 춘향가>의 사설과 매우 유사하다.

참고문헌

김석배, 「일제강점기 판소리 명창의 생물연대 고찰」,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009.

김성경, 「이동백의 판소리 음악어법 연구」, 『판소리 명창론』, 박이정, 2010.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칭별칭/기타 이종기(李鍾琦), 기타 동백(東白)

출생 - 사망/1866년 ~ 1949년

출신지/충청남도 서천군 비인(庇仁)

대표관직(경력)/통정대부(通政大夫)

정의/일제강점기 원각사, 연흥사, 광무대 등에서 활동한 판소리의 명창.

내용

1866(고종3)~1949. 본명은 이종기(李鍾琦), 아명은 동백(東白).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庇仁) 출신. 8세 때 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공부하였고, 13세 때에는 김정근(金正根) 문하에 들어가 판소리를 공부하고 다시 김세종(金世宗)에게 5년간 공부하였다. 20세 전후에 도만리 호리산의 용구(龍口)에서 2년간 독공(獨工)하였고, 다시 진주이곡사(里谷寺)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하였다. 절에서 나오자 창원부사의 부름을 받고 「새타령」을 불러 이름을 떨쳤다. 36세 이후 경상남도 창원에서 사는 동안 명창으로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46세 때 서울로 올라와 김창환(金昌煥)·송만갑(宋萬甲)과 함께 원각사(圓覺社)에서 창극을 공연하였고, 원각사가 해산된 뒤 연흥사(延興社)·광무대(光武臺) 등에서 송만갑과 함께 창극과 판소리를 공연하였다.

1934년 송만갑(宋萬甲)·정정렬(丁貞烈)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여 판소리 교육에 힘쓰는 한편, 창극정립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1939년에 부민관에서 은퇴공연을 하자,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두 달 동안이나 전국과 만주, 연해주 일대까지 순회공연을 계속하였다.

그는 김세종에게 짜임새있게 판소리를 배웠고, 성량이 풍부하고 풍채가 당당하여 거인적인 명창으로 이름이 높았다. 고종은 그를 특히 사랑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계를 내렸고, 어전에서 소리를 하게 하였다.

「심청가」와 「적벽가」를 잘 불렀고, 특히 「새타령」을 잘 하였는데 그의 「새타령」은 이날치(李捺致)·박유전(朴裕全) 이후 첫손을 꼽고 있다. 제자는 많지 않으나 강장원(姜章沅)이 그의 소리 일부를 이어받았다.

그의 소리를 담은 음반이 수십 종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새타령」과 「흥보가」 중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심청가」 중 ‘범피중류(泛彼中流)’ 대목이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판소리』(정병욱, 집문당, 1981)

『판소리 소사』(박항, 신구문화사, 1976)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정노식,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0)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김민수,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13)

[두산백과]

요약/ 판소리 중고제(中高制)의 명창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으며 연흥사(演興社)·협률사(協律社)·광무대(光武臺)·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서 중진으로 활약하였다. 《새타령》, 《춘향가》, 《적벽가》에 뛰어났다.

출생-사망/1866 ~ 1950본명/이종기 출생지/충청남도 비인

1866년 충청남도 비인면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이종기이다. 중고제(中高制)의 명창으로 김정근(金定根)·김세종(金世宗)에게 사사하였고 한때 경남지방을 전전하다가 1900년 상경하여 고

종 황제의 어전에서 판소리를 불러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이후 판소리 창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김창환(金昌煥)·송만갑(宋萬甲) 등과 원각사에서 공연하였고, 1934년 연흥사(演興社)·협률사(協律社)·광무대(光武臺)·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에서 중진으로 활약하다가 1939년 서울 부민관(府民館)에서 은퇴공연을 한 후 물러났다. 1926년 일본음반사에서 판소리를 녹음했으며 이후 1928년 빅터(Victor) 사에서도 음반을 취입하였다. 이동백이 은퇴한 후 중고제 판소리는 전승이 끊어졌다. 그는《새타령》의 독보적 존재였고 《춘향가》, 《적벽가》에도 뛰어났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대한제국(1897~1910)·일제강점기 중고제(中高制) 명창.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의 발기인·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 이사장. 충청남도 비인군(庇仁郡) 도만리(都萬里) 또는 서천(舒川) 출생. 일명 이종기(李鍾琦).

출생 - 사망/1866년 ~ 1949년

1866년(고종 3) 음력 2월 4일에 내어난 그는 13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나, 독서에 뜻이 없고 소리에 취미가 있었던 이동백은 김정근(金定根)의 문하에 들어가 판소리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에 김세종(金世宗)의 문장(門牆)에 이르러 얼마 동안 도야(陶冶)를 받은 뒤에는 진주(晉州) 이곡사(里谷寺)에서 3년 동안 연마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고종 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함을 받았고, 경상관찰사 이지용(李址鎔)의 부름을 받아 적벽가를 관찰사와 관원들 앞에서 잘 불러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이 관찰사의 도움으로 진주에 거주하면서 후학을 지도했으며, 창원의 어느 유지의 소개로 가인과 결혼하였다. 창원에서 9년 동안 활동하다가 1902년 상경하여 송만갑 등과 함께 창극활동을 벌였다. 46세 때 원각사(圓覺社)가 창립되자 상경하여 선배 김창환을 비롯해 송만갑 등과 함께 창극활동에 힘쓰는 한편 연흥사(演興社)·광무대(光武臺)에 출연했다. 송만갑과 협률사(協律社)를 조직하여 지방순회도 했고,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의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였다.

1909년 원각사의 폐지 이후 송만갑 명창이 조직한 송만갑협률사(宋萬甲協律社)라는 사설 유랑창극단에서 한성준·김창룡·유공렬·이선유 등의 단원과 함께 주로 지방에서 공연활동을 전개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들은 후 경남 통영(統營)공연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1910년 9월 북부경찰서는 그를 불러 장안사의 연극장에서 풍속(風俗)을 방해하는 가곡을 금지하도록 경계했다.

1912년 4월 2일 장안사(長安社)에서 공연한 그의 판소리는 심정순(沈正順)의 가야금병창과 함께 관람자의 환영을 받았고, 1914년 2월 그는 단성사(團成社)에 열린 자선연주회 때 출연했으며, 같은 해 3월 그는 단성사의 구극(舊劇)에 판소리로 출연하였다.

1914년 5월 그는 단성사에서, 그리고 6월 장안사에서 판소리로 출연했고, 같은 해 9월 그는 유성기에 녹음하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선생인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는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는 강원삼,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기봉·이금희 등, 총 30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1925년 10월 7일 조선고악대회(朝鮮古樂大會) 때 출연했고, 1927년 2월 17~20일 조선고가무회(朝鮮古歌舞會) 주최 조선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27년 8월 12일 경성방송국 주최 DK명창대회 때 신금홍·강소춘·이화중선·김추월과 함께 방송했으며, 1927년 12월 21일 경성여자미술학교 주최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 때 출연하였다. 1927년 8월 12일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남도단가(南道短歌)를 방송한 이래 1944년 8월 18일까지 남도단가(48회)·남도잡가(南道雜歌)(2회)·단가(25회)·판소리

(창극조: 78회), 이상 총 153회나 방송에 출연하였다. 창극조로 기재된 판소리의 경우 심청가(21회)·적벽가(18회)·춘향가(28회)·흥보가(5회)·곡목 미상(6회) 총 72회를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방송했고, 단가 방송의 경우 "만고강산"·"백발가"(白髮歌)·"진국명산"(鎭國名山)을 포함해 15곡목이나 방송하였다.

1928년 2월 13일 조선음악협회(朝鮮音樂協會)를 조직했다. 1928년 2월 20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제1회 조선음악공연 때, 3월 7일 보우친목회(普友親睦會) 주최 남녀명창대회 때, 3월 25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신춘남녀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28년 광무대(光武臺) 소속 호성좌(虎聲座)에서 그는 박춘재·이일선·임명옥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28년 6월 8일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 때 출연했고, 1929년 1월 12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경인연합명창음악연주회 때 출연해 춘향가 중 "어사출도"를 공연했다. 1930년 9월 15일 팔도명창대회 때 출연했으며, 1930년 11월 4일 명창대회 때 특별 출연하였다.

1930년 9월 27일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 창립 때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 1931년 5월 11일 호성극단 창립 1주년기념 공연 때 출연했고, 1931년 9월 21~23일 제2회 팔도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32년 7월 8일 경성음률협회 주최 전조선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33년 6월 22~23일 및 8월 23~24일 조선악협회(朝鮮樂協會) 주최 동서음악대회 때, 1933년 8월 12일 조선악협회 주최 「조선악 감상의 밤」 때 출연하였다. 1933년 8월 20일 조선음악학원(朝鮮音樂學院) 설립을 위한 「전통악과 무용의 밤」 때, 1935년 11월 18일 원산(元山) 빈아교양원을 위한 동정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조선성악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그는 1934년 5월 11일 강태홍·김동강·김용승 등의 발기인과 함께 1934년 4월 24일에 설립한 조선성악원(朝鮮聲樂院)을 조선성악연구회로 개칭하여 다시 출범시켰다. 조선성악연구회가 가극화한 농촌야화(農村夜話)·배비장전(裴裨將傳)·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옹고집전(雍固執傳)·유충렬전(劉忠烈傳) 등의 창작 창극 공연에 출연했고, 이화중선을 제자로 두었다.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1936년 1월 24일 춘향전의 공연 때, 1936년 2월 9~11일 가극 배비장전의 공연 때, 1936년 6월 8~11일 연쇄창극(連鎖唱劇) 유충렬전의 공연 때, 1936년 9월 15~16일, 25일 가극 춘향전 공연 때, 1936년 10월 28일 가극 흥부전 공연 때, 1937년 2월 26~3월 2일 가극 숙영낭자전의 공연 때, 1937년 3월 3일 가극 배비장전 공연 때, 1937년 6월 21~25일 가극 편시춘 공연 때, 1938년 10월 4~5일 새 창극 농촌야화 때, 1938년 8월 8일 창극 옹고집전 때, 1939년 1월 29일 창극 춘향전 때 출연하였다.

1935년 11월 27~28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추동명창대회 때, 1936년 8월 28~29일 수해구제구악대회 때, 1937년 7월 2~3일 조선성악연구회의 명창대회 때, 1938년 1월 11일 김석구독창회 때 출연했고, 1938년 4월 27~28일 전조선향토연예대회 중 춘향전과 심청전 공연 때, 1938년 4월 27일 판소리대회의 춘향전 전창(全唱) 때, 1938년 4월 28일 판소리대회의 심청전 전창 때, 1938년 5월 4~10일 전조선향토연예대회 중 조선성악연구회의 판소리대회 때, 1938년 5월 24일 연예시간에 열린 명창의 밤 때, 1938년 10월 16~17일 광주극장에서 열린 명창대회 때 출연하였다.

1937년 1월 3일 "명창에게 들은 생사"라는 제목 아래 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 이상 네 명창의 대담록이 게재됐다. 1938년 5월 23일 조선성악연구회 제5회 정기총회 때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1939년 5월 13~14일 조선소리경창대회 때 김창룡·한성준·안춘민·김윤덕 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1939년 3월 조선일보사 주최로 부민관에서 은퇴기념공연(隱退紀念公演)을 가진 이동백은 심

청가·적벽가에 뛰어났고, 그의 새타령은 이날치 이후 당대 독보적이었고, 그의 더늠은 축음기에 많이 취입하였다. 그의 새타령은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1927~1944년 국본정엽(國本正葉)·김광채·대원원섭(大原元燮)·박종기 등과 함께 "광한루 경개"(廣寒樓景概)·남도단가(南道短歌)·남도잡가(南道雜歌)·단가·"박석(礪石)틱"·"박타령"을 포함한 20여 곡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수궁가를 제외한 춘향가·흥부가·적벽가·심청가 및 단가 15곡을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했다.

유성기음반에 판소리 다섯 마당(춘향가·심청가·흥보가·적벽가·수궁가)을 모두 창극조 형태로 취입했으며, "백발가"나 "죽장망혜" 등의 단가를 음반으로 남겼다. 특히 조선성악연구회에서 가극화한 배비장전·유충렬전·숙영낭자전·옹고집전·농촌야화와 같은 새로운 창극공연에도 출연하였다.

일제강점기 취입한 여러 회사의 음반은 일축음반(29매)·콜럼비아음반(1매)·빅타음반(11매)·폴리돌음반음반(62매), 이상 총 103매나 된다. 수궁가(1매)·심청가(39매)·적벽가(20매)·춘향가(17매)·흥보가(1매)·남도잡가(2매)·단가(7매) 총 87이며, 그가 취입한 단가의 곡명은 "강산경가"(江山景歌)·"백발가"(白髮歌)·"죽장망혜"를 포함한 일곱 곡이나 된다.

그가 부른 심청가 및 "조조(曹操)가 관공(關公)에게 비는데"는 미국 빅타사의 음반에, 그리고 그가 취입한 "광한루 경개"(廣寒樓景概歌)·"광한루 경치가"(廣寒樓景致歌)·"백발가"를 포함한 40여 곡은 일본 빅타음반에, 그리고 그가 취입한 단가"새타령"·"천리강산"·"화용도전집" 등은 폴리돌음반에 전한다. 일제강점기 그가 취입한 "과거보는데"·"광한루 경개"·"광한루 경치가"를 포함한 춘향가의 여러 눈대목은 『조선레코드총목록』에 전한다.

이동백 관련 기사 『三千里』(1931) 3권 3호·『三千里』(1934) 6권 7호·『三千里』(1935) 7권 10호·『中央』(1936) 4권 4호·『朝光』(1937) 17호·『朝光』(1938) 31호·『三千里』(1939) 11권 4호·『춘추』(1941) 2호 등에 나온다. 74세 되던 해 조선일보사 주최로 부민관에서 은퇴공연을 가졌고, 83세를 일기로 경기도 평택군(平澤郡) 송탄면(松炭面) 칠완리(七玩里)에서 사거하였다.

특장은 새타령으로 유명하였다. 신쾌동의 스승. 1977년 김영재가 5선보로 채보한 신쾌동의 거문고악보인 『현금곡전집』(玄琴曲全集)에 그에게 배운 적벽가(赤壁歌) 중 "새타령"·"팔도유람가"(八道遊覽歌)를 거문고병창으로 부른 악보가 전한다.

○ 김봉문

[한국전통연희사전]

김봉문(金奉文, 1876-1930)은 충남 서산(현재 충남 서산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박기홍(朴基洪)에게 판소리를 배워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김봉문의 소리는 후대로 전승되지 못했다.

『조선창극사』 「김봉문」 조에서는 김봉문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으며, 특히 '박타령' 중 '박물가(博物歌)'를 잘 불렀다.

참고문헌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의/1876(고종 13)~1930. 판소리 명창.

내용/

충청남도 서산 출생. 동편제의 가선(歌仙)으로 꼽히던 명창 박기홍(朴基洪)에게 판소리를 배워 민족항일기초에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다.

동편제의 마지막 대가라는 평을 받는 박기홍의 소리제를 이어 동편제 소리의 진수를 발휘했으나 그의 소리는 전승되지 못하였다. 「흥보가」를 잘하였고 특히 '박타는 대목'에서 '박물가(博物歌)'를 잘 불렀다.

참고문헌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두산백과]

출생-사망/1876 ~ 1930, 출생지/충남 서산(瑞山)

조선 후기의 판소리 명창. 충남 서산(瑞山) 출생. 박기홍(朴基洪)의 문하에 들어가 판소리를 배우고 일제강점기 초에 동편제(東便制)의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판소리 《흥보가》를 잘 불렀으며, 특히 박 타는 대목에서 <박물가(博物歌)>를 잘 불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고종(1863~1907)·대한제국(1897~1910) 때 동편제(東便制) 명창.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출생.

출생 - 사망/1855년 ~ 1929년

박기홍(朴基洪)의 제자인 김봉문은 흥보가를 잘했고, 그의 더늠은 흥보가 중 "박물가(博物歌)이다. 그 "박물가"는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 전한다.

1914년 2월과 3월 장안사(長安社)에서 열린 자선연주회 및 장안사의 구극 공연 때, 판소리 화용도(華容道)에 출연했다. 1914년 4월 의주(義州)에서 흥행한 장안사순회단(長安社巡廻團)에 잡가(雜歌)로 출연했으며, 장안사의 구연희(舊演戲)를 공연하던 그의 일행(一行)은 심정순일행(沈正淳一行)과 함께 해주좌(海州座)에서 공연하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평의원이었다. 조합장: 강경수, 부조합장: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 강원삼, 선생: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 윤병두, 평의원: 곽천희·김기봉·김봉업·김창룡·김창진·박팔괘·이봉운·임학준·장도순·조양운·지성근·한성준, 여배우: 김해선·박금홍·박이화·엄계열·오옥엽·이금희,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 심정순

[한국전통연희사전]

심정순(沈正淳, 1873-1937)은 충남 서산(현재 충남 서산시)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자 가야금병창 및 산조의 명인이다. 본명은 심춘희(沈春喜)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피리와 통소의 명인 심팔록(沈八錄, ?-1883)의 아들이자, 가야금병창과 산조의 명인 심상건(沈相健, 1889-1965)의 숙부, 가야금풍류·단소풍류·가야금병창·판소리의 명인 심재덕(沈載德, 1899-1967)과 가야금병창·판소리·잡가·승무의 명인 심매향(沈梅香, 1907-1927), 그리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심화영(沈燮英, 1913-2009) 남매의 부친이다.

심정순은 25세(1897) 무렵부터 판소리, 잡가, 재담과 가야금, 양금, 단소를 두루 익혔다고 전하는데 명확한 사승 관계는 알 수 없다. 그의 소리는 자녀들과 조카 심상건에게 전수되었으나, 심화영을 통해 극히 일부만 전승되었다. 심정순 일가의 소리는 심팔록-심정순-심상건, 심재덕, 심매향, 심화영으로 여러 대를 거치면서 내포 지역 특유의 음악 어법을 확립했다. 평조를 중심으로 한 악조의 사용이나 경기 어법이 녹아 있는 선율 진행 등에서 그 가계 소리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심정순은 30대 후반에 상경해 본격적인 국악 활동을 시작했다. 39세에 일본축음기회사에서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음반을 취입했는데, 당시 음반 녹음자 중 판소리 창자는 심정순 한 명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근대 오명창에 속하는 대명창 이동백(李東伯, 1866-1949), 김창환(金昌煥, 1855-1937)에 이어 세 번째로 유성기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의 인기나 명성이 매우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창기 유성기 음반 목록에서 그의 녹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상당하다. 40세에는 『매일신보』에 그의 판소리 사설이 〈강상련〉, 〈연의각〉, 〈토의간〉이라는 제명으로 연재되었다. 그가 남긴 판소리 사설은 중고제의 전승이 미약한 현대 판소리의 특징을 감안할 때, 그 자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42세 때 남성 판소리 창자로서는 유일하게 『매일신보』의 〈예단일백인(藝壇一百人)〉에 소개되기도 했다. 41세-42세에 사설극장 장안사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했으며, 53세에 일본축음기회사에서 음반을 녹음했다.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ROYAL RECORD NIPPONOPHONE 6020 KOREAN SONG 七星壇下趙子龍弓射歌 묘자룡활쏘는가),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ROYAL RECORD NIPPONOPHONE 6098 KOREAN SONG 千字文歌 천자뒤푸리)와 '남원 사령 술주정가'(일축조선소리판 K226-A 남원사령술주정가 沈正順 朴春載 文泳洙) 등을 유성기 음반으로 남겼다.

심정순은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중고제 창자로, 경기·충청 지역의 향토 음악적 어법을 충실하게 구사했다고 평가된다. 평조를 많이 사용했으며, 계면조 대목에서도 평조적 진행을 보였다. 도약진행이나 장식음의 활용보다는 평탄하고 단조로운 선율을 지향했으며, 높은 음역에서 지속적으로 거뜬거뜬하게 들고 가며 소리를 했다.

참고문헌

배연형, 「심정순 일가의 음반」, 『한국음악사학보』28, 한국음악사학회, 2002.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가의 소리』, 민속원, 2009.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18, 한국음악사학회,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1873년 ~ 1937년, 출신지/충청남도 서산시

본관/청송(靑松)

정의/1873~1937. 판소리 및 가야금병창 명인.

개설/충청남도 서산 출신. 본관은 청송(靑松). 1910~1920년대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 산조 . 재담 . 풍류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생애/

1873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심팔록은 피리와 통소의 명인으로, 심정순의 음악은 부친에게서부터 이어진다. 25세 무렵부터 판소리 . 잡가 . 풍류를 두루 익혔고, 풍류는 가야금 . 양금 . 단소에 능했다. 1910년 무렵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을 시작하였고, 1926년 무렵 중풍에 걸려 국악 활동을 중단하였다. 1930년 무렵 병이 악화되어 고향인 서산으로 낙향, 1937년 6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활동사항

1910년 무렵부터 1926년 중풍으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서울에서 극장무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활동과 음반 취입,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활동, 사설 연재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였다.

장안사(長安社)에 소속되어, 장안사를 대표하는 스타로 거의 매일 공연을 하였고, 단원들과 함께 순회공연을 다녔다. 1911년과 1925년에는 일본축음기회사에서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잡가,

가야금 독주 음반을 취입하였고, 이동백과 김창룡의 음반에 고수로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1912년에는 『매일신보』에 「강상련(심청가)», 「연의각(흥보가)», 「토의간(수궁가)」 세 바탕 판소리 사설을 연재하였는데, 이는 현전하는 유일한 판소리 중고제 창본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 시험 방송 기간이었던, 1926년 7월 22일과 8월 5일에 심정순이 두 차례 라디오방송을 한 기록이 발견된다.

참고문헌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家の 소리』(신은주, 민속원, 2009)

○ 심재덕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판소리 이론가. 조선음악무용연구회(朝鮮音樂舞踊研究會) 대표. 심정순(沈正淳)의 아들. 출생 - 사망/1899년 ~ 1967년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한문을 잘했으며, 글도 잘하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판소리·가야금·양금에 능했다. 심정순의 세상을 떠난 후 청진·진남포 등지에서 국악사범(國樂師範)으로 활동했으며, 말년에는 서울에서 가야금 연주도 하면서 대학 강의 및 국악논문도 발표하였다.

1936년 7월 5일 판소리 열두마당과 계면조(界面調)·우조(羽調)·평조(平調)에 대한 글을 발표했고, 1939년 7월 5일 그의 글 "조선소리 내력기(來歷記)"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 박동진

[한국전통연희사전]

박동진(朴東鎭, 1916-2003)은 충남 공주군 장기면(현재 충남 공주시 장기면)에서 태어나 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조부가 줄광대였으며 숙부는 포랑광대였다.

17-18세(1932-1933)에 손병두에게 1년간 단가와 토막소리를 배웠으며, 이후 김창진(金昌鎭, 1875-?)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심청가>를 익혔다. 22세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정정렬(丁貞烈, 1876-1938)에게 <춘향가>를 배웠으며, 이어 박지홍(朴枝洪, 1889-1961)에게 <흥보가>, 유성준(劉成俊, 1873-1944)에게 <수궁가>, 조학진(曹學珍, 1877-1951)에게 <적벽가> 등을 배웠다. 강정자(姜貞子, 1942-), 이정일(李正一, 1953-), 김양숙(金陽淑, 1964-) 등이 그의 제자이다.

30세 이후 햇님국극단, 조선창극단, 우리국악단 등의 창극단체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한편, 작곡 등의 창작 활동도 많이 했다. 47세에 국립국악원 국악사로 들어가, 이때 판소리 완창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53세에 <흥보가>를 5시간 동안 완창했고, 이어 <춘향가>를 8시간에 걸쳐 완창했다. 그리고 55세에 <심청가>를 6시간, 56세에 <적벽가>를 7시간, 57세에 <수궁가>를 5시간 동안 완창했다. 이 가운데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당시 실황녹음 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충청남도 공주시의 정리 사업에 의해 음반과 사설집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한편 박동진은 55세에 <변강쇠타령>, 57세에 <성서판소리전통연희>, <배비장타령>, 58세에 <이순신 장군 일대기>, 59세에 <숙영낭자전>, 62세에 <옹고집타령>을 발표했다. 74세에 SKC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 음반을 취입했다. 77세에 TV 광고에 출연해 <흥보가> 중 '놀보, 제비 물러나가는 대목'을 불러 크게 유행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이 판소리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83세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개관했다.

박동진은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가 부른 <적벽가>

는 정춘풍(鄭春風)-박기홍(朴基洪)-조학진으로 이어지는 바디이다. 그의 성음은 약간 쉰 듯한 수리성으로 칼칼한 느낌이 나는 목이다. 독공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성량이 매우 커서, 유창하고 장엄한 장면이나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데 탁월했다. 박동진은 전통적인 판소리를 고수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판소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실전 7가 중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옹고집타령>, <장기타령>, <숙영낭자전>의 복원을 시도했으며, <성서판소리>, <이순신 장군 일대기> 등의 창작 판소리를 발표했다. 소리판에서도 현장성과 즉흥성을 발휘해 창조적인 아니리를 구사했으며, 육담과 비속한 표현, 재담을 거침없이 사용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처럼 사설의 확장이나 변용에 융통성을 가진 판소리의 '열린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창조적 광대로 평가된다. 그리고 박동진이 시도한 완창 발표는 판소리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닌다. <흥보가>(1968), <춘향가>(1969), <심청가>(1970), <적벽가>(1971), <수궁가>(1972) 다섯 바탕의 완창 발표는 이전 시기까지 침체되었던 판소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교 위주로 흘러가던 공연계에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주로 토막소리로 부르던 공연 관습을 점차 전환시켰다. 이후 완창 발표는 창자의 예술적 기량을 가늠하고, 진정한 명창의 면모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운정, 「박동진 판소리 창본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진의 예술세계와 현대 판소리사적 위치」,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박동진, 『인간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 적벽가(북 : 주봉신)』 1-2, SKC, 1988.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6 : 판소리 流派』,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칭별칭/호:인당(忍堂) 출생-사망/1916년7월12일 ~ 2003년7월8일

출신지/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현 공주시 무릉동)

저서(작품)/총무공 이순신, 성서 판소리(예수전)

정의/1916~2003년. 판소리 명창.

개설/

1930년대에 손병두·김창진·박지홍·유성준·정정렬 등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1960~70년대에 판소리 5바탕을 처음으로 완창하였다. 「숙영낭자전」, 「총무공 이순신전」, 「예수전」 등을 비롯해 여러 창작 판소리를 지었고, 수많은 공연을 통해 대중적인 큰 인기를 끌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창극단장을 역임하였고,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활동사항/

박동진은 1916년 7월 12일 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농사를 지었으나 조부는 줄광대였고, 숙부도 소리를 했다고 한다. 중학교를 다니던 중 험률사 공연을 보고 판소리에 입문하기로 결심하고 18세에 충남 청양의 풍물패 상쇠였던 손병두에게 도막소리를 배웠으며, 이어 김창진에게 「심청가」를 배웠다고 한다. 21세에는 정정렬(1876. 5. 21. ~ 1938. 3. 21.)에게 「춘향가」를 배웠고, 계속 박지홍의 「흥보가」, 유성준의 「수궁가」, 조학진의 「적벽가」를 배웠다고 한다. 여러 선생을 전전하며 짧은 기간에 소리를 배운 만큼 다양한 소리제를 경험할 수는 있었으나, 소리를 학습한 이력이 분명하지 않고 어느 바디도 완전한 전승이 되지 못하였다. 소리를 배운 뒤 일제 말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 무렵까지 혼란기에는 권번의 소리선생과 여러 국극단을 전전하였고, 한국전쟁 기간에는 국민방위군 창극단에서 활

약하기도 했으나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명창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1962년 국립국악원에 근무하면서부터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판소리 수련에 매진하여 6년 뒤인 1968년 9월 30일 남산 국립국악고등학교 강당에서 「홍보가」를 5시간에 걸쳐 완창하였다. 광복 후에 판소리 완창은 1956~57년 임방울이 「수궁가」와 「적벽가」를 각각 2시간가량 부른 것이 유일한 기록이었다. 1930년대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도 판소리는 도막소리나 창극, 여성국극 형태로 공연되었다. 광복 직후 완창을 부를 수 있는 명창도 극히 적었고, 공식 무대에서 완창을 부르는 관례도 없었다. 5시간에 걸친 박동진의 「홍보가」 완창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전통 판소리 공연 형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를 무명의 소리꾼에서 판소리계의 중심인물로 서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때부터 박동진은 판소리 5바탕은 물론, 실전(失傳) 판소리의 복원과 창작 판소리까지 계속 완창을 발표하였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홍보가」(1968년, 5시간), 「춘향가」(1969년, 8시간), 「심청가」(1970년, 6시간), 「변강쇠타령」(1970년, 5시간), 「적벽가」(1971년, 7시간), 「수궁가」(1972년, 5시간), 「배비장타령」(1972년), 「성서 판소리(예수전)」(1972년), 「이순신장군일대기(충무공 이순신)」(1973년), 「숙영낭자전」(1974년), 「팔려간 요셉」(1975년), 「옹고집」(1977년). 이러한 완창은 지금까지 아무도 넘어서지 못하는 대기록이다. 박동진은 한 스승으로부터 완전한 바탕소리를 물려받지 못한 대신 여러 스승을 거치면서 다양한 판소리의 더늠과 소리 특징, 공연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기존 5바탕을 새로 짜서 자신의 소리로 가꾸었고, 여러 더늠을 두루 수용하여 길이도 대폭 늘였다. 또한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숙영낭자전」, 「옹고집전」 등 실전 판소리 사설에 새로 곡을 붙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동진의 「예수전」, 「충무공 이순신」 등 창작 판소리이다. 「예수전」은 주태익이 쓴 사설에 박동진이 곡을 붙인 것으로, 판소리의 새로운 소재와 영역을 개척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500회 이상 공연한 것으로 전한다. 「열사가」의 전통을 이은 「충무공 이순신」은 1960~70년대 ‘이순신 선양화 사업’과 맞물려 창작된 곡으로 전바탕이 약 9시간에 이르는 대작이며, 박동진의 창작 역량과 소리 기량이 집약된 작품이다. 박동진은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국립창극단장에 취임하였다. 박동진은 1970~80년대 판소리 명창으로는 가장 많은 공연을 하였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판소리계에 완창 관례를 이끌어내었다. 1998년에는 고향 공주의 생가 터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개관하였으며, 2003년 7월 8일 이곳에서 향년 87세로 작고했다. 박동진은 맑은 청구성 계통의 성음을 지녔으며, 스승의 소리를 판박이로 부르지 않고 자유로운 선율을 구사하였다. 그는 즉흥적으로 판을 짤 수 있는 당대 유일한 명창으로 꼽히며, 아니리와 재담에 능하여 대중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판소리의 반은 아니리’라는 말로 재담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피력하였다. 그의 소리에 대해 선율을 즉흥적으로 짜기 때문에 음악성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완창을 밥 먹듯이 하는 그의 소리 공력과 공연 능력은 당대 최고로 꼽히며, 조선조 광대놀음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중요 녹음으로는 『박동진 애창곡집 판소리 다섯마당(1~5)』(1971, 5LP), 『충무공 이순신』(1973, 5LP), 『적벽가 삼고초려, 적벽대전』(문화재관리국, 1976), 『인간 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SKC, 18CDs, 1988) 등 많은 음반과 공연실황 녹음이 남아있다.

상훈과 추모/

은관문화훈장(1980), KBS 국악대상(1991), 방일영국악상(1996) 등을 수상하였고, 금관문화훈장(2003)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예인 백 사람』(이규원, 현암사, 1995)
 「박동진 명창과 창작 판소리」(강윤정, 『판소리연구』제32집, 판소리학회, 2011)
 「박동진 명창의 생애와 예술활동」(강윤정, 『판소리 명창론』, 판소리학회, 2010)
 『인간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박동진 창, SKC, 18CDs, 1988)
 『충무공 이순신』(박동진 창, 흥인서원, 5LP, 1973)
 『박동진 애창곡집 판소리 다섯마당(1~5)』(박동진 창, 지구레코드, 5LP, 1971)

[두산백과]

요약/ 국가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흥부가'를 완창하여 판소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거의 모든 판소리를 완창하였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비대중적이라는 '적벽가'의 완창 능력을 인정 받아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출생-사망/1916.7.12 ~ 2003.7.8

출생지/충남 공주

주요수상/은관문화훈장(1981), 전국국악대상(1982), 서울시 문화상(1983)

주요작품/《판소리 이순신장군 일대기》

1916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대전공립중학 졸업반이던 열여섯살 때 판소리를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그만두었다. 1933년 당대의 명창으로 이름난 김창진 밑에서 심청가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정정열에게서 춘향가(1934), 유성준에게서 수궁가(1935), 조학진에게서 적벽가(1936), 박지용에게서 흥부가(1937)를 배우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익혔다.

1962년 국립국악원 국악사로 임용되었다. 1968년 '흥부가'를 완창하여 판소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소리꾼의 평균 공연시간이 20분 정도였던 데 비하여 5시간에 걸친 흥부가의 완창은 기록적이었다. 이어 1969년 춘향가(8시간), 1970년 심청가(6시간), 1971년 적벽가(7시간)를 완창하는 등 거의 모든 판소리를 완창하였다.

1973년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비대중적이라는 '적벽가'의 완창 능력을 인정 받아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국립창극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1984년에서 1986년에 걸쳐 강릉해화전, 무속이타령, 궁가, 옹고집전, 장끼타령 등을 완창하였다. 1987년 국립국악원 지도위원이 되었고, 1993년 인간문화재진흥회 회장과 국립극장 명예종신단원이 되었다.

작품으로 《판소리 이순신장군 일대기》가 있고, 1995년에 음반 《박동진 명창의 바탕소리로 듣는 판소리 길잡이》를 내놓았다. 은관문화훈장, 국악대상, 서울시 문화대상, 한국문화대상(성악)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1996년에는 판소리 전승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방일영 국악상을 수상하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5호 판소리(적벽가) 예능보유자. 충남 공주(公州) 출생.

출생 - 사망/1916년 ~ 2003년

16세 때 대전에서 열린 협률사의 창극공연을 구경하고 소리에 빠져 학교를 중퇴하고 장판개(張判介)를 찾아갔을 때 소개받은 손병두(孫炳斗)에게서 춘향가를 배웠다. 대구성악회(大邱聲樂會)를 찾아가 박지홍(朴枝洪)에게 흥보가를 사사했다. 28세 때 경주권번(慶州券番)의 소리선생인 유성준(劉成俊)을 만나 수궁가를 학습했다. 또한 최윤(崔潤) 선생에게 거문고를 배우면서 조계향에게 장단을 배웠다. 조학진(曹學珍)과 김창진(金昌鎭) 두 선생을 만나 흥보가와 적벽가

를 사사했다.

34세 때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의 정정렬(丁貞烈)에게 다시 춘향가를 배웠다. 1940년 12월 24일 제일극장에서 박석기가 창단한 화랑창극단(花郎唱劇團)의 창단공연 때 조상선·한주환·김여란 등과 함께 출연하였다.

해방 후 조선가무단(朝鮮歌舞團)을 거쳐 1962년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 들어가 재직시절 1968년 9월 30일 국립국악원과 유엔군사령부방송(VUNC) 공동주최로, 제5회 방송의 날을 기념할 때, 국립국악원 연주실에서 흥보가를 다섯 시간에 걸쳐 완창(完唱)하였다.

1969년 5월 20일 두 번째 판소리 춘향가 완창발표회가 여덟 시간에 걸쳐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렸다. 1970년에는 심청가 완창 및 변강쇠가를 복원 완창했고, 1971년에는 적벽가와 수궁가를 완창함으로써 완창판소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국립국악원 장악과 국악사(國樂士)·연주원(1962~1973)을 거쳐 1973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제자로 강정자(姜貞子)·박종엽·허정임 등이 있다.

1976년 11월 25일 제6회 판소리 유파발표회 때 출연했고, 1976년 12월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보호협회가 공동 제작한 『한국의 음악』에 판소리 적벽가를 취입했으며, 1977년 1월 29일, 7월 30일, 그리고 12월 24일 국립창극단의 판소리감상회 때 출연하였다. 1977년 3월 24~27일 국립창극단의 심청가 공연 때, 9월 16~19일 흥보가 공연 때,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예술회 때, 3월 한국브리태니커사의 판소리감상회 때, 3월 25일 국립창극단의 판소리감상회 때,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국악연주회 때, 6월 10~12일 민요대잔치의 남도민요 공연 때, 6월 21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63회 정기연주회 때, 7월 29일 국립창극단의 판소리감상회 때, 1979년 5월 14일 제8회 판소리유파발표회 때, 10월 21일 제10회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발표공연 때, 10월 31일 제4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때, 1980년 11월 국립창극단의 판소리감상회 때, 1981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악제의 「산조와 판소리의 밤」 때, 10월 26일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때, 1982년 4월 29일 조선일보 제1회 국악대공연 때, 6월 12~14일 대한민국 국악제 창극 춘향전 공연 때, 11월 3일 제13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때, 1983년 9월 13일 변강쇠타령 감상의 밤 때, 1984년 12월 18일 신재효 100주기 기념공연 때, 5월 25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9회 정기연주회 때, 5월 7일 조선일보사 주최 제3회 국악대공연 때 출연하였다. 1987년 3월 17~19일 산울림 소극장에서 완창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를 열었고, 3월 2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완창판소리 배비장전을 열었다.

1988년 2월 16일~3월 16일 국립국악원 개관기념 공연 때, 3월 16~29일 국립국악원 신축청사 개관기념 대공연 때, 3월 국립창극단의 완창판소리 공연 때, 1989년 11월 24일 「박동진 명창과 고법(鼓法)의 만남」 때 출연했고, 1990년 3월 8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0신춘음악회 때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출연했고, 1990년 7월 2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적벽가 완창발표회를 열었으며, 완창판소리 변강쇠타령 발표회를 열었다. 1991년 2월 7일 KBS춘천방송국 신춘국악한마당을 비롯해 매달 여러 초청공연에 출연했고, 10월 25일 신나라 정기국악연주회의 「박동진 변강쇠가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10월 6일 KBS홀에서 완창판소리 춘향가를 열었다.

1992년 3월 8일 고(故) 국악선열추모 92범국악인 자선대공연을 비롯해 여러 공연에 출연했고, 11월 14일 판소리 흥보가 한마당 발표회를 열었다. 1993년 2월 27일 북촌창우극장 개관축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공연 때 출연했고, 10월 30일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변강쇠타령"을 발표하였다. 1994년 3월 25일 대구문화 100호 발간기념 신춘국악 한마당 등에 출연했고,

10월 29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완창판소리 심청가발표회를 열었다.

1995년 2월 19일 광복50주년기념 신춘국악대공연 등 여러 공연에 출연했고, 9월 5일 광복50주년기념 서사음악극 "토지"(박경리 작) 때 출연했고, 1996년 4월 9일 제6회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공연 등, 그리고 1997년 7월 14일 향사 박귀희 선생 4주기 추모음악회 때 등에 출연하였다. 1998년 3월 2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완창판소리 수궁가발표회를 열었고, 9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완창판소리 흥보가발표회를 열었으며, 11월 23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개관식 축하공연 때 출연하였다. 1999년 3월 27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완창판소리 적벽가발표회를 열었고, 5월 21일 충남국악관현악단 제33회 정기연주회 등에 출연하였다.

1994년 10월 13일 제4회 동리대상(桐里大賞)을 수상했고, 1996년 11월 12일 제3회 방일영국악상(方一榮國樂賞)을 수상하였다. 1997년 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의 생가터에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나) 기악

박팔괘심상건 심창래 박상근 심매향

○ 박팔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생 - 사망 1882년(고종 19) ~ 1940년

출신지 충청북도 청원

내용

충청북도 청원 출신. 초창기에 독자적인 충청제(忠淸制)의 산조가락을 만들었고, 가야금 병창으로도 유명했다.

전라남도의 김창조(金昌祖)에서 비롯된 정통적인 가야금 산조의 틀과 판이한 특색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으며, 박상근(朴相根)의 충청제 가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가야금 연주가·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명인.

일제강점기 박상근(朴相根)에게 산조를 가르쳤고, 박상근은 성금연(成錦鸞)에게 전하였다.

1914년 2월 단성사(團成社)에 열린 자선연주회 때 출연했다. 같은 해 5월 단성사의 구극(舊劇)에서 가야금으로, 그리고 6월 단성사에서 승무로 출연하였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의 평의원. 그는 조합장은 강경수, 부조합장은 김인호와 김봉이, 총무는 조진영과 박상도, 회계는 강원삼, 선생은 김창환·이동백·이형순, 사무는 윤병두, 평의원은 곽천희·김창룡·이금희, 이상 총 29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1915년 5월 연흥사(演興社)에서 가야금으로 출연했으며, 1918년 9월 공주(公州) 별신제(別神祭) 때 가야금으로 출연하였다.

일제강점기 그가 가야금 반주로 부른 단가는 미국 빅타사의 음반에 전한다. 1935·1936년 가야금병창 "기생 점고하는데" 단가 "만고강산"(萬古江山) 등을 여러 곡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1999년 11월 12일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제2회 추모기념 연주회가 열렸다.

○ 심상건

[두산백과]

국악사(國樂師) · 가야금산조의 명인. 산조와는 다른 정악(正樂)적인 변풍(變風)을 만들어냈다. 국악공로상, 문화포상을 수상하였다.

출생-사망 1889 ~ 1965본관청송(靑松)

출생지 충남 서산(瑞山)

주요수상국악진흥회 국악공로상(1960), 문화포상(1962)

본관 청송(靑松). 충남 서산(瑞山) 출생. 부친 창래(昌來)에게 가야금을 배워 그 성음을 터득하고 가야금산조의 이색적인 유(流)를 만들었다. 즉 다른 산조와 달리 주로저음(低音)을 사용한 정악(正樂)적인 변풍(變風) 등이 그것이다.

8·15광복 전에 레코드 취입을 위하여 일본에 6차례나 다녀왔고, 1946년에는조택원(趙澤元)무용단과 함께 미주(美洲)공연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60년국악진흥회로부터 국악공로상을 받고, 62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상을 받았으며 한때국립국악원의 국악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산조는 주법(奏法)이 까다롭고 연주때마다 새로운 가락이 첨입(添入)되는 등의 이유로 거의 전승자가 없는 실정이나, 일제때 취입한 다수의 음반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정의 근현대 충청남도 서산 출신의 가야금 연주자.

개설

본관은 청송. 할아버지는 피리와 통소를 잘 불었던 심팔록이고, 아버지는 가야금 산조의 명인 심창래(沈昌來)[?~1895]이다. 작은아버지가 가야금 연주자 겸 판소리 명창인 심정순(沈正淳)[1873~1937]이다. 서산 청송 심씨 가문의 예술인으로는 국악 이론가 심재덕(沈載德)[1899~1967], 소리와 병창에 능했던 심매향(沈梅香)[1907~1927], ‘중고제의 마지막 계승자’이며 충청남도 무형 문화재 제27호 승무 기능 보유자인 심화영(沈燮英)[1913~2009], 가수 심수봉(沈守峰) 등이 있다. 심상건(沈相健)[1889~1965]은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으로 즉흥 연주가 가능한 유일한 명인으로 평가 받는다.

활동 사항

심상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인 1895년(고종 32) 아버지 심창래가 죽자 작은아버지인 심정순의 집에서 자랐다. 가야금 즉흥 연주에 능했던 작은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음악인의 길로 들어섰다. 심상건은 저음역에서 시작하여 고음역으로 갈수록 고조되는 연주법을 즐겨 사용하였고, 평조 및 경조의 우람하고 화평한 가락으로 가야금 산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1925년 첫 음반을 냈으며, 1930년대 중반까지 많은 곡을 발표하였다. 녹음한 작품으로는 가야금 산조와 병창 외에, 명창의 소리에 맞춘 가야금 반주, 기악 합주곡도 들어 있다. 1948년 조택원(趙澤元) 무용단과 함께 미국 순회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다.

상훈과 추모

뛰어난 연주 실력과 왕성한 활동으로 1960년 국악진흥회의 국악 공로상, 1962년 문화훈장을 받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생 - 사망1889년(고종 26) ~ 1965년

출신지충청남도 서산

내용

충청남도 서산 출신.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하였다. 흔히 아버지 심창래(沈昌來)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열세살부터 음악을 하였는데 제대로 배운 것은 양금 풍류밖에 없고, 그밖에는 모두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한다.

특히, 가야금산조의 조율법과 가락은 모두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다. 그의 가야금 조율법은 제1현이 일반적인 조율법보다 완전4도 낮고, 제2현에서 제12현까지는 일반적인 조율법의 제1현에서 제11현까지와 같다. 그는 산조를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으로 즉흥연주를 하는 유일한 명인이었다.

저음역에서 시작하여 차츰 고음역으로 고조되는 형식을 즐겨 사용하고, 평조 및 경조의 우람하고 화평한 가락으로 산조에 일대 변풍을 일으켰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산조의 본청(本淸), 즉 주음을 종전의 '징'(제7현)에서 '당'(제5현)으로 완전4도 낮게 내려서 연주하였다.

광복 전 일본에서 6회의 레코드취입을 하였고, 1948년 조택원(趙澤元)무용단과 함께 3년간 미국공연을 하였으며, 1960년 국악진흥회로부터 국악공로상을 받고, 1962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받았다. 한때 국립국악원 국악사도 지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명인. 충청도 서산(瑞山) 출생. 심창래(沈昌來)의 아들.

출생 - 사망 1889년 ~ 1965년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작은 아버지 심정순(沈正淳)의 집에서 자랐고, 13세 때부터 심정순 풍류방에서 가야금을 배우며 자랐고, 심정순이 서울에서 기반을 잡은 뒤 상경하여 1920년대 중반 가야금병창과 가야금산조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음반에 취입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충선·김계선·김봉업 등과 함께 조선음악협회(朝鮮音樂協會)의 조선악부 소속 조선음악단(朝鮮音樂團)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대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해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를 방송했고, 1927년 5월 28일 경성여자미술학교 교우회 주최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 때 김형준·이성환·방용현 등과 함께 출연하였다. 1926~1945년 국본정엽(國本正葉)·국본태순(國本泰順)·김유석 등과 가야금독주·가야금병창·가야금산조·"개고리타령"·"고고천변"(皐皐天邊)·"골패타령"을 포함한 20여 곡의 민요를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다.

일제강점기 그가 취입한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가야금산조(느진중머리·자진중머리·당학·진양도)·"대장부 허랑하여"·"명기명창"(名妓名唱)·"비조가"(飛鳥歌) 등, 그리고 그가 반주한 박월정의 사설시조·평시조 및 지용구와 합주한 "굿거리"는 일축(日蓄)제비표 조선레코드에 전한다. 그가 백점봉·이흥원(李興元) 등과 함께 취입한 가야금독주·가야금병창·늦은중머리·다스름·단가·당학·"몽유가"(夢遊歌) 등 여러 곡은 일본 콜롬비아음반에 전한다. 김덕준(奚琴·玄琴)·김덕진(해금)·김매홍(金梅紅) 등과 함께 취입한 가야금·가야금병창·"객래문아"(客來問我)·"고당상"(高堂上)·"꽃타령" 등 10여 곡의 노래는 일본 빅타음반에 전한다. 그가 취입한 가야금병창·단가·"동풍가"(東風歌)·춘향전은 시에론음반에 전하며, 그가 취입한 가야금산조(옛모리·중머리)·"새타령"·"성지강산"(聖地江山)·"언덕 우에 초동(樵童)이오"·"춘하추동"(春夏秋冬)은 태평음반에 전한다.

1927년 5월 27일 경성여자미술학교 교우회 주최 조선정악대회 때 가야금으로 "소상팔경"을 반주했고, 1927년 12월 21일 경성여자미술학교 주최로 조선정악대회 출연했다. 1928년 2월 21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제1회 공연 때 가야금병창으로 출연하였다. 1928년 10월 14일 처음

으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해 가야금산조를 방송한 후 1945년 6월 15일까지 총 88회나 출연했고, 심상건류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었다. 1928년 3월 9일 유공렬 독창회 때 출연해 가야금병창으로 "소상팔경"·"화담가"(花潭歌)를 공연했고, 1930년 9월 15일 팔도명창대회 때 풍류 공연에 출연했다. 1931년 3월 30~31일 조선음률협회의 제2회 공연 때 가야금병창으로 "초한가" 및 "몽중가"를 공연하였다.

1934년 5월 11일 그는 이동백·강태홍·김동강 등의 발기인과 함께 1934년 4월 24일에 설립한 조선성악원(朝鮮聲樂院)을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로 개칭하여 다시 출범시켰다. 1933년 8월 20일 조선음악학원(朝鮮音樂學院) 설립을 위한 「전통악과 무용의 밤」 때 출연했다. 1936년 9월 15~16일, 25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가극 춘향전 공연 때 옥사정(獄司丁)으로 출연했으며, 1939년 1월 29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창극 춘향전 때 도사령(都使令)으로 출연했다. 1940년 6월 19~20일 제1회 「조선음악전」 때 출연해 가야금병창으로 단가를 공연하였다.

송만갑·김창룡·이동백 등의 사진과 함께 조선음률협회의 명창대회에 출연한다고 『三千里』(1931) 3권 3호의 광고에 소개됐고, 가야금병창으로 시에론음반에 취입한 단가 "노화월"과 춘향전 중 "동풍가"(東風歌)는 『三千里』(1934) 6권 11호에 소개됐다. 『三千里』(1935) 7권 10호에 발표된 오비취의 글 "여창이 본 남류명창"에 소개됐으며, 그의 글 "가야금 줄곧너 삼십년간(三十年間)"은 『三千里』(1935) 7권 10호에 발표되었다.

광복 후 1950년 6·25사변 때 육군 군예대(軍藝隊)의 대원으로 김보남·김천흥·봉해룡 등과 함께 활동했고, 한때 국립국악원의 국악사로 재직하다가 1960년대 초 도미하여 그곳에서 작고하였다. 즉흥성이 강한 충청도제 가야금산조를 연주했지만, 그의 산조는 전승되지 않는다. 1969년 김기수(金琪洙)가 채보한 『한국음악』 제3집에 전하는 그의 가야금산조가 박상근류와 함께 5선보로 채보되었다. 그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었다. 일본과 미국 전국순회공연(1948~1949)을 한 공로로 1960년 국악진흥회가 제정한 제5회 국악상(공로상)을 1960년에 수상하였다.

○ 심창래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의 명인 심상건(沈相健)의 아버지.

심팔록(沈八綠)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아들 심상건에게 가야금산조를 가르쳤다. 가야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金昌祖 1865~1919)와 같은 세대인 심창래는 가야금산조의 제1세대로 알려졌다.

○ 박상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 1905년 ~ 1949년

출신지충청남도 연기

정의1905~1949. 가야금 산조(散調)의 명인.

내용

충청남도 연기 출신. 박팔괘(朴八卦)를 사사하여, 김창조(金昌祖)에서 비롯된 정통파의 산조들과 아주 다른 특색을 지닌 충청제(忠淸制)의 독자적인 가락을 이루었다.

그 가락은 성금연(成錦鸞)에게 전수되어 성금연산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의 가락은 평이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애조를 띠고 있어 어느 가락보다도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산조에 최초로 단모리(세산조시)를 도입하였으며 성금연산조에만 있는 늦은 중중모리의 가락도 그가 남긴 것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명인.

충청남도 연기(燕岐) 출생.

출생 - 사망 1905년 ~ 1949년

일제강점기 박팔괘(朴八卦)에게 사사하여 전라도의 김창조(金昌祖) 계열의 정통파 산조들과 다른 특색을 지닌 충청제(忠淸制)의 독특한 가락을 이루어 대성하였다. 1930년대부터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여 가야금산조를 방송했다. 그의 산조는 성금연(成錦鸞)에게 전승되었다.

박상근류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되었다. 그의 가락은 평이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애조를 띠고 있어 어느 가락보다도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가야금산조에 최초로 단모리(세산조시)를 도입했다. 성금연 산조에만 있는 늦은중중모리의 가락도 그가 남긴 것이다.

1939~1944년 국본정엽(國本正葉)·김재선(金載先)·정원섭(丁元燮) 등과 함께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가야금산조·남도가요(南道歌謠)·단가·병창·산조 등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했다. 그가 취입한 가야금병창·춘향전·"변강수타령"·속요는 일본 콜롬비아음반에 전한다. 1969년 김기수(金琪洙)가 채보한 『한국음악』 제3집에 전하는 그의 가야금산조가 심상건류와 함께 5선보로 채보되었다.

○ 심매향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 성악가(가야금병창). 조선권번(朝鮮券番)·경권번(京券番) 기생. 남도명창·성악가(유행가). 심정순(沈正淳)의 딸. 본명은 심혜영(沈惠英).

출생 - 사망/1907년 ~ 1927년

어려서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과 판소리를 배웠다. 1920년대 중반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상경하여 가야금병창을 연주했고, 음반에 취입하여 이름을 떨쳤으나, 20여 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1925년 가야금병창을 음반에 취입했고, 1926년 기생명창으로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했다. 1927년 4월 일축(日蓄)조선소리판에 "붉은 장미"와 "아아, 작별"을 취입해 우리나라 두 번째 여가수로 등장하였다. 일제강점기 그녀가 취입한 가야금병창·"고목가"(枯木歌)·"골패타령"·"긴육자배기"를 포함한 20여 곡의 민요 및 그녀가 취입한 양금연주의 곡은 일축조선소리판에 전한다. 일제강점기 그녀가 가야금병창으로 취입한 "개구리타령"·"골패타령"·"흥타령" 등 20여 곡의 민요는 『조선레코드총목록』에 전한다.

다) 무용

한성준 한영숙 심화영 김숙자

○ 한성준

[한국전통연희사전]

한성준(韓成俊, 1875?-1941)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고이자 명무(名舞)이다. '성준'은 예명으로, 그의 호적에는 '문필(文必)', 묘비에는 '성진(成鎭)', 『홍성군지』에는 '춘석(春錫)'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모친이 무업에 종사했으며, 판소리 명창 임방울(林芳蔚, 1904-1961) 집안과 사돈지간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한영숙(韓英淑, 1920-1989)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춤과 북에 능했던 백운채(白雲彩)가 그의 외조부이자 첫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광(朝光)』 1937년 4월호에 실린 기사 「고수 오십년」의 "조부(祖父)되시는 자운채씨(自雲採氏)라는 이한테 춤추는 것과 북치는 것을 뵈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이름이나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다.

7세(1881) 무렵 외조부(혹은 조부)에게 춤과 북을 배우기 시작했다. 14세부터 4년간 홍성의 서학조(徐學祖)를 찾아가 줄타기와 땅재주를 익혔으며, 수덕산의 박순조(朴順祚) 문하에서 20세가 넘을 때까지 춤과 장단을 학습했다. 서울에서 활동할 당시, 명고이자 춤과 줄타기의 명인으로 유명했던 강경수(姜敬秀)에게 북을 전수받았다. 한성준의 고법은 강대홍(姜大弘, 가야금산조의 명인 강태홍(姜太弘, 1894-1957)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 김재선(金在先, 1900-?), 김득수(金得洙, 1917-1990) 등에게 전수되었다. 한편 한성준은 근대 전통춤 교육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한영숙, 강선영(姜善泳, 1925-), 김천흥(金千興, 1909-2007) 등의 전통무용가를 제자로 길렀다.

어린 시절 줄타기 등을 배워 충남 홍성을 비롯해 서산, 태안 일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연회와 굿판에 참여했다. 상경 후 이름이 점차 알려지면서, 김창환(金昌煥, 1855-1937), 송만갑(宋萬甲, 1865-1939), 이동백(李東伯, 1866-1949), 정정렬(丁貞烈, 1876-1938) 등 당대 쟁쟁한 국창들의 고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가 판소리 공연에서 북 반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스승 강경수가 타계하면서 강경수가 이전에 맡고 있었던 음반, 라디오, 공연 출연자 섭외를 한성준이 거의 총괄했으며, 지방에 은거 중이던 명창 유공렬(柳公烈, 1859-?)을 서울로 불러들여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국악인들이 설립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임원직도 맡았다.

정노식(鄭魯湜, 1891-1965)이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서 정식으로 소개한 고수는 「고수 한성준(鼓手 韓成俊)」 조의 한성준이 유일하다. 그는 여기서 "고수로서의 천재를 발휘하여 창극계의 일대 조역의 지위를 점령"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영민(李榮珉, 1881-1962)도 『벽소시고(碧笑詩稿)』 중 "가사엔 법도가 있으니(歌詞有法度), 장단이 마땅한 기준이 된다네(長短爲常綱). 그대는 하늘이 낸 재주꾼이기에(君是天才子) 모두들 '소리북의 왕'이라 일컫는다네(皆稱大鼓王)"라는 시를 통해 한성준을 '소리북의 왕'이라 칭한 바 있다. 당대 최고의 명고라는 위상에 걸맞게,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등 최고 명창들의 판소리 음반 및 『폴리돌 심청전 전집』, 『폴리돌 화용도 전집』, 『빅타 춘향가 전집』 등 창극 유성기 음반의 대다수가 그의 북장단에 맞추어 녹음되었다. 산조와 봉장취, 시나위 등의 녹음에서는 장구 반주를 맡았으며, 피리 독주곡(Columbia 40393-B 피리獨奏 神臥爲 韓成俊) 음반도 남겼다.

한성준은 무용계에서 '한국 근대춤의 아버지'로 통하기도 한다. 대원군과 고종 앞에서 춤을 추어 참봉 벼슬을 제수받았으며, 흠어져 있던 전통 무용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해 승무(僧舞), 태평무(太平舞), 학무(鶴舞) 등을 무대화시키는 등 독보적인 활동을 했다. 1938년 5월 2일에 개최된 향토연예대회에서는 승무, 단가무, 검무, 한량무, 신선음악, 상좌무, 살풀이춤, 사자무,

태평무, 학무, 급제무, 사호락무 등을, 같은 해 6월 23일의 고전무용대회에서는 바라무(승무), 한량무, 검무, 단가무, 신선악, 상좌무, 살풀이춤, 사자무, 학무, 태평무, 급제무, 농악, 소경춤, 군노사령무 등을 공연했다.

1939년 2-3월 사이에 이루어진 남선순업공연(南鮮巡業公演)에서는 검무, 한량무, 신선음악, 살풀이춤, 급제무, 태평무, 신장무, 동자무, 노승무, 나도무(羅渡舞), 농악무, 학무, 단가무, 애국행진곡, 군노사령무 등을, 1940년 2월 27일에 열린 도동기념공연에서는 애국행진곡, 동자무, 검무, 단가무, 한량무, 고무(鼓舞), 살풀이춤, 태평무, 사정무, 아리랑무, 도라지타령무, 바라무, 학무, 신선무, 급제무, 농악무 등을 무대에 올렸다. 56세에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하고, 60세에 무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무용연구소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61세에 부민관(府民館)에서 '한성준무용공연회'를 개최한 후 일본 순회공연을 했고, 67세에 소설가 이태준, 화가 고희동과 함께 일본의 모던일본사가 제정한 조선예술상(무용 부문)을 수상했다. 그가 창안하거나 재구성한 춤들은 우리춤 중에서도 탁월하고 정통성 있는 춤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 승무와 태평무는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와 제92호로 지정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 1875년(고종 12) ~ 1941년

성격 고수, 민속무용가 출신지 충청남도 홍성

내용

본관은 청주(淸州). 충청남도 홍성 출생. 한천호의 아들이다. 7세 때부터 외할아버지 백운채(白雲彩)로부터 춤과 북을 배웠다. 14세 때부터 3년간 홍성 서학조(徐學祖)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웠으며, 이어 수덕산의 박순조(朴順祚) 문하에서 20세가 넘도록 춤과 장단공부를 하였다.

1894년 이후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한말에 개관한 원각사(圓覺社) 무대에 출연하게 되면서 서울에 정착하였다. 원각사가 없어지게 되자 협률사(協律社)·연흥사(延興社) 등의 단체에서 지방을 순회공연하였다.

이 때 고수로서 15차의 창방(唱榜: 콩쿠르)을 치렀으며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정정렬(丁貞烈) 등 명창의 고수로 이름을 날렸다. 또한, 이때 궁중무용을 접하면서 뒷날 「태평무(太平舞)」·「학무(鶴舞)」를 만드는 데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하고, 1934년에는 무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무용연구소를 창설하고 제자를 기르는 한편, 1935년에는 부민관(府民館)에서 '한성준무용공연회'를 가졌다. 그 뒤 일본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순회공연함으로써 무용을 일본에 소개하였고, 1941년에는 일본의 모던일본사가 주는 예술상(藝術賞)을 받았다.

주요작품으로는 「태평무」·「학무」·「신선무」·「살풀이춤」·「한량무」·「사공무」·「농악무」 등이 있으며, 제자로는 김천흥(金千興)·김보남(金寶男)·이강선(李剛仙)·

장홍심(張紅心)·한영숙(韓英淑)·강선영(姜善泳)·이매방(李梅芳)·정인방(鄭寅芳)·

진수방(陳壽芳)·김삼화(金三和) 등이 있다.

[한국무용사전]

1874년 출생, 1942년 사망. 명고수이자 민속무용가이다. 일찍이 8살에 복채를 잡은 뒤 17살 무렵에는 명고수로 인정받아 오랫동안 여러 명창과 함께했다. 또한, 그는 무용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져 전통 민속춤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신무용의 선구자가 되었다. 당

시 놀이마당에서나 행해지던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으며,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해 전통무용의 대중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공헌한 것이다. 최승희(崔承喜) 역시 그에게 전통무용을 배워 자신의 창작무용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성준은 특히 학춤에 뛰어났으며 승무, 태평무, 살풀이 등 전통무용을 일본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기도 했다.

[두산백과]

요약 조선 말기의 명고수. 창극의 장단으로 평타령·중모리·진양조·엇모리·휘모리 등에 특히 능했으며 명창·명무(名舞)로도 이름을 떨쳤다. 무용에도 뛰어나 민속무용에 전념하여 흠어져 있던 무용의 체계를 세워 승무(僧舞)·학무(鶴舞)·태평무(太平舞) 등의 여러 무용을 무대화시켰다. 특히 학춤에 뛰어났다.

출생-사망 1874.6.12 ~ 1942.7출생지 충남 홍성

주요수상 모던니폰사 예술상(1941)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8세 때 복채를 잡고 외조부에게 복을 배우다가 뒤에 박순조(朴順祚)에게 사사했다. 17세 때 명고수가 되어 5년 동안 15차의창방(唱榜)을 치르고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정정렬(丁貞烈) 등의 고수를 지냈다. 창극의 장단으로 평타령·중모리·진양조·엇모리·휘모리 등에 특히 능했으며 명창·명무(名舞)로도 이름을 떨쳤고, 1933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 창립자의 한 사람이 되어 후진양성에 힘썼다.

무용에서도 혁신적인 체계와 기초를 세웠는데, 1935년 부민관에서 첫 작품발표회를 가진 이후, 1940년에는 제자들과 함께 일본의 도쿄 히비야공회당에서 공연을 하여일본인들이 조선춤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41년모던니폰사[モダン日本社]가 제정한 예술상을 받았으며, 만년에는 민속무용에전념하여 흠어져 있던 무용의 체계를 세워 승무(僧舞)·학무(鶴舞)·태평무(太平舞) 등의 여러 무용을 무대화시켰다. 특히 학춤에 뛰어났다.

○ 한영숙

[두산백과]

요약 한국의 무용가. 한성준으로부터 춤을 배웠고 한영숙고전무용학원을 개설하여 한국무용을 전수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에 순회공연을 다니고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살풀이춤을 선보이며 한국무용을 세계에 알렸다.

출생-사망 1920.2.2 ~ 1989.10.7 출생지 충남 천안

주요수상 국민포장 대통령장(1970), 국민훈장 동백장(1973)

충남 천안 출생. 12세 때인 1933년 홍성 갈미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상경, 1942년까지경성 조선고전음악무용소에서 춤을 배웠다. 같은 시기에 한국무용의 중시조라 할 한성준(韓成俊)으로부터도 춤을 배우기 시작하여 승무·학춤·태평무·살풀이 등을전수받았고, 이와 함께 해금·가야금 등의 국악기도 익혔다. 1937년 서울 부민관에서제1회 무용발표회를 가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42년 한성준 추도공연을 가졌다. 그해 한영숙고전무용학원을 개설하여 승무·살풀이·태평무·학무 등을 후진에게전수하였다.

1963년 미국 30개주 순회공연을 하였고, 1971년 무용극 《법열곡》을 발표하였으며, 1972년 일본 삿포로(札幌) 동계올림픽 파견공연 및 민첸올림픽 파견공연을, 1975년광복 30주년 일본 순회공연을 가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폐막식에서 살풀이춤으로 한국춤의 진수를 세계에 알렸다.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한국무용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한국 무용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1969년 승무로, 1971년 학춤으로 각각 인간문화재

로 지정되었고, 1970년 국민포장대통령장,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한국무용사전]

1920년 출생, 1989년 사망. 충남 천안 출신의 무용가이다. 한성준(韓成俊)에게 사사해 <태평무>, <학춤>, <승무>, <살풀이춤> 등을 익혔고 여러 국악기도 배웠다. 1937년 첫 번째 무용 발표회를 열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도 뛰어난 춤솜씨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1955년에는 서울에 한국민속예술학원을 개설해 무용 교사로 활동했고, 1960년대 들어 일본과 미국 등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렸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는 <살풀이춤>을 공연해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1969년 승무기예능보유자, 1971년 학춤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능보유자 한영숙의 승무 추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춤의 하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칭별칭호 벽사(碧史)

출생 - 사망 1920년 2월 2일 ~ 1989년 10월 7일

출신지 충청남도 천안

대표관직(경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기예능보유자, 제40호 학춤기예능보유자

호는 벽사(碧史). 충청남도 천안출생. 13세때 할아버지 성준(成俊)으로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첫 무대공연으로 1937년 10월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한성준무용발표회에서 승무·학춤·살풀이춤 등을 추어 관중의 갈채를 받았다.

1942년 할아버지가 죽은 뒤 한성준무용연구소를 한영숙무용연구소로 개칭하고 한성준류의 춤을 이어갔다. 1955년에는 박귀희(朴貴姬)·박초월(朴初月)과 함께 서울 돈암동에 한국민속예술학원을 개설하고 무용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학원은 그뒤 1960년대에 국악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악예술학교로 개편되어 민속음악과 민속춤을 가르쳤다.

1962년 제일교포 위문공연을 비롯하여, 1964년에는 삼천리가무단의 일원으로 미국공연에서 우리나라 고전무용의 아름다움을 과시하였으며, 1966년에는 무용생활 35년 기념공연을 하였다. 1969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기예능보유자로, 1971년에는 제40호 학춤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을 후학들에게 가르쳤고, 개인연구소에서의 지도는 물론, 국악예술학교·서라벌예술학교·이화여자대학교·울예술전문학교·수도여자사범대학 강사를 거쳐 1981년에는 세종대학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 나라 고전무용을 가르쳤다. 1967년 서울특별시문화상, 1970년 서울신문사 제3회문화상,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 1980년 대한민국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한국향토문화대전]

정의 충청남도 천안 출신의 고전 무용가.

한영숙(韓英淑)[1920~1989]은 국가 무형 문화재 제27호 승무[1969년 7월 4일 인정, 1989년 10월 7일 사망 해지]와 제40호 학무[1971년 1월 8일 인정, 1989년 10월 7일 사망 해지] 외에도 살풀이춤과 태평무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벽사(碧史) 한영숙은 천안에서 출생한 근대적 창작 무용의 효시이며 민속춤의 대가인 한성준(韓成俊)의 종손녀이다. 1930년 11세 되던 해에 큰할아버지인 한성준을 따라 상경하여 13세부터 춤을 배웠다. 조선 음악 무용 연구소에서 양금과 해금을 익혔으며, 승무·검무·살풀이춤·

바라춤·태평무·한량춤·학춤 등을 배웠다.

1935년 7월 부민관에서 무용 발표회를 가졌으며, 이후 일본·만주·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지로 순회공연을 다녔으며, 1942년 한성준이 죽은 후 예술 단체에 들어가 일본을 비롯한 만주 지방과 전국 순회공연을 가졌다.

1946년 한영숙 고전 무용 연구소를 설립해 후진을 양성했고, 한국 국악 예술 학교[현 서울 국악 예술고]·서라벌 예대·이화 여대·서울 예고·서울 예전·서울 시립 무용단 등에서 후학을 지도했다.

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과 뮌헨 하계 올림픽에 민속 예술단으로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식 공연에서 살풀이춤을 추어 한국 춤의 진수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저술 및 작품

승무는 한영숙이 1969년 처음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1987년 이매방, 1996년 이어주, 2000년 정재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영숙의 승무와 학춤, 태평무, 살풀이춤은 사군자(四君子)의 품격과 멋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훈과 추모

국가 무형 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이며, 제40호 학춤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67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1970년 서울 신문사 제3회 문화상, 1970년 국민 포상 대통령상, 1971년 제3회 문화 예술상, 1973년 국민 훈장 동백장, 1980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 심화영

[한겨레음악대사전]

요약/성악가(판소리). 여류명창. 서울 출생. 심정순(沈正淳 1873~1937)의 딸이자 심재덕(沈載德)의 동생.

출생/1913년

18세 때 큰오빠 심재덕에게 영산회상 및 춘향가와 흥보가 등을, 정해시에게 가락도드리를 배웠고, 처음에 양금을 배운 후 시조(내포제)를 학습했으며, 다음으로 판소리와 승무를 동시에 익혔다.

할아버지 심팔록(沈八祿)은 가야금명인이었고, 큰아버지인 심창래(沈昌來)는 가야금 풍류음악의 명인이었으며, 사촌오빠 심상건(沈相健)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이었다. 2000년 1월 11일 충남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27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 김숙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생 - 사망 1927년 ~ 1991년

출신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리

정의

해방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경기도 도당굿 도살풀이)」의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 전통무용가.

개설

호는 매헌(梅軒). 경기도 안성 보개면 출생.

생애와 활동사항

김숙자의 조부 김석창(金碩昌)은 경제(京制) 명창이었고, 부친 김덕순(金德順)은 판소리, 경기 무악, 민속악의 재인으로 화성 재인청과 안성 신청에 속했으며, 모친 정귀성(鄭貴星)은 세습무계열이었다. 6살부터 아버지에게 판소리와 춤, 무속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1세부터는 줄타기도 배워 17세까지 줄을 탔다. 1942년 안성 여녀리굿판 이후 굿이 금지되면서, 숨어다니면서 아버지에게 기예를 배웠고 수원권번 소리선생 조진영(趙鎭英)에게 소리와 춤도 배웠다.

1946년에 서울에서 무용연구소를 냈으나 경영이 어려웠고, 1961년 대전에서 국악학원 시절에 창무극 「이순신」으로 문공부 주최 전국신인국극경연대회에서 수상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1963년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 김숙자민속무용학원을 차리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1976년에 이르러 정병호와 심우성의 주선으로 올린 공간사랑의 공연에서 올림채, 터벌림, 진쇠, 제석춤, 부정놀이, 군웅춤을 추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9년에 한국무속예술보존회를 창립해서 매년 무속예능인을 공연하게 하였고, 본인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공연을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와 세 번의 대수술을 치렀지만 다시 무대에 섰고, 199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경기도 도당굿 도살풀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숙자의 춤은 무대쪽에서 보면 굿판에 가깝고, 굿쪽에서 보면 무대와 가깝다. 김숙자 사후 김운선과 양길순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상훈과 추모

2003년 옥관문화훈장

[한국무용사전]

1927년 출생, 1991년 사망. 경기도 안성 출신의 무용가이다. 어린 시절부터 재인(才人)이었던 아버지에게 춤과 판소리를 배웠다. 1962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주최한 예술제에서 창무극(唱舞劇) <이순신>으로 상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살풀이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살풀이춤>에 뛰어나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두산백과]

요약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 국악인. 살풀이춤 중에서도 경기도 살풀이춤에 특히 뛰어났는데 도살풀이춤 혹은 경기도 살풀이춤 하면 곧 김숙자류 살풀이춤을 가리킨다.

출생-사망 1927.11.27 ~ 1991.12.23

출생지경기 안성

주요수상

문화공보부 주최 종합예술제 신인경연대회 대상(1962)

1927년 경기도 안성(安城)의 세습 무가(巫家)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김석창(金碩昌)은 판소리 경제(京制)의 명창이었고, 아버지 김덕순 역시 화성(華城)·안성의 재인청(才人廳)에서 예인(藝人)들을 가르친 판소리와 춤의 명인이었다.

김숙자는 6살 때부터 이런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10여 년간 판소리·기본춤·무속춤 등을 익힌 뒤, 17살 때 아버지의 친구인 수원 권번(券番)의 조진영에게 《육자배기》와 춤을 배웠다. 1962년 창무극 《이순신》으로 문화공보부가 주최한 종합예술제에서 신인경연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 개인발표회를 갖지 못하다가 1976년에야 비로소 정병호(鄭炳浩)·심우성(沈雨晟)의 도움으로 첫 발표회를 가졌다.

1979년 한국무속예술보존회를 창립하고, 1987년부터는 서울예술전문대학(현 서울예술대학)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1990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살풀이춤 중에서도 경기도 살풀이춤에 특히 뛰어났는데, 이매방(李梅芳)의 살풀이춤을 가리켜 호남류라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살풀이춤 혹은 경기도 살풀이춤 하면 곧 김숙자류 살풀이춤을 가리킨다. "단정하게 빚어 내린 쪽진 머리에, 허리를 동여맨 흰 치마저고리, 두 발이 넘는 긴 명주수건을 목에 두르고 추는 살풀이춤에는 서민들의 한을 토로하는 혼이 깃들여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중고제 연구 및 전승 현황

1) 중고제 연구현황

가) 단행본

(1) 『충청의 판소리 중고제 - 지역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조명』⁵¹⁾

제1장 판소리의 역사

1. 판소리의 원류, 충청지역
2. 판소리 이야기의 전승과 지역공간
3. 잃어버린 소리와 지역 기반
4. 판소리의 발달과 충청 지역

제2장 중고제 판소리란

1. 중고제의 뜻과 지역범위
2. 중고제의 전승과 연구과제

제3장 중고제 판소리 명창과 지역성

1. 충청지역 판소리의 지향과 특성^{*}
2. 충청지역 명창과 지역 문화
3. 중고제 소리의 특징
4. 중고제 손리의 지형도와 역사성

51) 『충청의 판소리 중고제 - 지역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조명』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책소개

충청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판소리인 중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이다. 판소리에 대한 생성, 발달, 지역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중고제의 개념, 현재 전해지고 있는 중고제 관련 판소리 명창들의 유적과 전승 내용 등을 두루 살피고, 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문학박사). 고전문학과 판소리, 전통예술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목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2000), 『판소리의 전승과 연행자』(2003), 『고전 서사문학의 문화론적 인식』(2009), 『판소리 유파의 전승 연구』(2012), 『충청의 판소리, 중고제』(2020), 『우리 노래로 스토리텔링하기』(2020) 등이 있고, 판소리와 고전 산문에 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제4장 중고제 판소리와 지역문화콘텐츠

1. 흥성
2. 서산
3. 서천
4. 공주
5. 논산
6.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과제

제5장 중고제의 전승과 판소리의 미래

(2)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52)

제1장 호걸제/중고제/동편제/서편제 비교

1. 초기 판소리, 호걸제/중고제 판소리의 특징
2. 동편제의 탄생과 발전, 고음반에 담긴 동편제 특성
3. 서편제 판소리란 무엇인가

제2장 중고제에 관한 명인명창들 증언

1. 이동백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2. 이동백 명창과 한성준 명고수의 대담 내용
3. 김창룡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4. 국악인 심재덕 명인의 중고제 관련 증언
5. 박록주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6. 정광수 명창이 기록하고 증언한 중고제
7. 김연수(여자)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8. 가야금 명인 김죽파와 그의 여동생 판소리 명창 김은희의 중고제 관련 증언
9. 중고제 소리/춤 명인 심화영과 국악학자 이보형의 대담 내용
10. 김명환 명고수의 중고제 관련 증언

52) 노재명,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채륜, 2012)

자연을 닮은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 명창, 그리고 자료 등을 망라하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경기권과 충청권에서 전승되어 성행하다가 지금은 소멸된 중고제의 맥을 되짚어보면서 그가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나아가 충청도 고유의 음악문화를 되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노재명은 국악음반박물관 관장,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 “판소리 명창” 발행인, 국악음반박물관 가무악단 단장,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 국악 음반과 서적 총 400여종 기획 제작,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국악 자료 63,000여점 수집, 정리, 국악 음반 세계 최다 보유, 22년에 걸쳐 국악자료 집성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의 여러 음악 중에서 유일하게 국악 분야만 국악음반박물관에 의해 모든 음반이 정보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었고 1986~2005년 20여년 동안 국악 음반 사전 7권(장르별 총 3,000여쪽) 완간, 중고제 공연, 국악 고음반 전시회, 국악 유성기음반 복원 연주회, 판소리 3명창 특별공연, 귀명창대회, 적벽가 연속 감상회, 판소리 명창의 발자취를 찾아서, 소리MC 선발대회, 100개의 별 전주에 뜨다(명인명창 전주에 모이다) 행사, 한국 방짜 국악기 전시회 등 기획, 주요 저서로는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2006년) 등 30여종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판소리 명창 이선유의 음반에 관한 연구”(1991년) 등 30여편이 있다.

11. 박동진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2. 김소희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3. 한승호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4. 국악인 성경린 명인의 중고제 관련 증언
15. 나성엽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6. 박홍남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7. 박복남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8. 홍정택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19. 박보아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20. 전통춤 명인 장홍심의 중고제 관련 증언
21. 전통춤 명인 강선영의 중고제 관련 증언
22. 전통춤 명인 장금도의 중고제 관련 증언
23. 판소리 귀명창 김길희의 중고제 관련 증언
24. 박송희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25. 김화선(김여막)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26. 성우향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27. 이일주 명창의 중고제 관련 증언

제3장 호걸제/중고제, 충청도 명창

1. 황해천 / 2. 염계달 / 3. 방만춘 / 4. 방진관, 방응규 / 5. 고수관
6. 김성옥 / 7. 김정근 / 8. 김창룡 / 9. 김창진 / 10. 김세준
11. 김차돈 / 12. 김제철 / 13. 이석순 / 14. 최남청 / 15. 송수철
16. 임창학 / 17. 정춘풍 / 18. 한송학 / 19. 윤영석 / 20. 정흥순
21. 최상준 / 22. 백점택 / 23. 백점봉 / 24. 이창운 / 25. 황호통
26. 박상도 / 27. 김충현 / 28. 김봉학 / 29. 김석창 / 30. 김덕순
31. 김숙자 / 32. 유공렬 / 33. 이동백 / 34. 김봉문 / 35. 심정순
36. 심재덕 / 37. 심매향 / 38. 심화영 / 39. 박동진

제4장 역대 충청도 명고수

1. 한성준 / 2. 지동근 / 3. 박요용

제5장 서천 명창들의 판소리

1. 판소리 명창 이동백 단가 연구
2. 판소리 명창 이동백의 잡가 새타령 고찰
3. 이동백 명창의 판소리 눈대목 해설
4. 판소리 명창 이동백 관련 주요 문헌기록
5. 김창룡 명창의 단가와 판소리 눈대목 해설
6. 판소리 명창 김창룡 민요 성주풀이 유성기음반 고찰
7. 김창룡 일가 중고제 판소리 전승 계보
8. 판소리 명창 김창룡 연보
9. 판소리 명창 나성엽

제6장 중고제 관련 최근 주요 행사

1. 판소리 명창 이동백 전시회와 기념 음반/책자 발간
(2003년, 전시자료/녹음/원고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2. 중고제 판소리 명창 이동백 추모문화제
(2004년, 노재명 강연)
3. 판소리 명창 이동백에 대한 특강
(2005년, 노재명 강의)
4. 명인 명창의 발자취를 따라서
(충청도 편, 판소리 중고제 유적지 순례공연, 2007년, 노재명 기획)
5. 중고제 판소리 시연회
(2011년, 노재명 해설)
6. 노재명의 중고제 소리여행
(2011년, 국악음반박물관 기획)
7.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2012년, 국악음반박물관 기획)

제7장 중고제 사진/공연 인쇄물 등 자료 모음

(3) 『꽃피는 중고제 판소리』 53

제1장 중고제 명칭 유래와 소리 특징

1. 중고제 명칭 유래, 중고제가 위축된 이유
2. 중고제 판소리 특징
3. 판소리 공연 양식과 독창성, 판소리 정신
4. ‘중고제 충청소리제’ 탄생 의의와 방향

제2장 호걸제·중고제, 충청도 명창들

1. 황해천 2. 염계달 3. 방만춘 4. 방진관·방응규(방응교)
5. 고수관 6. 김성옥 7. 김정근 8. 김창룡
9. 김창진 10. 김세준 11. 김차돈 12. 김제철
13. 이석순 14. 최남청 15. 송수철 16. 임창학
17. 정춘풍 18. 한송학 19. 윤영석 20. 정흥순

53) 노재명, 『꽃피는 중고제 판소리』 (채륜, 2016)

책소개

자연을 닮은 소리, 개성 넘치고 밝고 우아한 소리, 되살리고 싶은 한국의 소리!

바로 중고제 판소리이다. 획일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남들만큼만 하고 살기 바쁜 현대사회. 이러한 상황에서 옛 중고제는 각 명창들마다 개성이 살아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개인의 특성이 존중되는 자연미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 셈이다. 사람마다 지닌 고유의 장점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중고제의 미학이 현대인의 삶을 더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 책이 중고제의 뿌리를 찾고 잃어버렸던 예술혼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1. 최상준 22. 백점택 23. 백점봉 24. 이창운
25. 황호통 26. 박상도 27. 김충현 28. 김봉학
29. 김석창 30. 김덕순 31. 김숙자 32. 유공렬
33. 이동백 34. 김봉문 35. 심정순 36. 심재덕
37. 심매향 38. 심화영 39. 박팔괘 40. 박동진

제3장 심정순 일가 전통가무악 자료 현황과 보존 방안

1. 판소리·가야금 명인 심정순 음반 현황
2. 가야금·거문고·아쟁·양금·해금·병창 명인 심상건 음반 현황
3. 가무악 명인 심매향 음반 현황
4. 가무악 명인 심화영 음반 현황
5. 심정순·김창룡 일가 전통가무악 등 중고제 자료 보존 방안

제4장 역대 최고의 명창, 공주 양반 광대 정춘풍

1. 동편제 3대 계파, 송흥록·김세종·정춘풍 명창 계보의 판소리 차이점과 특징
2. 가왕 송흥록, 그리고 가신 박기흥의 스승 정춘풍, 과연 누가 소리의 최고봉인가

제5장 새로 발굴된 중고제 관련 자료들

1. 중고제 명창 김창진 유성기음반
2. 중고제 명창 심매향 신유행가 유성기음반
3. 중고제 명창 김정근의 특장 무속이타령 사설 완전한 상태로 발견
4. 중고제 명창 신경봉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5. 중고제 명창 이동백 단가 진국명산 유성기음반

제6장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공연 내용과 해설

1.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공연 순서, 곡목, 해설
2.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공연 출연진 소개

제7장 중고제 자료 모음

더하기 중고제 판소리 - 붙임자료 CD 수록곡 가사와 해설 글

CD 수록곡 순서(선곡·고증·가사 채록·글·노재명)

1. 이동백 잡가 새타령(1935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2. 김창룡 도창 창극 춘향전 중 어사 출도
(1934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3. 김창진 판소리 춘향가 중 몽중가(1931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4. 김세준·김소희·조명수·임소향 민요 성주풀이
(1936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5. 김차돈 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1934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6. 심정순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1911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7. 심상건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긴 사랑가
(1930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8. 심매향(소리) 김해선(가야금) 춘향가 중 자진 사랑가
(1925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9. 심화영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중류(2001년 녹음, 음원 제공_이애리)
10. 심태진·이애리 수궁가 중 가자 어서 가
(노화월, 심상건제, 2014년 녹음, 음원 제공_이애리)
11. 심태진 민요 남원산성(2014년 녹음, 음원 제공_이애리)
12. 백점봉 단가 별조 유람가(1928년 녹음, 음원 제공_국악음반박물관)

(4) 『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54

54) 국악음반박물관, 『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채륜, 2016)

책소개

국악음반박물관의 판소리 명창 시리즈 제6호. '판소리 명창'은 국악음반박물관에서 시리즈로 펴내는 '판소리 자료 전문 집성지'였는데 본래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제4호부터 개편을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책에는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연구회가 전국을 누비며 만난 판소리 명창 혹은 유망주들과의 대담, 평론, 판소리계 주요 소식, 명인·명창들과 관련된 희귀 자료 등 방대한 판소리 관련 자료가 수록되는데 매호마다 수록되는 자료와 주요 주제가 달라져 그 가치를 높인다.

이번 6호에는 송순섭, 최승희 명창과의 대담 내용과 함께 박록주, 김효순의 유성기 음반 가사지 그리고 명인 명창들이 남긴 고음반 자료와 각종 흔적들이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중고제 판소리를 살리기 위해 펼친 각종 활동을 모아 담아 눈길을 끈다. 제5호부터는 붙임자료로 오디오 CD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제6호에서는 아주 희귀한 음원 자료인 20세기 초반 명창들(송만갑, 신경봉, 오태선, 이동백, 신경연)의 소리를 복각해 담아내어 소장가치가 높다.

저자소개

국악음반박물관 관장,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이며 국악음반박물관 부설 세계민속음악연구소(조지아 위치), 세계민속음악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중고제 공연, 국악 고음반 전시회, 국악 유성기음반 복원 연주회, 판소리 3명창 특별공연, 귀명창대회, 적벽가 연속 감상회, 판소리 명창의 발자취를 찾아서, 소리MC 선발대회, 100개의 별 전주에 뜨다(명인명창 전주에 모이다) 행사, 한국 방짜 국악기 전시회, 한국-실크로드 국제 아리랑 축제, 지영희 특별전 등을 기획 연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위원, 나라음악큰잔치 기획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래머로서 총괄 기획을 하였고 KBS, 국악방송 MC로 20여 년간 활동하였다. 국악과 함께 30여 년간 한국대중음악,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연구 작업도 해오고 있다. 국악 음반과 서적 총 400여 종을 기획 제작하였고 주요 논문 30여 편, 주요 저서 30여 종이 있다.

국악음반박물관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국악 자료 63,000여 점을 수집, 정리하였다.(국악 음반 세계 최대 보유) 국악음반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 국악은 나라 음악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상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뿐 아니라 한국대중음악, 세계 각국 민속음악까지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에 두고 모으고 연구, 관리하는 분야는 한국전통음악이다.

27년에 걸쳐 국악자료 집성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국의 여러 음악 중에서 유일하게 국악 분야만 국악음반박물관에 의해 모든 음반이 정보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었고 1986~2005년 20여 년 동안 국악 음반 사전 7권(장르별 총 3,000여 쪽)을 완간하였다.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 『판소리 명창』(2005년~)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국악음반박물관 홈페이지(HEARKOREA.COM)에 소장 자료를 DB 구축 중이며 국악음반박물관 인터넷 TV 방송(HEARKOREATV.COM)을 통해서 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희귀 유성기음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전 세계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06 중고제 판소리 살리기 노력

-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공연 방송
-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서적 보도 기사
- 중고제 명가문 심화영 명인 추모 공연
- 청송 심씨 가문 중고제 판소리·가야금병창 연주회
- 충청도 중고제 판소리 특집 기사(제1~5편)
-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노재명 견해 보도 기사
- 중고제 판소리 관련 노재명 인터뷰 방송 내용
- ‘충청의 소리, 중고제를 만나다’ 노재명 대담 방송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중고제 자료, 노재명 인터뷰 보도 내용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중고제 김창진 판소리 음반 보도, 노재명 인터뷰 기사
- ‘귀명창과 매니아 - 판소리의 이해’(중고제 판소리를 아시나요) 강연
- 노재명 ‘중고제 판소리를 아시나요’ 강연 보도 기사
- 국악방송 ‘해방 공간의 국악’ 다큐멘터리 노재명 인터뷰 방송
- 충청남도 ‘중고제 복원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국악방송 국악지식콘서트에서 노재명 ‘평택의 향토음악과 지영희 명인’ 강연
- 충북문화관에서 노재명 ‘중고제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 강연
- 중고제 판소리 관련 노재명 인터뷰 기사
- 평택시립장당도서관에서 노재명 ‘판소리 근대 5명창, 중고제 국창 이동백’ 강연
- ‘한국 음악 기행-조선의 선율, 왕의 음악이 되다’ 방송
- ‘중고제를 아시나요’ 방송
- 『심화영 소리 이야기』 발간
- 충청남도 ‘중고제 복원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개별 자문회의’
- 노재명 ‘평택과 중고제 판소리’ 특강
- 국악음반박물관에 ‘중고제 판소리관’ 신설
- 무속이타령 사설 기록된 『계우사』 필사본 완전 상태 첫 발견
붙임자료-CD 해설
- CD 수록곡 순서(선곡_노재명)
 - ① 송만갑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1906년 녹음)
 - ② 신경봉 가야금병창 단가 <노인가>(1906년 녹음)
 - ③ 오태선 평시조 <녹양이>(1906년 녹음)
 - ④ 이동백 단가 <진국명산> (1)(1915년 녹음)
 - ⑤ 이동백 단가 <진국명산> (2)(1915년 녹음)
 - ⑥ 신경연 남도민요 <새타령> (1)(1915년 녹음)
 - ⑦ 신경연 남도민요 <새타령> (2)(1915년 녹음)

(5) 『백제권 충남지방의 민속과 문학』 55)

주요 내용

55) 사재동, 『백제권 충남지방의 민속과 문학』 (중앙인문사, 2006)

광대의 전국적 조직의 본부가 충남에 위치해 있었고, 충청도(公淸道)의 재인이 그 조직체를 통할(統割)하는 도산주(都山主)와 도대방(都大房)의 소임을 맡았는가 하면, 충남지방에서 하한담·하한돌(목천)·최선달(홍성 결성)·만화·유진한·하은담·고수관(서산 해미)·송인영·임춘학(서천 한산)·이봉국·김난득·손훤출·염수·방만춘(서산 해미)·김성옥(논산 강경)·김제철·최낭청·송수철(청양)·정춘풍·김정근(논산 강경)·윤영석(당진 면천)·정흥순·최상준(서천 한산)·백점택(연기)·황호통(공주)·박상도·강재만(금산)·김석창·이동백(서천 종천)·김창룡(서천 장항)·김봉문(서산) 등 판소리계의 기라성 같은 인재(명창과 후견 문사)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판소리는 충남의 부여·공주·논산·연기·서산·서천·당진·금산·천안·목천에서 연원해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

(6) 『금산 물떼기 농요 결성농요』 56)

1 장 | 금산 물떼기농요의 유래

1. 지리적 배경
2. 역사적 배경
3. 물떼기농요 발굴과 전승 배경

2 장 | 금산 물떼기농요 개관

1. 농사일정과 두레
2. 두레풍장
3.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농요
4. 물떼기 마을의 농요

3 장 | 금산 물떼기농요 실연 과정

1. 토신고사
2. 모심는 소리
3. 두령밧기
4. 아시매기(초벌매기)
5. 두벌매기 (재벌매기) 1 - 긴방아소리
6. 두벌매기(재벌매기) 2 - 잣은방아소리와 째는 소리
7. 장원놀이

4 장 | 전승현황

1. 금산물떼기농요보존회
2. 물떼기농요 예능보유자들

56) 안용산, 김영운, 『금산 물떼기농요 결성농요』 (민속원, 2011)

책소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기록한 『금산 물떼기농요·결성 농요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 20호』. '2010년 충남민속문화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한 기록도서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금산 물떼기농요'뿐 아니라, 제20호 '결성 농요'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원형을 보존하며 올바른 전승의 기초를 삼을 뿐 아니라, 홍보와 기록의 자료로 보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6) 『결성농요』

- 1 장 | 결성 농요 개관
 - 1. 결성 농요의 지역적 배경
 - 2. 결성 농요의 발굴과정
 - 3. 결성 농요의 무형문화재 지정

- 2 장 | 결성 농요의 내용
 - 1. 결성 농요의 구성
 - 2. 결성 농요의 사설

- 3 장 | 결성 농요의 음악적 특징
 - 1. 모내기
 - 2. 김매기소리 - 건쟁이소리
 - 3. 푹매기 - 가래질소리
 - 4. 아시벌매기 - 초벌매기
 - 5. 실참놀이 - 지계상여소리
 - 6. 만물
 - 7. 일을 마치고 행진

- 4 장 | 결성 농요의 악보

- 5 장 | 결성 농요의 전승현황

미주 | 참고문헌

(7) 『민요 설화 구비전승- 말로 전해오는 문학』 57)

- 1. 민요
 - 부여 세도면 논농사소리와 산유화가- 배인교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 결성농요- 김영운 (한양대학교 교수)
 - 서해안의 어업노동요배인교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 중고제 판소리 창시자 김성옥과 금강유역 판소리 - 박성환(국립창극단원)
 - 명창 고수관과 서산 지역의 판소리 문화 - 유영대(고려대학교 교수)

57) 『민요 설화 구비전승 - 말로 전해오는 문학』 (민속원, 2011)

책소개

「충청남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제5권 『민요 설화 구비전승』. 이 시리즈는 충남 민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80여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총 5권으로 발간하였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하는 일생의례, 가정과 마을에서 모셔지는 개인 및 공동체 신앙·무속신앙 등을 포함한 민간신앙, 일년을 생활하면서 각 절기마다 거행되는 세시풍속, 농업·어업·상업 등의 생업과 의·식·주 생활,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민요 등의 구비전승 등 민속학의 제 분야를 총망라하였다.

이동백의 생애와 예술세계 - 유영태(고려대학교 교수)

2. 설화·구비전승

충남의 풍수지리 이야기 - 오석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금강에 얽힌 옛이야기 - 강현모(한양대학교 강사)

공주公州와 곰 전설 - 김균태(한남대학교 교수)

계룡산 설화에 나타난 민중 정서 - 정희정(한남대학교 강사)

부여지역의 백제 멸망 전설 - 김균태(한남대학교 교수)

부여 충화면의 계백장군과 팔충신 - 이필영(한남대학교 교수)

논산 연무읍의 진훤[甄萱] 전설 - 황인덕(충남대학교 교수)

매죽헌 성삼문 설화 - 황인덕(충남대학교 교수)

토정 이지함과 아계 이산해 전설 - 황인덕(충남대학교 교수)

부여와 민란의 장수 이몽학 - 강현모(한양대학교 강사)

홍길동과 공주이야기 -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8) 『한국의 고전과 공연예술』 58)

목차

제1부 방법론적 총론

제1장_ 공연문화학의 과제와 전망13

1. 서론13
2. 공연문화학의 원전 확충15
3. 공연문화학의 방법론적 전망24
4. 결론31

제2장_ 한국희곡의 원전과 연구 방향33

1. 서론33
2. 한국희곡의 개념과 장르체계35
3. 한국희곡의 원전과 영역49
4. 한국희곡의 연구 방법과 방향65
5. 결론72

제3장_ 한국희곡사 연구의 방법론적 전망74

1. 서론74
2. 한국연극사의 전개와 극본 실태77

58) 사재동, 『한국의 고전과 공연예술』 (소명출판, 2018)

책소개

그간의 문학, 희곡의 연구는 공연예술과 무관하게 진행되거나 공연예술의 탐구가 문학, 희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 책은 문학, 희곡의 연구가 문학을 중심으로 그 예술적 공연 양상까지 추적하고, 공연예술의 탐구가 공연을 주축으로 그 극본, 희곡의 실상까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희곡문학, 불교문학, 강창문학의 개념과 또한 그 작품들을 통해 한국문학과 공연예술의 '둘이면서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3. 한국희곡의 장르적 실상85
4. 한국희곡사의 전개 과정 127
5. 결론163

제4장_ 한국음악 관계 문헌의 희곡학적 고찰167

1. 서론167
2. 음악 관계 문헌의 유형과 성격170
3. 음악 관계 문헌의 희곡적 실상194
4. 음악 관계 문헌의 예술사적 위상204
5. 결론210

제2부 불교문학과 공연예술

제1장_ 불교문학의 예술적 전개215

1. 서론215
2. 불교문학의 실상과 흐름218
3. 불교미술의 실상과 전개221
4. 불교음악의 실상과 전개224
5. 불교무용의 실상과 전개225
6. 불교연극의 실상과 전개227
7. 결론230

제2장_ 불교연극의 형성과 전개231

1. 서론231
2. 불교연극의 형성과 유통236
3. 불교연극의 장르적 실상242
4. 결론261

제3장_ 불교고사의 소설·희곡적 전개265

1. 서론265
2. 불교고사의 변문적 유전267
3. 불교고사의 소설적 전개277
4. 불교고사의 희곡적 연진286
5. 결론296

제3부 강창문학과 공연예술

제1장_ 가요전설의 희곡적 전개 - 향가전설을 중심으로301

1. 서론301
2. 가요전설의 형성과 성격303
3. 가요전설의 문학적 실상317

4. 결론331

제2장_ 강창문학의 희곡사적 전개334

1. 서론334
2. 강창문학의 중국적 배경337
3. 강창문학의 한국적 형성 전개354
4. 강창문학의 구조 형태391
5. 강창문학의 유통 양상399
6. 강창문학의 희곡사적 위상410
7. 결론418

제3장_ 강창문학의 판소리적 전개423

1. 서론423
2. 강창문학의 전통과 근본적 실상426
3. 강창문학의 연행과 판소리와 관계460
4. 강창극의 변모와 판소리의 전개478
5. 결론485

제4장_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위상489

1. 서론489
2. 판소리의 개념과 장르493
3. 판소리의 형성과 전개499
4. 판소리의 연극적 실상519
5. 판소리의 예술·문화사적 위상549
6. 결론568

(9) 『심정순 판소리 심청가 텍스트 읽기』 59)

59) 박정임, 『심정순 판소리 <심청가>텍스트 읽기』 (수동예림, 2018)

책소개

문화콘텐츠 창작소재개발 총서_2 판소리 귀명창들을 위한 《심정순 판소리<심청가>텍스트 읽기》. 박정임의 교열과 김용범의 교감으로 발간한다.

창극이나 완창 판소리 공연의 무대에서 소리를 즐기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감하고 감동하고 객석의 향유자들 우리는 이들을 '귀명창'이라 부른다. 오늘까지 판소리가 맥맥하게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객석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귀명창들 덕이 아니었을까. 이들을 위해 창본을 정리한 책이다.

이총서의 핵심은 교열본에 있다. 창본은 원래 판소리 창자들의 리브레토이다. 이것을 읽기 텍스트로 전환하여 풀 텍스트를 읽음으로서 각각 계통을 달리하는 판소리의 전승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토리라인 중심의 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작업으로 창본 텍스트가 지닌 구어체 기술의 말맛을 최대한 살리며 다듬어낸 것이다. 뒤이어 교주 및 주해는 문자 정착 원본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다듬었다.

저자소개

박정임경기대에서 청소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89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약간의 외도기간을 제외하곤 줄곧 기자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기일보 문화부장, 경제부장, 지역사회부장을 지냈고 미디어본부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자문위원, 경기도보육정책포럼 부회장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장 인트로 - <심청가>의 맥락(脈絡)

1. 머리말

2. 검색 1단계

3. 검색 2단계

4. 심청전의 다양한 판본

2장 판소리 <심청가>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한걸음 더 나아가기

1. 심청가의 근원설화

2. 원흥장과 광음사 연기설화의 내용

3.창극으로 즐기는 <심청가>

4.<심청가> 이해의 첩경(捷徑). 또는판소리의 흐름과 맥락

3장 심정순 창본 심청가 텍스트 읽기

1. 교열본 - 심정순 창본 심청가 텍스트 읽기

2. 심정순 창본 심청가주해(註解)

4장 심정순 약전 略傳

나) 학술논문

<일반논문>

- 이보형. "유파개념의 중고제와 악조 개념의 중고제." 판소리연구.23 (2007): 337-371.
- 정병헌. ""중고제(中古制)"판소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 지식과 교양 -.3 (2019): 9-24.
- 정병헌. "중고제 판소리의 대중화 방안." 공연문화연구 0.36 (2018): 29-43.
- 전지영. "판소리 중고제의 제설(諸說)과 정의에 관한 재검토." 이화음악논집 10.1 (2006): 199-216.
- 김석배. "중고제 판소리와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판소리연구 0.49 (2020): 47-80.
- 김석배. "박동진의 판소리와 소리판의 미학." 무형유산 0.9 (2020): 63-90.
- 김석배. "박동진 명창의 삶과 현대 판소리사에서의 위상." 무형유산 0.7 (2019): 131-157.
- 김석배. "박동진 명창의 예술 활동." 민속학연구 0.43 (2018): 219-254.
- 신은주. "중고제 심청가 범피종류 연구." 판소리연구 0.27 (2009): 147-208.
- 신은주. "음악,음반분야 :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 - 악조와 선율구조에 근거하여 -." 한국음반학 -.12 (2002): 145-169.
- 신은주.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의 역사와 전승양상." 韓國音樂史學報 40.- (2008): 367-410.
- 김혜정. "중고제 판소리의 의의와 음악적 활용 방안." 남도민속연구 36.- (2018): 67-90.
- 성기련.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와 19세기 중엽 중고제(中高制) 판소리와의 관련성 연구." 판소리연구 0.36 (2013): 39-92.
- 최혜진. "홍성 지역의 명인 명창과 중고제 판소리의 변모." 동아시아고대학(2020): 137-173.

- 최혜진.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연구 (2011): 323-358.
- 최혜진. "충남 공주 지역의 음악 전통과 중고제 판소리." 동아시아고대학 (2019): 251-286.
- 최혜진.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 유적 현황 연구." 口碑文學研究 0.48 (2018): 331-363.
- 박은하. "설장구 춤사위 연구 -경기,충청 농악 양도일 명인 유-."무용예술학연구 8.- (2001): 139-161.
- 정출헌.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 民族文化研究 31.- (1998): 255-313.
- 박성환. "중고제 판소리 명창 방만춘, 방진관 연구." 한국학연구 35.- (2010): 39-71.
- 서종문,김석배.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이해." 국어교육연구 24.1 (1992): 33-63.
-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81-154.
-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 자료의 재검토." 판소리연구 0.49 (2020): 7-46.
-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 론." 판소리연구 5.- (1994): 149-195.
- 노재명. "자료 : 유성기음반시대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손녀 김차돈 증언자료." 한국음반학 -.12 (2002): 183-187.
- 강운정. "朴東鎭 本 「春香歌」에 나타나는 아니리의 특징." 개신어문연구 17.- (2000): 179-198.
- 강운정. "朴東鎭 唱本 <숙영낭자전> 연구." 口碑文學研究 0.20 (2005): 485-506.
- 강운정. "박동진 명창과 창작 판소리." 판소리연구 0.32 (2011): 5-30.
- 강운정. "박동진 창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연구 0.25 (2008): 89-109.
- 강운정. "박동진 본 <흥부가> 사설의 특징 -신재효 본 <박흥보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5.- (2003): 5-29.
- 강운정. "박동진 창본 <옹고집타령> 연구-김삼불본 <옹고집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0.30 (2015): 197-222.
- 강운정. "박동진 본 <수궁가> 아니리의 구연 방식." 판소리연구 16.- (2003): 5-28.
- 이정원. "창작 판소리의 사설 연구 -박동진의 <예수전>을 대상으로-." 판소리연구 0.33 (2012): 207-235.
- 이정원. "창작 판소리의 사설 연구 - 박동진의 예수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012): 207-236.
- 김광희. "무형유산으로서의 박동진 판소리와 콘텐츠의 확장." 국악교육 48.48 (2019): 3-19.
- 송미경. "박동진제 판소리에 나타난 '준비된' 즉흥성의 면모 - 춘향가 '어사 출도' 대목

을 중

- 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2019): 335-365.
- 송미경. "장르 전환 및 매체 수록에 따른 박동진제 춘향가 소리 대목의 변이 양상." 우 리말 글 78.- (2018): 275-308.
 - 이문성. "박동진 창본 <장끼타령>의 복원과 판소리 콘텐츠의 확대." 漢城語文學 37.- (2017): 27-45.
 - 정영찬, 김용범.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으로 본 박동진의 창작판소리 「예수전」." 韓國思想과 文化 88.- (2017): 421-445.
 -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진의 예술세계와 현대 판소리사적 위치." 어문논집 37.1 (1998): 1-19.
 - 송연. "최후의 판소리 광대 박동진." 한국논단 91.1 (1997): 118-125.
 - 주재근. "박동진 명창의 국립국악원 활동 업적 연구." 국악교육 49.49 (2020): 95-110.
 - 이문성. "박동진 창본 <배비장타령>의 면모와 지향." 한국학연구 56.- (2016): 173-189.
 - 송소라. "박동진 창작 판소리 <충무공 이순신>의 정서지향과 역사서사물로서의 의미." 공연문화연구 0.28 (2014): 367-408.
 - 신호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박동진본 <변강쇠가>." 동아시아고대학(2018): 95-124.
 - 유선미. "박상근류 가야금산조 고찰을 통한 '음악 감상·비평' 지도내용 연구 - 음악 역사·문화 적 맥락 중심으로 -." 국악교육연구 11.2 (2017): 125-154.
 - 송혜진. "음악가 김정순의 공연활동 재검토-1911부터 1926년까지의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28.- (2013): 89-111.
 - 김용호.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국립충청국악원의 역할." 음악과 문화(2021): 91-116.
 - 서일도. "가야금 병창의 충청지역 발생 고찰." 인문사회 21 7.4 (2016): 813-832.
- < 학위논문 >
- 박선영. "충청지역 판소리 중고제 복원양상과 의의."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 이서연. "중고제 판소리와 사설시조의 음악적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조영규. "금강 유역의 중고제 판소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서울
 - 오단해. "중고제 판소리의 빠른진양장단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 학교, 2015. 서울

- 허병근. "BEL CANTO 발성법과 판소리 발성법의 비교연구.-ITALY BEL CANTO와 동편제.중고제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3. 대구
- 이강용. "중고제 4인 한량무의 역사성 고찰과 전승가치 파악."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서울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서울
-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1997. 서울
- 이진솔. "박동진 창작판소리 <忠武公 李舜臣傳>의 작창기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20. 서울
- 허정임. "曹學晉과 朴東鎭의 赤壁歌 比較分析."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서울
- 김민영. "적벽가 연구.: 김연수·박동진·박봉술·정권진 창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全北大學校, 2015. 전라북도
- 윤상미. "흥보가 중 '놀보 박타는 대목' 비교 연구.:김연수·박동진 창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전하영. "흥보가 중'비단타령'비교 연구.:강도근·박록주·박동진·박초월 소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한채호. "박동진 성서판소리 <모세전>의 음악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7. 서울
- 석지연. "<春香歌>의 바디별 대목 비교연구.:김소희·김연수·박동진 바디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서울
- 정보경. "판소리 <興甫歌> 中 '박타령'의 선율 분석.:한농선 바디와 박동진 바디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 김남연. "박동진 <예수전>의 사설과 선율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5. 서울
- 최하늘. "흥보가 중 '놀보 박' 사설구성 비교분석.:김연수·박봉술·박동진 唱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김양숙. "판소리 敎習의 實際에 관한 研究.:박동진制 적벽가 唱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4. 서울
- 문영수. "판소리 율격과 장단의 상관성.:박동진 창 흥부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1999. 경상북도

2) 『조선창극사』 중 중고제 명창 명인 관련 논문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권삼득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양호. "권삼득(權三得)의 덜령제에 관한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1992. 광주 • 김민수. "권삼득 설령제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9. 서울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기형. "판소리 명창 권삼득의 생애와 설화화 양상." 판소리연구 0.33 (2012): 5-34.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악협회. 權三得 先生 誕辰 240週年 記念 學術發表會. 진라북도: 한국국악협회 완주군지부, 2011.
황해천	
염계달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계영. "염계달 소리의 존재양상 및 사설의 특징." 어문론총 84.- (2020): 87-116.
모흥갑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보형. "적벽가의 명창 모흥갑." 판소리연구 5.- (1994): 377-387.
방만춘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성환(Park Seong-hwan). "중고제 판소리 명창 방만춘, 방진관 연구." 한국학연구 35.- (2010): 39-71.
고수관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영대(YOO Young-Dai). "명창 고수관과 내포제 문화의 콘텐츠화 가능성." 한국학연구 35.- (2010): 155-175. 이윤석. "고수관이 부른 노래는 판소리인가." 열상고전연구 35.- (2012): 261-292. 유영대. "판소리에서 임기응변과 변조의 의미 - 고수관(高壽寬)의 경우를 중심으로 -." 口碑文學研究 7.- (1998): 273-285.
김종운	
김성옥	
송광록	
주덕기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석배. "주덕기 명창 가문의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51 (2021): 7-45.
김제철	
신만엽	
박유전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선화. "박유전제 심청가 中 상여 나가는 대목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민형 (Yoo Min-hyung). "판소리 패턴론으로서의 대원군과 박유전 <적벽가>의 변모." 공연문화연구 0.38 (2019): 144-192.
이석순	
최낭청	
송수철	
임창학	
주상환	
문석준	
송우룡	
박만순	
김세종	<학술논문>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동현(Choe Tong-hyeon). "명창 김세종의 생애와 판소리 이론." 한국언어문학 86.- (2013): 175-197. • 정병헌 (Byung Heon Chung). "김세종제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상." 공연문화연구 0.27 (2013): 333-367. • 김수미. "김세종제 춘향가 <천자뒤풀이> 작창법 연구 - 성우향 춘향가를 대상으로 -." 국악원논문집 25.- (2012): 23-50. • 성기련. "완판 84 장본 < 열녀춘향수절가 > 의 김세종제 < 춘향가 > 수용과 개작." 판소리연구 11.- (2000): 197-223. • 박석무. "서평 : 다산의 전통음악을 계승하는 학자 -김세종의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 서울: 보고사, 2008-." 韓國音樂史學報 42.- (2009): 203-206.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다솜. "김세종·동초제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서정민. "김세종제와 정정렬제의 '춘향가' 중 <십장가>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박지윤. "김세종제 춘향가 중 이별가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2013. 전라북도 • 문혜준. "김세종제 춘향가 中 이별가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이선희. "춘향가 중 사랑가 비교연구:김세종제와 김소희제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서울 • 오혜연. "김세종제 춘향가 옥중가 中 옥방이 대목 선율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서울 • 김주리. "판소리의 해학과 풍자의 고찰:김세종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이성희. "판소리 너름새에 관한 연구:김세종 바디 <춘향가> 성우향 공연실황을 바탕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 유수곤. "김세종제 판소리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水原大學校 大學院, 2003. 경기도 • 최정욱. "판소리 춘향가 中 신연맛이 김청만 북가락 연구:김세종제·동초제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부산 • 조문주. "판소리 사설의 표현 구조와 공연성:김세종제 춘향가 조상현 창본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아. 『김세종제 판소리 춘향가.』 경기도: 범우사, 2019. • 고우회. 『(성우향이 전하는)김세종제 판소리 춘향가.』 서울: 학림사, 1995.
이날치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미경 (Mi Kyoung Song). "일반논문 : <춘향가> 중 이날치 더늠 "동풍가"의 전승과 변용." 판소리연구 0.34 (2012): 207-233.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형택(Im Hyeong-Taek). "'이날치' 수궁가와 문화콘텐츠 이상의 문학적 가치 : 범은 어떻게 이름을 남기는가?." 인문콘텐츠 -.60 (2021): 109-132. <학위논문> • 이상삼. "沈淸歌의 比較 研究:이날치판과 정재근판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4. 서울
정춘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논문> • 사은영. "김창룡 방창 '정춘풍 「화초타령」의 실상과 가치." 판소리연구 0.48 (2019): 39-97. • 정수인. "정춘풍 더늠 '수궁풍류' 연구." 동양음악 45.- (2019): 85-121. • 김석배(金奭培). "동편제 명창 정춘풍의 더늠 연구." 문화와 융합 17.- (1996): 123-146.
전해종	,
김거복	,
김수영	,
한송학	,
정창업	,
김정근	,
윤영석	,
최승학	,
정흥순	,
김창록	,
서성관	,
김도선	,
안익화	,
장자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논문> • 이은주(Lee Eun-Joo). "장자백 <춘향가>에 묘사된 조선후기 남자복식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16.2 (2013): 17-34. • 이현자. "명창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 나타난 민간신앙의 존재양상 연구." 慶熙語文學 17.- (1997): 382-402. <학위논문> • 엄형섭. "장자백 창본<춘향가>의 묘사 특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서울 • 박준범.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 나타난 후기 근대국어의 조사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경상북도 • 정국진. "傳統 판소리와 創作 판소리의 構造와 美學 對比:<장자백 창본 춘향가>와 <오월광주>·<똥바다>·<오적>·<소리내력>을 對象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西江大學校 教育大學院, 1996. 서울
최상준	,
백점택	,
이창운	,
전상국	,
황호통	,
박상도	,
김충현	,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성창렬	,
백경순	,
이창윤	,
오곳준	,
송재현	,
배희근	,
장수철	,
강재만	,
김찬업	,
양학천	,
강용환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Baek Doosan). "강용환의 창극 활동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0.52 (2017): 189-219.
백근룡	,
김질업	,
김창환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석배 (Sug Bae Kim). "개별논문 : 판소리 명창(名唱) 김창환의 예술활동." 판소리연구 0.20 (2005): 241-269. • 남궁정애. "판소리 명창 김창환의 음악어법 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203-266. • 배연형. "김창환 제 춘향가로 본 20세기 초 판소리 전승 양상 - 김창환·김봉이 유성기음반과 정광수·백성환 창본을 중심으로 -." 한국음악연구 50.- (2011): 115-148. • 최희정(Choi Hee Jung). "心畝 金彰桓의 역관 가계 배경과 문인예술가 활동 - 한말 식민지기 牛峯金氏 金指南 중인 가계의 행보 -." 서강인문논총 0.57 (2020): 197-225. • 김석배. "김창환제 <심청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0.18 (2004): 43-68. • 김석배. "김창환제 <춘향가> 연구." 열상고전연구 18.- (2003): 47-75. • 김석배 (Kim Seog Bae). "연구논문 : 김창환제 <흥보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15.- (2003): 31-57.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옥. "김창환제 흥보가의 전승과 음악적 특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3. 서울 • 남궁정애. "판소리 명창 김창환의 음악어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대한민국 • 이경숙. "판소리 명창 김창환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경상북도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창환. "(판소리 5명창) 김창환."-- (1996)
신학조	,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조기홍	,
박기홍	,
성민주	,
김봉학	,
신학준	,
김석창	,
유공렬	,
송만갑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연형 (Yeon Hyung Bae). "일반논문 : 송만갑과 근대 판소리." 판소리연구 0.34 (2012): 143-177. • 박승률. "송만갑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267-344. • 백현미 (Hyun Mi Back). "연구논문 : 송만갑과 창극." 판소리연구 13.- (2002): 229-244. • 최난경 (Choe Nan Gyeong). "연구논문 : 송만갑의 악조구성에 나타난 서편제의 수용양상 -토끼가 세상 나오는 대목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6.- (2003): 281-335. • 이명진. "송만갑제 <춘향가> 계열의 이별대목 비교 연구-사설의 전승양상과 미의식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8.- (2002): 123-147. • 성기련. "Columbia판 송만갑창 <진국명산>의 청(淸) 이동에 따른 선율 짜임새 분석." 한국음반학 30.- (2020): 29-51. • 이경엽 (Lee Kyeong-yeob). "판소리 명창 송만갑의 생애와 예술 세계." 口碑文學研究 8.- (1999): 285-314. • 김기형 (Kee Hyung Kim). "기획논문 : 송만갑 명창의 출생지 고찰 논의와 그 성격." 판소리연구 0.28 (2009): 5-25. • 임성래 (Song Lai Im). "송만갑 <이별가>의 사설 변화와 그 특성." 판소리연구 0.22 (2006): 305-327. • 송방송 (Song Bang Song). "기획 :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호" ; 송만갑 명창의 음악활동 소고 - 1920~30년대 자료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0.- (2002): 415-449. • 김준형. "송만갑 < 자서전 > 해제." 판소리연구 11.- (2000): 391-405. • 왕서은. "논문: 음악 및 문학 부문 : 송만갑 창과의 비교를 통한 박봉술 창 <춘향가> 전승계보 연구 - <자진사랑가>,<이별가>,<십장가>를 대상으로." 한국음반학 22.- (2012): 133-154. • 李重訓. "慶尙道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편제 판소리와 宋門一家인 국창 宋萬甲." 한국음반학 -.4 (1994): 263-281.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아. "송만갑 판소리·오테석 가야금병창의 춘향가 中 '십장가'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 이명진. "宋萬甲制 <春香歌>의 系列別 傳承樣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남대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p>학교 대학원, 2001. 전라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정. "판소리 중모리 장단 대목에서의 호흡 운용 양상: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박봉술 한승호'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2. 서울 • 조희정. "동편제 <<적벽가>>의 전승과 변모:송만갑제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전라북도 • 박승률. "송만갑의 판소리 음악어법."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2. 서울 • 정은혜. "송만갑 정정렬의 소리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서울 • 김남희. "수궁가 중 '고고천변'의 선율비교 연구:송만갑, 김창환, 박초월 소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004. 경기도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영대.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 서울: 민속원, 2010. • 국립극장. 『송만갑의 생애와 예술:12월의 문화인물 송만갑 기념 학술발표회』 서울: 국립극장, 2001. • 안효상. 『(국창 송만갑의) 출생지에 대한 고찰.』 전라남도: 東便制판소리保存會, 2008. • 백형모. 『방랑의 소리: 시대를 홀로건던 국창 송만갑』. 광주: 한솔에디피아, 2001.
한경석	/
전도성	/
유성준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태도 (Tae Do Son),and 김용근. "동편제 소리의 부활을 꿈꾸며; 판소리 명창 유성준론." 先淸語文 36.- (2008): 311-354. • 명현(Myeong Hyeon). "유성준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18.- (2008): 37-72. • 김미선. "유성준제 <수궁가> 연구." 판소리연구 14.- (2002): 1-43. 바디별 대목비교를 중심으로. • 김혜정 (Hye Jung Kim). "연구논문 : 유성준제 수궁가의 전승과 변이- "토끼 피내는 대목"의 음악적 존재양식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3.- (2002): 151-227.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다운. "'유성준제 수궁가 초입 대목' 음악적 특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012. 경기도 • 김혜미. "유성준제 수궁가의 음악적 전승양상."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3. 서울 • 신현미. "판소리 <수궁가>연구:신재효의 토별가와 유성준의 수궁가 사설을 중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p>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8.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정아. "판소리 고수의 추임새에 관한 연구 : 유성준 바다 '수궁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6. 서울 • 민아영. "유성준제 <수궁가> 진양조 대목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이동백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진(Choi Hye jin). "이동백 제 <적벽가>의 전승과 변모." 口碑文學研究 0.50 (2018): 263-322. • 김유석. "판소리 즉흥성에 대한 음악적 검토 -이동백의 유성기음반 중 <박석티> 대목을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44.- (2010): 41-69. • 배연형. "송영석의 창작판소리 《역사가》와 이동백 제 적벽가." 판소리연구 0.45 (2018): 87-117. • 김성경. "이동백의 판소리 음악어법 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155-201. 복각되어진 CD 수록곡을 중심으로. • 盧載明. "판소리 名唱 李東伯 短歌 研究." 한국음반학 -.8 (1998): 85-177. • 김유석. "이동백의 <새타령>에 나타난 즉흥성 고찰." 한국음반학 -.19 (2009): 53-91. • 배연형 (Bae Yeon Hyeong). "연구논문 : 이동백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 15.- (2003): 59-115. • 이상호 (Lee Sang-ho). "<새타령> 구성 원리의 표현교육 내용 연구-이동백 <새타령>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2008): 113-138.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유석. "이동백 <새타령>의 선율구조 분석을 통한 판소리 즉흥성 탐색 시론."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0. 서울 • 김보람. "이동백의 <새타령>과 남도잡가 <새타령>의 비교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4. 서울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악원. 『판소리 명창 이동백.』 서울: 국립국악원 연구실, 2003. • 송방송. 『日帝强占期 李東伯 명창의 公演活動.』 서울: 震檀學會, 2002.
엄덕준	
김창룡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은영. "김창룡 방창 '정춘풍 「화초타령」'의 실상과 가치." 판소리연구 0.48 (2019): 39-97. • 신은주. "김창룡 심청가 꺾씨부인 대목 고찰." 국악원논문집 38.- (2018): 185-231. •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81-154. • 왕서은. "김창룡창 <춘향 방 그림가> 대목에 나타나는 창법적 특징 연구." 한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p>국음반학 30.- (2020): 53-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보형. "논문 : 음악 및 문학 부문 ; 김창룡제 심청가 수궁풍류의 선율적 거시구조." 한국음반학 21.- (2011): 3-22. • 송방송 (Bang Song Song). "연구논문 : 김창룡 명창의 음악활동에 대한 문헌적 점검-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3.- (2002): 245-294. • 신은주 (Sin Eun Ju). "연구논문 : 김창룡 명창론." 판소리연구 15.- (2003): 189-235. • 노재명 (Jae Myeong Ro). "논문 : 음반 부문 ; 판소리 명창 김창룡 민요 <성주풀이> 유성기음반 고찰." 한국음반학 20.- (2010): 251-261.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혜자. "김창룡과 이화중선의 <범피중류>선율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서울 • 조성연. "춘향가 중 <신연(新延)맞이> 대목 비교 연구:김창룡·정정렬·박봉술·성우향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이오훈. "박종기 대금독주 <군로사령 나가는데> 선율 연구 : -김창룡 판소리와 비교를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7. 서울
신명학	
김채만	
이선유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난경. "이선유 판소리의 현대적 조명(1) - <춘향가> 복원 작업을 중심으로 -." 고전과 해석 17.- (2014): 205-234. • 서유석(Seo You-Seok). "古制소리와 권번을 통해 살펴본 이선유 <춘향가>의 자리." 우리文學研究 0.58 (2018): 181-213. • 盧載明. "이선유의 音盤에 關한 研究." 한국음반학 -.1 (1991): 225-242. • 강예원. "이선유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7-79. • 최난경. "이선유 명창론." 한국음악연구 30.- (2001): 157-190. • 박희순. "이선유 창 " 퇴령후 " 의 음악적 구조 분석." 남도민속연구 9.- (2003): 107-127.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예원. "이선유의 판소리 음악어법."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4. 서울 • 박노훈. "이선유 판소리 唱本 『오가전집』에 관한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7. 서울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유. 『이선유 오가전집 연구.』 서울: 박이정, 2008.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정정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난경. 『명창 이선유』. 경상남도: 문화고을, 2013. <학술논문> • 송미경.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 및 유파·바디에 따른 분화." 공연문화연구 0.39 (2019): 415-455. • 유선미 (Sun Mi You). "일반논문 : 정정렬제 최승희<춘향가> "광한루 풍경" 대목의 음군(音群)과 사설 및 시김새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김소희 <춘향가> "적성가" 대목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0.31 (2011): 325-360. • 김경희 (Kyung Hee Kim). "기획주제 2 : 판소리의 지역문화화와 세계화 ; <춘향가>를 통해본 김소희 판소리의 음악적 지향 -정정렬제와 동초제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0.23 (2007): 65-107. • 김인숙. "정정렬 단가 연구." 한국음반학 -.6 (1996): 197-247. <학위논문> • 민혜성. "丁貞烈과 朴綠珠의 淑英娘子傳 比較分析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서울 • 모소영. "정정렬제 판소리 춘향가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전라북도 • 서정민. "김세종제와 정정렬제의 '춘향가' 중 <십장가>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장서윤.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 작창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조주선. "판소리 계면조 시김새에 관한 고찰 : 정정렬제 춘향가 中 옥중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0. 서울 • 조성연. "춘향가 중 <신연(新延)맞이> 대목 비교 연구 : 김창룡·정정렬·박봉술·성우향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이선희. "김소희제 춘향가의 비교연구 : 송만갑제·정정렬제·김연수제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 • 김갑보.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비교 연구 : 정정렬제 최승희와 동초제 고향임 소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서울 • 이현정. "판소리 중모리 장단 대목에서의 호흡 운용 양상 :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박봉술 한승호'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2. 서울 • 임민혜. "정정렬제 '춘향가' 사설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釜北大學校, 1993. 전라북도 • 모보경.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 비교분석 연구 : 정정렬제, 동초제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1. 전라북도
김봉문	
송업봉	
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논문> • 박소현(So-Hyun Park). "대원군과 최초의 여류명창 채선." 대한토목학회지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허금파	56.6 (2008): 58-62.
강소춘	<학술논문> • 김석배. "일제강점기 강소춘과 신금홍 명창의 예술활동." 판소리연구 0.45 (2018): 5-34.
김록주	<학술논문> • 김석배. "김해 김록주 명창 연구." 국어교육연구 0.42 (2008): 323-348.
이화중선	<학술논문> • 이지선. "이화중선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1.- (2000): 419-486. • 김문성. "유성기 명창 이화중선, 이중선 연구." 한국음반학 -.9 (1999): 157-172.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지역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 裴淵亨. "李花中仙 음반 연구(1)." 한국음반학 -.9 (1999): 29-155. • 최혜진 (Choe Hye Jin). "연구논문 :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연구 15.- (2003): 271-296. • 이정은. "논문: 음악 부문 : 판소리《춘향가(春香歌)》중 <동풍가(東風歌)>의 선율 비교 -이화중선, 신숙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24.- (2014): 101-117. • 이보형 (Bo Hyung Yi). "<화초사거리> 연구." 한국음반학 -.17 (2007): 3-18. 이화중선 이중선 화초사거리 음반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 한나리. "박봉술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연구 : 이화중선, 임방울의 소리와 비교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광주 • 김혜자. "김창룡과 이화중선의 <범피종류>선율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서울 • 박양순. "판소리 '심청가' 中 <범피종류> 선율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010. 서울 • 김수미. "이화중선과 성우향의 춘향가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大 學校 大學院, 2002. 서울
김초향	<학술논문> • 김석배 (Sug Bae Kim). "일반논문 : 김초향과 김소향 명창의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0.35 (2013): 5-34. • 李重訓. "명창 金楚香의 春香歌 중 ' 이별가(離別歌) ' 대목에 대한 일고찰." 한국음반학 -.3 (1993): 189-197.
박록주	<학술논문> • 최동현. "박록주 명창의 판소리 세계-음반 취입, 공연 활동,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0.42 (2018): 137-177. • 송미경 (Mik Young Song). "기독교방송 녹음 박록주 <춘향가>(1963)의 특징과 판소리사적 의의." 공연문화연구 0.29 (2014): 379-423. • 송미경. "기독교방송 박록주 <춘향가>(1963)의 회별 구성과 자료적 특징." 한국전통문화연구 14.- (2014): 255-309.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석배. "박록주<심청가>창본 해재." 선주논총 11.- (2008): 185-214. • 김석배 (Kim Seok-bae). "판소리 명창 박록주의 예술세계." 口碑文學研究 10.- (2000): 23-52. • 채수정 (Soo Jung Chae). "연구논문 : 명창 박록주의 소리세계 -단가 "대관강산"과 "진국명산"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0.17 (2004): 401-417. • 송방송 (Bang Song Song). "음악,음반분야 : 일제강점기 박록주(朴綠珠) 명창의 공연활동: 방송,음반,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2 (2002): 17-51. • 최상화, and 양미지. "판소리 중모리 장단의 '떠는목'에 관한 연구 - 안숙선 · 오정숙 · 박록주 창을 중심으로 -." 한국음악연구 53.- (2013): 139-168. • 김석배. "박록주 <흥보가>의 정립과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0.21 (2006): 123-163. • 김종철. "박록주 (흥보가)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13.- (2002): 51-87. • 이규호. "박록주 <흥보가>의 성립과 전승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0.21 (2006): 165-238. 박타령을 중심으로, Centering around 'Paktaryeong'. • 왕서은. "박록주 창 <장한몽>의 창작배경과 그 음악에 대한 연구." 한국음반학 27.- (2017): 70-114. • 김종철. "박록주 [흥부가]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13.- (2002): 51-86. • 윤분희. "박록주 창본「숙영낭자전」연구." 語文論集 6.- (1996): 89-116. • 김석배. "박록주 <흥보가>." 선주논총 9.1 (2006): 243-268. • 김석배. "박록주 명창의 삶과 예술활동." 판소리연구 11.- (2000): 135-160. <p data-bbox="379 1240 517 1272"><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수정. "朴綠珠 흥보가의 音樂的 特徵."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서울 • 최보라. "박록주·정권진 창(唱) <심청가>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20. 서울 • 민혜성. "丁貞烈과 朴綠珠의 淑英娘子傳 比較分析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서울 • 전하영. "흥보가 중 '비단타령'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함수연.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 김문희. "판소리 흥보가 중 <놀보 박 대목>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 서진경. "동편제 <흥보가> 박록주와 박송희 명창의 예술활동과 전승음악의 특징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8. 서울 • 심상윤. "박록주 흥보가 中 진양조의 내드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채수정. "박록주 『심청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인물	논문 및 세미나 자료
	<p>서울</p> <p><단행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수정. 박록주 박송희 창본집. 서울: 민속원, 2010. • 김석배. (판소리 명창) 박록주. 경상북도: 애드게이트, 2020.
김여란	<p><학술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숙. "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0.23 (2007): 109-140. • 김인숙 (In Suk Kim). "기획주제 2 : 판소리의 지역문화화와 세계화 ; 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0.23 (2007): 109-139.

3) 중고제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현황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주관/협력	내 용
2016.3.24.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세미나명: 중고제 맥 잇기 학술세미나 주최: 충남문화재단 협력 : 판소리학회, 국 악음반박물관, 심화영 중고제소리보존회, 보 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주제: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재조명 - 판소리 유파의 흐름 및 중고제의 중요성 (배연형) -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조명 (최혜진) -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중고제의 발전 가능성 (서한범)
2017. 6.10 진천군 선촌서당	행사명: 제1회정겨운고 향소리축제 주관: (사)한국판소리보 존회 충북지회	- 충북의 소리 중고제의 기원(정희천) - 잊혀진 소리, 중고제의 현재(김기형)
2017.10.27.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주최: 충남문화재단 후원: 충청남도, 홍성군	주제: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미래정책 - 충청지역 판소리 지형도와 문화유적 -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과 위상 - 중고제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정책제언
2018. 8.10 충남대 인문대학	세미나명: 중고제 특집 학술세미나회 주최 중고제판소리문화 진흥회, 어문연구학회, 조승래 국회의원	주제: 중고제 판소리 중고제의 위상과 실상 - 판소리 중고제의 재조명 (사재동) - 판소리 중고제 재론(배연형) - 김창룡 심청가 괄씨부인 대목 고찰 (신은주) - 심상건 가야금산조 (김진경) - 이동백 적벽가의 전승과 현대적 계승(최혜진)
2018. 12.6 서천군문화원	세미나명: 제2차 중고 제 학술세미나 주최: 충남문화재단 서 천군	주제: 중고제 문화사업에 대한 성찰과 과제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 중고제 복원의 과제와 방안 (배연형) - 중고제 판소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정병헌) - 중고제 판소리 문화사업 접근과 개발 방안(주재근)

2019. 5.16 한옥마을 백제방	세미나명: 제3차 중고 제 판소리 학술세미나 주최: 공주시	주제: 중고제 판소리와 공주지역의 위상 - 공주의 음악전통과 중고제 명창(최혜진) -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재창조(정수인) - 중고제 판소리와 박동진 명창(김석배)
2019.8.3. 서산문화원	세미나명: 학술세미나 주최주관:한국총문화유 산기념사업회, 연낙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충청남도	주제: 중고제 국악명인 심정순-심화영의 예술적 업적 - 중고제 판소리와 서산의 민속예술 심충(김헌선) - 심정순 판소리 창본 연구(손태도) - 심화영의 생애와 예술활동(성기숙)
2019.12.5.	세미나명: 제4차 중고 제 학술세미나	주제: 흥성의 명인 명창 - 흥성의 명인 명창과 중고제 판소리의 변모(최혜진) - 김창룡과 이동백의 음악적 비교연구(정진) - 예인 한성준과 문화적 가치(김유석)
2019.12.18. 연낙재 세미나실	세미나명: 중고제 전통 가무악의 재발견 주최주관:한국총문화유 산기념사업회, 연낙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충청남도	주제: 중고제 전통가무악의 가치 확산 - 한성준 시나위에 대한 음악적 재검토(이진원) - 중고제 전통예인 심상건-심태진의 미국활동(성기숙) - 무형문화재 보존 계승에 있어 유파의 중요성(손태도)
2020.12.4. 서산문화원 다목적실	세미나명: 제1회 서산 중고제 가무악 학술 세 미나 주최주관: (사)중고제판 소리보존회	주제: 세계로 향하는 서산 중고제 가무악 학술세미나 - 서산지역과 중고제 판소리(김석배) - 서산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 보존과 국제화 방안(노재명) -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문화사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주재근)
2021.11.19.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	세미나명: 학술세미나 주최: 충청남도 주관: 충남문화재단	주제:중고제 가무악의 전승과 발전방안 -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송혜진) - 중고제 적벽가의 장단구성 특징(김인숙) - 중고제 문화예술 브랜드 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주재근)
2021.12.6. 서산시 문화회 관 소공연장	세미나명: 제2회 서산 중고제 가무악 학술 세 미나 주최주관: (사)중고제판 소리보존회	주제:중고제 판소리의 보존과 향후계획 - 중고제 심청가와 가사집 호서가(허흥식) - 내포지역의 중고제 판소리 지형도(김석배) - 중고제 판소리 속의 그림 고찰(노재명) - 중고제의 가치와 미래전략(주재근)

4) 중고제 관련 공연 개최 현황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주관/협력	내 용
2009.12.22.	행사명: 박성환 중고제 판소리 적벽가 발표 공 연	박성환 중고제 이동백류 적벽가 중 "삼고초려" 중고제 단가"백구타령",조정현의 "백제의 호흡" 윤재영 "거문고산조", 이걸재 "충청도 소리"
2012.2.16.	행사명: 중고제 판소리 시연회	- 심화영류 승무 (이애리) - 송서 아리랑(정규현)

서천문화원		- 심화영제 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이은우) - 판소리 홍보가 중 '첫째박타는데' (박명언)
2013.12.21. 공주문예회관 소극장	행사명: 박성환 중고제 적벽가 완창	- 심화영류 승무 (이애리) - 송서 아리랑(정규현) - 심화영제 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이은우) - 판소리 홍보가 중 '첫째박타는데' (박명언)
2015.10.14. 서천문예의전 당	행사명: 그랫슈콘서트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심화영류 승무 (이애리) - 중고제 소리(박성환) - 거문고산조(김무길) - 설장구(유인상)
2016. 12.1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10층)	행사명: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이동백 <새타령> (신성수) - 무속이타령 (조동언) - 심화영류 승무 (이애리) - 이은우 - 한성준류 피리 시나위(조성환) - 김수향 - <백발가><사랑가> (신영희) - 송소희
2017. 10.27 충남도청 문예회관	행사명: 제2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특별출연 (장사익, 이광수) - 결성농요 - 공주아리랑(남은혜) - 산조합주(한푸리민속악단) - 이동백 <백발가><삼고초려> (박성환) - 김창룡 <춘향방 그림가> (왕서은) - 박동진 <황성올라가는대목> (고한돌)
2018. 07.28 서천 봄의 마 을 광장	행사명: 제3회 충청소 리제 '이리오너라 업고 놀자!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특별출연 (장사익, 대중국악그룹 익스(AUX) - 충남출신 국악인 공연(충남국악관현악단, 뜬쇠예술 단, 김수향, 박성환, 이효덕, 차혜지, 지향희, 서용 석, 김기홍 등)
2019. 1.3 공주시 한옥마 을 백제관	행사명: 박성환 중고제 적벽가 발표공연	- 판소리 적벽가
2019. 6.12 공주문화원	행사명: 중고제 판소리 국창 이동백 서거 70 주년 추모음악회 주최:공주문화원	- 특강: 이동백을 만나다 (배연형) - 추모제례(이걸재) - 헌시 - 향토민요 - 박성환
2019. 11.06 홍주문화회관	행사명: 제4회 중고제 가무악축전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후원: 충청남도, 홍성군	- 이동백 소리 (박성환) - 심화영 소리(이은우) - 심화영 승무(이애리) - 한성준 춤 (이애주) - 이광수, 박애리

		- 흥성 결성농요 서산 중고제 가무악 학술세미나(12.4) 5일 오후 3시 한성준제 피리 시나위(조성환), 심화영 단가(소리 여초롱, 교수 김동혁), 지역 예술인의 경기민요(유석순), 이주민의 노래 '종마우락흥'(용우엔 티 뚜엣 마이) '아오 머이 까마우'(레데우안), 심화영제 가야금병창(병창 이애리, 장단 김동혁), 방진관제 단가(소리 신성수, 교수 설나라), 국악가요(여초롱), 국악 꿈나무의 공연(신우영 부석중 1학년, 김나안 운신초 6학년), 심화영제 판소리(소리 이은우, 교수 김동혁) 12.5 심상건제 가야금산조(가야금 김영희, 장단 이은우), 심화영제 단가(소리 여초롱, 교수 김동혁), 이주민의 노래 '티엔미미'(장원), '판자이 초웬 왕 베이징(왕징), 지역예술인의 경기민요(지수진), 시낭송(김가연), 심화영류 승무(춤 이애리, 장단 김동혁), 국악 꿈나무의 공연(장연우 서동초 3학년, 최민주 예천초 3학년), 지역 출신 예술인의 공연 I(소리 권도희, 교수 설나라), 지역 출신 예술인의 공연 II(소리 권도연, 교수 설나라), 심상건제 가야금병창(소리 이은우, 대금 이용무, 해금 우상은, 장단 김동혁) 12.6
2020. 12.04~6 서산문화원	행사명: 제1회 서산중고제 가무악 축제 주최·주관:(사)중고제판소리보존회 후원: 서산시, 서산시의회	
<비대면공연특화> 2020. 12.6. 대전MBC 방영 2020.12.7. KBS대전 방영 2020.12.8. TJB 방영	행사명: 2020 중고제 전통가무악 큰 마당 > 이때 무춤 중고제> 주최: 충남문화재단	- 박동진제 적벽가(고한돌, 오지은, 고정훈) - 심상건류 가야금산조(서원숙) - 적벽가 중 삼고초려(박성환) - 심화영류 승무(이애리) - 한영숙류 태평무(홍지영) - 내포제 풍류(다현악회)
2021. 7.21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행사명: 박성환 중고제 적벽가 발표공연	- 판소리 적벽가
2021. 11.20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	행사명: 중고제, 그곳에 살아있는 소리 주최:충청남도 주관:충남문화재단	- 올해 출연자를 공개모집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선발된 7인의 국악인을 중심으로 중고제 복원 공연을 기획 - 이동백 명창'춘향가'와 김창룡 명창의 '심청가'의 중고제 판소리를 현대의 소리꾼들이 소리극 형식으로 재현하여 관객들을 중고제의 세계로 안내
2021. 12.6~7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행사명: 제2회 서산중고제 가무악 축제 주최·주관:(사)중고제판소리보존회 후원: 서산시, 서산시의회	- 중고제 가무악단 '심'은 서산중고제 명창인 심정순, 심상건, 심매향, 심화영의 음원 복원 시도 - 홍서은(서남초 5학년), 김세현(서동초 1학년) 가야금 2중주'침향무 - 뜯쇠예술단의 판굿과 줄꾼 박희승

5) 중고제 관련 단체현황

가) 충남중고제판소리진흥원

- 중고제 판소리를 전승, 복원하고 창극이나 음악극 등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는 등 중고제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2019년 3월20일 개원.
- 중고제 명맥을 잇고 있는 박성환 명창과 서용석 고수가 강사로 나서 매주 월, 화, 수, 토요일 2시간씩 중고제 판소리와 고법, 창극 기초 등의 강습이 이뤄지며 관광객을 위한 ‘하루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 중고제 판소리 전승과 전통예술 창달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중고제 판소리 유적화 사업 추진

나) (사)중고제판소리보존회(구.중고제 판소리 서산보존회)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기능 보유자 심화영(沈嬋英)에 의해 겨우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으며 소리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크게는 내포, 좁게는 서산을 대표하는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중고제 판소리 서산보존회 설립
- 2009년 9월 14일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11월 12일에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같은 해 12월 17일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김기화를 초대 회장으로, 최기홍·정영권·김경호·최병옥·이덕순 등 5명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
-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과 연구, 중고제 판소리 전수자 양성 등 판소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중고제 판소리 명창에 대한 선양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중고제 판소리의 후진 양성과 국악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초청 강연을 통해 중고제 판소리를 이해시키고, 중고제 판소리 방과 후 교

실 개설을 통해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중고제 판소리를 알리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다) 중고제 판소리문화진흥회

- 중고제 판소리를 전승, 진흥하기 위한 연구자, 실기인, 관련 전문가들이 2018년 창립한 단체로 회장은 충남대학교 사재동 명예교수임.
- 그간 중고제소리연창회, 학술세미나를 매년 실시함.
- 2021년 중고제학술총서<중고제의 미학과 전승 가치> 발간
- 충청·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고제 판소리와 공연문화의 맥을 잇고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공연물을 창작, 공연하여 대중화, 세계화함에 목적을 둬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
 - 중고제판소리에 대한 학술연구와 공연, 교육사업.
 - 충청·경기지역의 명인, 명창과 관련한 중고제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 사업
 - 중고제판소리와 관련한 전통문화의 교육 및 공연사업.
 - 중고제판소리 관련 명인 명창들의 선양사업.
 - 중고제판소리와 창극, 전통춤, 기악 등 전통공연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전용극장 및 전수관 건립.
 - 중고제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창극과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와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중고제판소리 확장과 전통예술창작을 위한 경연대회 및 축제 개최.
 -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이동백국창중고제판소리선양회(회장 이선옥)

- 중고제판소리학교 개교, 서천창극원 설립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자산인 중고제판소리 복원을 위한 활동 중
- 2013년 제1회 서천전국국악경연대회 이후 매년 개최

제 4장 중고제의 전승 문제점과 방향(SWOT 분석)

- 중고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도의 전반적인 현황은 현황

을 파악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고제의 전반적인 인식도 부족하고, 전승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은 너무도 빈약한 수준이다.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충남도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도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 시켜줄 ‘중고제’ 전승과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정치적 결단과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중고제를 통한 지역적 음악정체성 확보와 시대적 흐름인 다양성 추구와 음악적 수용성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체기에 있는 전통음악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임.

1. 대내외 인식 분야

- 중고제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1980년대 후반부터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친 중고제판소리 연구와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고제판소리는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일원과 일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단어이다. 판소리 전공자들에게는 정노식의 「조선창극사(1940)」 기록에만 존재하는 전승이 사라진 소리라는 인식과 지각적 방어(perceptual defense)의 경향이 있으며,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언론과 공연을 통한 소통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사람들은 가급적 일관된 신념과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신념과 태도에 불일치 하는 정보에 노출되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에 노출이 되면 그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기존 신념과 태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지각적 방어(perceptual defense)라고 한다. 판소리 전공자들의 경우, 중고제판소리의 존재에 대한 수용의 회피와 사실의 왜곡을 통한 지각적 방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적 방어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강한 신념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둘째, 불안감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

셋째, 수용에 따른 인지부조화가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 기존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중고제판소리의 출현에 따른 불안감이 크고, 수용에 따른 심리적 갈등이 클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판소리’ 라고 하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행해지는 서편제가 판소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서편제라는 브랜드는 전형성(prototypicality)이 가장 높은 판소리 브랜드로서 판소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전형성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이고 기억에서 쉽게 인출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판소리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서편제에 대한 태도가 충성도를 형성할 만큼 강하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는 판소리 장르의 선택에 있어서 관심이 크지 않고 선택폭이 거의 없으며, 판소리와 관련하여 관심도가 크지 않은 상태인 저관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성적 구매(inertia buying)의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고제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중고제’ 라는 단어가 충청지역의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중고제의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전공자 및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부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중고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여전하다. 이러한 수많은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고제는 점점 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2. 교육 분야

- 현재 중고제 관련 충청남도 차원의 교육관련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공주시의 공주문화원을 통한 중고제판소리 강좌(주1회)와 서산시의 승무 관련 지원이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이전인 2016년

부터 2019년에는 박성환 명창이 개인적으로 서천지역에서 사랑방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충북도의 경우에는 충북문화원을 통해 2014년(4회)과 2019(1회)년 중고제판소리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동언 명창과 김봉곤씨를 중심으로 진천지역에서 중고제 관련 교육을 진행중이며, 중도일보 손도언 기자는 충북지역의 중고제 역사 발굴과 복원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다.

-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의하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9.1%이며, 전통예술 분야는 1.4%였다. 그리고 충남도의 경우 전통예술과 관련한 분야의 시설이 열악한 수준을 고려하면 전국평균에 못미칠 것으로 추정됨. 물론 중고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영역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전공자들에게조차도 중고제를 배운다는 것은 기회가 매우 드물며 향후 자신의 진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자들에게 부여되는 기회의 확대와 진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중고제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중고제/서편제/동편제 등의 각 유파는 지역적 기반, 전승관계, 사승관계로 구분이 되는데, 중고제는 지역적 기반보다는 전승계보와 각각의 명창들을 중심으로 중고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선영,2015).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중고제 관련 전승계보나 사승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계보상으로는 현재 유일한 박성환 명창을 중심으로 중고제판소리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충남도 차원의 지원과 문화재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중고제 판소리 적벽가 전승계보]

김성옥(金成玉,1895~1828)

김정근(金定根,1839~1895)

<p>2019</p>	
	<p>판소리, 국악원, 충청, 흥성, 공주시, 충남, 박동진, 김창룡, 이동백, 진흥원, 백제</p>
<p>2020</p>	
<p>2021</p>	<p>국립충청국악원_공주, 판소리, 충청, 심정순, 심화영, 국악인, 국악음반박물관_노재명, 김정섭, 문화재</p>

중고제

[中高制]

요약 판소리 유파(流派)의 한 갈래.

동편제(東便制)나 서편제(西便制)가 아닌 그 중간에 해당되는 유파라는 뜻의 중고제는 경기도 남쪽 지방 및 충청도 지방에서 성행(盛行)한 유파이다.

정노식(鄭魯湜)의 『朝鮮唱劇史』에서 "대가닥에는 동편제 또는 동편조(東便調)·서편제·중고제·호궐제가 있으나, 대체로 동서로 나누고 중고·호궐은 극소하다"라고 했고, 또한 "중고제는 비동비서(非東非西)의 그 중간인데 비교적 동에 가깝다"고 하였다.

소리의 고저가 명확하고, 사설의 구성이 분명하며, 경드름을 많이 사용하는 점이 중고제의 음악적 특징으로 꼽힌다. 상하성(上下聲)이 분명하고 소리에 경드름이 진하고, 반음을 많이 쓰며, 음정은 단계적으로 치켜 올려감으로써 소리 끝은 동편제와 같이 매우 드높고 힘차다.

충청도와 경기도의 음악적 특징을 지닌 유파가 중고제이다. 염계달(廉啓達)을 시조로 삼는 중고제는 책을 읽듯이 덩덤한 맛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음악적 특징이다. 염계달·모흥갑(牟興甲)·김성옥(金成玉)·고수관(高秀寬)·김석창(金碩昌)·김정근(金正根)·김창룡(金昌龍) 등이 중고제에 속했던 판소리명창들이다.

4. 정책 분야

- 정책분야 문제점 분석으로 각 행정기관의 문화관련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조직편제 및 담당업무를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비교결과 충청남도의 조직편성과 인원은 충청도에 비해 적었으며, 전라남북도에 비해서는 많았음. 충청도의 경우 비교대상 광역지자체에 비해 건축문화과(20명)가 편제되어 있었으며, 이 인원을 제외하면 충청도와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조직 편제 및 인원현황

충청남도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97명)	문화체육관광국	(114명)
· 문화정책과	(33)	· 문화예술산업과	(36)
· 문화유산과	(24)	· 체육진흥과	(30)
· 체육진흥과	(15)	· 관광항공과	(28)
· 관광진흥과	(25)	· 건축문화과	(20)
전라남도		전라북도	
관광문화체육국	(77명)	문화체육관광국	(85명)
· 관광과	(20)	· 문화예술과	(27)
· 문화예술과	(15)	· 관광총괄과	(22)
· 문화자원과	(18)	· 체육정책과	(18)
· 스포츠산업과	(18)	· 문화유산과	(18)
· 전국체전기획단	(6)		

-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비교하여 업무수행의 방향성을 분석하였음. 서편제와 관련된 지역과의 비교결과 조직의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업무 외에 기획 단계의 업무가 많았음. 이는 부서의 특성이 ' 문화정책 '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전라남북도의 국악 및 전통예술 관련 업무를 제시한 것과 크게 비교됨.

	충청남도	전라남도
담당업무	<p>[문화정책과 업무]</p> <p>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지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문화예술 증장기계획 수립 도립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공립예술단 운영방안 검토 박물관/미술관 지원업무 <u>국립국악원 충남분원 추진</u> 공립 예술단 운영 <u>한국민속예술축제</u> 전국무용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u>민속농악 활성화</u> 충남 청년 뮤직 페스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충남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음악창작소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폐산업시설 관련 업무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 추진 다중이용업소 지도관리 영상·영화산업육성 지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공예산업 지원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건립·조성 문예회관, 공연장 등 건립/리모델링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종합계획 예술의전당 건립 3.1운동 충남백년의집 건립 충남도립미술관 계획수립 충남도립 예술의 전당 계획수립 도립미술관 운영 물류센터 운영 섬 국제 비엔날레 계획 수립</p>	<p>[문화예술과 업무]</p> <p>전남문화재단 운영 <u>남도소리올림픽</u> 운영 지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생활문화센터관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 도서관 업무 전반 문화가 있는 날 비영리법인업무 통합문화이용권 국어진흥업무 문학 관련업무 예술진흥 업무 <u>도립국악단 운영</u>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 <u>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u>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록 운영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u>남도문예르네상스</u> 추진 전남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추진 종가문화 활성화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한국 수목 해외 전시 추진 전남도청 갤러리 운영 남도 사이버 갤러리 운영 서예공모대전 작은영화관 공예 관련 행사 및 축제 지원 영화 인센티브</p>

- 전남도와 상세비교를 했으며, 충북도와 전북도는 간략히 기술하였음.

	충청북도	전라북도
담당업무	<p>[문화예술산업과]</p> <p>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충북학 업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 문화콘텐츠 관련 및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종교업무(천주교, 불교) 충북문화재단 및 도립교향악단 등 예술단체 운영 관리 문화재 정책</p>	<p>[문화예술과 업무]</p> <p>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 도단위 대표문화예술단체 지원(예총 외) <u>전주세계소리축제</u> <u>지역대표공연예술제(대사습, 춘향제,</u> <u>필봉, 마실)</u> 신나는 예술버스 <u>어린이예술단 운영(국악관현악단/교</u> <u>향악단)</u> 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창의적 문화 영재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교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을 비교해보면 충남도의 경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앞서 언급된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기술과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충청남도]

□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충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모두가 행복한 충남 ◆ 풍요, 풍요롭고 쾌적한 충남 ◆ 창의, 창의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

□ 전략, 과제,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도민 누구나 행복한 문화자치 실현	3.5	33.3	53.5	33.5	34.5	158.3
1-1. 지역문화 기반 마련	2.8	31.8	52	31	32	149.6
1-2. 지역문화 환경 개선	0.7	1.5	1.5	2.5	2.5	8.7
2.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26.5	74.5	49	100	656	906
2-1. 생활문화 정책 활성화	3.5	9	9	11	11	43.5
2-2.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5	5	5	5	5	25
2-3. 지역예술 선순환 체계 확립	18	27	27	27	27	126
2-4.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확대	-	7	8	8	613	636
3. 충남의 창의적인 문화자산 발굴과 활용	13	39	44	43.5	46.5	186
3-1. 고유한 지역문화 발굴과 보전	9	17	19	19	22	86
3-2. 개성있는 지역문화의 상품화 및 미래 자산화	1	9	10	9.5	9.5	39
3-3. 창의적 지역 콘텐츠, 관광 산업 강화	3	13	115	15	15	61
4. 미래의 가치를 열어가는 지역문화	76	124	126	127	128	581
4-1. 문화적 지역재생 활성화	-	7	7	7	7	28
4-2. 공간기반 문화정책 확산	18	55	55	55	55	238
4-3. 지역문화의 양극화 해소	58	62	64	65	66	315
합 계	119	270.8	272.5	304	834	1,800

□ 계획의 특징

- 생활문화의 날 지정, '문화가 있는 날' 활용, 도내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 등에서 「충남 생활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 장기적으로 생활문화협의체를 통한 생활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추진 등과 같은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함
- 충청남도·시·군·유관기관·도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식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한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2020-2030) 수립 예정
- 충남의 특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전함. 충남의 금강문화, 내포문화, 백제문화, 충청유교문화, 해양문화 등 특화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충남 언어·문화·지명·지역학 조사 연구하여 충남 언어를 활용한 지도·스토리텔링 등 제작 등 충남 언어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충청북도]

□ 비전과 목표

비전	도민이 함께 행복한 일상속의 문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참여형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충북 자연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 충북 문화예술 협력 강화 및 연간 문화예산 2.0% 이상 확보 지속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17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 : 5년간 2,882억 원
- 연도별 : 718억('20), 537억('21), 767억('22), 603억('23), 256억('24)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도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충북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279.8	295.7	526.7	366.7	109.7	1,578.6
1-1. 충북 대표 문화거리 (가칭)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 조성	2	28.7	9.7	9.7	9.7	59.8
1-2. 종원문화 중심 박물관 건립지원·활성화	3.0	3.2	253.2	103.2	46.2	408.8
1-3. 도민 가까이에 있는 문화공간 조성 확대	226.0	215.0	215.0	205.0	5.0	866.0
1-4. 찾아가는 생활문화 활동지원	48.8	48.8	48.8	48.8	48.8	244.0
2.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충북문화 세계화 추진	412.6	212.8	202.9	203.6	113.2	1,145.0
2-1. 충북 자연-문화 융합 힐링 관광지 조성	133.0	54.0	44.0	44.0	19.0	294.0
2-2. 충북 유네스코 문화재 활용 확대	110.3	17.5	17.6	18.3	2.9	166.6
2-3. 충북형 문화창조마을 조성	126.0	70.5	70.5	70.5	20.5	358.0
2-4. 충북 전통무예문화 브랜드화	1.6	1.6	1.6	1.6	1.6	8.0
2-5.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15.42	15.42	15.42	15.42	15.42	77.1
2-6. 충북 대표 축제 활성화	7.7	8.4	8.4	8.4	8.4	41.3
2-7.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18.6	45.35	45.35	45.35	45.35	200.0
3. 뉴노멀 시대 대응 충북 문화예술(산업) 역량 강화	22.5	28.5	37.5	33.5	33.5	155.5
3-1. 코로나19·미래 대응형 충북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5.0	5.0	12.0	7.0	7.0	36.0
3-2. 충북 문화 전문인력 발굴-육성-활용 체제 확립	8.5	8.5	8.5	8.5	8.5	42.5
3-3. 문화예술 창업 지원체제 고도화	3.0	9.0	11.0	12.0	12.0	47.0
3-4. 유희공간 활용 마을단위 문화활동 활성화	6.0	6.0	6.0	6.0	6.0	30.0
4. 충북 문화자치 협력체계 개선·문화재정 확충	비예산 사업					
4-1. 충북 문화예술 진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	-	-	-
4-2. 충북 지역문화 재정 확충	-	-	-	-	-	-
합 계	718.6	537.0	767.1	603.8	256.4	2,882.8

□ 계획의 특징

- 충북 시행계획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면서 다른 시도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는 부분은 충북문화의 세계화 강조임. 충북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페스티벌, 무예문화 브랜드화, 충북 대표축제(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의 활성화가 충북화의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청주와 충북을 기록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함.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사후관리와 관련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충북 청주에 설립함. 또한 충청북도 주요 도시 및 읍면에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통합한 라키비움 조성하고, 역사 기록사업, 마을 사서 양성을 통한 마을 문화기획자(라키비스트) 양성을 병행함

[전라남도]

□ 비전과 목표

비전	자생과 혁신의 문화전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 기초가 튼튼한 문화전남 ◆ 소통,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전남 ◆ 혁신, 지역을 바꾸는 문화전남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 : 5년간 11,319억 원
- 연도별 : 1,220억('20), 3,304억('21), 3,033억('22), 1,976억('23), 1,766억('24)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자생력 있는 전남문화 생태계 구축	55	59	32	32	33	211
1-1. 근거기반의 지역문화 구축	-	1	1	1	1	4
1-2. 지역 문화재정 확충 및 자치화	-	1	1	1	1	4
1-3. 전남형 문화거버넌스 구축	2	2	2	2	2	10
1-4. 문화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53	55	28	28	29	193
2. 누구나 즐기는 문화환경 조성	710	865	846	823	832	4,076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570	570	570	571	571	2,852
2-2.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2	3	3	3	3	14
2-3.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37	41	44	48	54	224
2-4.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21	74	36	38	44	213
2-5.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80	177	193	163	160	773
3. 남도다움이 돋보이는 문화 발굴·활용	423	2,333	2,085	1,068	865	6,774
3-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289	1,759	1,409	746	598	4,801
3-2. 남도문화의 미래 자산화	77	202	120	56	21	476
3-3.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57	372	556	266	246	1,497

구 분	'20	'21	'22	'23	'24	계
4. 남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남문화	32	47	70	53	56	258
4-1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지역 활력 증진	3	9	12	18	18	60
4-2. 거점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	11	19	38	15	18	101
4-3.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지원	18	19	20	20	20	97
합 계	1,220	3,304	3,033	1,976	1,786	11,319

□ 계획의 특징

- 전남은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계획에서 특징적임
- 전남 다도해 섬의 문화, 역사, 생물, 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 섬·바다 정원을 조성하고, 국가 섬·바다 연구센터, 섬별 테마정원, 전시·홍보관, 섬마을 재생 등을 추진함. 또한 섬의 가치와 문화 연구·보존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및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함
- 마한사와 남도문화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고자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을 발굴함

[전라북도]

□ 비전과 목표

비전	우리가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전북문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화재정 비율:2019.1.2.% → 2024 1.8%) ◆ 시군 지역문화기반 격차 감소 (지역문화지수 표준편차 전국평균 수준) ◆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본 지정 1개 및 예비지정 3개 지역 이상)

□ 전략, 과제, 예산

-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 계획에 대한 예산 자료 없음

□ 계획의 특징

전략 과제	핵심 과제
1. 지역 생태계 구축으로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문화자치 제도 마련과 체계화 ② 안정적인 지역문화재정 확보 ③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④ 지역의 공공·민간 역량 강화
2. 균형과 다양성으로 지역문화기반 격차 해소	① 문화향유격차 해소와 질적 도약 ② 예술창작 지원과 예술인복지 강화 ③ 성평등적 문화행정 혁신과 확산 ④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활성화
3.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	①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② 문화유산의 생활 계승과 활용 ③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④ 문화적 지역재생과 도시브랜드 제고

- 도-시군 간 계획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이양 균특산업 중심으로 관련 예산 확보와 시군의 자율적 운영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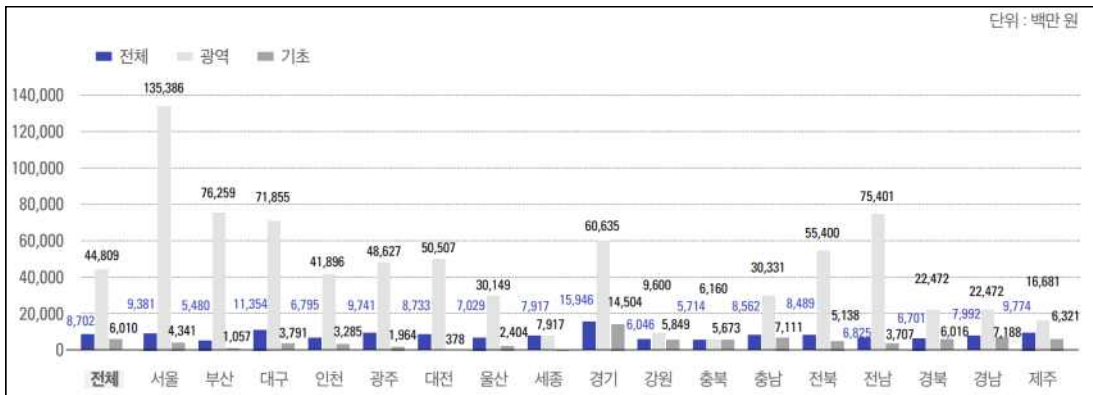
- 시군 또는 시군이 연합하여 다년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도에서 심사 선정 협약 후 예산지원과 컨설팅 진행함. 향후 계획계약제도 연구(2021), 계획계약 도입 및 시범사업(2022), 확대(2023)할 계획임

- 다른 광역 시도 계획에 비해 문화행정에서의 성 평등적 혁신과 확산에 대한 강조가 특징적임. 지역문화예술계에 대한 성 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및 성차별 대응센터를 설립 및 운영함. 그 외에도 성 평등적 지역문화 정착 종합계획 수립,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 지원 등이 있음

5. 예산 및 전승 인프라 분야

- 충남도의 예산 및 전승 인프라는 비교대상인 서편제의 향유지역으로 전통음악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호남권(전라남북도)의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이 지역에 비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및 결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예산 지역별 평균현황을 보면 충남은 전체평균 448억원에 못미치는 303억원이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경기, 전남, 전북에 비해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 : 공연예술예산 지역별 평균현황



2020 공연예술조사 결과보고서 (문화관광체육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시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비교해보면 충청도의 예산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구분	합계	'20	'21	'22	'23	'24
충청남도	1,800	119	270	272	304	834
충청북도	2,882	718	537	767	603	256
전라남도	11,319	1,220	3,304	3,033	1,976	1,766

- 공연장 수와 장르별 공연현황을 분석해보면, 충남도는 국악관련 공연 단체 및 활동이 서편제 지역인 호남지역에 비해 부족하며, 시설의 개관연도가 비교적 오래 되었음

[공연시설 수 및 개관년도]

구분	시설 수 (개)	1969년 이전		1970년대 (1970~ 1979년)		1980년대 (1980~ 1989년)		1990년대 (1990~ 1999년)		2000년대 (2000~ 2009년)		2010년 이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전체	1,028	3	0.3	12	1.2	63	6.1	162	15.8	358	34.8	430	41.8
충북	26	-	-	1	3.8	8	30.8	3	11.5	10	38.5	4	15.4
충남	35	-	-	-	-	4	11.4	7	20.0	14	40.0	10	28.6
전북	45	-	-	-	-	4	8.9	10	22.2	15	33.3	16	35.6
전남	36	-	-	-	-	3	8.3	11	30.6	9	25.0	13	36.1

- 호남지역에 비해 국악관련 공연실적이 상당히 부족하며, 유료관중의 비중과 티켓가격이 높음.

구분	공연장 수 (개)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지역1 충남 50	공연건수(건)	284	153	47	9	205	8	131	136
	공연일수(일)	388	172	53	12	207	10	131	150
	공연횟수(회)	702	250	59	13	210	13	158	165
	관객수(명)	132,434	103,132	23,796	8,423	77,354	9,103	37,740	71,046
	유료관객비중(%)	31.0	35.4	21.8	62.1	31.9	30.6	27.1	24.8
	평균티켓가격(원)	15,526	17,646	12,497	24,374	15,265	11,856	10,912	10,985
	전북 59	공연건수(건)	259	200	83	13	585	12	408
공연일수(일)		1,507	463	115	14	608	14	430	350
공연횟수(회)		1,596	571	124	15	615	15	472	379
관객수(명)		123,692	169,589	25,675	8,470	156,518	7,639	90,172	101,298
유료관객비중(%)		39.1	43.1	7.9	58.7	9.2	19.4	4.2	10.2
평균티켓가격(원)		14,347	15,821	7,354	9,307	11,953	5,999	5,857	5,873
전남 54		공연건수(건)	193	162	54	10	200	12	262
	공연일수(일)	363	192	131	11	211	14	311	246
	공연횟수(회)	474	305	292	12	224	16	462	454
	관객수(명)	110,728	123,272	20,341	5,155	79,653	9,123	75,689	78,214
	유료관객비중(%)	12.3	19.7	10.6	28.5	9.2	29.4	29.6	5.1
	평균티켓가격(원)	12,021	14,127	8,199	10,952	15,711	25,865	5,732	5,251

[공연시설 장르별 공연건수/일수/횟수/관객수]

- 공연시설 장르별 공연건수/일수/횟수/관객수

- 국악관련 공연사업비가 호남지역 및 전체 평균보다 낮으며, 공연입장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시설수 (개)	연극 (천 원)	뮤지컬 (천 원)	무용 (천 원)	발레 (천 원)	양악 (천 원)	오페라 (천 원)	국악 (천 원)	복합 (천 원)	대중음악 (천 원)	기타 (천 원)
전체	1,028	36,772.0	32,867.8	10,998.3	3,956.3	53,448.6	12,001.7	15,879.5	23,990.1	28,532.5	14,139.6
충북	26	38,537.1	44,747.8	6,148.5	2,751.5	21,063.7	-	10,303.3	5,255.5	4,176.6	12,590.9
충남	35	47,721.7	31,976.1	13,614.4	6,003.1	25,927.0	10,244.6	11,865.6	36,067.0	57,056.3	26,759.9
전북	45	19,066.1	47,179.8	10,149.4	2,327.0	28,823.8	2,953.2	56,012.7	13,556.4	25,707.3	7,361.7
전남	36	20,044.8	30,555.5	5,453.8	2,635.6	14,982.3	11,634.4	25,256.1	10,844.4	57,687.3	69,595.8

[공연시설 장르별 평균 공연사업비]

구분	시설수 (개)	연극 (천 원)	뮤지컬 (천 원)	무용 (천 원)	발레 (천 원)	양악 (천 원)	오페라 (천 원)	국악 (천 원)	복합 (천 원)	대중음악 (천 원)	기타 (천 원)
전체	1,028	26,711.2	26,761.9	2,684.7	1,986.2	16,102.6	2,832.0	2,875.8	10,240.4	7,995.9	2,140.1
충북	26	12,719.7	6,604.5	1,179.3	203.7	4,486.2	-	1,277.5	466.8	153.9	594.8
충남	35	4,144.1	7,638.4	2,407.1	2,923.6	5,392.9	944.1	1,799.0	2,336.4	12,706.0	2,777.6
전북	45	16,938.0	15,121.3	890.2	1,872.7	4,993.1	112.9	591.7	887.8	7,872.7	1,407.0
전남	36	3,483.1	13,398.2	349.8	480.6	6,100.4	1,654.6	485.9	248.4	3,163.7	17,661.0

[공연시설 장르별 평균 공연입장 수입]

- 국악관련 공연단체 수와 공연건수가 호남지역에 비해 적음. 관객수는 전북도보다 적으나, 전남도보다 많음.

구분	단체 수 (개)	주요활동장르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전체	3,972	1,301	32.8	477	12.0	1,301	32.8	749	18.9	144	3.6
충북	59	21	35.6	3	5.1	14	23.7	20	33.9	1	1.7
충남	76	16	21.1	7	9.2	32	42.1	20	26.3	1	1.3
전북	116	19	16.4	15	12.9	35	30.2	45	38.8	2	1.7
전남	80	19	23.8	4	5.0	28	35.0	28	35.0	1	1.3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현황]

구분	단체 수 (개)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기타	
충북	59	공연건수(건)	204	71	13	-	160	1	277	15	27
		공연일수(일)	781	497	10	-	199	3	737	18	28
		공연횟수(회)	1,011	497	13	-	218	3	798	18	28
		관객수(명)	58,163	20,762	4,952	-	73,245	2,605	116,972	6,574	53,380
		유료관객비중(%)	48.4	35.7	75.3	-	15.6	20.0	8.8	-	-
		평균티켓가격(원)	15,261	12,500	7,500	-	14,572	30,000	11,408	-	-
		충남	76	15	27	66	-	440	30	635	96
충남	76	공연건수(건)	15	27	66	-	440	30	635	96	70
		공연일수(일)	63	35	59	-	453	30	684	128	70
		공연횟수(회)	88	49	61	-	474	30	704	134	70
		관객수(명)	34,302	20,296	29,525	-	133,706	11,524	384,762	101,454	5,169
		유료관객비중(%)	2.7	16.8	4.9	-	2.8	1.4	7.4	1.9	-
		평균티켓가격(원)	11,348	15,000	7,000	-	16,671	10,000	14,781	12,805	-
		전북	116	140	16	88	1	231	2	882	63
전북	116	공연건수(건)	140	16	88	1	231	2	882	63	-
		공연일수(일)	494	94	195	1	242	7	1,347	137	-
		공연횟수(회)	505	100	242	1	246	7	1,393	152	-
		관객수(명)	90,910	15,276	139,091	1,176	124,211	4,276	523,200	91,137	-
		유료관객비중(%)	30.9	72.9	21.1	50.0	10.2	39.1	4.9	6.5	-
		평균티켓가격(원)	11,770	16,790	17,734	10,000	8,952	10,000	13,536	14,466	-
		전남	80	175	2	25	-	367	-	816	48
전남	80	공연건수(건)	175	2	25	-	367	-	816	48	3
		공연일수(일)	358	2	25	-	438	-	891	66	3
		공연횟수(회)	435	2	25	-	440	-	900	66	3
		관객수(명)	96,373	1,131	500	-	155,190	-	249,797	7,456	1,312
		유료관객비중(%)	7.5	-	-	-	9.7	-	0.7	5.6	-
		평균티켓가격(원)	9,137	-	-	-	16,972	-	5,954	5,000	-

[공연단체 지역별 장르별 공연건수/일수/횟수/관객수]

- 국악 공연단체의 평균 공연사업비를 보면 전북, 전남에 비해 적음.

구분	단체 수 (개)	연극 (천 원)	뮤지컬 (천 원)	무용 (천 원)	발레 (천 원)	양악 (천 원)	오페라 (천 원)	국악 (천 원)	복합 (천 원)	기타 (천 원)
전체	3,972	22,482.3	52,666.8	5,848.8	3,740.4	27,754.0	6,014.4	13,745.5	4,639.9	9,273.7
충북	59	21,771.7	4,389.0	3,319.9	-	15,843.5	1,478.9	12,779.7	3,603.6	-
충남	76	3,747.1	1,213.3	5,381.4	-	63,377.6	239.7	29,799.7	3,390.3	2,537.0
전북	116	9,672.0	3,916.1	5,582.7	40.6	16,745.8	874.9	53,980.9	2,037.7	85.3
전남	80	20,617.3	369.6	425.0	-	41,420.5	-	48,235.1	781.2	-

[공연단체 지역별 장르별 평균 공연사업비]

구 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지원액 (백만)	비고
2019년	63	31	159	
2020년	58	24	130	
2021년	49	19	120	

- 중고제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중인 충남문화재단의 최근 3년간 전통문화예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과 지원건수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과 ‘중고제’ 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19년 전통문화예술 지원현황 (신청건수 63, 지원건수 31, 지원액 1.59억)

NO	사업명	지원액 (백만)
1	대금, 그 울림의 향기	5
2	주혜경 가야금 독주회 (가야금 30년 인생 -가야금으로 인생을 그리다)	3
3	심화영 추모 10주기 기념중고제 판소리 춘향가 완창발표	4
4	충남무형문화재의 시대적 가치의 재조명 - 충남무형문화재 제24호 '태안설위설경'정해남 보유자의 '조상해원경'을 중심으로	6
5	2019 자미 안희숙 제4회定期 정가발표회	2
6	사라진 천안의 소리들<천안의 흥타령>	6
7	제8회태안전국국악경연대회	8
8	Good~계룡 예술제	4

9	제 22회 전국남녀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	5
10	2019년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공연)	8
11	가무악극 '논외, 은진미륵을 만나다'	5
12	제9회 서산 전국국악경연대회	6
13	제19회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5
14	2019 신나는 난장 쓰리 'GO'(보고,듣고,즐기고)	6
15	무왕즉위식	5
16	제21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5
17	세월이 스민 국악의 멋	4
18	국회의장 훈격 제8회 닳개 우리소리 전국국악경연	5
19	얼씨구! 놀아보세~	6
20	중고제 적벽가 완창	4
21	제6회 가야금양상블 담현 정기연주회	4
22	홍주 천년 대취타 정기 공연 및 국악공연	4
23	해설이 있는 추모음악회<명창 고수관선생, 방만춘선생을 기리며...>	5
24	제24회 한내국악제	5
25	더 GOOD!-난장	6
26	신나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탈춤	4
27	국악한마당 '우리소리우리춤'	3
28	타악 그룹 “산타” 세 번 째 이야기 “타락” (두드리는 즐거움)	4
29	제16회 서산시 전국민요경창대회	10
30	전통예술	4
31	전통 공주아리랑	8

- 2020년 전통문화예술 지원현황 (신청건수 58, 지원건수 24, 지원액 1.3억)

NO	사업명	지원액 (백만)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완창 발표회	4
2	제 9회 조정아가야금독주회 '대화9' - 긴 이야기를 털어 놓다	3
3	여섯번째 공개행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51호 판소리 예능보유자 김수향과 제자발표회	5
4	기억하는 소리, 남겨진 전통 <노동요>	4
5	가무악극 '놀미전'	6
6	2020 중고제 적벽가 완창	5
7	무왕즉위식	7
8	우리가락 한마당 <신 굿놀이>	6
9	Good~계룡 예술제	4
10	전통예술	8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박첨지놀이 공연	3
12	타악 그룹 “산타” 네 번째 이야기 “타고락취”	5
13	사람이 사는세상 동학	7
14	공주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5
15	열 네 번째 중고제 가무악 연주회 '심'	5
16	제25회 한내국악제	4
17	제 8회 가야금양상불담현 정기연주회	6
18	전문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3
19	아름다운 동행 - 충남 +	4
20	전문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4
21	2020 국악양상불 '休[hue:]' 정기연주회- 여섯 번째 '쉽'	10
22	2020 전통연희단 난장앤판 정기공연 '삼합(三合) 가. 무. 악'	4
23	당진아리랑	4
24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기념 풍류 "나비아 청산가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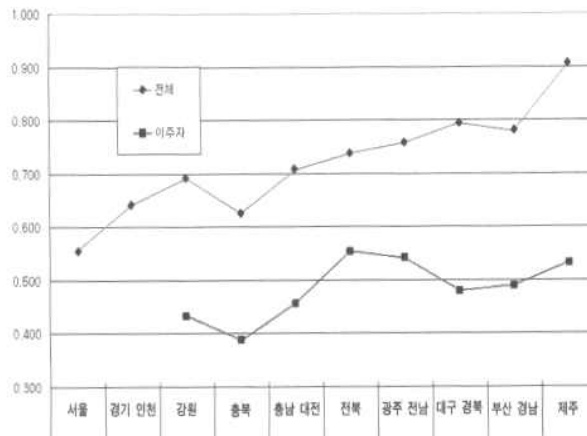
- 2021년 전통문화예술 지원현황 (신청건수 49, 지원건수 19, 지원액 1.2억)

NO	사업명	지원액 (백만)
1	김기홍 고법발표회 <타음>	3.5
2	아리아리 아리랑 다섯고개	3.9
3	황세희 판소리 발표 향성 III(響聲) - 비나리와 씻김 外 영상제작	4.3
4	충남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공연창작 시연 - 충남무형문화재 제56-1호 앓은굿 '태안설위설경'정해남 보유자의 조상해원경중 '길베짚기'를 중심으로	4.8
5	가무악극 '향교의 풍류'	8.3
6	범 내려 온다	5.5
7	아름다운 동행 - 함께 부르는 아리랑	5.5
8	위로와 축원을 위한 <굿놀이>	8.9
9	제 7회 가야금양상블 담현 정기연주회	9.0
10	2021 신나는 난장 쓰리 GO(보고, 듣고, 즐기고)	5.5
11	토실토실(土實土實) 국악한마당	6.0
12	스토리텔링 천년지학	5.3
13	백제기악을 찾아서	8.3
14	공주아리랑!增高제를 만나다 (조선시대 마당극 재현)	6.9
15	소리를 그리다	6.9
16	동학 공연 (우리문화종합극)	5.5
17	Mother of EARTH	9.5
18	공주아리랑 흥의 마당	6.9
19	마음으로 듣는 풍류	5.5

6. 종합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s)	약점요인(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중고제 관련 명창들이 많고 관련 유적이 풍부함 • 공주, 부여 등의 백제문화 관련 역사 유적이 풍부하여 전통문화의 연결이 용이함 • 서울 경기와 인접해 있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평균에 비해 예술단체 규모와 활동이 전반적으로 낮음 •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짐 • 중고제 관련 연구와 교육을 통한 전승 및 보존 관련 준비가 안되어 있음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의 기회 확보 • 세계적 한류의 전통음악 다양성 확립으로 중고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중고제의 특성인 다양성과 창의적인 독특함으로 전통음악의 플랫폼(platform) 역할 수행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비해 국악 문화예술정책의 기반과 중고제 공감대가 약함 • 지역발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연계사업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반이 취약 • 코로나, 경기침체, 고령화 등으로 문화예술의 젊은 창작 및 향유 기반 약화

- 충청지역은 지역적 기반에 의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과 충북간의 지역내 교류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진출과 충청이남 지역과의 통로역할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 정립이 필요함.











- 수도권으로 이주한 충청지역 출신의 출신지역별 동일지역출신과의 교류비율을 보면 타지역에 비해 충청지역 출신간의 교류가 현저히 적음을 볼 수 있음(이재열 외, 2004).

출발 \ 도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서울	65.93	0.76	0.47	2.7	0.6	0.74	0.2	21.99	1.12	0.8	1.22	0.98	1.01	0.68	0.57	0.24
2 부산	3.62	74.42	1.02	0.56	0.25	0.43	2.35	2.52	0.47	0.36	0.55	0.36	0.88	1.89	9.95	0.37
3 대구	2.88	1.29	75.28	0.41	0.09	0.48	0.82	2.13	0.43	0.42	0.41	0.21	0.2	13.07	1.74	0.14
4 인천	8.42	0.61	0.36	68.92	0.49	0.68	0.21	12.55	1.18	0.91	2.04	1.06	1.05	0.7	0.6	0.22
5 광주	4.86	0.38	0.14	0.77	73.34	0.45	0.11	3.11	0.26	0.21	0.4	1.76	13.43	0.2	0.35	0.23
6 대전	5.44	0.75	0.7	1.06	0.49	68.55	0.31	5.21	0.86	3.29	9.32	1.51	0.64	0.89	0.83	0.14
7 울산	2.96	5.81	1.73	0.61	0.24	0.46	70.94	2.73	0.78	0.57	2.89	0.67	1.05	4.32	4.06	0.18
8 경기	17.17	0.71	0.48	3.83	0.64	0.9	0.22	67.73	1.48	1.19	2.01	1.01	0.94	0.82	0.64	0.22
9 강원	9.97	1.07	0.76	2.32	0.33	1.02	0.6	10.4	65.93	2.12	1.24	0.57	0.62	1.86	0.99	0.19
10 충북	6.92	0.74	0.63	1.55	0.24	4.07	0.4	7.86	1.91	69.04	3.18	0.66	0.54	1.44	0.69	0.13
11 충남	9.84	0.89	0.55	3.15	0.52	10.76	0.35	11.76	1.06	2.6	53.81	1.88	0.83	0.95	0.88	0.19
12 전북	8.65	0.54	0.28	1.52	1.84	1.67	0.25	6.67	0.46	0.54	1.69	72.75	1.92	0.44	0.57	0.2
13 전남	8.88	1.46	0.3	1.71	14.22	0.64	0.37	6.57	0.53	0.42	0.78	1.79	49.68	0.59	11.67	0.39
14 경북	5.22	2.74	14.35	1.08	0.19	0.86	2.33	4.63	1.24	1.12	0.9	0.37	0.75	61.93	2.1	0.18
15 경남	3.8	11.15	2.27	0.72	0.3	0.56	2.3	3.08	0.59	0.44	0.78	0.49	0.97	2.03	70.26	0.28
16 제주	7.72	2.68	0.8	1.28	0.93	0.56	0.5	4.82	0.66	0.46	0.7	0.81	1.8	0.98	1.62	73.69

자료: 주택 및 인구센서스 1998년 자료

- 지역별 역외 인구유출지를 보면 충남(경기 11.76%, 대전 10.76%, 서울 9.84%)과 충북(경기 7.86%, 서울 6.92%) 모두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이재열 외, 2004).

지역	전입지	전출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통계청)를 통해서도 충청도의 인구 유출입을 보면 주로 충남북간의 교류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에서 충청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타지역 사람들이 갖는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느긋하다, 소박하다, 온순하다, 둔하다 등)과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재열 외, 2004).

	평균	내부 인식	외부 인식	내부인식과 외부인식의 차이	내부인식과 평균의 차이	외부인식과 평균의 차이
느긋하다	78.6	90.8	77.3	13.5	12.2	-1.3
소박하다	70.5	90.8	68.3	22.5	20.3	-2.2
온순하다	66.9	86.8	64.7	22.1	19.9	-2.2
둔하다	57.6	65.8	56.7	9.1	8.2	-0.9
약하다	29.0	40.8	27.7	13.1	11.8	-1.3
단순무식하다	27.2	36.8	26.1	10.7	9.6	-1.1
상냥하다	16.2	26.3	15.1	11.2	10.1	-1.1
강건하다	6.7	14.5	5.9	8.6	7.8	-0.8
야무지다	4.6	7.9	4.3	3.6	3.3	-0.3
약다	4.0	5.3	3.9	1.4	1.3	-0.1
씩씩하다	2.7	3.9	2.6	1.3	1.2	-0.1
간사하다	2.2	-	2.2	-2.2	-2.2	-
거칠다	1.4	1.3	1.4	-0.1	-0.1	-
과격하다	0.6	1.3	0.6	0.7	0.7	-

- 이재열(2004년) 등은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첨단과학, 정보화도시로 변신을 꾀하는 충청도가 가진 ‘느림의 미학’이 새로운 정체성과 창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최근 거론되는 소위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권을 묶고자 하는 움직임이 각 지자체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충청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청지역 음악적 정체성으로서의 ‘중고제’가 재조명 되어야 함. 또한 호남권과 영남권과는 다른 충청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은 수용성이 큰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임.

제 5장 중고제 증장기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충남문화재단은 2016년 이후로 ‘중고제’를 기획사업으로 추진해왔음
- ‘중고제’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 충청의 고유문화예술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전송도 미약한 채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지속사업으로 5년 여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과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고제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함
- 충남문화재단의 지속적 의지로 도민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실기인들의 관심도를 높여왔으므로, 현 시기 중고제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증장기 비전이 요구됨
- 중고제 관련 사업이 비전과 목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 발전과 충청의 문화자긍심 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중고제는 충청의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브랜드로 문화분권시대에 메가시티의 문화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고제는 한국전통예술의 원류이자 본산 역할을 한 ‘전통 중의 전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한국의 핵심 전통 ‘중고제’를 확산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임
- 이에 따라 증장기 비전 및 사업목표와 전략, 세부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중고제 관련 수요예측

-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활동 관람률을 기준으로 충청남북도의 인구, 충청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백제문화제 방문자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문화예술 관람자 중에서 전통예술 관람자 전체를 실질적인 중고제 수요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중고제를 지역적으로 충청지역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면, 충청지역의 인구와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의 일부가 잠재적인 수요로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전통예술 관람률(10.3%)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결과적으로 최소 8만 6천 ~ 최대 94만여명이 중고제 관련 잠재적인 수요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활동 관람률과 전통예술 관람률

구분	전체(%)	전통예술(%)	비고
관람률	81.8	10.3	
관람의향률	86.3	11.8	

- 충청남북도 인구기준 : 충청남북도와 대전·세종을 합쳐 최대 553만명을 기준으로 하였고, 코로나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산출결과 충청남북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전통예술을 관람하는 추정인구는 약 57만명이며, 관람의향률(11.8%)을 반영하면 65만여명으로 추정됨.

구분	인구수(명)	합계 (명)	추정수요 (명)
충청남도	2,118,098	5,536,481	<u>570,270</u> (10.3%)
대전광역시	1,455,058		
세종특별시	366,560		653,304(11.8%)
충청북도	1,596,765		

- 충청남북도 인구기준 (2020년 12월 기준)

- 2019년 제65회 백제문화제에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주와 부여의 방문객은 총 94만여명이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통예술행사 관람률을 반영하면 9만 6천명이 추산되며, 백제문화제의 경우 대부분 전통문화 행사임을 감안하면 94만여명이 잠재수요로 볼 수 있음.

구분	방문객(명)	추정인원(명)	비고
2019년	939,697	96,788	

- 또한 2019년 충청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84만명이며, 이를 기초로 전통예술 관람률을 반영하면 8만 6천여명으로 추산됨

구분	관광객(명)	추정인원(명)	비고
충청남도	154,456		
대전광역시	380,438		
세종특별시	140,130		
충청북도	167,645		
계	842,669	86,797	

3. 중고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미션	충청의 문화예술 브랜드 '세계 속의 중고제'			
비전	중고제 예술 문화의 전승과 향유			
핵심가치	복원	전승	향유	
사업목표	중고제공연지원	문화예술브랜드 확립	기초연구지원	진흥체계 확립
전략	중고제 공연 /복원 지원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 지원	중고제 관련 연구 확대	중고제 진흥을 위한 체계 확립
세부과제 (12대)	중고제 공연 지원	중고제판소리 /춤/산조	중고제 학술총서 발행	중고제관련단체 클러스터/연합 체 구축
	중고제 복원 공모 확대	중고제 가무악 전승지원	중고제 컬쳐코드 조사	중고제 진흥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홍보 체계 구축
	중고제 세계전통가무 악축제	중고제 가무악 스토리텔링/콘 텐츠 사업	신한류 중고제 국제학술대회	중고제 진흥 대상 마련
	신한류 중고제 '스토리' '콘텐츠' '국제화'			

2) 핵심 전략

4대 추진 전략	12개 전략별 세부 과제
중고제 공연/복원 지원	1. 중고제 공연 지원
	2. 중고제 복원 공모 확대
	3.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 지원	4. 중고제 가무악 무형문화재 지정 지원
	5. 중고제 가무악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6. 중고제 가무악 스토리텔링/콘텐츠 사업
중고제 관련 연구 확대	7. 중고제 학술총서 발행(아카이브 구축)
	8. 중고제 컬처코드 조사
	9. 신한류 중고제 국제학술대회
중고제 진흥을 위한 체계 확립	10. 중고제 관련 단체 클러스터/연합체 구축
	11. 중고제 진흥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홍보 체계 구축
	12. 중고제 진흥 대상 마련

사업기간	사업 내용
기반 구축(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기초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연구사업 ◦ 재단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 <p>➔ (1.4.7.10)</p>
사업 실행(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대상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확대 ◦ 기초연구를 진행한 후속사업 ◦ 기존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p>➔ (2.5.8.11)</p>
사업 확장(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 기초연구를 통한 후속사업 <p>➔ (3.6.9.12)</p>

3) 세부 추진 과제

1

중고제 공연 지원

- 사업 개요 : 중고제 가무악 관련 공연 지원으로 관련 예술인 육성을 위함. 중고제 상설 공연이 필요함

2

중고제 복원 공모 확대

- 사업 개요 : 2021년 시행한 중고제 판소리 복원 공모를 확대, 시행하여 중고제에 대한 관심과 예술 전승을 유도. 2차년도 중고제 춤, 3차년도 중고제 산조 등으로 확대 시행

3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 사업 개요 : 중고제가 한국전통예술의 ‘원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세계무형유산과 교류함으로써 중고제의 위대성을 세계에 알림

4

중고제 가무악 무형문화재 지정 지원

- 사업 개요 : 중고제 전승의 올바른 통로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전승되는 가무악 관련 전승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충남도와 협의, 지원함.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

5

중고제 가무악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사업 개요 :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가치성 등이 뛰어난 중고제 가무악 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전승하는 예술인을 지원함

6

중고제 가무악 스토리텔링/콘텐츠 사업

- 사업 개요 : 중고제에는 예술적 ‘창조’와 ‘창시’한 예술인이 많은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혹은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이 필요함. 예를 들면 중고제 시조 김성옥 이야기, 거문고 산조의 창시자 백낙준, 심정순 가문 이야기, 심화영과 승무 스토리, 김석창의 판소리 이야기 등등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의 원천을 활용함.

7

중고제 학술총서 발행(아카이브 구축)

- 사업 개요 : 중고제 관련 재창조와 콘텐츠 창작을 위해 기초 연구자료를 단행본으로 발행하고, 여기서 확립된 자료들을 누구나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자료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8

중고제 컬러코드 조사

- 사업 개요 : 중고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전, 전승, 활용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 중고제에 대한 인식 개선, 감성코드, 대중화 요소 등 분석

9

신한류 중고제 국제학술대회

- 사업 개요 : 충청의 문화브랜드를 넘어 국가문화브랜드로서의 중고제 전통계승과 재창조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학술조사, 국악연구, 문화정책, 공연예술, 예술기획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의 전통가무악과 비교 연구의 장 마련. 특히 신한류 도약을 위한 연구.

10

중고제 관련 단체 클러스터/연합체 구축

- 사업 개요 : 중고제의 핵심 지역인 경기, 충청에 주소를 두고 활약하는 단체들과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과 협력. 중고제 사업을 아우

를 수 있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시민 문화 형성을 유도.

11

중고제 진흥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홍보 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중고제 사업의 예산을 중고제 핵심지역 서산, 홍성, 논산, 서천, 공주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예산 투입과 공공 문화 효과 산출.

12

중고제 진흥 대상 마련

- 사업 개요 : 중고제 진흥을 위해 노력, 헌신한 관련자에게 매년 시상금과 상장을 줌으로써 중고제 활성화의 계기와 자긍심을 부여.

4. 추진 방향

1) 공연/대중화 분야

- 중고제 전승 활성화를 위한 상설 공연 지원이 필요함. 현재 중고제 관련 가무악을 펼칠 무대가 없고, 전승을 했다 하더라도 공연할 기회가 많지 않음. 중고제 상설 공연 무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고제 가무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창조된 현대적 중고제의 모습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이동백의 새타령을 퓨전 국악으로 부른 밴드 등
- 중고제 가무악의 범위는 판소리, 병창, 산조, 풍류, 심화영/김석창/한성준 계열의 춤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다양한 충청제 예술을 포용할 필요가 있음
- 중고제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웹툰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한 연극/드라마/뮤지컬 제작 등을 유도

2) 교육/인재양성 분야

- 중고제 관련 교육/인재의 양성에 있어서 우선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세가지를 제안함.
 - 장기적 접근 : 중고제와 관련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공자들이 부족하므로 장기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생활문화로서의 중고제 :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변을 확대하고 즐기는 문화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서의 참여를 하는 중고제를 지향.
 - 포용적 음악정체성 확립 : 표준화되고 박제화된 전통음악의 틀을 벗어나 중고제를 향유했던 시대의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소리의 독창성을 가진 음악정체성으로 발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외됨 없이 중고제 속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인재양성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충남도립대의 기초과정 개설이나 공주대학교에 중고제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중고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향후 중고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
-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 중고제 관련 자원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우선 충남도의 기초지자체의 문화관련 부서의 공감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각 문화원 및 문화 관련 단체·법인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단체,법인체 위탁교육 등 : 현실적으로 중고제 교육을 위한 자원은 빈약하므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위탁교육 등의 정책적 결정으로 실용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3) 홍보 마케팅 분야



○ 1단계 : 인식확산

- 우선 중고제에 대한 개념정립과 인식을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가 보유한 자원을 점검하고, 대중에게 최대한 많은 노출을 시키려는 비차별적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외래 관광객들에게 많은 노출이 될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
- 가용자원 점검 :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단계별 세부전략의 수립과 함께 관련 단체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조치 필요함
- 홍보 일정수립 : 단기간에 수행되는 완료가 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초기에 집중하는 단기적 홍보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적 홍보로 나누어 이에 따른 홍보수단을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함
- 홍보 목표 확인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해야 할 목표(유력인사,기관,일반인 등)를 정하고, 가용한 자원들을 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관련단체 및 인력을 준비함.
- 대내외적 이슈 확산 : 매스미디어(TV,신문,라디오 등)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단계로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양산하여야 함. 홍보대사 등의 활용과 매체 노출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

○ 2단계 : 참여확대 및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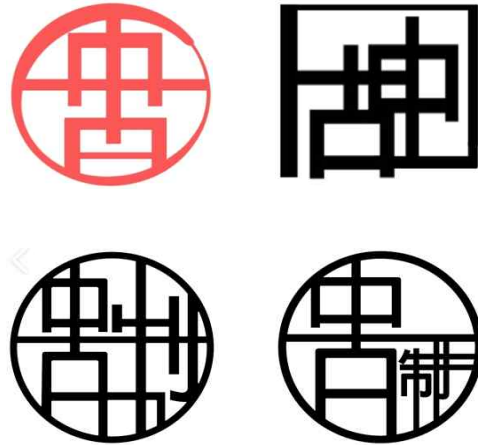
- 중고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중고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로서 참여함과 동시에 중고제에 대한 심화학습이 진행되도록 홍보의 질적변화를 시도한다. 비차별적 홍보는 줄이고 관련 단체와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학습기회를 확대.
- 지속적 노출 : 초기 이슈화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잇를 확산하는 단계로 홍보 담당자와 외부의 전

- 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활성화 : 내외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적 집중을 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자극과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 이슈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사전 계획을 세심하게 해야 함.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구체적 추진상황 점검 : 참여하는 관련 단체별 홍보목표에 대한 진척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Follow-up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과 관련한 추진상황이 가능하면 구체적 숫자로 제시되도록 계획
 - 신속한 피드백 :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하여야 하며, 홍보전략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제공해주어야 함

○ 3단계 : 브랜드化

- 브랜드자산(Brand equity, 상표지식)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갖지 않거나 무명브랜드가 부착된 경우에 비해 그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갖는 차별적 브랜드 가치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지식(brand knowledge)와 관련되며, 브랜드인지도(brand awareness)와 브랜드이미지(brand image)에 영향을 받음(이학식 외, 2020).
-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재인과 회상이 용이함을 의미하며,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속성 및 편익과 관련되어 강력하고, 선호되고, 독특할수록 브랜드 자산이 높음
- 중고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브랜드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이미지화하고 상징화하여 충남도의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중고제 향유가 될 것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브랜드 지속유지 : 중고제의 연속성 있는 기획과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상징적인 명품 공연을 개발하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 중고제를 상징화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CI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예)



-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쌍방향 홍보전략 : 시작은 기관이 주도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의 주체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 온라인 초대장 등으로 참여도를 높여 초기에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적은 재원으로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쌍방향 홍보가 필요.

○ 인터넷 홍보

-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지속적인 전파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단으로 전파력과 지속성을 갖도록 재미있는 짧은 영상이나 인터넷 브로셔를 제작하고, 관이 먼저 전파를 선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 각종 SNS와 UCC를 통해 관련 인물 인터뷰나 행사 등의 영상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도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와 구성원이 지인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비용을 감안하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진행하며, 배너광고와 함께 연결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
- 파워블로거, 국악관련 홈페이지 운영자 등을 파악하고 공주시의 추진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사이트에 대한 호의적 태도형성을 위해 재미와 흥미(오락성),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정보성), 체계적인 구성(조직성),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웹페이지간 이동시 대기시간(waiting time) 등 사용자 중심이

어야 한다.

○ 언론 및 자료매체

- 방송의 경우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를 우선으로 하며, 충남지역을 배경으로 촬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섭외하여 방영되도록 하고, 관련 광고 및 자막방송을 의뢰하도록 함.
- 보도의 경우 수시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케이블 TV의 특성인 지속적인 노출 효과가 있도록 함. 언론매체의 노출이 다시 SNS를 통해 전파와 재생산이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 사회단체 등의 기업사보 등을 통한 홍보방안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열차나 고속버스, 택시 등에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함.
- 신문광고의 경우 전략적인 선정을 통해 게재 하도록 하며, 무가지 등의 홍보전략 등도 고려가 필요. 인쇄물의 경우 전국 언론 매체 및 언론인과 국회의원/정치인,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해하고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야 한다.

○ 기타 홍보

-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관공서나 시설의 출입구, 개인차량, 학생들의 가방 등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캐릭터 모양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이동차량 및 옥탑광고, 입간판 제작시 문구를 삽입하여 주목도를 높이고 노출을 최대화 한다.

4) 중고제의 음악적 정체성 확립

○ 정체성(Identity)

-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 에 대한 경험(정신분석용어사전,2002)이며, “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Erikson, 1956).
- 집합적 정체성은 의미 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

조하며, 성원들의 개별정보보다는 그들 간의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개인적 정체성은 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공유되지 않는 의미들의 독특함이 가져오는 차이를 강조한다.. 집합적 정체성은 단일의 집합적인 사회적 행위자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자아와 같음(정호영, 2001).

○ 집합적 정체성의 생성과정

① 범주규정	서로 무관한 개인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되는 과정
② 동일시	범주로 분류된 개인들이 성원들 간의 상호적 인식과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하여 동료 성원들과 집합체를 자아의 연장으로 간주
③ 정체성 교섭	동일시를 통해 공유한 의미들인 상호적 인식과 소속감, 즉 집합적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

- 정호영(2001)은 집합적 정체성 구성의 동학으로 범주규정, 집합적 동일시, 집합적 정체성 교섭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하였음.
- 중고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중고제 관련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중고제 발전협의체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집합적 정체성과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

- 집합적 정체성 구성은 평등한 행위자들 사이의 자연발생적 진화론적 과정이 아니며 권력 관계속에 위치하는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됨.
- 집합적 정체성 구성의 전 과정은 동원과 저항, 시행과 동조, 갈등과 합의, 거래와 협상 같은 정치적 과정들로 이루어지며, 집합적 정체성 구성은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진행됨.
- 결국 중고제를 통한 충청지역의 음악적 정체성과 이를 통한 충청지역정체성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이 필요함.

○ 중고제 음악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

- 충청지역은 역사적으로 수도권의 배후지 역할과 충청이남 지역과의 통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도의 지역정체성과 지역민들의 결속력은 약하다.
- 이중환의 택리지(1750)에 의하면, ‘충청도는 전라도와 경기도 사이에 있다(중략). 서울에 가까운 남쪽에 있어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 고 하였다.

- 충청도는 지리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남북으로의 교류가 활발했으나, 충청지역의 횡적교류(충북과 충남) 동서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이재열, 2004).
- 충청지역은 속칭 '멍청도', '햇바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의 결속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스스로 지역민간의 연대감을 형성할 계기나 교류를 만들어오지 못했고, 많은 음악적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에는 극히 소극적인 결과였다.

○ 중고제 음악의 다양성과 포용성

- BTS의 성공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의 물결이 그들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과거의 물결이 백제의 영광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충청도를 아우르는 음악적 정체성의 길을 터야한다. 그리고 충청남북도의 동서간 횡적교류를 통해 도로망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충청도가 중심인 '중고제' 를 통한 음악적 교류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고, 충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중고제의 정체성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심이어야 한다.
- 다양성 : 중고제의 시대는 수많은 음악적 실험이 존재했던 시기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리가 공존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현재 '이날치' 를 비롯한 많은 소리꾼들의 실험이 진행되는 지금이 중고제의 시대와 같은 다양성이 필요한 시기임.
- 포용성 : 시작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충청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긴 시간의 흐름속에서 결국 그들의 소리는 충청인의 소리로 변모해 갈 것이다. 중고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른 예술인들에게 배타적이어서도 안된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고제의 포용성일 것임.
- 전통음악의 부흥과 그 중심에 소리의 원류로서 중고제는 여러 소리들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편제나 동편제와는 다른 특성으로 발전하여 전통음악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제 6장 중고제 증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기획

1 중고제 증장기 발전 증장기 추진 사업 및 예산(안)

□ 사업목적

- 충청도 고유의 전통적 소리와 춤의 특성을 간직한 중고제 보존과 진흥을 통한 충청남도의 문화 브랜드화
- 중고제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특화와 경쟁력 강화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청권 내 문화예술관광의 대내외적 입지 마련
⇒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및 문화도시 기반 구축 활용

□ 주요 추진 사업

-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개최 (공연)
- <중고제의 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킷치코드 조사 (학술연구)
- 중고제 가무악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술)
- 중고제 진흥 대상 제정 (진흥)
- 중고제 활용 문화융합 콘텐츠 개발 (진흥)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개최 (500백만원)
- <중고제의 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킷치코드 조사 (40백만원)
- 중고제 가무악 국제학술대회 개최 (30백만원)
- 중고제 진흥 대상 제정 (30백만원)
- 중고제 활용 동영상 제작 지원 및 개발 (200백만원)

□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 중고제 판소리 성지인 충청남도의 위상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판소리 문화의 계승 발전과 중고제 판소리 및 무용의 저변 확대
-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 ‘보성 서편제 소리축제’에 버금가는 충청권의 대표적 중고제 소리축제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중고제 문화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 활용
- 축제내용: 충청무형문화재 무대, 천하제일 명창·명무 무대, 세계소리 예술가 초청무대,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 중고제 창작판소리 경연대회, 중고제 무용 경연대회, 중고제 대상 시상, 중고제 가무악 국제학술대회 등
- 추진기간: 매년 10월 중
- 소요예산: 500백만원*도비, 충청문화재단, 기업후원 등 예산 추가 확보
*보성군 서편제소리축제 예산-475백만원, *구례군 동편제소리축제 예산-250백만원

□ <중고제의 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컬처코드 조사

- 목적: 중고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한 중고제 보존·진흥의 전략 개발 및 활용
- 조사내용: 중고제에 대한 인식현황, 중고제에 대한 감성현황, 중고제의 감성요소 등 컬처코드 조사
- 조사방법: 설문조사(1,000명), 집단심층면접(FGI), 전문가 인터뷰 등
- 조사활용: 중단기 사업계획수립, 이미지 구축, 홍보마케팅 등
- 추진기간: 2022. 2.~2022.9. (7개월)
- 소요예산: 40백만원

□ <신한류 중고제 국제학술대회>

- 추진목적: 국가문화브랜드로서 중고제의 전통 계승 방안과 현대적 활용 방안 모색
- 주요 참가자: 국악학술, 문화정책, 공연기획 등 다방면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
- 개최시기: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기간 중
- 소요예산: 30백만원

□ <중고제 진흥 대상 시상>

- 추진목적: 충청권에서 역대 중고제 판소리 예술가와 보존 전승·진흥에 대한 업적을 선양함으로써 충청권 중고제 및 중고제 위상 강화
- 시상자: 중고제 진흥에 이바지한 예술가 및 학자, 작곡가, 후원자 등 시상
- 추진방법: ‘중고제 대상’ 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한 시상
- 시상시기: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기간 중
- 소요예산: 30백만원 (시상금-20백만원)
 - ※동리대상: 전북 고창 출신의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시상, 상금 15백만원

□ <중고제 활용 스토리텔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추진목적: 중고제 판소리 관련 이야기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듣고 즐길 수 있는 현대 음원 및 영상 개발로 중고제 판소리의 저변확대 도모
- 개발방법: 전국 공모를 통한 영상 공모(국악, 클래식, 재즈, 힙합, 랩 등) 활용계획
- 충청남도: 관공서 및 문화예술기관 BG 및 영상 활용, 중고제세계소리

축제 활용

- 전국: KBS 1FM 국악방송 프로그램 음원 및 영상 제공, 한국관광공사 영상제공

○ 소요예산: 200백만원

2 중고제 중장기 발전 연차별 소요예산

구 분	2022	2023	2024	2025	계
중고제 세계전 통가무악축제	500	500	500	500	2,000
컬처코드 조사	40	40	40	40	160
국제 학술대회	30	30	30	30	120
중고제 진흥 대상	30	30	30	30	120
콘텐츠제작지 원개발	200	200	200	200	800
계	800	800	800	800	3,200

중고제 중장기 발전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3 중고제 중장기 발전 예산 확보방안

- 국가무형문화재 중고제 지정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지원 사업
 - 국가중요문화재 제13호와 2005년 유네스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예를 들면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화유산교육사업>,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축전> 등 사업에서 약 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강릉단오제를 활용한 <창작콘텐츠 제작 지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 사업 등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있다.
- 문화재청 <인류무형문화유산>지원 사업은 인류무형문화유산 20개 종목⁶⁰⁾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공연, 행사, 체험 사업에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중고제 또한 판소리의 하나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 활용

-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을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의 거점으로 한 활용 사업의 장기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 사업내용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주제로 공연·전시 등의 고품질의 활용·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 교육 전문가 워킹투어 등 세계유산 이해·전달·해석 프로그램이 있다.
- 사업의 총예산은 6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경상북도⁶¹⁾와 제주특별자치도⁶²⁾, 경기도 수원시⁶³⁾가 선정되었다.
- 충청남도에서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고제 판소리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 유적지구⁶⁴⁾를 결합하여 <세계유산축전> 사업을 통해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을 문화예술과 관광의 콘텐츠로 확대 할수 있다.

60)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 씨름

61)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 연주 소수서원, 부석사 (1년지원, '22년)

6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년 지원, '22년)

63) 수원화성 (2년지원 '22~'23년)

64) 백제역사유적지구(총 8개의 유적지들 중 공주지역에 2곳(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4곳(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이 2015년 세계 유산 등재 됨.

□ 중고제 사업 지자체 예산 공동 활용

-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5곳의 지자체는 공동으로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을 구성함.

- 2014년 재단설립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등록 완료하고, 예산 및 사업 추진, 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논의함

- 5개 지자체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 유네스코 WCBR-ICC 총회 참석, 워크숍,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확정 됨

- 중고제를 보존 진흥하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충남문화재단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확장성, 파급효과 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중고제 사업을 각 지자체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난 2019년 2월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군의 5분발언을 통해 “전국에는 문인, 명창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지역을 빛낸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이 설립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최선달 명창 기념관을 건립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역사 체험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고제 판소리의 주요 활동지역인 홍성을 비롯한 서산·서천·공주·논산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고제 복원 전승을 통해 중고제 문화 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정보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며 “최선달 명창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과 문화 공간을 확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서천(<http://www.newssc.co.kr>) 2019.05.29. 중고제 소리를 찾아서(1)중고제 집대성한 김성옥과 강경포구

제 7장 2021년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시행

1. 중고제 콘서트

1) 추진목적

- 중고제 악가무 콘서트를 통해 충청문화의 전통문화 부흥
- 중고제 악가무의 실체를 널리 알려 중고제 문화의 대중화를 꾀하고 중고제를 지역의 문화브랜드로 확립

2) 공연개요

- 공연명 : 중고제 가무악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14:00
- 장소 :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
- 주최 : 충청남도
- 주관 : 충남문화재단

3) 세부계획

- 내포 향제 줄풍류(다현악회)
- 박상근류 가야금산조(이자영)
- 태평무(홍지영)
-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김영숙)
- 단가 백발가. 새타령(박성환)
- ※ 장단: 서용석, 김두수

4) 곡목 해설

- 내포 향제 줄풍류 : 내포 향제 줄풍류는 충청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줄풍류, 즉 현악영산회상을 가리킨다. 줄풍류란 실내에서 연주하는 방중악(房中樂)으로 주로 <영산회상>이나 <가곡> 반주와 같은 음악을 연주

하였다. 줄풍류에 사용되는 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양금과 같은 소리가 크지 않은 현악기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편성은 단쟁이(1악기에 1인 연주자) 편성이 기본이지만, 인원이 많을 때는 복수 편성도 가능하다.

- 박상근류 가야금산조 : 충청제 가야금산조 박상근류의 효시는 충북 청주 출신인 박팔괘(충북 청주, 1876~1947)이다. 박팔괘는 산조 1세대로 전라도제와 다른 독자적인 충청제 산조가락을 만들었고 가야금 병창을 창시했다. 충남 강경에서 태어난 박상근(1905~1949)은 13세 무렵부터 박팔괘에게 배워 대성하였다고 한다. 박상근은 빠른 악곡에 뛰어난 연주기량을 갖고 있었기에 가야금산조 장단 중 제일 빠른 단모리 장단을 산조에 최초로 짜서 넣었다고 한다.
- 태평무 :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충남 홍성 출신 한성준(1874~1942)이 창안한 춤이다. 우리나라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로서 민속춤이 지닌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조부인 한성준에게 춤을 배운 한영숙(1920~1990)의 태평무는 우아함과 담백함이 있고, 발 동작을 중심으로 민첩하면서도 섬세하며 다양한 발놀림과 발디딤에서의 묵중하고 정교한 품새, 뛰는 듯 안 뛰는 듯 경쾌한 동작이 특징이다.
- 거문고산조 : 거문고산조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백낙준(1884~1933)이 1896년 처음으로 연주하였으며, 1914년~1918년경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낙준은 1918년 안기옥에게, 1924년 김종기에게, 1925년 박석기에게, 1929년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하였다. 백낙준 거문고산조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선율이 확장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와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에서 백낙준 거문고산조 선율의 대부분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단가 백발가, 새타령 :중고제 거장 이동백(1866~1949) 특유의 우람하고 기름진 목구멍으로 거뜬거뜬 불러가는 백발가는 가히 충청도 말투를 닮은 투박하고 은근한 맛이 일품인 단가이다. 우직하고 꾸밈없는 충청도 사람의 마음과 성질에 와 닿는다고 할 수 있다. 이동백 소리 ‘새타령’은 요즘의 잡가 새타령과 달리 강건한 소리조로 구성되어 있다. 호방한 멋과 깊은 소리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고제식 발성과 함께 고졸한 충청도 전통 미학을 느낄 수 있다.

5) 출연진

- 다현악회(多玄樂會) :2003년 창단한 다현악회는 풍류음악을 이어가는 단체이다. 풍류를 통해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순화하며, 고품격의 연주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옥순(대표), 김영숙, 박정수, 성화진, 김문조, 박지연, 신서연
- 이자영
 - 청주대학교 국악과 졸업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부수석 단원
- 홍지영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제40회 부산동래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전승회 중부지회장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안무자
- 김영숙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 경북대학교 대학원 음악학박사
 -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출강
- 박성환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공주문화재단 이사
 - (사)한국중고제 판소리진흥원 이사장

○ 서용석

-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 대전무형문화제 제17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16회 팔마고수전국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부지회장

○ 김두수

- 서울예술대학 졸업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 국가무형문화제 제3호 남사당놀이 전수자
- 대전무형문화제 제1호 대전웃다리농악 이수자

2. 학술세미나

1) 추진목적

-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인 충청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 한음악 문화로 확대 생산된 중고제 악가무를 지역의 고유문화로로서의 가치 조명
- 중고제를 충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 및 중고제 전승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과 발전 방안
- 주제
 - 제1주제 :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송혜진)
 - 제2주제 : 중고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특징(김인숙)
 - 제3주제 : 중고제 문화브랜드 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주재근)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15:00
- 장소 :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
- 주최 : 충청남도
- 주관 : 충남문화재단

3) 참여자

○ 주제 발표자

- 송혜진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김인숙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주재근 :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토론자

- 문봉석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 정 진 : 한양대학교 강사
- 이희성 : 단국대학교 교수

○ 좌장

- 배연형 :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소장

○ 사회

- 최혜진 : 목원대학교 교수

3.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
14:00~14:01	1	개회	사회자(최혜진)
14:01~14:02	1	내빈소개	사회자(최혜진)
14:02~14:05	3	인사말	김현식(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4:10	5	축사	안 호(논산시 부시장) 김형도(충청남도의회 의원)
14:10~14:50	40	중고제 가무악 공연	
14:50~15:00	10	장내정리	
15:00~15:20	20분	주제발표 1	발표(송혜진)

15:20~15:40	20분	주제발표 2	발표(김인숙)
15:40~16:00	20분	주제발표 3	발표(주재근)
16:00~16:10	10분	휴식	
16:10~17:00	50분	토론	좌장(배연형) 토론(문봉석, 정진, 이희성)
17:00~17:10	10분	- 폐회 및 정리	

4.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홍보자료

1) 포스터



2) 중고제 가무악 팜플렛



5.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 행사 사진



6. 학술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료

<별첨1>

제 8장 결론

1. 결과

- 본 연구는 충남문화재단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고제르네상스사업’을 확대하여, 중고제 전승과 향유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
- 위 연구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19일에 중고제 콘서트와 학술세미나를 시행하였음
-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고제의 개념은 경기, 충청지역에서 고제를 이어 오던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던 판소리의 한 유파, 혹은 이를 통해 파생된 가무악을 이룸. 범위는 19세기 말부터 중고제 판소리의 가문에서 이어지던 가, 무, 악의 전승계보를 아우름.
- 중고제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중고제 관련 인물, 역사, 음악, 춤, 연주가 등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의 시각을 충청지역 음악의 발생과 근현대 한국전통예술의 ‘원류’라는 입장에서 재조정하고 중고제 예술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중고제의 범위와 전승계보를 가지는 분야는 판소리의 경우 내포권, 금강권, 경기권, 충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춤의 경우 심정순 가문의 승무, 한성준 계열의 전통 춤, 김석창 계열의 전통 춤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악 연주의 경우, 백락준의 거문고 산조,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병창, 박팔괘의 가야금 산조, 내포계 풍류, 대전향제 줄풍류 등이 전승 혹은 복원되고 있음
- 중고제의 명창과 유적,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음. 지역적으로는 홍성, 서천, 논산, 공주, 서산 등이 중고제의 핵심 지역이며, 이외 충북, 세종, 경기 등도 중고제 명창과 유적 등이 있어

발굴될 필요가 있음. 향후 유적에 대한 정밀 종합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고제 명창과 관련한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주요 기사 내용, 사진, 음반자료, 『조선창극사』의 관련 내용 등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장르별/인물별 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망라해 정리함. 이 자료는 향후 중고제 관련 콘텐츠로 창작에 활용할 수 있음
- 중고제의 전승 문제점과 방향에서는 대내외 인식 분야, 교육분야, 홍보분야, 정책분야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SWOT분석을 시도하였음. 아직까지 모든 분야에서 인식이나 지원이 매우 미미한 차원으로 파악되었음
- 충남도의 예산 및 전승 인프라는 비교 대상인 서편제의 향유지역으로 전통음악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호남권(전라남북도)의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매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및 결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예산 지역별 평균현황을 보면 충남은 전체평균 448억원에 못미치는 303억원이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경기, 전남, 전북에 비해 매우 부족함.
- 중고제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는 충청의 문화예술 브랜드 ‘세계 속의 중고제’를 미션으로 4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 핵심 가치는 ‘복원’ ‘전승’ ‘향유’이며, 사업목표는 ‘중고제 공연 지원’ ‘문화예술브랜드 확립’ ‘기초연구 지원’ ‘진흥 체계 확립’으로 제시하였음. 4대 전략은 ‘중고제 공연/복원 지원’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 ‘중고제 관련 연구 확대’ ‘중고제 진흥을 위한 체계 확립’임
- 세부 과제로 ‘중고제 공연 지원’ ‘중고제 복원 공모 확대’ ‘중고제 세계전통가무악축제’ ‘중고제 판소리/춤/산조 무형문화재 지정’ ‘중고제 가무악 전승 지원’ ‘중고제 가무악 스토리텔링/콘텐츠

츠 사업 지원’ ‘중고제 학술총서 발행’ ‘중고제 컬러코드 조사’
‘신한류 중고제 국제학술대회’ ‘중고제관련단체 클러스터 조성’
‘중고제 진흥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홍보’ ‘중고제 진흥 대상 마
련’ 을 제시함.

- 중고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 방법을 제시 하였음. 연차별 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1월 19일 시행한 중고제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참여 인원은 100여 명임.

2. 제언

- 중고제는 충청의 문화브랜드이면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원류라는 위상을 가지므로, 이를 계승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다대함
- 문화분권시대에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날로 중요해지므로 ‘중고제는 충청지역의 문화자긍심을 높이고 단합으로 이어지는 매개가 됨. 이에 따라 지역 고유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충청지역은 예로부터 문화융합의 지역,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고제를 통해 전통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충청의 대표브랜드 ’ 중고제 ‘를 위한 관련 예산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 중고제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과 진흥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절실함
- 중고제는 과거의 것이 아닌 미래 계승해야할 가치있는 무형문화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요구됨

참고자료

<자료집>

“국창 이동백옹(명인열전1)”, 삼천리1권3호, 1929.12. 김수현 · 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잡지편』 권2, 민속원, 2008, 634-636쪽.

“李東伯翁” 『신천지』 1954년 9월호, 서울신문사, 138-142쪽.

“팔도명창 가곡평” 삼천리 6권7호, 1934.7. 김수현 · 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잡지편』 권4, 민속원, 2008, 409쪽.

<매일신보> 1925년 7월 29일 2면 기사.

<풍류방의 명인들>-송영석 판소리와 신쾌동 거문고산조-, 2CD, 배연형 채록, 전북도립국악원 개원30주년 기념 보존자료 복각음반, 전북도립국악원, 2016.(녹음: 서봉 허순구 1950년대말-1960년대초/진행: 김정태 전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사/제작: 서울미디어, 예술기획탐)

1937년 4월 29일자 <매일신보>, “그들의 회고담(1), 통정대부 하사하신 조선의 명창, 오십년 정진의 가지가지 조선성악회 이동백”

1937년 4월 29일자 <매일신보> ‘그들의 懷古談(1) 通政大夫 下賜하신 朝鮮의 名唱, 五十年 精進의 가지가지’,

1939년 3월 15일자, 조선일보, “일대 명창 이동백 은퇴 기념 공연회 본사주최 래 29, 30 양일간 부민관에서-팬에게 보내는 최후 선물”

1939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이동백 일대기(2)”

강한영 교주,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민중서관, 1974.

결성농요보존회, 『결성농요』(결성농요특색과 최선달·김창룡 후예들), 1995.

김선현 외, 『숙영낭자전의 작품세계』1,2,3. 보고서, 201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판소리 유파』, 1992, 1-290쪽.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3,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이동백, 임방울, 임옥돌, 방진관, 심상건, 정광수, 서울음반, 1994. 해설, 채록: 노재명

서유석 외,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사, 2013.

이유경 외, 『장끼전의 작품세계』, 보고사, 2013.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 도서출판 탐진, 1992.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정병헌 교주, 『조선창극사』, 태학사, 2015.

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수궁가』, 민속원, 2005.

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심청가』, 민속원, 2005.

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적벽가』, 민속원, 2005.

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춘향가』 1-2, 민속원, 2005.

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홍보가』, 민속원, 2005.

최혜진 옮김, 『계우사/이춘풍전』, 지만지고전선집, 2009.

『삼천리』 6권 7호 1934. 7. <팔도명창 가곡평>

<논저>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연구회, 「국악학자 이보형 대담자료(1), 판소리 발생론 2005.11.5」, 『판소리명창』창간호, 2005.

김기형, 「정광수 명창 소리의 전승과 연행상황」, 『국창 정광수의 예술세계』, 2008.

김상훈, 「적벽가의 원형과 형성」, 『판소리연구』 37, 판소리학회, 2014, 74-75쪽 (49-78쪽.)

김선현, 「20세기 초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한국학연구』56,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16, 109-140쪽.

김성경, 「중고제 명창 김창룡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81-54쪽.

김유석, 「판소리 즉흥성에 대한 음악적 검토-이동백의 유성기음반 중 <박석티>대

- 목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44, 한국음악사학회, 2010, 41-69쪽.
- 김재웅, 「경북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24, 고소설학회, 2007, 219-250쪽.
-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과 문화지도 작성」, 『대동문화연구』88,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14, 232-262쪽.
- 김정현, “최선달의 흔적이 결성농요로 다시 살아나- 우리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崔先達)’ ”, <홍성신문>2009. 03.02. 기사
-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330쪽.
- 김진영 외, 『적벽가 전집』1, 박이정, 1998.
- 김진영 · 이기형 교주, <탄세단가>, 『단가집성』, 월인, 2002.
-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김현주, 「판소리의 일반적 형성과 지역문화」, 『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 김혜정, 「경드름의 성립과 전개」, 『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 노재명 편저,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채륜, 2012.
- 노재명, 『꽃피는 중고제 판소리』, 채륜, 2016.
- 박경수, 『명창 이동백』, 분지, 2005.
- 박성환, 「중고제 판소리 명창 방만춘, 방진관 연구」, 『한국학연구』35, 고려대학교학연구소, 2010, 39-71쪽.
- 박헌봉, 『창악대강』, 서광문화사, 1966.
- 박황,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4.
- 배연형, 「경기판소리의 음반자료」, 『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 배연형, 「송영석의 창작판소리 <역사가>와 이동백 제 <적벽가>」, 『판소리연구』45, 판소리학회, 2018, 87-117쪽.
- 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사설(4)」, 『판소리연구』 12, 판소리학회, 2001.

- 배연형, 「이동백 제 춘향가의 자료와 복원」, 『이동백의 춘향가 복원연주 시연회 자료집』, 2017.012.22.
- 배연형, 「이동백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59-115쪽.
-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149-195쪽.
- 배연형, <이동백, 김창룡 음반사설>, 판소리학회, 『서천의 판소리와 중고제』, 서천문화원, 2016, 323-327쪽.
- 배연형,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백대웅, 「18·19세기 서울의 도시문화 변천에 따른 음악문화의 변화양상」, 『민족문화연구』3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8, 61-98쪽.
- 사재동, 『백제권 충남지방의 민속과 문학』, 중앙인문사, 2006, 460-461쪽.
- 서종문, 김석배,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이해」, 『국어교육연구』 24, 국어교육학회, 1992, 33-64쪽.
- 서혜은,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74,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15, 105-140쪽.
- 손태도, 「조선후기 서울에서의 광대 문화 변동과 판소리」, 『고전문학연구』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103-139쪽.
-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 보고서, 2009.
- 신은주, 「김창룡 명창론」,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189-235쪽.
- 신은주, 「중고제 심청가 <범피중류> 연구」, 『판소리연구』27, 판소리학회, 2009, 147-207쪽.
- 신은주,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의 역사와 전승양상」, 『한국음악사학보』 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367-411쪽.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악조와 선율에 근거하여」, 『한국음반학』1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45-169쪽.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家의 소리』, 2009.

-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유영대, 「서산지역의 판소리문화」, 『명창고수관과 지역문화』, 명창 고수관선생 기념사업회, 명창 고수관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세미나, 2006. 11.17.
- 이국자, 『판소리 예술미학』, 나남, 1989.
- 李達載, “이동백과 조선음악-그의 은퇴와 금후의 조선성악회”, 조광 1939.5. 배연형 외, 『한국공연예술자료집』1, 민속원, 2002.
- 이보형,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20, 한국음악사학회, 1998, 271-291쪽.
-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18, 한국음악사학회, 1997, 9-16쪽.
- 이보형, 「유파 개념의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 『판소리연구』23, 판소리학회, 2007, 337-371쪽.
- 이보형, 「적벽가의 명창 모흥갑」,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377-387쪽.
- 이보형, 「판소리 가왕 송홍록」,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 이보형, 『판소리유파』, 문화재관리국, 1992.
- 이은우, 「명창 고수관의 성장과정과 음악의 맥」, 『명창고수관과 지역문화』, 명창 고수관선생 기념사업회, 명창 고수관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세미나, 2006. 11.17.
- 이진원, 「경기판소리와 민속 음악」, 『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 전상진, 「한국 가·무·악 선구자, 한성준 선생의 예술혼」, 홍주문화연구회·홍성군, 『중고제(내포제)와 한성준, 소리와 가락을 찾아서』, 제1회 중고제(내포제)전 통문화육성사업결과보고서, 2016, 62-70쪽.
- 정광수, 『전통문화오가사전집』, 문원사, 1986.
- 정병헌, 「중고제 판소리의 대중화 방안」, 『공연문화연구』 36,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29-43쪽.

- 정병헌, 「판소리의 지향과 실창의 관련성 고찰」, 『판소리연구』32, 판소리학회, 2011, 265-294쪽.
- 정병헌, 『판소리 문학론』, 새문사, 1993.
- 정우락·백두현,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어문논총』6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9-41쪽.
- 정출현,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8, 255-313쪽.
- 조영규, 「금강 유역의 중고제 판소리-송흥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 靑葉生, “명창 이동백전”, 『조광』 1937.3. (배연형 외, 『한국공연예술자료선집』1, 민속원, 2002, 213-220.)
- 최동현, 『판소리란 무엇인가』, 에디터. 1996.
- 최혜진, 『판소리 유파의 전승 연구』, 민속원, 2012.
- 최혜진, 『충청의 판소리, 중고제』, 충남대출판문화원, 2020.
- 충남대마을연구단, 『서산 초록리』, 민속원, 2010.
- 판소리학회, 『서천의 판소리와 중고제』, 서천군, 2016.
- 황성창(홍성군 사료조사위원), 「홍성의 중고제 명창 김창용 가문에 대한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충남·대전지회, 『충남 역사·문화의 자료와 현장』, 한솔엠앤씨, 2012, 381-401쪽.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공연예술조사」, 2020.
- 박선영, 「충청지역 판소리 중고제 복원양상과 의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재열, 강희경, 설동훈,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백산서당, 2004.
- 이중환, 「택리지 擇里志」,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2019.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석관호, 「소비자행동」, 집현재, 2020.

정주연, 「음악적 정체성 관련 문헌탐색과 향후 국내 연구의 시사점」, 미래음악교육연구, 2021, Vol. 6, No. 1, pp. 161~191.

정호영,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한은홍,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경 설계 전략」,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허창범,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에 대한 연구」, 대불대학교 논문집, 1996, Vol.2 No.1 . pp. 111-130.

통계청,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20.

<별첨 1>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중고제르네상스사업 학술세미나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과 발전 방안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5시

장소 :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남문화재단

중고제르네상스사업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01	개회	사회자(최혜진)
14:01~14:02	내빈소개	사회자(최혜진)
14:02~14:05	인사말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4:10	축사	안 호논산시 부시장 김형도 도의원
14:10~14:50	중고제 가무악 공연	
14:50~15:00	장내정리	
15:00~15:20	주제발표 1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1p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15:20~15:40	주제발표 2 중고제 적벽가의 장단구성 특징 19p	김인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5:40~16:00	주제발표 3 중고제 문화예술브랜드 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 43p	주재근 (한양대 겸임교수)
16:00~16:10	휴식	
16:10~17:10	토론	좌장 : 배연형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문봉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정진 (한양대 강사) 이희성 (단국대 교수)
17:10~17:20	폐회 및 기념촬영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

송혜진(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1. '중고제 현상'을 바라보며
2. '중고제' 라는 '말'과 '뜻'
3. '중고제' 보다 '충청제'
4. '현대적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질문
5. 글 마무리

○ 발표에 앞서

중고제 판소리 및 충청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이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참여하긴 했는데, 주최측에서 주신 제목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학술적 논거를 갖춘 논고를 완성하기 어려워 고심하던 끝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식으로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번 발표 기회를 통해 1980년대 후반기부터 중고제 판소리 및 관련 연구와 활동 성과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이 주제를 숙고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중고제 현상'을 바라보며

1988년, 박사과정 재학 중에 지도교수이신 이혜구박사님의 권유로 일제강점기의 신문·잡지자료에서 국악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심정순'이라는 음악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송만갑·이동백·김창룡 등, 이름난 명창들과 달리 심정순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신문·잡지에 기술된

그의 활동 이력은 대단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공연 활동 외에 그가 부른 소리가 <강상련(江上蓮)>·<연(燕)의 각(脚)>·<토(兔)의 간(肝)>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점이다. 1912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재된 <강상련>·<연의각>·<토의간>은 각각 <심청가>·<홍보가>·<수궁가>가를 뜻하는 한자 명칭으로 제목만 변경되었을 뿐, 아니리와 장단 명칭을 갖춘 ‘판소리 창본’ 일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심정순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당대 오명창으로 거론되던 소리꾼들 대신, 신문에 연재될 판소리 구술자로 초빙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대단했던 음악가의 행적이 불과 백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잊힌 까닭은 무엇일까, 고음반에 담겨있는 그의 소리와 연주는 과연 당시의 언론에서 추켜세운 것처럼 예술적으로 대단 했는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았다.

한편, 자료 조사과정을 지켜보시던 이혜구 박사님은 심정순이라는 개인 예술가에 대한 관심보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구술 판소리 창본에 ‘평타령’이 나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다. ‘예전에 고수 한성준은 중모리라는 말 대신에 평타령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면서 심정순이 말하는 ‘평타령’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필자는 한성준과 심정순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 ‘평타령’이라는 말이 판소리 장단명으로 전승되지 않는 점, ‘평타령’이 고사소리와 연관이 있다는 이보형 선생님의 의견을 연결하면 뭔가 중요한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다. 1988년에 발표한 “심정순 창 심청가의 장단구성 특징”⁶⁵⁾에서 이 ‘고리’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창본에 드러난 사설과 장단 배열을 통해 ‘장면의 극적 상황 묘사를 위한 전개보다는 이야기 내용을 평이하게 전하는 구성’이며, 이점이 중고제 지역의 소리 특징과 관련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⁶⁶⁾

65) 송혜진, “심정순 창 심청가의 장단구성 특징,” 『한국학』(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제34집, 299-320쪽.

66) 평타령에 대해서는 이후 신은주, 김인숙에 의해 다 많은 용례와 음악적 성격 등이 더 논의 되었다. 신은주, “판소리 평타령·중모리·중중모리 장단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133-164쪽. 김인숙, “판소리 평타령장단고·중모리 장단의 성립을 중심으로-” 『동양음악』(서

이와 별도로 필자는 신문·잡지에서 알게된 심정순 관련 자료를 모아 『음악동아』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심정순을 소개했다. 필자는 당시 “숨겨진 음악인의 발길을 따라서”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편을 ‘가야금 병창 명인 심정순’⁶⁷⁾으로 기고한 것이다. 그의 여러 음악 활동 중에 ‘가야금병창 명인’으로 호명한 까닭은 심정순이 공연 활동에서 병창의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⁶⁸⁾

이 글을 제일 반겨주신 분은 민속음악학자 이보형 선생님이셨다. 이보형 선생님은 유성기음반을 수집하면서 심정순이라는 이름을 알았으나, 행적을 알기 어려웠던 차에 ‘심정순이 서산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곧장 네 차례에 걸쳐 서산 현지 조사를 다녀오셨고, 곧이어 지역에서 탐문한 자료들을 더 보태어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⁶⁹⁾이라는 글을 발표하셨다. 동시에 지역 언론과 관계자들을 독려하여 심정순과 그의 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노력에도 열성이셨는데, 이 과정에서 심정순의 막내딸 심화영님이 전해주는 아버지 심정순 및 집안 음악인 이야기와 그이가 오래 잊고 지내오던 춤과 노래를 다시 펼치는 모습은 여러 매체와 학계 인사들에 의해 ‘중요한 보물’로 평가되면서 ‘전승의 당위성’을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었다. ‘중고제’의 부활을 촉발하는 이 일련의 일들을 이보형 선생님은 훗날

“내가 복원 할라고 그랬나?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안 끊어졌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전 승을 해야지. 그래서 뺑뺑이를 시킨거여. 중요한 거라고. 보물이 있다고 그냥 떠들 어대니까. 사실은 뺑뺑이가 된거여”
70)

출: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21), 11-48쪽.

67) 송혜진, “숨겨진 음악인의 발길을 따라서-심정순편.” 『음악동아』(서울:동아일보사,1988)5월호. 182-188쪽.

68) 후속 연구를 통해 그가 공연단의 리더로서 예술감독 역할 및 극 형태의 공연물 구성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심정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송혜진, “음악가 심정순의 공연활동 재검토-1911년부터 1926년까지의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국악원, 2013),89-111쪽.

69)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7).

이라는 말씀으로 소회를 밝히신 적도 있다. ‘심정순과 그의 가계 음악 발굴’은 이렇게 소수 학계인사들의 관심과 지역 사회에서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으며 오늘날에 이르는 ‘중고제 현상’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후 한세대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고제 음악’ 레퍼토리 찾기, 판소리 분석을 통한 중고제 특징 찾기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었고, 충남지역에서는 관련 학술행사와 공연, 축제, 복원 사업 등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명인 명창을 배출한 충청지역의 몇몇 지역이 ‘중고제의 성지’로 언급되거나, 연고 예술가들을 기리는 ‘선양 사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편제, 서편제와 함께 판소리의 계보를 가리키는 용어의 하나’, ‘특유의 스타일을 가진 악조의 개념’으로 통하던 ‘중고제’라는 말은 ‘판소리 중에서도 오래된 소리, 즉 고제(古制)라는 뜻’으로 해석되거나, 판소리 외에 이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노래와 춤, 연주 등을 아우르는 장르개념, 또는 ‘충청 지역의 예술 전반’을 가리키는 등, 점차 광범위하고 중의적인 의미망이 결합되면서 충남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주요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학계 및 충남지역 문화계에서 포착되는 중고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이 실체가 다소 모호한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 발표의 주제와 연관 지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중고제’라는 ‘말’과 ‘뜻’

이번에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발표문의 주제는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다. 우선 ‘중고제 가무악’이라는 말에 걸려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 어려웠다. ‘중고제’라는 말을 ‘판소리 중고제’로 한정하는 것과 ‘중고제 가무악’으로 확장하는 것은 큰 차이

70) 2014년 9월 24일. 이보형선생님과의 인터뷰. 박선영, “충청지역 판소리 중고제 복원양상과 의의”에서 재인용.

가 있기 때문이다. 무용 분야 연구 논문 중 장동호의 “김덕순류 중고제 한량무의 특성연구,”⁷¹⁾ 이강용의 “중고제 4인 한량무의 역사성 고찰과 전승가치 파악,”⁷²⁾에서 중고제를 지역 예술인의 춤 전통과 결합하여 개념화한 예가 있고, 충청 지역의 예술행사에서는 ‘중고제 가무악’이라는 제목의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지역 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 선호도가 반영된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점에서 ‘왜 중고제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동안 중고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고제라는 말을 본고의 주제인 ‘현대화’, ‘활성화’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장황함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중고제라는 말은 처음으로 활자화되었을 때부터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었다.⁷³⁾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 현장의 실연자와 기록자들은 제각기 ‘내가 알고 있는 중고제’를 언급하였고, 그것을 옮겨 적은 이들에 의해 모호함이 더욱 증폭되었다. 일부에서는 중고제라는 개념이 ‘지역적 유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보형 선생님은 1982년에 발표한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동편제·서편제·중고제 전승을 중심으로”⁷⁴⁾에서 ‘중고제라는 말은 그리 쓰이고 있지 않지만~’이라는 전제 하에 몇몇 명창들에게 들은 중고제의 음악적 실체를 규명하여 중고제가 ‘경기·충청권의 지역 음악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음악적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축적되었다.⁷⁵⁾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고제 음악권에서 형성된 판소리가 남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에 비해 ‘고제(古制)’에 해당한다는 의견들이 부상하

71) 장동호, “김덕순류 중고제 한량무의 특성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72) 이강용, “중고제 4인 한량무의 역사성 고찰과 전승가치 파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73) “중고제, 호걸제는 엄계달 김성옥의 법제를 많이 계승하여 경기·충청간에서 대부분 유행한다.” 『조선창극사』 (서울: 동문선, 1994), 35쪽.

74) 이보형,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동편제·서편제·중고제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학논문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1-99쪽.

75)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SP음반 수록곡의 선율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외.

였다.⁷⁶⁾ 기존의 ‘지역성을 띤 유파 개념’에 ‘시간성’이 부여됨으로서 중고제의 의미가 더욱 확장된 것이다. 그러자 전지영은 “판소리 중고제의 제설과 정의에 관한 재검토”라는 글을 통해 중고제와 관련된 일련의 의견에 대하여 정색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중고제’의 여러 용례와 문맥을 들어 ‘중고제’라는 말이 ‘지역 유파적 개념’으로 형성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것이며, ‘고제’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로, ‘중고제란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다수의 연구자들과 ‘다른 시선’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보형은 전지영이 ‘음악’ 얘기는 빼놓고 ‘말’과 ‘글’로만 중고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다소 격앙된 논조로 중고제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⁷⁷⁾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중고제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논쟁이 펼쳐진 셈인데 이 논고에서 이보형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중고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 여러 명창들이 말하는 중고제의 뜻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
- 중고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명창들뿐 만 아니라 학자들도 겪고 있다.
- 1970년대까지만해도 중고제 유파가 거의 소멸되고 있어 중고제 인식이 어려웠다.
- 타 지방 출신 명창이나 학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 당시에는 전라도 명창들과 학자들은 경기·충청도 소리제인 중고제 유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 이런 의미 충돌을 음악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학자들이 작위적으로 중고제를 정의하여 더욱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음악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음악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식이 어렵다’, ‘잘 모른다’, ‘모르고서 한 말이다’

76)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1994). 제5집. 149-195쪽.

77) 이보형, 이보형, “유파개념의 중고제와 악조개념의 중고제,”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2007), 제23집. 337-372쪽.

는 말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고제는 전승이 단절된 소리로, 전승지역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음악인이나 학자들도 알기 어려운 소리’ 라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이보형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중고제란 경기·충청에 거점을 둔 지역 유파일 뿐만 아니라 일명 ‘설령제’라 일컫는 ‘음형’과 ‘경기 충청도 참빛장사조’라 일컫는 ‘남도경토리 -평조’의 음형의 사례와 같이 ‘악조’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을 악조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악보>

지영희 해금산조

자진모리 김영재 창
이보형 채보

가 가 개 가간 기아강 - 가 리고 리 데
가 기 가 가 리 데

경제	중고제	동-서편제
경기북부	경기남부-충청도	전라도-경상도
경토리	남부경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
경조	평조, 설령제	계면조, 우조

그리고 지역 유파로서의 판소리 특징은 장단과 악조의 종류의 차이에 있다기보다 부분적인 ‘선율형’, 그리고 구성음간의 미분음정이나 시김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히셨다. 학술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론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 활용’과 ‘확산’의 관점에서 위의 결론을 헤아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보형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중고제란 단절된 판소리 전통을 이르는 말로서, 아는 이들도 별로 없고, 그 음악 특징은 소수의 전문 음악인과 음악학자가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특징적인 음형 두 가지와 세부적인 음악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 인데, 과연 이것을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자부심을 선양할 수 있는 ‘불씨’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중고제’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고, 문맥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으며,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면 이토록 상황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제’라는 말에 다른 무엇을 결합하여 사용할 때는 의미와 범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의 첫 번째 제안은 ‘중고제’라는 말을 ‘판소리 중고제’로 한정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적어도 ‘판소리 중고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하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답변할 수 있고, ‘말 하는 이’나 ‘듣는 이 사이’에 오해를 줄일 수도 있으며, 판소리 복원사업이나 재현공연을 기획할 때도, ‘왜’ · ‘어떻게’라는 명분을 분명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조나 병창, 춤 등의 공연 종목에 ‘중고제’라는 개념을 결합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중고제 가무악’이나 ‘중고제 한량춤’이라는 조어는 마치 ‘동편제 ○○○산조’, ‘서편제 ○○산조’, ‘동편제 가야금병창’, ‘서편제 가야금병창’, ‘동편제 ○○춤’, ‘서편제 ○○춤’, ‘동편제 가무악’, ‘서편제 가무악’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처럼 어색하다. 동편 · 서편 · 중고라는 용어에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이 말들이 ‘보편적인 지역 문화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중고제’ 보다 ‘충청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고제’라는 말을 ‘충남 지역’의 상징적인 문화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념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 중고제라는 말은 판소리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충남지역 전승 공연

예술 전반을 아우를 때는 다른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내포’라는 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내포’는 지역에 오래 전 해온 단어일 뿐만 아니라 민요·시조 등의 음악 갈래와 결합하여 ‘내포제’라는 예술적 의미도 내제되어 있다. 따라서 ‘내포제’라는 말을 지역 전승 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각 갈래의 예술 양식을 지칭할 경우 어느 정도 상충을 피할 수는 있을 듯하다. 다만, ‘내포’는 조선시대 지리지 『택리지』에서 ‘가야산 앞뒤와 오서산 북쪽의 열 개 정도의 고을’이라 언급된 바 있고, 충청 지역 내에서도 서북부 권역을 뜻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역에서 ‘내포제’라는 말보다 ‘중고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부연설명을 요하는 ‘중고제’나 ‘내포제’ 같은 말 대신 한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 3의 대안을 찾아보시라 권하고 싶다. 학술논문이나 공연관련 명칭에서 ‘충청제 가무악’ ‘충청제 한량무’, ‘충청제 춤사위’, ‘충청제 가야금산조’와 같이 ‘충청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충청제’라는 말은 ‘호남제’, ‘영남제’, ‘경기제’와 같은 용례처럼 예술 양식에 지역성이 반영된 뜻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다음의 표와 같이 ‘충청제 가무악’이라는 큰 범주를 설정하고, 그 안에 중고제 판소리를 비롯하여 지역의 민요와 농악, 춤과 풍류, 시조, 연희, 개인 예술로 전해오는 산조와 병창 등의 장르들을 배치해보면, 지역의 전통공연예술 갈래와 종류에 고루 관심을 포함 수 있고, 각각의 상호 관련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주와 갈래를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틀에서 보면 각각의 갈래들을 ‘따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균형 발전 모델’도 구상해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장르와 방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충남의 지역전승 공연예술 콘텐츠를 아우를 때 ‘제’라는 말을 꼭 써야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전통공연예술에서 ‘제’라는 말은 개인의 예술성을 반영한 고유한 양식의 완성으로서의 의미와 지역적 기반에 따라 형성된 의미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판소리의 경우, 지역 공동체 문화의 성격과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대중 예술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지역기반에 따른 심미적 취향이 반영된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애호층을 확보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의 개념도 확립되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제’에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애환이 반영되어 있어 청중들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이끌어내면서 ‘감정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로서 사회의 건전한 ‘소

통 기제’로도 작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 의미는 20세기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퇴화되고 말았고, 판소리 전승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지역 문화 활성화 관점에서 별이는 여러 사업에서 ‘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정의하고 활용할 것인지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중고제·내포제·충청제처럼 관용적인 어법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공연예술 용어로 전해오는 ‘제’라는 말, 이 말의 배경에 반영되는 있는 ‘지역 문화 공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적극적인 ‘선언’과 이에 근거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기획된다면 다소 보수적인 뉘앙스를 지닌 ‘제’라는 말이 참신하게 개념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현대적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질문

한편,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중고제 가무악’ 사업은 지역 출신 예술가 및 그들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전승하는데 관심을 두어왔다고 판단된다. 덕분에 사라지거나, 단절되었다고 생각했던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명창을 배출한 고장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충청’이라는 중고제 판소리 지역권 중에서 충남이 이를 ‘선점’한 것도 일말의 성과일 수 있겠다. 따라서 충남 문화권이 앞으로도 중고제 판소리 전승의 거점 지역으로서 유 무형의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기록→전시’하고, 이를 살아있는 오늘의 문화로 ‘복원’하는 일, 공연과 교육활동을 통해 확산하는 일, 새로운 형태의 공연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78)

본 발표의 핵심주제인 ‘현대적 전승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온 여러 학자들의 의견 및 충남문화재단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 온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및 서산·서천·공

78) 정미영, “내포제 소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방안,”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2011. 제39집. 415-442쪽. 박선영, “충청지역 판소리 중고제 복원 양상과 의의,”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주 등지에서 ‘중고제’와 관련된 진흥 계획에 대한 언급하기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몇가지 해봤다.

- 중고제 판소리 및 지역 예술 전승을 위한 정주(定住) 활동층은 얼마나 두터운가?
- 지역 내의 전승 및 예술 활동 주체들의 활동의지는 자발적인가?
- 전승 및 예술 활동 주체들은 지방 정부에서 내 건 목표를 인지하고 있는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승 및 예술 활동주체들의 목표와 지방 정부의 목표는 일치하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승 및 예술 활동 주체와 지방정부, 지역민간의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는가?
- 전승 및 예술 활동주체들은 지방 정부에서 내 건 사업에 참여할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지자체의 문화 예술 활성화는 민간 주체와 지방정부의 이상적인 협력관계. 즉,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정책 거버넌스란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집행주조가 지방정부 중심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망을 형성하여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말한다. 민간 주체와 지방정부의 이상적인 협력은 위계적 관계 속에서 관이 설계한 사업을 민간주체에게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가하거나, 민간주체들이 산발적으로 공공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더구나 공공의 주체도 다양하고, 정책과 연관된 여러 사업들이 다층적 구조로 연결되었을 경우, 공공과 민간 주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은 더더욱 어렵다.

중고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은 지역 외부의 자극(판소리 분야 전문가 학자)에 의해 촉발되어, 공공이 사업을 설계하고 구조화하여 지역 연고 예술주체들을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공공의 목표와 세부 사업 계획(문화재 지정, 전문 기관 유치, 공연장 및 전시관 설립, 고유 콘텐츠 개발, 교육, 세계화 방안 등)에서 제도 및 예산, 사업

유형 발굴 중심으로 논의되는 듯하다. 유능한 분들이 주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활동 주체’들의 ‘상호이해’와 ‘존중’, ‘관계 맺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지점에서 ‘전문 매개자 그룹’의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전문 매개자’란 대부분 관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민간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생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양쪽 입장을 해석, 전달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목적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이들이다. 공공과 민간이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의 문화공간, 인력, 콘텐츠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및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주체 간의 힘의 균형,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전문 매개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두 주체가 지역문화 정체성의 핵심요소와 가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 및 호혜에 대한 이해 기반을 넓혀, 탑 다운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예술 주체들의 활동이 자신의 역량 개발이나 개인 영위를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감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들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얘기들은 지역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거버넌스 운용에서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사례를 들어 도출된 의견들이다. 79)

5. 글 마무리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레퍼토리, 사람, 제도, 공간, 사업 프로그램 등을 열거해 볼 수도 있었지만, 원거리에서

79) 전주희,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성연주, “무엇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가”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21. 외.

바라본 중고제 관련 사업들이 정체성을 좀 더 공고히 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에 얽힌 모호함을 덜어내고, 범위를 한정할 것, 충남문화권 전체 및 문화권 내의 예술전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체어를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지역에서 수립했거나,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현실에서 의미있게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구조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촉발되고, 관 주도 아래 축적된 ‘중고제 현상’ 들이 지역의 ‘감정 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정교한 문화전략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었다.

한편, 본고의 주요어인 ‘중고제’ 를 지역 문화의 개념과 연관 지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지역문화란 고정적인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행정적 구분과 문화적인 경계와 일치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현실’ 과 ‘가상 현실’ 을 오가는 즈음이니 지역문화 소산의 예술 콘텐츠들의 전승과 활용 방안도 얼마든지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예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예전의 가치 기준에 맞춰 사업을 구상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열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누군가 훌륭한 계획을 완성하여 ‘이것을, 이렇게 해보라’ 며 제안하는 것들을 경청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정주 예술가들과 전승자들, 전문 문화매개자들, 공공의 리더들이 장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상호 이해와 정보, 목표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중에 의미 있는 ‘활성화’ 방안도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고제 가무악의 현대적 전승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문봉석(국립국악원)

중고제 판소리 연구는 발표자께서 1988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가야금 병창 명인 심정순”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으셨으나, 중고제 복원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흐름을 통찰력있게 정리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 정리된 선생님의 제안들, 즉 충남지역 전통공연예술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중고제의 대체어의 필요성, 문화 거버넌스의 운용의 필요성 등에 적극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기대어 보완적으로 얘기하되,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림으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제의 대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고제라는 말이 1940년대 『조선창극사』에서 지역적 유파의 개념, 악조적 개념으로 처음 사용된 이래, ‘고제’라는 역사적 개념까지 확장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도 존재하지만, 중고제가 판소리에 대상화된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중고’ (中古)라는 말 자체는 ‘옛날’이라는 시대성을 뜻할 뿐 이므로,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중고제는 충청 지역의 전체 전통공연예술 자원을 포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자께서 ‘제’라는 말의 한계성을 지적하셨으나, 이 역시 ‘중고’의 개념처럼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소리의 지역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현재 ‘제’의 지역적 의미가 상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영남제’,

‘호남제’와 같이 ‘제’는 판소리를 넘어 지역적 예술 양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예술 양식을 더욱 발굴하고 복원하려는 제 시도들이 당위성을 갖는다면, 충청 지역에 존재했던 공연예술 양식 자체 및 양식적 특징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충청제’라는 용어의 사용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중장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파토리 발굴 및 복원, 지역 출신 예술인과 지역 문화의 위상 재조명, 공간조성 등의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정책 기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공주시가 공표한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한 것은 지난 사업들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자께서 제안한 문화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이들의 소통과 협력을 매개할 전문 매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문화 거버넌스는 충청 지역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활성화와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거버넌스는 이미 강원도와 제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지역의 경우, 문화 거버넌스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탄탄한지, 즉 자발력과 활동력을 갖춘 문화주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우려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이들 주체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거버넌스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 ‘중고제 현상’의 이면에 보이는 실체의 모호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판소리에 한정하여 설명하셨으나,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충청지역 전통공연예술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은 『조선창극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20여명이 넘는 명창을 배출하였고, 충청도 재인이 광대들의 전국적 조직체를 총괄하는 도산주를 맡을 만큼 전통공연예술 연행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은산별신제(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승무(서산 제27호), 내포제시조(부여 제17호), 결성농요(홍성군 제20호), 금산물떼기농요(금산 제16호) 등 5개의 종목만이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고제 판소리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간극을 현전하는 레파토리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지역 문화유산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지역 문화재 발굴과 지정에서 극복하거나 노력해야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특징

-이동백의 붙임새를 중심으로

김 인 숙(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이동백 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3. 장단 리듬[붙임새]의 특징
 4. 중고제 판소리와 <적벽가>
 5. 맺음말 -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1. 머리말

박성환이 전승하고 있는 이동백 제 <적벽가>의 소리 대목 구성과 그 연원에 대해서는 최혜진에 의해 자세히 밝혀졌다. <적벽가> 앞대목은 박성환 스스로 정광수로부터 배운 이동백의 소리로부터 살려낸 것이고, 장판교 싸움 이후는 폴리돌⁸⁰⁾ 음반의 이동백, 김창룡 및 정정렬의 소리를 취하여 이동백 제 <적벽가> 한 바탕이 탄생하게 되었다고⁸¹⁾ 한다.

이 글에서는 이동백 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과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 특징은 그간 주로 선율과 악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리듬과 붙임새의 측면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동백 판소리의 장단과 붙임새에 대하여 “진양과 중몰이 장단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빠르고 장단 부침새가 단순하고 장식음이 적어 기교성이 덜하다”는 결론⁸²⁾이 있고, “속도가 빠르고 붙임새가 다양하다”⁸³⁾는 또 다른 연구도 있다. 두 가지 연구 모두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정밀한 분석이 동반되지는 않았다.

80) Polydor 19260-19277 唱劇 華容道全集

81) 최혜진, 「이동백 제 <적벽가>의 전승과 변모」, 『구비문학연구』 5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82) 김성경, 「이동백의 판소리 음악어법 연구」, 『한국음반학』 8, 한국고음반연구회, 1998, 224쪽.

83) 김혜정, 「중고제 판소리의 의의와 음악적 활용 방안」, 『남도민속연구』 36, 남도민속학회, 84쪽.

속도가 빠른 점은 고제 판소리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색이다. 위의 두 연구자가 이동백 붙임새를 다르게 본 이유는 대상 자료가 다른 데에 따른 결론이 아닌가 한다. 판소리는 장단에 따라, 혹은 가창자에 따라 붙임새가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적벽가>로 한정하여 이동백 판소리의 붙임새 및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이동백이 직접 부른 폴리돌 음반의 녹음을 대상으로 하겠다.

2. 이동백 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박성환이 구성한 이동백 제 <적벽가>는 ‘삼고초려’ 부터 ‘운장 회군’에 이르기까지 총 51개의 소리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양조 14 대목, 중모리 14 대목, 중중모리 6 대목, 자진모리 15 대목, 엇모리 2 대목, 이밖에 시창 4편이 있다. 이 중에 폴리돌 <적벽가>(Polydor19260-19277)에서 찾을 수 있는 이동백의 녹음은 약 11대목이다.

<표 1> 이동백 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구성	소리대목	장단	폴리돌 음반(이동백 음)	
1	삼고초려	당당한 유현주는 익덕 성절 급한지라 현덕이 만류한다	진양조 중중모리 평중모리	Polydor19260B	악보 7
2	공명 상면	대몽시 공명선생 거동 보아 이때 현덕 꿇어 앉어	(시창) 중모리 중모리	Polydor19260B	
3	공명 출사	다시 꿇어 여짜오되 그때여 공명선생	진양조 중모리		
4	박망파 전투	일일은 공명이 장대에 올라 그때 마참 조운이	중중모리 자진모리		
5	강릉으로 행군	조조 듣고 화를 내여 그때여 건안십삼년 초경 십분에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6	자룡 아두를 구함	그 때 익덕이 듣지 않고 그때의 자룡이는 날이 진토록 아두를 품에 품고 그 때 자룡이 이십리를 지내가니	중모리 자진모리 중모리	Polydor19261B Polydor19261B	악보 10 악보 8
7	공명 동오 방문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봉새 하루 만리를 날매 황개 인사 들어보며	중모리 (시창) 자진모리		

		제삼일 공명선생 날랜 배	자진모리		
8	동남풍 비는 대목	연환계를 무으라고	자진모리		
		<i>욕파조병인데 의용화공이라</i>	<i>(시창)</i>		
		오백장졸 군사 빼야	자진모리		
9	자룡 활 쏘는 대목	육기운초 휘황헌디 차일장막	진양조		
		공명의 거동봐라 암축한 연후에	자진모리	Polydor19263A	
		자룡 불러 군부하되	자진모리		
10	공명 제장 분발	자룡 불러 분부하되	자진모리		
		그때여 운장 그옆에 서있으되	엇모리		
		관평.주창거나리고 화도를 들어갈제	단중모리		
11	조조 대연 배설	조조 영포 대희하여	진양조		
		이렇듯이 분부한후	중모리		
12	당상의 백발 양친	당상의 백발양친	진양조	Polydor19267A	악보 2
13	고향 생각	이렇다시 울고나니	중모리		
14	자식 생각	이내 설음을 들어라	중중모리		
		이놈저놈 말들어라	자진모리		
15	적벽대전	그때의 조승상은 장대의 높이 앓어	진양조		
		<i>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하니</i>	<i>(시창)</i>	Polydor19269A	
		전의전체 전주세재 해주각색	자진모리		
16	조조 패주	암상의 쉬어 앓어	진양조	Polydor19270A	악보 3
		한 장수 나온다	엇모리	Polydor19270A	악보 11
		하저 장요 장합 조승상을 부촉하여	진양조		
		이말이 지듯마듯	자진모리		
17	새타령	이때 마참 어느 때	중중모리		
18	군사점고	흠어진 군사 모여든다	진양조		
		상헌 다리 옮길 수 없어	진양조	Polydor19271B	악보 1
19	허역이가	허역이가 들어온다	진양조		
20	화용도 들어갈제	화용도 좁은 길로	진양조		
21	장승타령	공산지물로 생겨서	중중모리		
		예 아뢰리다 천지간의 있는 나무	중모리	Polydor19274B	악보 9
22	운장 출현	이말이 지듯마듯	자진모리		
23	조조 비는 대목	한사 조맹덕은 천하분분 봉기제장	진양조		
		아이구 장군님 살려주오 살려주오	중모리	Polydor19276A	
24	운장 회군	선생이 대노하여	중중모리		
		좋은 말로 허락을 하여	중모리	Polydor19277B	

3. 장단 리듬[붙임새]의 특징

폴리들 <적벽가>를 구성하는 소리대목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의 다섯가지 장단이다. 그런데 이동백은 중중모리 장단의 대목을 부르지 않아서 중중모리를 제외한 네 가지 장단의 소리대목을 살펴 보겠다. 전반적으로 오늘날에 비해 장단의 속도가 빠른 편이며 특히 중모리와 진양조는 배 이상이 빠르다. 중모리는 빠르기에 따라 더 세분할 수도 있겠으나 리듬형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중모리 한 가지로 다룬다.

1) 진양조

이동백이 구사하는 <적벽가>의 진양조 장단 리듬형의 특징은 조조 패군의 군사를 점고하는 대목의 ‘상한 다리를 옮길 수 없어’ (악보 1)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악보 1>이동백 찬 ‘상한 다리 옮길 수 없어’⁸⁴⁾

(Polydor19271B)

(1)	상	한	다	리	옮	길	수	없	어		
(2)	부	러	진	창	대	짚	고				
(3)	진	동		진	동	들	어	오	며		
(4)	아	이	고	아	이	고	다	리	야		
(5)	아	이	고	아	이	고	발	이	야		
(6)	고	향	에	서	떠			나	을	제	
(7)	부	모	처	자	이	별	허	고			
(8)	만				리	전	장	에			
(9)	나	온	지	가	언	제	여				
(10)	생	사	를	모	르	거	든				
(11)	고	향	가	기	바	랄	소	냐			
(12)	위	국	도	아	닌	전	쟁				
(13)	부	질	없	이	기	병	하	야			
(14)	백	만	군	졸	다	죽	는다				

진양조 장단은 3소박(혹은 2소박) 6박을 주기로 ‘4박+2박’의 리듬형으로 짜여 있다. 진양조 장단은 전라도 향토민요인 <김매기소리>나 <홍글소리>에 의하면 한 장단 2음보의 사설 붙임이 기본형인데, 판소리의 경우 한 장단에 1음보의 사설도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 판소리 진양조의 내드름은 한 장단 1음보 사설로 되어 있지만 진양조 장단의 여느리듬형은 어디까지나 2음보의 사설이 붙는 형태다.⁸⁵⁾

<악보 1>은 내드름에서 “상한 다리/ 옮길 수 없어”와 같이 2음보가 붙어 있어 진양조의 기본 붙임새다. 다만, 그 2음보를 ‘4박+2박’이 아닌 ‘3박+3박’으로 붙인 점은 진양조의 기본 리듬형을 탈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장단 ‘만리전장에’의 사설만 1음보 사설을 붙였고 대부분

84) 박성희, 앞의 논문, 125쪽.

85)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23, 한국국악학회, 1995.

은 2음보의 사설을 ‘4박+2박’의 리듬형에 붙이고 있다. (3)장단의 ‘전동/전동/들어오며’와 (14)장단의 ‘백만/군졸/다죽는다’가 ‘2박+2박+2박’의 리듬형으로 된 점, 또 (6)장단의 경우 ‘고향에서/떠나올 때’의 ‘2박+4박’ 리듬형이 <악보 1>에서 이동백이 구사한 일종의 변화형이다.

<악보 2> 이동백 찬 ‘당상의 백발 양친’⁸⁶⁾

(Polydor19267A)

(1)	당상		의				
(2)	백	발	양	친			
(3)	이	별	헌지				-가
(4)	몇해		런	고			
(5)	부혜	여	생아	허고			
(6)	모혜	여	육아	허	니		
(7)	육보	지	덕택	이라			
(8)	호천		망극	이	라		
(9)	우리	네	부모	님			
(10)	전장	으	나를	보내	고		
(11)	일일	시시	기다	릴			제
(12)	일	락	서산		허	니	
(13)	의문	망이	몇번	이	며		
(14)	바람		불	고	비울	제	
(15)	의려	망이	몇번	인	고		

<악보 3> 이동백 찬 ‘암상의 쉬어앉아’⁸⁷⁾

(Polydor19270A)

(1)	암	상	의				
(2)	쉬	어	앉아				
(3)	적벽	강을	바라	보니			
(4)	동남	풍은	끈		지게	붙고	
(5)	화광		은		충천	↘	
(6)		헌디	오강	-으	세운	↘	
(7)	깃대	마디	치는		소리	에	
(8)	적벽		강상				
(9)	남	자	허		다		
(10)	조승	상이	앉어	울며			
(11)	불쌍	허다	군병	들아			
(12)	날로	인	하	여	죽으니		

이동백의 진양조 붙임새를 더 살펴보면 <악보 2> ‘당상의 백발양친은 (1)~(4)장단에서 매 장단 1음보의 사설을 붙였다. 그러나 (5)장단부터는 2음보의 사설을 ‘4박+2박’, 또는 ‘2박+4박’의 리듬으로 붙렸다. <악보 3> ‘암상의 쉬어앉아’는 이동백이 진양조의 붙임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가한 형태로서 (1)·(2)·(8)·(9)장단에 1음보의 사설 붙임을 한 것 외에도 (5)·(6)장단에서는 사설을 해당 장단 내에서 마치지 않고 다음 장단으로 잇는 엇붙임을 한다.⁸⁸⁾ “충천헌디”와 “세운 깃대”가 그 예이다.

이동백의 진양조 장단 리듬은 한 장단에 2음보의 사설을 붙이는 형태가 많은 점에서 진양조의 기본 붙임새를 지켜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단

86) 박성희, 앞의 논문, 105쪽.

87) 박성희, 앞의 논문, 119쪽.

88) 엇붙임을 편의상 ↘로 표시함.

내의 ‘4박+2박’의 리듬형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간혹 엇붙임의 변화 등은 여느 창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점이다. 같은 중고제에 속하는 방진관과 김창룡의 소리를 참고해 보면 이들에게서도 역시 2음보의 사실 붙임이 많이 나타난다. 방진관의 ‘삼고초려’(악보 4)를 살펴보면 (4)·(6)·(8)·(13)·(14)·(15)장단에서 3음보 또는 4음보의 사실을 붙여 부른다.⁸⁹⁾ 김창룡의 경우 이보다 훨씬 심한 사실의 밀집 붙임 형태를 보인다.

가령, <악보 5>의 (2)장단 “신장은/ 팔척이요/ 수수/ 과슬이라”는 4음보가 붙은 셈인데 그것도 ‘3박+3박’의 리듬형이다. 김창룡의 ‘삼고초려’의 나머지 사실붙임도 모두 ‘3박+3박’의 리듬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진양조 장단의 기본 리듬형인 ‘4박+2박’과는 다른 형태로서, 중고제 판소리 진양조의 리듬형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악보 4> 방진관 창 ‘삼고초려’
(VictorKJ1089A)

(1)	당	당	현			
(2)	유	현	주			
(3)	신	장	이	칠	척	오
(4)	용	근	명	안	의	자
(5)	수	수	과	슬		이
(6)	오	모	홍	포	의	옥
(7)	구	십	쌍	구		검
(8)	청	로	마	상	의	두
(9)	태	조	의	기	상	이
(10)	관	공	위	의	불	작
(11)	신	장	이	구	척	이
(12)	면	여	중	중	하	고
(13)	난	봉	안	화	재	미
(14)	삼	각	수	는	이	인
(15)	창	돌	려	높	으	게
(16)	적	토	마	상	-의	앞
(17)	위	풍	이	늠	름	하

2 2 2

<악보 5> 김창룡 창 ‘삼고초려’⁹⁰⁾
(VictorKJ1089A)

(1)	당	당	한		유	현	주	난	
(2)	신	장	은	팔	척	이	요	수	수
(3)	오	모	홍	포	의	쌍	고	검	을
(4)	적	토	마	상	-의	앞	인	거	-동
(5)	위	풍	이	늠	름	하	고	관	공
(6)	얼	굴	은	누	른	대	추	빛	이
(7)	삼	각	수	는	이	척	-	오	촌
(8)	적	토		마	상	의	앞	은	거
(9)	위	풍	이	장	승	같	다	장	비
(10)	머	장	얼	굴	범	의	머	리	쌍
(11)	다	박	-	수	염	을	거	사	리
(12)	눈	우	에	번	뜻	들	고	흠	총
(13)	진	삼	국	지		맹	장		이
(14)	현	세	옥	백	날	래	챙	겨	비
(15)	남	양	옹	-	중	초	당	밖	에
(16)	현	주	께	서	반	겨	동	차	불

3 3

89) 악보의 겹줄(—) 부분 참조.

이동백의 진양조 장단의 붙임새는 이상의 방진관이나 김창룡의 사례를 통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동백, 방진관, 김창룡 등 중고제 판소리의 진양조에서는 한 장단에 2음보의 사설을 붙이는 원형태를 보이며 때로 사설을 더 붙여서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진관은 이동백보다 더 많은 사설을 노래했고 김창룡의 경우는 매우 심하다. 이들에 비해 이동백은 그나마 기본 붙임새를 지켜 부른다고 보겠다. 이동백의 붙임새가 다소 단조로운 듯 보이면서 지루하지 않은 것은 2음보의 사설을 붙여나가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진양조는 2소박의 자진진양으로 되어 있어 빠르다. 오늘날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긴 노래’ 라기 보다는 적당히 숨을 쉬며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에 비해 이동백-정광수-박성환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삼고초려’는 매우 느려졌다. 김창룡의 ‘삼고초려’가 한 정간 한 박을 기준으로 ↓=50내외인데, 박성환은 ↓=36 안팎으로 노래한다. 2소박 1박의 리듬이 3소박 1박이 되었다. 그럼에도 박성환의 ‘삼고초려’는 붙임새에서 김창룡이나 방진관의 형태와 매우 닮아있다. 정광수가 빠르기를 변화시킨 외에는 이동백의 소리 그대로를 전수한 것이 틀림없다.

<악보 6> 이동백-정광수-박성환 명 ‘삼고초려’

(1)	당당-		현			
(2)	유	현				주는-
(3)	신장-	--은	칠척-	오	촌-이	요
(4)	면	여	관	옥	허	고
(5)	자고-	기	이			허여-
(6)	수수-	과	--슬			이라-
(7)	오	모	홍		포	
(8)	쌍고검		빛껴-		--차고	
(9)	장-려	마상에	앉인-		거	-동-
(10)	태죽-	으--	기상-	이라-		
(11)	관공위엄		불작-	시-면		

90) 박성희, 앞의 논문, 71쪽.

(12)	홍안-	봉-목	삼각-	수	-머-	리-에	
(13)	쌍		웅		허고-		
(14)	몸에난	무-포	은	--갓	-이라		
(15)	청룡-	-도-	비겨-		들고-		
(16)	적토-	마상에	앉	인	거	동	
(17)	위풍-	--이	늪		름	허고-	
(18)	장비위엄		불작-	시-면			
(19)	곰-의	등-범	--의	머리-	떡장-	얼-굴	
(20)	쌍고리	눈	제-	턱	가막-	나루-	
(21)	몸에난쟁			무	전-포		
(22)	머리에난	녹	간	이로-	구나-		

2) 중모리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엇붙임으로 일관하다시피 하는 리듬형과 리듬주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중모리장단의 리듬형은 <악보 7>의 첫머리에 제시한 바와 같이 3박자 넷이 모인 12박을 주기로 반복되는 장단이다.⁹¹⁾ 따라서 기본 리듬형은 3박 단위로 짜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 대목은 주로 3박 단위를 무너뜨리면서 2박 단위로 소리를 짜 나가되 12박 단위가 아닌, 사설의 단위에 따라 자유롭게 악구를 나눈다.

<악보 7> 이동백 찬 ‘현덕이 만류한다’ 中

(Polydor19260B)

*	⊙			○			○			○		○
(1)	현	제	야	△	아	우	는	그	리	말	라	
(2)	춘	추	적		제	환	공	도		동	곽	야
(3)	인	보	라	허고			다	섯	번	을	찾	아
(4)	갓	다	한	번	제			-우	보	아	있	고
(5)		우리	도	지성	으로		정	성	들	여	불	태
(6)	이	니	운	장	은		익	덕	을	다	리	고
(7)	멀			리	가	서	서	있	으라			

<악보 7>에서 3박의 “현재야” 다음에 역시 3박의 “아우는” 를 부르기에 앞서 1 박을 밟고 시작하는데, “그리/말라” 의 2박 단위로 이어지면

91) 이보형은 이를 대박 장단이라 명명한 바 있다. 이보형, 앞의 논문.

서 기본붙임새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2)장단의 “춘추/적-/제환/공도”의 리듬형 역시 2박이다. 이에 이어서 한 박을 뺀 “동괘/야인/보랴/허고”로 엇붙임과 동시에 리듬도 복잡해졌다. (3)~(4)의 “다섯/번을/찾아/갔다/한번/제-/-우/보아/있고” 역시 계속 2박 리듬형이다. (5)~(6) 또한 엇붙임으로 “정성/들여/볼테/이니”의 2박 리듬을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 (7)장단만이 중모리 1장단 2음보의 사설붙임을 보여주는데 “멀-/-리/가서”의 6박은 2박 리듬형으로, 나머지는 6박은 3박 리듬형을 보여준다.

결국 <악보 7>의 중모리 장단은 총 일곱 장단 중에 마지막 (7)장단만이 중모리 한 장단 단위와 리듬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많이 변형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리듬형이 이동백이 부른 <적벽가>의 중모리 대목마다 나타나는 점이다.⁹²⁾

<악보 8> 이동백 찬 ‘이십리를 지나가니’

(Polydor19261B)

(1)	이	십	리	를	지	나	가	니		그	시	에
(2)	현		덕	은	중	인	으	로		더	불	어
(3)	나	무	아	래	쉬		더	니		재	룡	아
(4)	말	께	내	려	복	지			체	읍	허	니
(5)	현		덕		또	한	울		며		서	로
(6)	살	아	남	음	을			기	빠	하	더	라
(7)	재	룡			천		식	왈	미	부	인	아
(8)	순	사	하야		우	물	으		빠	저	죽	음
(9)	후			담	을	밀	쳐		덜		고	
(10)	동		자	만	품	었		더			니	
(11)	능	히	보	-존	헨	지	모	르	겠	내다		

<악보 9> 이동백 찬 ‘예 아뢰리다’

(Polydor19274B)

(1)	예			예			아	뢰	리	다		
(2)			천	지	간	의	있	는	나	무		
(3)	중	은	팔	자	많	어	지	요		월	궁	에
(4)	섰	는	남	개	향	아	의		정	자도	되고	
(5)			요	지	으				벽	도	리는	
(6)	서	왕	모	의	과	실	이요		결	이	화	축
(7)	전		나	무	안	-개	적	송	사	랑	허고	

92) <악보 8>·<악보 9> 참조.

(8)	안	명	의		백	춘	나무			천	만	년	↘
(9)	장	수	허고		역	양	에		오	동	목	은	
(10)			순입		군	의	거문		고	요		노	↘
(11)	나	라	살	구	나무		공	부	자	님	강	단	↘
(12)	요		저		산	으		저	나	무	차	산	↘
(13)	수	와					월		쥬	고			
(14)	진	나	라		노	송	나	무	는		오	대	↘
(15)	부	벼	슬을	허니		그런		나무	는	다	좋으	나	
(16)	같	을	수	는	없	을	망	정					
(17)	이	내	일	신은	뇌	광	관이	라	말	했	더	니	
(18)				어	떠	한	분	이	한	놈	이		
(19)	방	절	부절	을	제	모르	고		도	끼	틀어	취고	
(20)	함	부로	광		광	찍어	내어		제	사	위	하	↘
(21)		고	남	은	건		벽	력	하야		개	마	↘
(22)	할애	비	얼	굴	인	지	주	먹	코	방울		눈	

<악보 9>의 첫 장단인 “예 예 아뢰리다” 만이 대마디대장단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2박 계통으로 짜여지는 사이 3박이 섞이거나 휴지부를 두어서 매우 복잡한 양태의 리듬형을 생성하고 있다. 엇붙임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한 장단 단위보다 절반 정도의 사설이 더 붙는 경향이 있다.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도 여느 중모리장단의 사설에 비해 많은 양의 사설을 수용해 부른다.

또한 이동백은 속도를 무척 몰아서 노래하고 있어 빠르기로는 중중모리와 흡사하다. 다만 위의 <악보 7~9>에서 보듯이 보통박 1박의 박자감이 뚜렷한 중모리 리듬형을 보여준다. 결국 1음 1박에 가까운 리듬형으로 짜였다고 보겠다.

이동백의 중모리장단 리듬형은 중고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위와 같은 3박의 틀에 2박 리듬을 엇붙여가는 형태는 살풀이 장단의 특징으로, 이동백의 장단 운용에서 살풀이 장단의 자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살풀이 장단은 중모리보다 한 층위 낮은 장단으로서 보통 3소박 4박의 3·3·3·3의 리듬형이지만 곧잘 2박이 섞여 2·2·2·3·3, 또는 3·3·2·2·2, 2·2·2·2·2·2 등으로도 바뀐다. 특히 위의 이동

백의 중모리 장단과 같이 장단과 장단이 엮들어 하나의 악절이 꽤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살풀이 장단이 충청·전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특히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 운용의 관련성을 유추해 보게 된다.

두 번째는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사설의 밀집붙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폴리돌 <적벽가>의 방진관이 부른 ‘군사점고’ 대목((Polydor19272B)이나 역시 방진관의 ‘군사설움타령’⁹³⁾ 혹은 ‘녹음방초’⁹⁴⁾를 보면 중모리장단에서 사설을 두 배로 밀집시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⁹⁵⁾ <악보 5> 김창룡의 ‘삼고초려’에서 진양조 장단의 사설을 두 배 많이 넣어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송만갑, 임옥돌, 정정렬 등이 부른 고제 소리에서 이와 같은 사설의 밀집 붙임을 볼 수 있다.⁹⁶⁾ 이동백 역시 사설을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엮붙임에서 기인하는 특징이다. 박 단위를 바꾸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밀집 붙임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3) 자진모리

폴리돌 <적벽가>에서 이동백이 부른 자진모리 대목은 조자룡이 ‘아두를 품에 품고 나오는 대목’과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이다. 먼저 ‘아두를 품에 품고’를 살펴보면, 자진모리 장단의 붙임새를 한껏 활용하여 노래한 형태로 판단된다. (1)·(2)장단은 대마디대장단이며 (3)부터 변화형이 나타난다. (3)장단에서 처음 두 박을 밟고 노래하였고 (4)장단의 ‘대 ---’를 길게 끌며 그 뒤에 “장이”를 짧게 붙인 형태는 일명 ‘괴대죽’이라는 붙임새다. 이 괴대죽은 동시에 “대장이 나서”와 같이 다음 장단으로 엮붙임을 해서 악구 단위에 변화를 준다. (7)·(16)장단도 사설

93) VictorKJ1093B 三國志 曹軍自嘆 方進寬 伴奏빅타-朝鮮樂團.

94) VictorKJ1093A 短歌 綠陰芳草 方進寬 伴奏빅타-朝鮮樂團

95) 필자는 이것을 중모리 장단의 고형(古型)으로서 일명 평타령 장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즐고, 「판소리 평타령 장단고」, 『동양음악』 49,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21.

96) 위의 논문.

단위가 다음 장단으로 이어지는 엇붙임이다.

‘아두를 품에 품고’ 대목은 장단 첫 박 내지 두 박을 밟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울러 3소박을 2소박 리듬으로 짜나가는 부분도 있다. 즉, (9)장단의 “빠-/지-/매-”, “급히/찌-/르-/려고/하-/더니”, “홍-/광이”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2박과 3박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자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악보 10> 이동백 찬, ‘아두를 품에 품고’

(Polydor19261B)

(1)	아		두	를	품	에	품	고
(2)	창	을	들	어	말	게	을	라
(3)	△	살	갈	이	행	할	지	음
(4)	일	월	대					장
(5)	나	서	질	을	막	는	구	나
(6)	△	이	는	하	간	장	합	이
(7)	△	십	여	합	에	짜	을	마
(8)	없	어	재	통	이	단	다	
(9)	△	토	굴	에	빠	지	매	
(10)	용	맹	이	있	을	망	정	
(11)	△	토	굴	에	빠	졌	으	니
(12)	어	찌	모	피	허	단	말	고
(13)	△	허	장	합	이	창	을	들
(14)	급	히	찌	르	려	고	하	더
(15)	△	한	줄	기	△	홍	광	이
(16)	토	굴	로	곧	장	굴	러	
(17)	말	이	평		지	와	같	이
(18)	뛰		어		나	오	거	늘

4) 엇모리

이동백이 부른 엇모리 대목은 ‘한장수가 나온다’가 유일한테 엇모리장단에서도 붙임새를 적극 활용하는 점이 주목된다. (1)~(3)장단은 기본 리

듬형을 지키며 불렀으나 (4)장단에서 2소박과 3소박의 혼합 리듬을 사용한다. 먼저 2소박 즉, “눈은/동-/정-/추과” 로 불렀고 이어서 “좌-수/장-창/우수에/장막-” 과 같이 3소박 리듬형으로 바꾸어 불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엇붙임이 되었다. 나아가 (6)장단에서는 보통 엇모리 한 장단에 부르는 2음보 사설보다 두 배 많은 4음보를 촘촘히 넣어서 불렀다. (7)장단의 “이놈-/조조야” 는 3소박 리듬형으로 볼 수 있으며, (8)의 “상-산/조자룡” “아는다/모르난다” 역시 3소박 리듬형으로서 좌우로 엇혀 다시 엇붙임이 된다. (9)의 “군사/명을/받아” 는 2소박만으로 되어 있다.

이동백의 엇모리장단 이 붙임새는 일반 엇모리 장단에서는 보기 드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붙임새의 변화가 가장 적은 엇모리 장단임에도, 이동백은 사설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간다. 이동백이 붙임새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은 짐작하기에는 이 한 대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악보 11> 이동백 찬 ‘한 장수 나온다’

(Polydor19269A)

(1)	한	장	수	나	온	다	
(2)	한	장	수	나	온	다	
(3)	얼	굴	은	형	산	백	옥
(4)	눈	은	동	정	추	과	좌 ↘
(5)	수	장	창	우	-수	에	장
(6)	창	-개	검	밧기	들고	나는	듯이
(7)	이	놈	조	조	야		
(8)	상	산	조	-자	룡	아	는
(9)	모르	-난	다	군	사	명	-을
(10)	기다	린	제요	래로	다		

박성환은 정광수 선생이 이동백의 소리를 지도하면서 그 붙임새에 대해 “장단 안에서 간박과 각 사이로 미끈미끈 피해 다니며 소리를 가져 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고⁹⁷⁾ 증언했다. 이동백의 붙임새를 분석하면서 정

말 그와 같은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이동백의 붙임새는 잔기교를 굳이 사용하지 않지만, 장단 리듬의 기본틀을 움직이는 큰 국면에서 변화를 추구하여 작은 변화를 동반하는 방식의 리듬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양조와 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의 붙임새를 살펴본 결과, 진양조와 자진모리 장단에서는 붙임새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양조는 장단리듬의 기본형이기도 한 2음보의 사설붙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 오늘날의 1음보 사설 붙임과는 다른 고졸한 느낌과 담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진양조는 빠르기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사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이러한 효과는 이동백의 중모리 장단 붙임새에서도 드러난다. 중모리 장단 역시 빠른 속도로 부르고 3박이 아닌 2박 계통의 리듬을 즐겨 사용하며 엇붙임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리듬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한 상태가 된다. 장단이라는 틀을 벗어나 말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듯한 평이한 형태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상 리듬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는데, 이러한 특징은 충청·전북의 굿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살풀이 장단의 리듬형에 비교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엇모리장단 역시 박자 경계를 허무는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리듬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탁월한 이동백의 붙임새에 대해 그간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붙임새가 뛰어나면서도 특별히 이목을 끌지는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4. 중고제 판소리와 <적벽가>

<적벽가>는 전통 사회에서 양반층의 애호를 많이 받았으며, <적벽가>를 잘 부른 명창 가운데에는 방만춘, 주덕기, 모흥갑, 등 중고제 명창들이

97) 박성환 대담. 최혜진, 앞의 논문, 301쪽.

많은 점은 주목된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를 가져왔으며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내용이다. <적벽가>는 ‘군사설움타령’, ‘동남풍 비는 대목’, ‘화용도에서 조조가 관운장에게 비는 대목’ 등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처음에 <화용도타령>으로 불리던 소리가 <적벽가>로 거듭난 데에는 중고제 판소리의 기여가 있었음을 잘 알려져 있다. 김성옥-김정근-김창룡으로 내려오는 중고제 가계에서 ‘삼고초려’, ‘박망과 전투’, ‘장관교 대전’ 등 현전 작품의 전반부를 창작하여 덧붙임으로써 오늘날의 <적벽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⁹⁸⁾ 중고제 소리의 원류를 <적벽가>에서 찾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앞서 이동백의 장단과 붙임새에 대하여 ‘붙임새가 단순하고 기교가 적다’는 견해와 ‘붙임새가 다양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동백 붙임새가 가진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한 양상도 띠는 이중성을 가졌다 하겠다. 그러나 그 이면을 분석해 보면 사시 복잡한 구조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중고제 판소리로 돌아와서, 이동백의 장단 리듬형을 통해 중고제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글을 읽는 듯한 평이한 느낌’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중고제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 특징은 일차적으로 장단과 결합되는 사설의 양이 좌우한다고 본다. ‘보통장단’을 기준으로 한 장단에 2음보의 사설이 붙는 것이 일반적인 최근 진양조 장단의 경우 1음보의 사설이 붙는 경향이 많아졌다. 속도도 느리고 사설도 적게 붙는다면 여음과 같은 모음창의 성격이 강해질 것은 당연하다. 중고제 진양조는 이동백의 사례에서와 같이 여전히 2음보로 짜여 있다. 한 장단 4음보 사설 붙임을 방진관의 예에서 볼 수 있으며, 김창룡의 ‘삼고초려’는 거의 4음보를 붙여 부른다. ‘삼고초려’가 김창룡 집안

98) 김상훈, 「적벽가의 이본과 형성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1992, 84~94쪽; 김기형, 「김기형의 역사적 전개와 작품 세계」,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3, 83~91쪽.

에서 만든 더듬이라면 본디 중고제 진양조 한 장단은 이와같이 많은 양의 사설을 수용하여 불렀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가 앞선 연구에서 살펴본 중모리장단의 고행[평타령 장단] 역시 오늘날의 중모리장단의 사설붙임을 증첩한 형태로서, 중모리 한 장단에 4음보의 사설을 노래하는 형태였다. 중모리장단이나 진양조 장단에 나타나는 이와같은 밀집 붙임 형태가 중고제 판소리를 이야기와 같거나 책 읽는 소리로 여기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 중고제 판소리의 리듬적 특징을 특징적으로 반영하는 장단은 진양조 장단과 중모리 장단임에 틀림없다.

이동백은 중고제 붙임새에서도 다소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고 생각된다. 진양조의 사설붙임은 한 장단 2음보로 일정하게 붙이지만 빠르기 빨라 제법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전달한다. 여기 더하여 간혹 엇붙임과 장단내의 리듬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편안하면서도 음악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낸다. 중모리장단에서는 평균 3음보 정도를 노래하는데 이는 엇붙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3박의 중모리 리듬형을 2박으로 짜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리듬의 긴장과 이완이 마치 살풀이장단을 보는 듯하다. 이와 같은 해체된 중모리장단을 통해 나오는 리듬형 역시 1음 1박식으로 말을 이어가는 방식에서 글을 읽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중고제 판소리는 근현대기 판소리가 변모되면서 잃어버린 옛 자취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앞서 김창룡의 ‘삼고초려’를 살펴보면 그의 진양조 붙임새가 ‘2박+2박+2박’이 아닌 ‘3박+3박’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바 있다. 특히 중모리 장단과 진양조 장단의 사설붙임이 과거에는 지금의 2배 정도가 붙였음을 음반을 통해 알 수 있다. 동편제나 서편제 등 다른 유파의 판소리 가운데에서도 <적벽가>는 비교적 고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중고제 <적벽가>가 놓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박성환의 이동백제 <적벽가>는 중고제 판소리의 범주에서 재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동백이 남긴 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⁹⁹⁾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성환이 이동백으로부터 소리를 배운 정광수를 사사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이동백 제라는 바디를 재구성 한 점은 음악사의 쾌거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벽가 한 마당은 앞으로 이동백 제로서 전승이 될 것이다. 이동백의 판소리 붙임새를 통해 이동백이 중고제 판소리 명창들과 음악 어법을 공유하면서도 이동백의 독자적 판소리 어법도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동백 음악을 리듬적 특징에 한정하면 한마디로 무기교의 기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동백 소리를 포함하여 중고제 판소리, 나아가 고제 판소리가 현대로 오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빠르기에 있는 것 같다. 빠르기를 예전과 비슷하게 뒤돌린다면 판소리의 표현과 음악 어법, 미적 특질마저 크게 바뀔 여지가 많아 보인다. 특히 진양조와 중모리의 빠르기는 재고하여 재연할 필요가 있다.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동백의 <적벽가>에 대한 범주를 좀더 확장하여 중고제 판소리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도 좋지 않을까 한다. 폴리돌 <적벽가>의 시창은 모두 이동백이 불렀다. 시창은 일정한 박자는 없지만 선율이 호쾌하고 유려한 점에서 시조나 가곡의 창법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중고제 소리의 특징과 잘 어울려서인지 박성환은 이동백이 부른 두 편의 시창 외에 <적벽가>에 나오는 율문까지 수용하여 총 4 편의 시창을 수용하여 부른다. 다음은 폴리돌 <적벽가>의 이동백이 부른 시창이다. 유비가 공명을 삼고초려하니 공명이 일어나면서 평

99) 최혜진, 앞의 논문.

소에 가진 큰 꿈을 노래하는 대목이다(Polydor19260B).

초당춘수족(草堂春睡足)하니 / 창외일지지(窗外日遲遲)를
대몽수선각(大夢誰先覺)고 / 평생아자지(平生我自知)를

“월명성희(月明星稀) 오작(烏鵲)이 남비(南飛)하니 요수삼잡(繞樹三匝)에
하지가의(何枝可依)로다” (Polydor19269A) 하는 조조의 시도 유명한데 이
역시 시창으로 불렸다. 이밖에 박성환은 공명의 “봉새 하루 만리를 날때
못새의 무리 그 뜻을 어이 알리오” 라는 말과 공명이 주유를 만나 적어
준 “욕과조병(欲破曹兵)인대 의용화공(宜用火攻)이라 만사구비(萬事具備)
하되 지흠동남풍(只欠東南風)이라” 는 글을 더 덧붙여 시창으로 불렸다.
판소리 창법으로만 부르는 소리대목 사이에 불리는 이 시창은 짧지만 분
위기를 전환하는 역할과 함께 청각적 쾌감까지 제공해 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현재 중고제 <적벽가>는 이동백 제로 한정하여 최대한 이동백의 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변모하고 또 새로워질 필요도 있다고 본
다. 이동백을 넘어서 김창룡, 방진관, 조학진 등이 부른 1920~30년대 중
고제 판소리 녹음을 최대한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장점과 좋은 대목을 골
라서 판소리 한 바탕씩을 짜서 부르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1970년
대 김연수와 박동진, 김소희 등이 기존의 여러 제에서 소리대목을 발췌해
서 자신의 소리를 다시 짰던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박성환
의 <적벽가>에서 짐작하는 바이지만 개인이 일생을 걸어야 이를 수 있는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소리 학습과 교육이 좀더 활성화 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창작도 이루어진다면,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복원도 현실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판소리 중고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연주와 함께 학술 연
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동안 전승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큰 탄력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백 제 <적벽가>를 복원 재연하고 있는 오늘날은 이전과는 다른 조건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중고제 판소리가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재창조되고 향유되는 선순환 속에서 새롭게 꽃이 피워지길 기대한다.

중고제 <적벽가>의 장단 구성 특징

- 이동백의 붙임새를 중심으로-

정진(한양대학교)

중고제 판소리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백대웅의 연구¹⁰⁰⁾를 시작으로 김성경, 신은주, 김혜정, 배연형, 최혜진 등 여러 학자들을 통해 중고제의 의미와 전승 지역 또한 관련된 명창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습니다.¹⁰¹⁾ 나아가 중고제 명창들이 남긴 음원들을 바탕으로 중고제의 음악적 특징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중고제 판소리가 갖는 위상과 해당 판소리의 음악적 가치 및 전승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인숙 선생님의 연구는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들을 보다 다각적이고 세밀한 입장에서 분석하여 그동안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중고제의 장단 구성과 특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고제의 대표적인 명창인 이동백의 소리를 중심으로 중고제 판소리가 갖는 음악적 특징과 전승 가치, 나아가 이동백의 소리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고제 판소리의 구성과 연행 양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음악적 논의와 연계 연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적벽가>는 중고제가 가진 고제적 특징과 중고제 창자들의 음악적 개입을 살펴보기에 용이한 대목으로 특히 양반층의 애호를 바탕으로 중고제 소리의 원류를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100) 백대웅, 「판소리 무가 기원론의 재검토 I」,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_____, 「판소리 무가 기원론의 재검토 II」, 『한국음악사학보』 제15집, 한국음악사학회, 1995.

101) 김성경, 「이동백의 판소리 음악어법 연구」, 『한국음반학』 8, 한국고음반연구회, 1998.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 『한국음반학』 제12집,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 _____,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혜정, 「중고제 판소리의 의의와 음악적 활용 방안」, 『남도민속연구』 제36집, 남도민속학회, 2018. ;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학회지』 제5권, 1994. ; _____, 「판소리 중고제 자료의 재검토」, 『판소리학회지』 제49권, 2020. ; 최혜진, 「충청 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학회지』 제32권, 판소리학회, 2011. ; _____, 「중고제의 전승과 판소리사」, 『판소리 유파의 전승 연구』, 민속원, 2012. ; _____, 「이동백 제 <적벽가>의 전승과 변모」, 『구비문학연구』 제50권, 한국구비문학회, 2018. ; _____, 「홍성 지역의 명인 명창과 중고제 판소리의 변모」, 『동아시아고대학』 제57권,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이동백을 비롯하여 방진관과 김창룡의 소리들을 해당 대목에서 부분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과 작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고제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 장단별 붙임새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동백 외에도 다른 중고제 명창들의 붙임새별 특징과 경기·충청 지역의 여러 장르들의 장단 구조들이 중고제 판소리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다양한 접변 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판소리의 대중화 및 발전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판소리가 가진 지역적 다양성을 되살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과 전승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고제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연주 무대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이 중고제 판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눈과 귀로 접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인숙 선생님의 글을 경청하며 해당 연구에 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평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 그동안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적 연구는 특정 창자 중심의 연구를 비롯하여 일부 대목의 사설들을 비교하거나 악조 사용 양상 및 선율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주제로 삼은 붙임새 관련 연구는 중고제 판소리에 관한 음악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붙임새의 사용 양상은 각 유파나 바디, 명창들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입니다. 동일한 대목에서 유사한 사설로 구성될 경우 특히 이와 같은 붙임새의 구성은 각 명창들의 음악적 어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며, 김성경 선생님과 김혜정 선생님의 논의처럼 분석 음원에 따라 붙임새의 구성도 그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음악의 즉흥성이 보다 강조되었던 중고제의 경우 녹음된 음원의 연주 상황이나 가창 방식에 따라 붙임새의 구성이 다른 유파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인숙 선생님의 연구 결과처럼 각 장단에 따라 붙임새의 변화와 활용 면에서 창자들의 선호도와 기교가 차이를 보이는 바 보다 다양한 대목과 장단 중심으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장단별 붙임새를 보면 진양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단들은 대개 3장단 이후부터 붙임새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내드름 부분에서 각 장단의 기본 붙임새들을 유지한 뒤 사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부터 붙임새의 변화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양조 장단의 경우 제1장단부터 3+3, 4+2, 2+2+2 박자구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암상의 쉬어앉아’ 대목의 경우 제5장단에서 엇붙임을 사용하여 특히 진양조 장단에서 붙임새의 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소박 6박자로 가창되는 빠른 속도와 다양한 박자구조 등을 활용하여 담백한 소리의 구성들이 자칫 지루해지거나 음악적 몰입도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름의 음악적 장치들을 활용한 점이 이동백의 음악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선생님님 말씀하신 무기교의 기교를 구사한 것과 연결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3. 이동백의 <적벽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중모리 장단의 붙임새라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박자구조의 활용을 비롯하여 여러 붙임새의 기교가 해당 장단에서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풀이 장단의 특징들이 중모리 장단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이 주목되는 바 선생님의 기존 연구³⁾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모리 장단을 통해 무속음악과의 음악적 연계성과 변형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판소리의 세련화 및 예술화와 관련하여 평타령 장단과 중모리 장단, 나아가 중모리 장단에서 드러나는 이동백의 음악적 기교 등은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추후 이동백 외에도 여러 중고제 명창들의 중모리 대목들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붙임새에 관한 논의가 이동백의 소리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다루어졌고, 이는 향후 중고제의 복원과 전승을 위한 작창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연구의 논평을 준비하며 중고제에 관한 명창들의 음원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기존에 전개된 연구들의 성과에 붙임새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여 중고제가 갖는 음악적 개성과 창자별 작창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선생님의 글에 대한 부족한 논평을 마무리하며 중고제에

3) 김인숙, 「판소리 평타령 장단고-중모리 장단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음악』 제49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21.

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중고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전개하는 것으로 부족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제 문화예술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발전 방안

주재근(한양대학교)

1. 머리말
2.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3. <중고제 르네상스>를 위한 사업 제안
4. 맺음말

1. 머리말

문화상품(Cultural Product)이란 한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산물인 문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상품은 영화, 방송, 음악 등 지적이거나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생산물이 상품화된 것을 말한다. 일반인들에게 문화상품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산·소비되는 시장을 조성 육성하는 것이 곧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상품 시각에서 문화콘텐츠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문화산업이다.

최근에는 문화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장소가 더 이상 국가의 경계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문화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혼종화되고, 잡종화된 문화 의미와 실천의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의 급속한 보급은 문화의 지역성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다문화(multi culture)의 컨버전스(convergence) 현상이 세계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⁴⁾

가수 싸이가 2012년 7월 내놓은 여섯 번째 정규앨범 <싸이 6甲 Part 1>의 타이틀 곡으로, 2개월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 7800만건을 넘긴 대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또한, 2014년 5월 31일

4) 장규수, 『한류와 아시아류』, '문화산업' 네이버 지식백과.

에는 유튜브 조회수 20억건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특유의 말춤과 재밌는 노래말로 한국인 외에도 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져 나갔다. 이 뮤직비디오는 대구스타일, 아줌마스타일, 뉴욕스타일 등 다양하게 패러디되면서 열풍을 일으켰다.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은 2020년 K-팝 가수 최초, 한국어 노래 최초 ‘핫100’ 1위 등 빌보드 역사상 첫 기록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7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928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국제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유엔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혁신지수는 10위로 기록되었다. 이는 글로벌 혁신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첫 10위권 진입이며, 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2020년 현대무용 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얼터너티브 팝그룹 이날치밴드가 결합해 만들어 낸 <범 내려온다>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소재로 하여 현대 팝으로 재해석한 댄스 뮤직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5억뷰를 돌파하며 전통적 판소리가 현대 문화산업 시장에서 충분히 소통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범 내려온다>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전통적 판소리와 국악에 대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각종 상품광고에서 판소리 등 전통적 음악어법이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판소리와 국악에 대한 관심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MBN에서 8월18일 신개념 퓨전국악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조선판스타>를 론칭하였다. JTBC에서도 11월2일 국악경연 <풍류 대장>을 선보여 방송프로그램으로서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즈음 판소리와 국악의 대중적 인기 현상을 보면 일제강점기 판소리의 중흥기가 다시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신드롬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변에서 양적 증대와 질적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영화 <기생충> 등 세계 영화제 석권은 영화 관련 정책지원과 자본 지원의 바탕 위에 수준 높은 제작자와 작가, 배우 등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이를 꾸준하게 소비해주는 관객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도의 독특한 소리제인 중고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의 중고제 활용 사업은 충청도의 문화예술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국내외적 확산을 하는데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잊혀져가는 충청의 소리, 판소리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충남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자 <중고제 르네상스(구. 중고제맥잇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인 충남문화재단에서 고유문화 브랜드로 ‘중고제’를 인식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파급효과와 지자체와의 연계 활용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충남문화재단의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지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충남문화재단은 2013년 7월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예술지원, 문화사업, 예술교육, 문화나눔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목적

‘중고제’ 관련 사업은 2016년 <중고제 맥잇기>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0년 <중고제 르네상스>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6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중고제 맥잇기>에서 <중고제 르네상스>로 사업명을 변경한 것은 단순하게 맥잇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절정의 시기였던 과거의 중흥을 다시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중고제 르네상스>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잊혀져가는 충청의 소리, 판소리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충남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
- 판소리 유파로 성행했으나 소멸위기에 놓인 충청의 소리, 중고제 재조명
- 충청 소리제를 통해 국악과 충남의 전통예술 활성화 계기 마련

위의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목적은 보면 충청남도 문화예술 브랜드로서 중고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 그러나 AS-IS는 있으나 지향점인 TO-BE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18년 <중고제 맥잇기 > 2차례의 자문회의에 이어 3차 종합포럼을 통해 <중고제 맥잇기> 사업 당해연도 사업 검토 및 차기년도 사업방향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20년도 2차의 중고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고제를 단순 판소리 유파가 아닌, 충청의 예술장르로 확대하여 중고제의 맥을 이어가는 가무악 형태 확대 필요
- 중고제의 계승보존·홍보·한류콘텐츠 등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지역 중고제 명창들의 인물정리 및 공연, 브랜드 형성, 스타 발굴
- 충남 국악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청도 명인·명창 기념 행사 추진

위의 자문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 내용들은 모두 필요한 사업이지만 좌표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6년 동안 추진해온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문화여건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 방향설정, 세부 추진전략 도출, 추진체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

나. <중고제 르네상스> 예산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50백만원, 2019년 90백만원, 2020년 135백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⁵⁾ 그러나 전남 보성군 서편제소리축제 475백만원, 전남 구례군 동편제소리축제 250백만원과 비교해 보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중고제 르네상스> 예산 구성에 있어서도 국비 없이 도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실링(ceiling)제에 의해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또는 민간보조금 예산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중요문화재 제13호와 2005년 유네스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예를 들면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

5)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연도별 <충남문화재단 종합경영계획> 참조

화유산교육사업),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축전> 등 사업에서 약 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강릉단오제를 활용한 <창작콘텐츠 제작 지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 사업 등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 <인류무형문화유산>지원 사업은 인류무형문화유산 20개 종목⁶⁾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공연, 행사, 체험 사업에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중고제 또한 판소리의 하나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을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의 거점으로 한 활용 사업의 장기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주제로 공연·전시 등의 고품질의 활용·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 교육 전문가 워킹투어 등 세계유산 이해·전달·해석 프로그램이 있다. 사업의 총예산은 6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경상북도⁷⁾와 제주특별자치도⁸⁾, 경기도 수원시⁹⁾가 선정되었다. 충청남도에서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고제 판소리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 유적지구¹⁰⁾를 결합하여 <세계유산축전> 사업을 통해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을 문화예술과 관광의 콘텐츠로 확대 할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6)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 씨름
7)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 연주 소수서원, 부석사 (1년지원, '22년)
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년 지원, '22년)
9) 수원화성 (2년지원 '22~'23년)
10) 백제역사유적지구(총 8개의 유적지들 중 공주지역에 2곳(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4곳(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이 2015년 세계 유산 등재 됨.

주관하는 보유자 단위의 행사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충청남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판소리(중고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나 <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지원 사업> 등의 예산 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충청남도 고유문화브랜드 기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에 있다.

다.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2016년 <중고제 맥 잇기>에 이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학술, 전시, 공연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1) 학술 분야

2016년 중고제 학술세미나는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표 내용은 '판소리 유파의 흐름 및 중고제의 중요성',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조명',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중고제의 발전가능성' 등이다. 재단 주최 첫 중고제 관련 학술세미나로서 중고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사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획된 세미나이다.

<표 1> 충남문화재단 주최 중고제 학술세미나 현황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주관/협력	내 용
2016.3.24.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세미나명: 중고제 맥 잇기 학술세미나 주최: 충남문화재단 협력 : 판소리학회, 국악음반박물관, 심 화영중고제소리보존 회, 보성소리축제추 진위원회	주제: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재조명 - 판소리 유파의 흐름 및 중고제의 중요성 (배연 형) -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조명 (최혜진) -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중고제의 발전 가능성 (서 한범)
2017.10.27.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주최: 충남문화재단 후원: 충청남도, 홍 성군	주제: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미래정책 - 충청지역 판소리 지형도와 문화유적 - 중고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과 위상 - 중고제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정책제언

2017년 중고제 학술세미나도 1차년도와 기획된 내용과 유사하며 연장선
에 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학술세미나를 직접 기획된
것이 없다. 학술세미나의 개최 목적은 현안을 살펴보고 세부추진 과제 도
출과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중고제의 가치와 중요성,
발전방안, 정책제언들이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재논의가 되고 있지 않
다. 한편으로는 중고제의 지역별, 인물별, 장르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
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고제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전략들에 대해
지속적 세미나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18년 이후 재단 주최가 아닌 각 지자체별 중고제 관련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주체하거나 후원한 지자체를 보면 공주시, 서산시, 진천군이며 인물별로
보면 심씨일가(심상건, 심정순, 심화영 등), 박동진, 김창룡 등이다. 중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인물별, 장르별 논의할 범주를 볼 때 아직까지 논의될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난 학술세미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는 중고제의 가치 전승과 재조명 등에 있고, 2차적으로는 각 인물별 분석 연구, 3차적으로는 가치 확산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집·종합·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제 르네상스>의 성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속적 기초자료 확보와 시대적 비전과 전략 방안 도출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2> 충청권 중고제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주관/협력	내 용
2017. 6.10 진천군 선촌서당	행사명: 제1회정겨운고향소리축제 주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충북지회	- 충북의 소리 중고제의 기원(정희천) - 잊혀진 소리, 중고제의 현재(김기형)
2018. 8.10 충남대 인문대학	세미나명: 중고제 특집 학술세미나회 주최: 중고제판소리문화진흥회, 어문연구학회, 조승래 국회의원	주제: 중고제 판소리 중고제의 위상과 실상 - 판소리 중고제의 재조명 (사재동) - 김창룡 심청가 객씨부인 대목 고찰 (신은주) - 심상건 가야금산조 (김진경) - 이동백 적벽가의 전승과 현대적 계승(최혜진)
2019. 5.16 한옥마을 백제방	세미나명: 중고제 판소리 학술세미나 주최: 공주시	주제: 중고제 판소리와 공주지역의 위상 - 공주의 음악전통과 중고제 명창(최혜진) -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재창조(정수인) - 중고제 판소리와 박동진 명창(김석배)
2019.8.3. 서산문화원	세미나명: 학술세미나 주최/주관: 한국총문화유산기념사업회, 연낙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청남도	주제: 중고제 국악명인 심정순-심화영의 예술적 업적 - 중고제 판소리와 서산의 민속예술 심충(김헌선) - 심정순 판소리 창본 연구(손태도) - 심화영의 생애와 예술활동(성기숙)
2019.12.18. 연낙재 세미나실	세미나명: 중고제 전통가무악의 재발견 주최/주관: 한국총문화유산기념사업회, 연낙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청남도	주제: 중고제 전통가무악의 가치 확산 - 한성준 시나위에 대한 음악적 재검토(이진원) - 중고제 전통예인 심상건-심태진의 미곡활동(성기숙) - 무형문화재 보존 계승에 있어 유파의 중요성(손태도)
2020.12.4. 서산문화원 다목적실	세미나명: 제1회 서산중고제 가무악 학술 세미나 주최/주관: (사)중고제판소리보존회	주제: 세계로 향하는 서산 중고제 가무악 학술세미나 - 서산지역과 중고제 판소리(김석배) - 서산 중고제 가무악의 전승 보존과 국제화 방안(노재명) -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문화사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주재근)

2) 공연

충남문화재단에서 <중고제 르네상스 구. 중고제 맥잇기>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공연을 개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사명이 제1회~제2회 중고제충청소리제(2016~2017), 충청소리제(2018), 제4회 중고제가무악축전(2019), 2020 중고제 전통가무악 큰 마당 ' 이때 믹츨 중고제 ' 등 5회 동안 4번이 변경되었다. 공연 장소 또한 충남예산, 충남 서천, 충남 홍주 등으로 변경 개최되었다.

행사 명칭과 장소가 변경되는데 내부적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행사명의 브랜드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시작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금까지 연도명만을 변경한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공연관계자 모두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공연성격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아 브랜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고제 르네상스>를 브랜드화 할 것인지, 최근 새롭게 행사명으로 시작된 <중고제 전통가무악 큰 마당 ' 이때 믹츨 중고제>를 브랜드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회 동안 공연내용과 출연자를 볼 때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지엽적인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중고제 예술인력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인정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중고제 공연 콘텐츠 발굴, 공연화 등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소재 목원대 국악과 충남예고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 충남국악관현악단, 대전시립연정

국악원,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과의 협력, 각 지자체별 공연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 3> 충남문화재단 주최 중고제 관련 공연 현황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주관/협력	내 용
2016. 12.1 충남도청 문예회관	행사명: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이동백 <새타령> (신성수) - 무속이타령 (조동연) - 심화영류 승무 (이애리) - 이은우 - 한성준류 피리 시나위(조성환) - 김수향 - <백발가><사랑가> (신영희) - 송소희
2017. 10.27 충남도청 문예회관	행사명: 제2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특별출연 (장사익, 이광수) - 결성농요 - 공주아리랑(남은혜) - 산조합주(한푸리민속악단) - 이동백 <백발가><삼고초려> (박성환) - 김창룡 <춘향방 그림가> (왕서은) - 박동진 <황성올라가는대목> (고한돌)
2018. 07.28 서천 봄의 마을 광장	행사명: 제3회 충청소리 제 '이리오너라 업고놀 자!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 특별출연 (장사익, 대중국악그룹 역스 (AUX) - 충남출신 국악인 공연(충남국악관현악단, 뜯쇠예술단, 김수향, 박성환, 이효덕, 차 혜지, 지향희, 서용석, 김기홍 등)
2019. 11.06 홍주문화회관	행사명: 제4회 중고제가 무악축전 주최·주관:충남문화재단 후원: 충청남도, 홍성군	- 이동백 소리 (박성환) - 심화영 소리(이은우) - 심화영 승무(이애리) - 한성준 춤 (이애주) - 이광수, 박애리 - 홍성 결성농요
<비대면공연녹화> 2020. 12.6. 대전MBC 방영 2020.12.7. KBS대전 방영 2020.12.8. TJB 방영	행사명: 2020 중고제 전통가무악 큰 마당 > 이때 <춤 중고제> 주최: 충남문화재단	- 박동진제 적벽가(고한돌, 오지은, 고정훈) - 심상건류 가야금산조(서원숙) - 적벽가 중 삼고초려(박성환) - 심화영류 승무(이애리) - 한영숙류 태평무(홍지영) - 내포제 풍류(다현악회)

충청남도 소재 각 악단과의 협력을 통해 중고제 판소리나 민요의 레파토리 확장이 필요하다. 독창 뿐만 아니라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협연을 통해

중고제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에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단에서 단원 채용시 중고제 판소리를 과제곡으로 수행하게 한다면 타지역과는 차별되는 악단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단에서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고제 판소리 교수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게 한다면 중고제 판소리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중고제 르네상스>를 위한 사업 제안

전항에서 충남문화재단의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에서 사업목적과 학술분야, 공연분야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고제 르네상스>를 통한 중고제 브랜드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중고제 클러스트 조성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는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터,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¹¹⁾ 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¹²⁾과 연계한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천시의 만화영상클러스터로부터 고양시의 방송영상 클러스터, 성남의 게임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배가되고 있다.

11) 매일경제. '클러스터'. 네이버지식백과.

12)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영화·음반·애니메이션·게임·음악 등 문화예술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의 총칭

이 중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의 건립경위, 건립경과와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건립경위, 건립경과, 현황¹³⁾

구 분	내 용
건립경위	<p>1990년대 후반 들어 부천시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적절한 도시 이미지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공장 이전에 따른 지역 산업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산업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었다.</p> <p>부천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구성 전략 차원에서 도시형 산업으로 적합한 만화 영상 산업을 추진하였고, 2003년 정부에 의해 출판 만화 산업이 특화 장르로 지정되자 그동안 구축한 만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부천만화영상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었다.</p>
건립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문화도시 부천’ 기획안 마련 (1998. 10) - (사)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 (1998.12) - (주)부천카툰네트워크 설립 (1999.4) -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00.3) - 문화관광부 천단문화단지 지정 신청(2000.11) - 한국만화박물관 개관 및 만화영상박람회 개최 (2001.5) -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02.3) -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관 설립(2002.4) - 부천시 문화관광부 경기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 제안(2002.7~2003.3) - 문화관광부 경기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가칭) 건립 중장기 사업 계획 마련(2003.4~6) - 전국만화산업 클러스터 최우수 평가(2003.2004) -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2008.2)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축 청사 이전(2009.8)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전 선포식(2009.9)
건립현황	<p>부천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463-2번지 일대 41,920㎡에 총 면적 116,800㎡에 사업비 60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다.</p> <p>부천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는 문화 산업별로 집적화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군집을 이룬 단지로, 크게 경기 디지털콘텐츠 진흥원과 2010년 1월 개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p> <p>춘의동 테크노파크에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업체와 교육 시설들이 집적화되고,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는 출판 만화를 중심으로 하여 만화박물관·도서관·기업체·만화가 단체 등이 입주하였다.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대에 창작 스튜디오를 두어 두 곳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p>

1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천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 네이버지식백과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는 1998년 이후 ‘만화문화도시 부천’ 기획안에 따라 단계별 단체, 기관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집결하여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이 되도록 하였다. 위의 경기도와 부천시의 사례에서처럼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중고제 르네상스>의 터전이 될 충청 중고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등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중고제 전승 인적 기반 구축

가) 중고제 국가무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확대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¹⁴⁾ 제13조에 의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예술적·기술적·과학적 연구, 전승자 발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무형문화재의 기록 등이다.

2019년 기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132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충청남도 지정종목은 4건으로 은산별신제(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한산모시짜기(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기지시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2호)이다.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중고제 판소리를 지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판소리 지정은 신영희(춘향가), 정순임·이난초(홍보가), 김영자·정희석(심청가), 김수연(수궁가), 송순섭·김일구·윤진철(적벽가) 9명이다¹⁵⁾. 지정된 판소리제를 보면 충청 경기의 중고제와는 관련

14) 2016.3.28. 시행

15) 2021년 11월 기준.

이 없다. 다만 공주 출신 박동진 소리를 이은 강정자가 적벽가 명예보유자로 되어 있으며, 김양숙이 전승교육사로 지정되어 있다.

충청남도 도지정무형문화재는 1971년 제1호 한산세모시짜기 지정 이후 2016년 제53호 금산농악까지 모두 53개 종목이 있다. 그 중 판소리는 제51호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유일하게 김수향이 판소리 홍보가로 충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김수향의 홍보가는 중고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의견이 있다.

충남도청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승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듯이 <중고제 판소리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전라도나 서울에 비해 충청남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판소리 명창들이 많지 않다. 타 지역의 중진 이상의 명창들이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중고제 판소리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도지정 문화재 기준 및 심사 요건으로는 충청도에서 활동기간, 중고제 판소리 공연 건수, 중고제 판소리 제자 양성 등 충청도에 맞는 무형문화재가 선발 되어야 한다.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중고제 판소리 진흥을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펼쳐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축제에 반드시 중고제 판소리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충청남도 중고제 판소리 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에서는 도지정 중고제 판소리, 중고제 무용 등 무형문화재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에 중고제를 바탕으로 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나아가 중고제 판소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중고제 판소리 장학금 지원 및 인재증 발급

2017년 광주 소재 서암문화재단은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8명 등 12명에게 총 3,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전남 목포의 성옥문화재단에서도 판소리 특기생 2명에게 각 1,000만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전북 고창의 대산신탁은 매년 판소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판소리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국 23개 국악과 설치 대학 중 판소리 전공자들이 매년 약 4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중고제 판소리 진흥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장학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충남문화재단의 <중고제 르네상스> 축제와 기획공연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고제 판소리 진흥을 위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인재증을 충남문화재단에서 발급한다면 향후 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

다) 중고제 판소리 진흥상 제정

국악 분야에서 경연대회가 아닌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주가, 학자, 작곡자 등을 시상하는 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선일보사의 ‘방일영국악상’,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재 국악상’, ‘KBS 국악대상’, 충북 영동의 ‘난계 약학대상’, ‘만당 이혜구 학술상’ 등

이 있다. 판소리 부문은 유일하게 ‘동리대상’ 이 있다. ‘동리대상’ 은 고창군청과 (사)동리문화사업회에서 매년 11월6일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공이 큰 연창자나 연구가에게 주는 상이다. 2020년까지 30회 수상자가 나왔으며 판소리 예술가 뿐만 아니라 학자에게도 매우 의미가 깊고 큰 상이다.

중고제 판소리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중고제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판소리 예술가, 작곡가, 후원자 등을 매년 선정하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중고제 판소리 인식조사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 전문학자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 1월 <아리랑의 브랜드화 세계화> 사업을 위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문화상징에 대한 인식, 아리랑에 대한 인식현황, 아리랑에 대한 감성현황, 아리랑의 감성요소 등이다.

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아리랑 인식조사결과

항목	답변 요약
국민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면서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 브랜드를 원하고 있음 - 한국 문화중 전통문화를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꼽아 향후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 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들은 아리랑에 대해	<p>아리랑은 한국을 상징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의 단일브랜드로서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된 연상이 가능하도록 ‘아리랑’ 고유의 Signature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p>
문화상품으로서 아리랑에 대해	<p>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민요와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음악을 문화상품화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홍보/캠페인, 국제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리랑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는데 동의</p>

아리랑 조사 결과 중 문화상품으로서 아리랑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리랑을 문화 상품화할 경우 공연(43.3%)과 음악(28.5%)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리랑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캠페인(38.5%), 국제행사(36.6%)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치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아리랑에 적합한 색상은 흰색(31.1%)과 빨간색(26.6%), 아리랑에 적합한 한글 글씨체로는 고전적이고 부드러운 궁서체(42.1%)와 모아뎃B(31.6%), 영문글씨체로는 arial black(23.8%), centry(23.7%)로 나타났다. 적합한 문양으로는 부채 등 한국의 문화상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삼색 태극 문양(7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같이 도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인식조사를 분명히 하고 어떠한 활동과 어떻게 홍보할 것

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태그 클라우드(tag cloud), 타분야 전문가 인터뷰, 인지생물학 검증(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시선추적(Eye Tracking) 등 다각도적으로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킷치코드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아리랑 사업을 펼치기 위해 실시한 여러 가지 킷치코드는 이후 아리랑 사업을 펼치는데 효과적이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중고제 판소리 또한 킷치코드 조사 분석을 통해 단기와 중장기적 사업계획, 이미지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을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충청남도청의 학술용역사업으로 의뢰하고, 충청남도청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광범위하게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고제 판소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4) 중고제 판소리 콘텐츠화

가) 중고제 판소리 음원개발 및 음원활용 플랫폼 구축

충청남도의 2018년 문화산업 개발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백제음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백제문화 소재 퓨전 창작악곡(4곡), 컬러링, 싱글음반(1,000부) 제작이 계획되었다. 중고제 판소리 명창등이 유성기 음반에 남겨 놓았던 여러 좋은 곡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 음원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국립국악원에서는 2007년부터 국악의 생활화 사업으로 ‘생활국악음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핸드폰 컬러링 음원, 학교 시보기 음원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환승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있는 4개 악단과 공동으로 음원 개발 사업을 펼쳐 개발된 음원은 대전시 지하철 음원, 충남 지자체 각 주요 터미널 등 다중 밀집시

설 음원으로 활용한다면 중고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의 횡단보도 신호용 음원으로 안숙선 명창의 사랑가가 나온다. 이와 견주어 충청남도에서는 이동백의 새타령을 현대적 음원화하여 신호용 음원으로 활용한다면 충남의 지역 정체성에 맞는 좋은 음원이 될 것으로 본다.

2020년 4월 서산시와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중고제 대중화 캠페인 일환으로 ‘서산의 중고제 명창들’ CD를 제작하였다. 이를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포하여 중고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16년 <중고제 맥잇기> 사업으로 중고제 판소리 희귀 음원 모음집을 CD음반으로 복각 발행한 바 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중고제 명창 명인 복각 음원을 비롯하여 창작된 음원, 영상들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중고제 음원·영상 플랫폼이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중고제 판소리 복원 및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 이후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한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해 내고자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당 2~3년간 연속 지원되며 각 과제별로 매년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6> 2018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지정과제)

구분	내용	수행기간	지원금액
1	한문 독서성 자료수집 및 기록화	3년	최대 100백만원(3년간)
2	여성국극 기록화 및 활성화 방안 도출	2년	최대 80백만원(2년간)
3	근대공연예술의 기초 자료화(경성일보 관련 기사 요약, 번역)	3년	최대 100백만원(3년간)
4	기완별록 복원·재현 타당성 연구	3년	최대 120백만원(3년간)
5	향제 삼현육각 및 무속 거상악 자료수집 및 발굴	3년	최대 100백만원(3년간)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추진된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 가운데 중고제 판소리 복원 및 재현에 대한 과제 수행은 없다. 따라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중고제 판소리 복원 및 재현에 대한 과제신청을 함으로써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기록정리 및 공연콘텐츠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연희의 현대적 계승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신규작품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38개 작품 발굴 및 지원을 하였다.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연희단체를 통하여 중고제 명창들과 예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충청남도에서 인기 있는 공연콘텐츠로 제작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중고제 판소리 소재 만화·소설·영화·드라마 제작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고 재밌게 이용하는 것이 만화 웹툰이다. 만화 웹툰은 만화의 종주국 일본을 앞질렀으며 전세계적으로도 한국만화의 인기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중고제 가운데 재밌게 스토리를 가공하여 만화웹툰이 제작된다면 충분히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본다.

1976년 발표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서편제를 김명곤이 각색하고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1993년 4월에 단성사에 개봉한 영화 서편제가 있다. 영화 서편제는 113만명 이상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국악계에서도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4년 제작된 영화 ‘휘모리’는 큰 흥행은 못하였지만 진도군을 배경으로 하여 남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이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에서는 조상현 명창의 구성진 소리가 영화 전반적으로 펼쳐지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진미를 알리는데 일조하였다.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줄다리기, 딱지치기가 드라마의 흥행 소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로써 어떠한 소재든 훌륭한 작가와 연출, 배우, 감독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19세기 이후 수많은 중고제 명창들의 일화와 남겨진 음원등을 바탕으로 만화,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이 제작된다면 전국적으로 중고제의 가치와 브랜드화 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과 지자체의 문화사업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중고제를 소재로 OSMU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충남문화재단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중고제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중고제의 브랜드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장소가 더 이상 국가의 경계선으로 확정되지 않고 다문화의 컨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앰비슈어댄스컴퍼니와 이날치밴드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범 내려온다>에서 보듯이 전통적 판소리가 현대 문화산업 시장에서 충분히 소통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충남문화재단 사업 가운데 충남의 문화가치를 알리는데 핵심적인 사업이다. 충청남도과 각 지자체에서는 충남문화재단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부천 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6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된 것이 ‘만화 문화도시 부천’의 기확안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중고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브랜드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노력대비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중고제 르네상스>의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예산확보 등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충남문화재단 <중고제 르네상스>사업의 브랜드화 및 실효적 사업을 위해서는 ‘중고제 르네상스’ 각계의 명망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제 르네상스>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의 역할이 ‘중고제 문화예술 브랜드’로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중고제 문화예술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중고제 르네상스~ 전통문화를 콘텐츠 산업으로-

이 희 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장
대전문화정책포럼 상임대표

□ 전통문화의 개념

- 전통문화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를 의미
 - 전통문화는 고유한 문화에 더해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재생산하면서 시대를 이어 내려온 문화로 현대문화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 것
 - 전통문화의 개념에는 ‘공동체적 소산(所産)’, ‘원형’,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전승’, ‘현재적 적합성 및 효용성’, ‘재창조’와 같은 특성들이 담겨 있음
- 전통문화의 종류: 크게 정신문화, 유형문화, 생활문화로 구분
 - 정신문화(무형문화): 각종 민속놀이, 명절과 세시풍속, 한의학
 - 유형문화: 건조물, 고문서(古文書), 회화,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고인돌유적,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해인사장경판전 등
 - 생활문화: 먹거리(된장, 김치, 전통차 등), 한복, 살림살이(한지, 황토 집, 도자기, 용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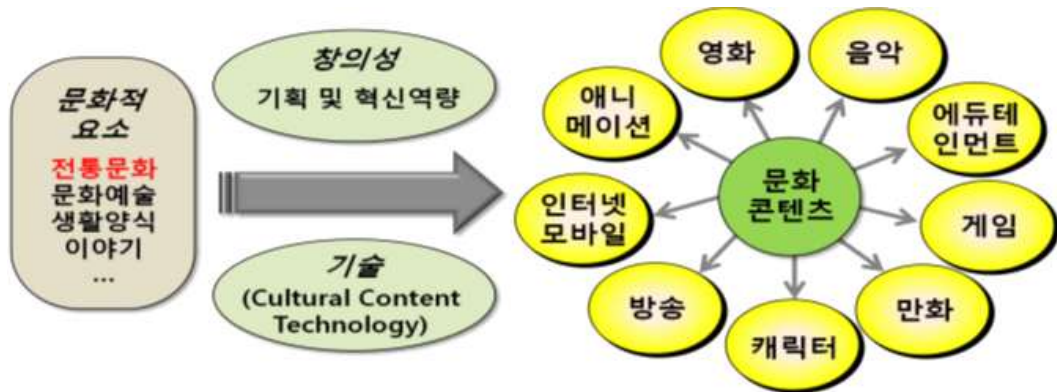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

- 콘텐츠 창작을 위한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기능
 - 전통문화는 항상 새롭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콘텐츠의 중요한 자원. 조지훈은 “전통은 창조적 재료요, 창조는 전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통이 없는 창조, 창조가 없는 전통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한류 3.0시대를 이끌 차별성 있는 소재 제공
 - K-드라마(한류 1.0), K-팝(한류 2.0)에 이어 K-컬처를 표방하는 한류

3.0에서는 전통문화

가 핵심자원으로 기능

※ 한류 3.0: 드라마나 특정 예술 장르가 아니라 의식주 생활문화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 생활양식과 정신적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한국문화(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



□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소재로 부상

- 콘텐츠 산업에서 전통문화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가운데 1990년 대 중반부터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며 활용 폭이 확대됨
 - 만화: <임꺽정>, <다모>
 - 애니메이션: <홍길동>, <홍부와 놀부>
 - (퓨전)사극: TV드라마 <다모>, <대장금>, 영화 <왕의 남자>
 - 게임: <바리공주의 전설>
- 전통문화는 콘텐츠산업의 연관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됨
 - 한복,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 상품 제작: 한지 이용 의상 제작
 - 관광 콘텐츠: 궁중문화축전, 지역축제(장성 홍길동 축제, 남원 춘향제, 울산 처용문화제 등)
 - 패션: 한글, 수목화, 단청의 문양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 전통 소재들이 명품들과 결합하여 고급화 전략에 활용되기도 함
 - BMW 750 Li 코리안 아트 에디션의 나전칠기 인테리어
 - 영국 헤롯백화점에서 판매한 2천만 원짜리 청자 만년필



□ 전통문화의 원천이자 문화콘텐츠 기반으로 중고제 활용

- (관광 융복합콘텐츠 개발) 지역의 중고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개발
 - 관광 명소화를 위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융복합콘텐츠 개발 지원
 - ※ 중고제 향토음식, 중고제 유적 등 중고제 문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및 융복합상품 제작
 - ※ 문화기술(AR, VR,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한 중고제 공연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전문가 네트워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중고제 관련 소재들이 발굴되어 글로벌한 융복합 콘텐츠로 창작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지역문화 및 콘텐츠 전문가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례 포럼 운영 및 전문가 DB 구축
- (지역축제 활용) 융복합 콘텐츠 소비의 장으로서 지역축제 활용
 - 차별성 부족으로 지적받는 지역축제들에 고품질의 융복합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생명력 부여
 - ※ 프랑스 병데(Vendée) 지방의 역사 체험 테마파크 푸뽀푸(Puy du Fou): 병데 지방의 역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 제공



프랑스 병대의 푸뮈푸 안내도



푸뮈푸의 공연 <승리의 징후(Le Signe du Triomphe)>